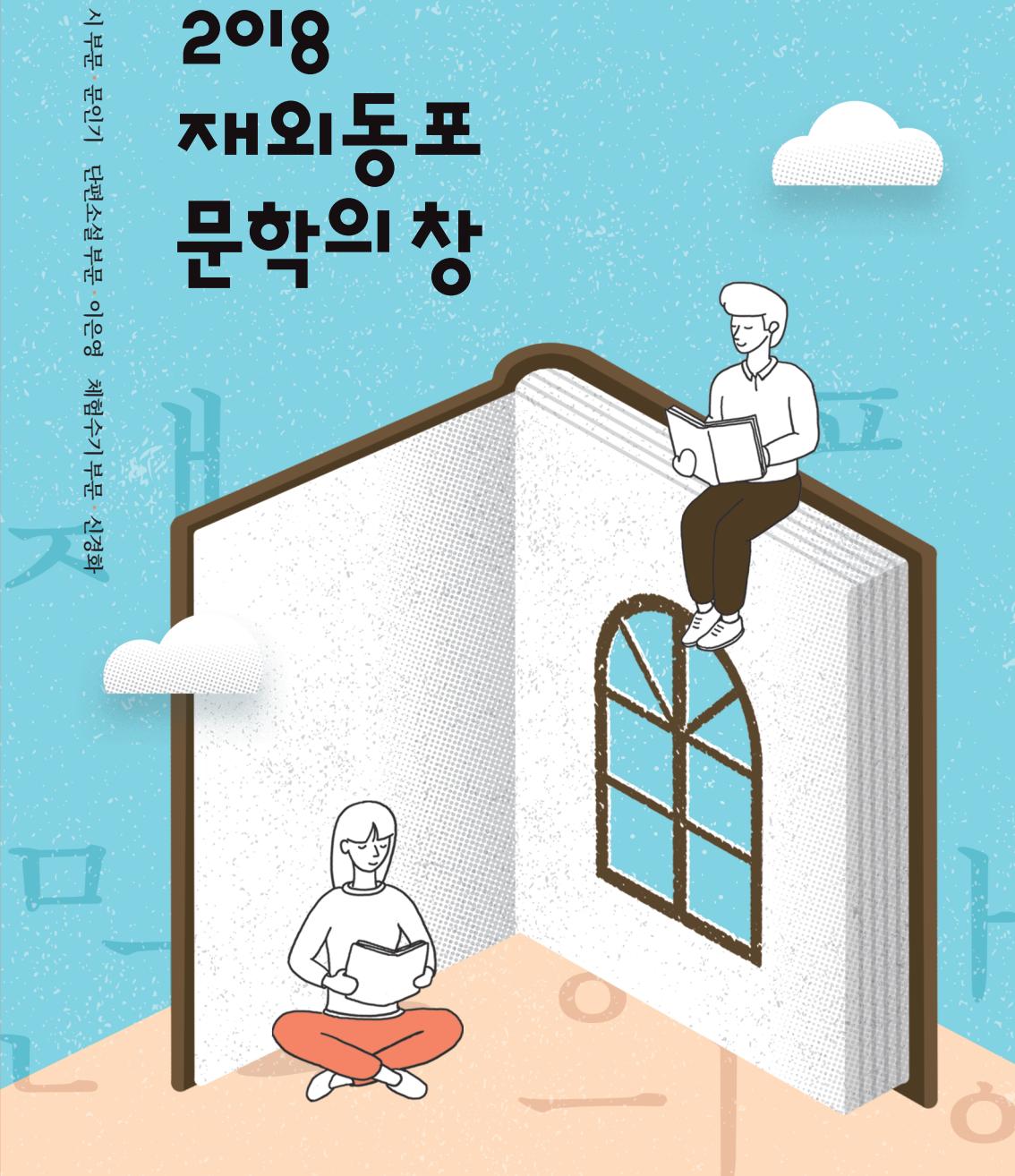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품집

2018 재외동포 문학의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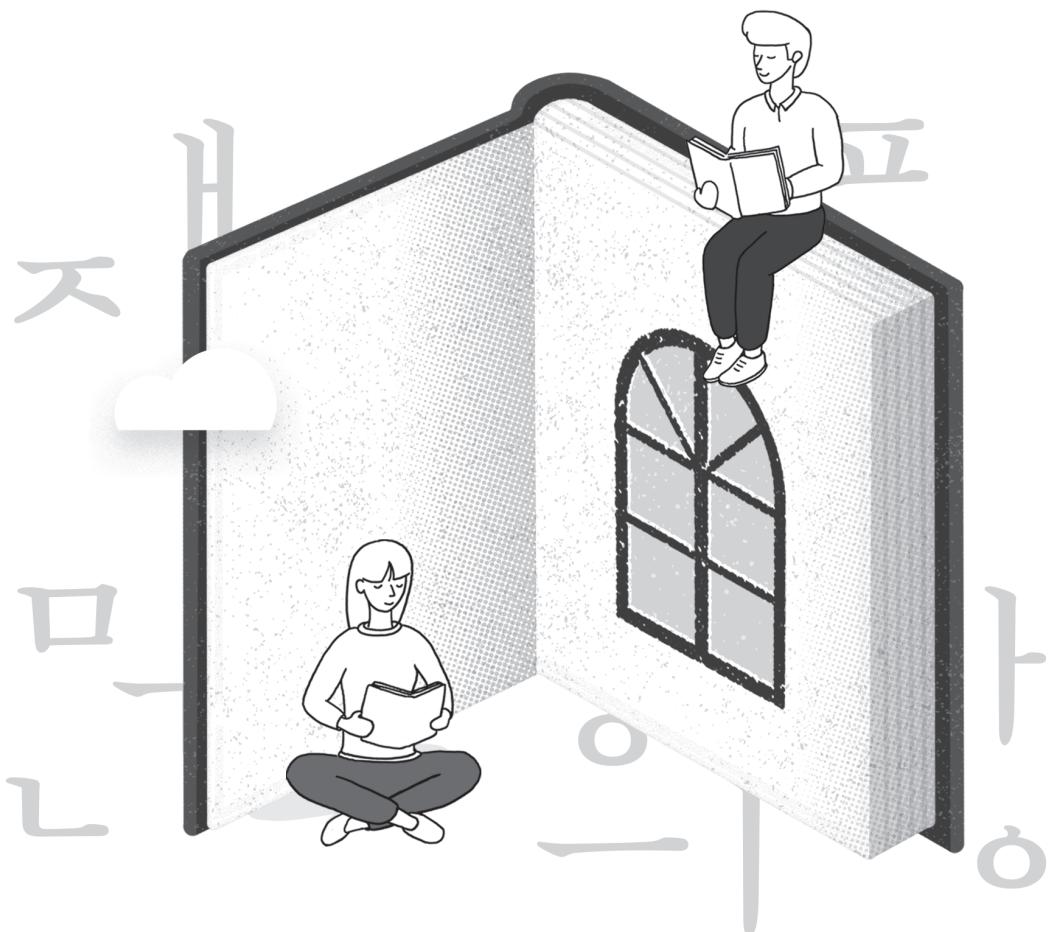
시·부문·문인기·단편소설부문·이은영·체험주기부문·신경화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품집

2018 재외동포 문학의 창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발간사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품집
『2018 재외동포 문학의 창』

존경하는 국내외 동포 여러분!

재외동포 문인 및 차세대 청소년 여러분!

‘재외동포문학상’은 20년 동안 재외동포재단이 꾸준히 유지
발전시켜 나온 핵심사업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글로벌 한민족네트워크 기반사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는
한민족 문학사의 지평을 넓히는 귀중한 소재로, 디아스포라
문학의 내용을 풍성히 해나가는 동력으로, 그리고 우리 국민
의 재외동포 이해도를 높이는 통로로 기여한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물론 시(詩), 단편소설(短篇小說), 체험수기(體驗手記) 등 다양
한 장르로 재외동포의 삶과 기억을 그려내고, 글짓기를 통해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모국어 유대감을 높여나가는 작업은 결
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많은 인내와 정성이 요구되
는 창조행위이며, 개인의 삶을 성찰하고 공동체의 방향을 재조
명하는 공감행위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이런 점들을 깊이 이해하고 지난 스무 해
동안 재외동포 개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일상의 터전 위에
쌓아올린 문학적 기량을 담아 응모해주신 소중한 창작물들을
동포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자적재산으로, 그리고 우리
국민이 재외동포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해나
가겠습니다.

아울러 ‘재외동포문학상’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될 마음의 고향(故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한우성

목차

심사평

7

시

대상	유적에 편 꽂 문인기 (인도네시아)	22
우수상	사진을 보며 김미영 (스웨덴)	24
	김치닭달 강세정 (일본)	26
가작	알감자 조림 유려 (중국)	27
	그리운 그대, 고향! 임경일 (레바논)	29
	아리랑 이용언 (미국)	31

체험 수기

대상	가방 싸는 여자 신경화 (중국)	150
우수상	살리 삼촌 강윤길 (터키)	164
	딸애의 첫돌 허은주 (일본)	174
가작	조폭 열차 탈출기 유재원 (중국)	187
	캐나다 일기 조은주 (캐나다)	201
	거지 같은 나이지리아에서 고향으로 박미선 (나이지리아)	213

단편 소설

대상	동아분식 이은영 (중국)	34
우수상	그 날 새벽을 본 사람들 이태경 (카자흐스탄)	52
	벚꽃난장 김수연 (캐나다)	77
가작	크라쿠프의 피에로기 신수정 (독일)	92
	검은 시계가 있는 정물 정명숙 (캐나다)	113
	○ㅈㅂ?(완전범죄) 이현주 (미국)	131

청소년 글짓기

중·고등 부문

대상	기행 김지영 (중국)	224
우수상	평화의 바람 답사기 함현강 (중국)	230
	모범 강지민 (태국)	236
장려상	나의 공간 박현서 (중국)	241
	호주에 살지만 나는 한국인 지은교 (호주)	245
	내가 사랑하는 한국 이다윗 (키르기스스탄)	249

심사평

청소년 글짓기

초등 부문

대상 비슷하지만 다른 중국에서의 생활 256
송지나 (중국)

우수상 다국적 삼총사의 인도네시아의 성장기 259
김재이 (인도네시아)

피아노 265
손준영 (나이지리아)

장려상 바람의 도시 바쿠 269
홍찬양 (아제르바이잔 (미국))

치앙마이가 맺어준 인연 273
유시우 (태국)

양철 용기에 담긴 쪽지 276
이아론 (아르헨티나)

수상소감 279

시 부문



심사위원 신경림



심사위원 신달자



심사위원 정호승



심사위원 김은자

재외동포문학상이 제20회를 맞이해 그 의미가 무척 크다. 무엇보다도 재외동포들에게 문예 창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국어를 잊지 않게 해왔다는 점은 큰 공로 중의 하나다. 특히 시는 모국어를 아름답게 꽂피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문학적 장르다. 이번에도 세계 각지에 사는 동포들이 이 시를 통해 삶의 질곡을 노래해 그 우열을 가리기는 무척 힘이 들었다.

대상 <유적에 핀 꽃>(문인기)은 인도네시아 암바라와에 있는 조선인 위안부 수용소를 찾아 그 ‘슬픈 역사’의 눈물을 노래한 시다. 수용소 벽에 ‘별 같이 피어 있는 보라색 꽃무리’의 마음과 동일시되는 시인의 마음이 애잔하다. 시는 개인의 역사를 통해 한 민족의 역사를 성찰하는 역할도 한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사의 흔적을 찾아 시로 노래하는 것도 시인이 해야 할 일이리라.

우수상 <사진을 보며>(강미영)는 감동이 있는 시다. 아버지와 함께 형제들이 산에 나무를 심고 한 장의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은 세월의 옷을 입어 또 하나의 인생이 되었다. ‘다 같이 그 먼 곳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다’는 ‘그 먼 곳’이 이 시의 핵심 부분이다. 그 먼 곳은 어디일까. 바로 ‘사진을 보며// 그 그리운 날’을 생각하는 바로 오늘이다.

우수상 <김치닭달>(강세정)은 일본으로 시집간 딸에게 한국의 친정엄마가 김치를 보내는 이야기를 화자인 딸을 통해 재미있게 그려진 시다. 모녀간에 정이 넘치고 눈물과 그리움이 가득 김칫국물처럼 배어있다. 깊은 모성을 느끼게 해준다. 이 시는 마지막 행, ‘멸치젓 새우젓 보내주지 마시고 다음엔 그냥 엄마가 오세요’에서 결정적으로 시의 완성이 이루어 진다.

가작 <알감자 조림>(유례)은 알감자의 조리 과정을 통해 중국에서 사는 조선족의 고단한 삶을 노래한 것으로도 읽힌다. 맛있는 ‘알감자 조림’이 되기 위해서는 ‘깊은 상처가 난 곳에 더욱 많은 맛들이 우러들어/ 결국 그게 진정한 맛으로 된다’는 부분에서 삶에 대한 지혜의 긍정적 깊이가 느껴진다.

가작 <그리운 그대 고향!>(임경일)은 먼 사막의 나라, 평화보다는 전쟁이 있는 나라, 풍요보다는 가난이 있는 나라에 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전통적 가락의 옷을 입고 절절이 나타나 진술하다.

가작 <아리랑>(이용언)은 재외동포로서의 삶이 모국에서의 삶과 달리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불안이 깔려 있는 ‘구두 밑창’, ‘담벼락에 모로 누워 흙바닥에 쓰러져 코를 고는 안전모들’, ‘코쟁이에게 쫓겨나와 쓴 웃음 짓는 달’ 등 비유에는 큰 아픔이 있었다. ‘모두가 아리랑을 부르며, 아리랑 열두 고개를 넘어간’ 삶이 있기에 오늘의 삶이 있으리라.

단편소설 부문



심사위원 오정희



심사위원 최인석



심사위원 구효서

‘솜씨까지 무력무력’

재외동포문학상의 응모와 수상은 재외동포에 한한다. 그런 특수성 때문에 작품의 내용도 재외동포의 삶에 맞추어져 있었고 따라서 이민 생활의 경험 세부가 절실한 필치로 작품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재외동포문학상 또한 어디까지나 문학상이어서 내용의 차별 성과 진술성에 국한해서만 작품의 수준을 가늠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균형 있는 이야기 구조로 빚어내느냐, 그 솜씨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느냐를 따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꾸준히 작품의 변화를 지켜봐온 한 사람으로서 말하건대,

올해 재외동포문학상 소설부문은 ‘재외동포’쪽으로 다소 기울어져 있던 천칭이 ‘문학상’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마침내 확연하고도 긴장감 있는 수평을 이루었다. 할 말이 많았던 사람이 이제는 말하는 솜씨 까지 무력무력 늘었다는 말이다.

대상을 받은 <동아분식>을 보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알 수 있다. 특별한 인물이나 사건을 끌어들이지 않음으로서 오히려 등장인물 모두의 소소한 내적 갈등과 번민, 그리고 신선한 생존기를 담채화처럼 그려내면서도 만만찮은 밀도와 실질적 공감을 이끌어낸다. 엄살과 비명이 아닌 시침 땐 방담식의 대화를 통해 펼쳐 보이는 식당 안 풍경은, 소리 없이 어둠 속에 뿌리를 내리려는 저 동아분식 창밖의 통수나무 만큼이나 처절하다.

<벚꽃난장>도 수작이다. 이 소설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문득’이라는 부사다. 문득 생각난, 어머니가 준 돈, 먼 나라로 살려 가는 딸에게 쥐어준 채소 판 푼돈. 그러나 좀체 찾지 못하는 돈. 하지만 과연 그것이 문득일까. 저 깊은 심연에서 매일 조금씩 길어 올려진 ‘사랑’이 어느 날 문득 수면에 드러났다고 문득일까. 어머니에 대한 오랜 원망이 절로 빛바래서 벚꽃난장이 되기까지의 세월을 짧은 단편으로 짓는 솜씨라니. ‘그 돈을 까맣게 잊게 될 날이 오면, 또 다른 잃어버린 물건을 찾다가 우연히 그것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주인공은 말하지만 이미 꽃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사랑과 화해의 돈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새벽을 본 사람들>은 얼핏 보면 장편의 일부 같다. 충분히 장편으로도 이어질만하다. 읽는 내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독자의 기대를 경쾌하게 배반하며 나아간다. 능란한 솜씨라고 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에 흘러든 한국인 ‘나’와 우즈베키스탄인 막심이 마을의 살인 사건 앞에서 어떻게 자의와 타의에 의해 이방인이 되어 가는지를 살피면 단편구성으로서도 충분해 보인다.

<검은 시계가 있는 정물>은 문장이 안정되어 어딘지 많이 써본 솜씨 같다는 느낌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작품이다. 다만 검은 시계의 의미가 소설 전반에 걸쳐 어떤 맥락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분명치 않다. 남편과의 이별을 암시하는 것이라면 너무 쉬운 결말이다.

<크라쿠프의 피에로기>는 유년 시절부터 불편한 관계였던 엄마와 타국에 사는 딸과의 만남을 그리는 이야기 중 하나다. 응모작에는 이런 서사가 꽤 많다. 그 중에서 이 작품은 특히 만두를 매개로 하여 두 모녀간의 심리를 섬세하게 이끌어가는 솜씨가 돋보였다. 결말이 너무 준비된 듯하고 갑작스러웠다는 점이 아쉬웠다.

<ㅇㅈㅂ?(완전범죄)>는 제목표기 만큼이나 특이하고 아이디어가 남다른 소설이다.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자존감 삭제와 고립’의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설정 자체가 흥미롭다. 게다가 그 프로그램의 실행 주체가 오히려 영원한 ‘자존감 삭제와 고립’에 처한다는 반전은, 한편으로는 기계 사회에 대한 경종을, 다른 한편으로는 주체 뒤의 숨은 주체(주체의 먹이사슬)에 대한 암시여서 서늘한 울림을 준다. 화자의 시점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SF판타지가 범하기 쉬운 안일한 비약의 간극을 조금만 극복한다면 더 좋은 작품이 될 것으로 본다.

심사평

체험수기 부문



심사위원 복거일



심사위원 이경자



심사위원 박상우



심사위원 진경자

재외동포문학상이 20회를 맞으면서, 수필 부문을 체험수기 부문으로 바꾸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묘하고 흥미로운 영향을 미쳤다.

먼저, 응모한 글들이 이전보다 힘차다는 느낌이 들었다. 수필은 문학의 한 분야인지라, 수필 분야 응모작들에선 필자들이 글을 ‘문학적’으로 다듬으려 애쓴 자취들이 보였다. 체험수기 응모작들은 필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보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드러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이 힘차고 내용이 구체적이었다. 그런 사정을 종합하면, 수필을 체험수기로 바꾼 것은 성공적 시도였다는 생각이 듈다.

반면에,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편차가 커졌다. 수필 응모작들을 평가

할 때는 문학적 성취도라는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서, 직업적 문인들인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근접할 수 있었다. 이번엔 그런 객관적 기준이 약해졌고, 심사위원들의 가치관이 훨씬 크게 작용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평가에선 예상보다 훨씬 큰 편차를 보였다.

박미선씨의 <거지 같은 나이지리아에서 고향으로>(가작)는, 제목이 가리키듯, 나이지리아에 정착한 한 한국인 가족이 그 낯선 땅을 고향으로 삼게 된 과정을 실감나게 그렸다. 갓 결혼한 부부가 2년 동안 머물 계획으로 아프리카의 오지로 들어갔다가 12년이 지나자 아이들과 함께 그곳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이제는 한국에 휴가 나오면 나이지리아의 집이 그리워진다는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터이다. 이 마음 훈훈해지는 얘기를 읽다가, 나는 인류의 원래 고향이 아프리카고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나와 온 세계로 퍼지지 시작한 것은 겨우 7만 년 전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리고 보면, 박미선씨 가족은 옛 고향으로 돌아간 셈이다. 재외동포문학상이 분야가 여럿이니, 앞으로도 다른 응모작들을 통해 옛 고향 소식을 전해오기를 기대해 본다.

“두 아이가 모두 대학이 있는 도시로 떠나고 썰렁해져 버린 식탁에서 남편과 술 한 잔 기울이는 때가 많아졌다”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조은주씨의 <캐나다 일기>(가작)는 캐나다에 정착한 나이 지긋한 부부가 자신들의 이민에 대해 성찰하는 글이다. 자기가 태어난 사회에서 벗어나 먼 나라로 떠난다는 결정은 누구에게나 심각한 고뇌 끝에 나온 결정일 터이다. 떠날 때는 떠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지만, 그래도 힘든 이민 생활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만날 때면 ‘과연 그 결정이 옳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부가 힘든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얘기는 읽는 이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

유재원씨의 <조폭 열차 탈출기>(가작)는 단편소설처럼 읽히는 수작이

다. 허름한 중국인들만이 타는 허름한 열차에 가벼운 마음으로 동승한 두 한국 여인들이 처음엔 당혹감과 두려움에 질렸다가 차츰 옆자리 중국인 승객들과 낯을 익혀 가는 얘기인데, 읽을 때는 긴장되고 읽고 나면 교훈을 얻게 된다.

허은주씨의 <딸애의 첫돌>(우수상)은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조선족 부부의 경험을 들려준다. 필자의 처지가 그러한지라, 필자는 국적에 대해 마음을 유난히 많이 쓴다. 타국에서 타국 국적을 지니고 태어난 딸애에게 “우리 민족 집단의 구성원으로 맞이하는 의식”으로 돌상을 차리고 싶었던 필자가 국경 사이에서 우여곡절을 겪는 일화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서 깊은 공감을 얻을 것이다.

강윤길씨의 <살리 삼촌>(우수상)은 터키에 거주하는 필자가 6.25전쟁에 참전한 터키 참전 용사와 만난 일을 얘기한다. “내가 싸운 한국이 발전해 이렇게 우리 동네에도 공장을 세운 것을 보고 너무 감격했고, 한국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왔소”라고 자신을 소개한 참전 용사를 만나고 사귀는 과정을 담담히 얘기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역사가 아직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그런 좋은 영향을 오래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찰하게 한다.

대상은 신경화씨의 <가방 싸는 여자>에게로 돌아갔다. 이 작품을 강력하게 추천한 이경자 위원의 소감을 소개한다. 중국에서 거주한 지 16년이 된 신경화씨. 그의 <가방 싸는 여자>를 읽으며 몇 번이나 반갑고 기뻤는지 모른다. 재외동포의 체험수기에 딱 맞는 작품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을 따라 중국의 광저우에 갔다가 그곳에서 시장 보는 불편만 덜려고 배우기 시작한 중국어를 생각하지도 않게 HSK7급까지 떴다. 그러면서 함께 영어도 공부했다. 이해한 중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두 개의 언어를 함께 공부한 것이었다. 이때 무역업이 부진하던 남편이 직원으로 채용했고 그곳에서 무역업을 시작했다.

무역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그가 중국어와 영어를 배우듯 도전해서 결국 MAC라는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에서 상을 받는다는 영광을 누리기에 이른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가 넘고 건넌 고난의 행군은 수도 없지만 삶이 정체된 사람들에게는 활력소로 읽힐 것이다. 이야기를 풀어내는 힘도 그가 견녀온 역경의 나날들처럼 발랄하고 진취적이다. 대상으로 손색없는 작품을 쓰고 존경스런 인생을 살아온 신경화씨에게 찬사는 물론 대상 수상의 축하를 보낸다.

심사평

청소년 글짓기 부문



심사위원 서하진



심사위원 은희경



심사위원 권지예

올해 청소년, 초등부 글짓기의 작품들에서는 몇 가지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소재와 주제가 다양해지고 보다 섬세한 표현이 돋보이는 등 문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점 등이다.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한 에피소드가 강세를 이루고 있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골목골목을 찬찬히 살피거나 현지의 이웃들과의 일화를 잔잔하게 엮어 나간 작품들이 많았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현지 적응의 고단함이 주를 이루던 초기에 비해 이야기가 한층 풍성해진 느낌이었다. 타국에서의 삶은 여전히 만만치 않으나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의 높은 인기, 최근 화해 무드의 남북 관계 등의 소재 등이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인으로서, 현지인으로서의 강한 자부심이 글에 반영되지 않았나 짐작되었다.

학업과 경쟁에 시달리면서도 주변을 돌아보고 이해하려는 깊은 마음이 읽히는 글도 많아 심사하는 내내 뿌듯하고도 안쓰러운 심정이었다.

중고등부 최우수작인 김지영의 <기행>은 한 달간의 원난성 합숙기이다. 상해의 외국인마을과 외국인학교를 오가는 무료한 일상과 학업을 탈출할 생각으로 지원한 여정이었으나 만난 사람들, 눈앞에 펼쳐진 풍광,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압도된 한 달간을 차분하고 섬세한 문장으로 적어나간 수작이었다. 답사와 여행의 기록을 소재로 삼은 작품들은 대체로 일상을 떠나 비로소 깨닫는 일상의 소중함을 다루고 있었으며 행간에 숨은 한국엄마들의 높은 교육열, 그로인한 학업 스트레스, 심화된 경쟁이 읽힐 때는 좀 씁쓸하기도 하였다.

초등부 대상 <비슷하지만 다른 중국에서의 생활>은 중국 친구의 집을 방문한 하루를 재미있게 서술한, 흡사 꽁트와도 같은 작품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외국 친구를 사귀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문장을 보면서 심사위원들은 그야말로 엄마미소를 지었다. 이런 놀라운 생각을, 이처럼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하다니. 비단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방법만이겠는가. 세상과 사귈 때도 권장할 만한 자세가 아닐까. 물론 쉽지 않겠지만.

친구 관계, 특히 집단 따돌림 관련 일화를 다룬 작품이 적잖아 읽는 내내 마음이 아팠다. 엄마와의 갈등, 가족 관계에서의 어려움 등등 부정적인 현실을 그린 작품이 많아진 것을 심사위원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한글의 우수성, 이중국적자로서의 중심 잡기 등 정답이라 할 주제를 벗어나 보다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과정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힘든 일, 도저히 견디지 못할 어떤 상황을 그려낸 작품을 만나면 가슴이 아픈 한편 그 글을 써 내려간 과정이 글쓴이에게 위안이 되었으리라, 꼭 그랬으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다. 내 안의 어떤 것을 나의 문장으로 적어 내려가면 그 때 비로소 오

롯이 내 것이 되고 고통을 바라보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글쓴이들이 알 아가기를.

글이란 그런 것이다. 재외동포문학상이라는 이 행사가 갖는 의미도 그럴 것이다. 수상자 모두에게 축하를 보낸다. 상을 받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 글을 썼다는 사실, 내 생활을 나의 생각과 나만의 문장으로 적어보았다는 것으로도 큰 축하를 받을 자격이 있다.

시

대상 유적에 핀 꽃
문인기 (인도네시아)

우수상 사진을 보며
김미경 (스웨덴)

김치닦달
강세정 (일본)

가작 알감자 조림
유 려 (중국)

그리운 그대, 고향!
임경일 (레바논)

아리랑
이용언 (미국)

유적에 핀 꽃

(인니 암바라와 조선인 위안부 수용소를 다녀와서)

문인기 (인도네시아)

아침에 일찍 다녀간 비는
허물어져 가는 벽에서 눈물로 흐르고
슬픔의 한이라도 서린 듯
오래 닫힌 방에는 한 줄기 빛이 관통한다

비라도 오지 않았다면
시류로 메말라가는 순례자로서는
슬픈 역사를 찾기보다는
풍상의 흔적을 벽돌에서 찾으리라.

전쟁의 상흔인가
본래가 피 색인가
비에 젖은 벽채는 피처럼 붉어도
창문은 한 폭의 캔버스가 되었다.

아이비가 감아 덮는 유적
그 사각의 벽 정점에
별같이 모여 핀 보라색 꽃무리
메마른 가슴의 눈으로도 알아본다.

혹여나 유적의 내력을 들을까
보라색 짙은 꽃향기라도 품어낼까
카메라를 들고 다가간 순례자에게
꽃은 슬픈 눈으로 웃는다.

사진을 보며

김미영 (스웨덴)

이날은 유월의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의 땀방울로 젖은 땅에

꼬챙이 같은 나무를 심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오빠와 동생이 삽질을 하면 삽 위에 흙이 수북수북 담겼다.

언니와 나는 돌멩이를 골라 진달래가 아련한 먼 산으로 힘껏 던졌다.

일렬에 다섯 대궁이씩 네 줄을 심어라. 너희 하나 앞에 한 줄씩이야

막걸리 한 잔에 얼콰해진 얼굴로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십 년 후부터 자손대대로 실컷 따 먹어라.

복숭아, 자두, 배, 밤, 호두 없는 게 없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깔깔 웃었다.

이십 년, 그 도무지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시간.

뻐꾸기는 종일 울었고

노을이 깔리는 시간에 우리는 단지

산을 그냥 내려오기가 서운해서 사진을 찍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어깨를 기대고 섰을 때
누군가 말했겠지
우리, 나무 심은 날을 기념해서 삽을 들고 찍자
땅에 던져 두었던 삽과 호미를 다시 치켜 들고 섰을 때
또 누군가 말했겠지
우리, 진지한 표정으로 저 먼 데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기대고
한 손에는 삽과 호미를 들고서
입가에 비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그렇게 다같이 그 먼 곳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다.

그때 언니는 두 살배기의 엄마였고, 오빠는 취업을 준비하는 복학생,
나는 사회 초년생, 동생은 휴가 나온 군인이었다.
유월에 우리는 나무를 심고 그렇게 서서 사진을 찍었다.
그 아무렇지도 않았던 날
그 그리운 날에

김치닭달

강세정 (일본)

알감자 조림

유려 (중국)

엄마 여기 배추는 물이 너무 많아요
 절여 놓으면 짜도 짜도 물이 나와요
 김장을 해도 너무 허망해요
 기온이 높아서 금방 삭아요
 엄마 김치 안 보내주셔도 되지만
 보내주시려면 단단히 싸주셔야 해요
 지난번엔 날이 더웠나 박스가 땅땡 부풀었어요
 아빠더러 이번엔 주소 잘 적으라고 해주세요
 요전번엔 번지수를 빼먹어서 우체부가 고생했어요
 시아버지는 신김치를 좋아해서 냉장고에 가득해요
 난 새 김치가 먹고 싶은데 도착하면 죄다 쑬어버려요
 그러니 안 보내주셔도 되요
 그래도 보내주시려면 겉절이랑 깍두기도 한 봉지씩 넣어주세요
 엄마 여기서는 아무리 흉내 내려고 해도
 배추도 무도 한국 같지 않아요
 멀치젓 새우젓 보내주지 마시고 다음엔 그냥 엄마가 오세요

어느 시골 동네의 한두어 뿌리에
 함께 주렁주렁 매달려있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흙 속에서 뽑힐 때 난 생채기들일까
 감자자루에 담겨 올 때 서로 부대낀 흔적들일까
 너희가 지나온 시간들
 너희가 그 무언가를 만났던 곳엔
 이렇게 자리가 나는구나
 아니, 그게 아프다면……
 상처가 난 흔적조차 너희는 서로가 참 닮았다고 해야 할까
 오늘 너희들 한 가마 속에서 담고
 간장 많이, 소금 죄끔
 달큰한 물엿도 넣고
 파도 넣고

가작

빨간 고추, 하얀 마늘 다 넣고
속 깊은 곳까지 한번 푹 삶아지길 바래본다.

그 아팠던 곳에
간장도 들어가고
고춧물도 들어가고
더 아프겠지만
나는 알지……
그게 너희들 더 맛있어지는 과정이라는 걸

임경일 (레바논)

그리운 그대, 고향!

그 누군가의 모난 곳에 맞았던 곳에
그래서 깊은 상처가 난 곳에
더욱 많은 맛들이 우러들어
결국 그게 진정한 맛으로 되지

한 가마 속에서 푹 익고 나면
더욱 부드러운 가슴 속살을 보여 주며 서로 으깨지길
그렇게 하얀 쌀밥과 어우러져
내 가족이 모여 먹을 평범한 한 끼가 되길

거센 모래바람 속 히잡 여미는 아낙네
감자 캐는 지친 손 뒤로 양 돌보는 소년들
총칼로 짓이겨지고 구겨진 그들의 고향
그리워 그리워도 돌아갈 길 멀기만 하네

상처투성이 천막 얼룩진 옷 구멍 난 신발
웅어리진 가슴 생각 않고 웃음 짓는 아이들
날마다 간절히 하늘 향해 무릎 끓지만
사무쳐 사무쳐도 돌아갈 길 멀기만 하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쟁의 챙바퀴 속에
한 시대와 한 세대 소리 없이 시들어가고
평화를 향한 간절한 몸부림 쉬이 사라지니
가고파 가고파도 돌아갈 길 멀기만 하네

가 작

개나리 꽃 피는 시절 그대를 떠나 왔건만
레바논 나그네 그리움 난민과 다름없으니
지난 세월 하루하루 그대 못 잊어 사모하나
그리워 그리워도 그대볼 날 멀기만 하네

아리랑

이용언 (미국)

다시 찾아갈 날 언제나 반겨줄 그대건만
동병상련 시리아 울음 가슴 깊이 파고드니
10여 년 타향살이, 정든 하늘과 땅과 사람들
사무쳐 사무쳐도 그대볼 날 멀기만 하네

백향목 품처럼 그대에게 안길 날 그려보건만
휘이이 낙엽 떨어지기 전 그대 보게 될까나
계절은 멀리 가고 뉘엿뉘엿 해는 저물어
가고파 가고파도 그대볼 날 멀기만 하네

그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메뚜기같이 여겼을 것이다

아리랑 담배 대신 면세점에서 산 Pall Mall 한갑
한 개비를 꺼내 문 순간, 맛보는 자유

조니워커 발길질에 나가 떨어진 옆 좌석 건설의 역군
솟은 광대뼈, 푹 패인 불에 고여 있는 그늘

아라비안 나이트 새벽녘, 텅 빈
공항 의자에 풀어놓은 넥타이. 가지런히 벗어 놓은
구두 밑창에 깔려 있는 불안

외인 주택 야외 극장
담벼락에 모로 누워 흙바닥에 쓰러져 코를 고는 안전모들
코챙이에게 쫓겨나와 쓴 웃음짓는 달

모래바람에 눈이 멀어
두 눈을 멀쩡히 뜨고도 놓쳐버린 아내

모두가 아리랑을 부르며, 아리랑 열두 고개를 넘어갔다

그때, 우리는……
열두 번을 넘게 생각해 봐도, 우리는 메뚜기였을 것이다

단편소설

대상 동아분식
 이은영 (중국)

우수상 그 날 새벽을 본 사람들
 이태경 (카자흐스탄)

별꽃난장
김수연 (캐나다)

각작 크라쿠프의 피에로기
 신수정 (독일)

검은 시계가 있는 정물
정명숙 (캐나다)

○ㅈㅂ? (완전범죄)
이현주 (미국)

동아분식

이은영 (중국)

불판 위에서 자글자글 소리가 났다. 벽에 매달린 선풍기 바람소리에 고기 굽는 소리가 어울려 빛소리가 났다. 종민이 익지도 않은 고기를 집 으려하자 선희는 젓가락으로 종민의 젓가락을 밀어냈다.

고기가 다 익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영업이나 관리쟁이들이나 폼 잡고 기다리지 공장밥 먹는 놈은 핏물만 가시면 일단 먹고 보는 거야.

나무에 대해서 말하던 선희의 표정에 짜증이 묻어났다. 선희는 할 말이 그것밖에 없는 사람처럼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결국은 집 옆에 서 있는 나무 이야기로 되돌아갔다. 유리창에 빼곡하게 달라붙은 나뭇잎이 보였다. 커다란 잎사귀들이 퇴근 시간 지하철 유리에 포개진 얼굴 같았다.

용화청 한국식당에서 그는 우연히 형식을 만났다. 형식은 선희와 종민이 여기 동관에 살고 있다고 했고 모임을 주선했다. 대학 동아리 친구들이었지만 졸업하고 거의 처음이었다. 형식은 친구들에게 그가 동관에 왔다고 알렸고, 며칠 후 선희네 분식집으로 오라는 문자가 왔다. 종민이가 다시 문자를 보냈다. 찾기 어려울 거라며 만나서 같이 가자고 했다.

일단 선희네 분식집에서 밥을 먹고 어디 좋은 데로 둑기자. 이런 날 형

식이가 크게 쏘겠지. 법인장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이게 얼마 만이냐? 종민이 너스레를 떨었다.

선희는 엊그제 만난 사람처럼 반갑게 그들을 맞았다. 옛날처럼 그는 선희의 어깨를 한 손으로 감싸며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선희가 동관에서 혼자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감정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설레기까지 했었다.

이리로들 와서 앉아. 여긴 어떻게 왔어?

출장, 공장 이전 문제로.

언제 가?

글쎄. 보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세관에서 발목을 잡더니 이번엔 소방 허가가 속을 썩이네. 온 지 두어 달 됐어.

잘 왔어. 오래 있다 가라.

넌?

먹고 살려고 왔지……. 들어오면서 저 옆에 큰 나무 봤어?

웃으면서 십수 년의 안부를 짧게 물은 선희는 창문을 바라보며 할 말이 많은 표정을 지었다.

아주 인상적이던데. 큰 나무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무성한 잎사귀에 적당히 가려진 동아분식 간판을 보고 기분이 좀 뭐랄까 하여튼 옛날 생각도 나고 이국적이기도 하고. 여기 봐. 들어오면서 사진도 한 장 찍었잖아. 그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어떻게 간판을 동아분식으로 했어? 옛날 후문 앞에 동아 분식이라고 있었잖아. 기억나지.

그의 표정을 놓치지 않고 종민이 한마디 던졌다.

기가 막히게 자리를 잘 잡았지. 이런 곳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 나무 옆에 표지석 봤지? 벽계원. 그게 파라다이스라는 말 아니냐. 여기 오면 옛날 생각도 나오고 좋다. 동아 분식하면 역시 선희지. 그때 동아 분식

벽에도 저 비슷한 액자가 하나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누구 시인지 몰라도 시를 표구해서 붙여놓았던 거. 저거 봐라. 저기 나뭇잎 액자. 저건 돈을 주고 살래도 못 산다.

한 잔은 떠나버린 너를 위하여
또 한 잔은 너와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지나버린 시간을 위하여……

자, 우리도 한잔하자. 형식이는 언제 온대? 이 새끼는 만날 때마다 늦어. 전화 왔었어. 회사에 일이 좀 생겼나봐. 늦는다고 먼저 시작하라네. 선희는 무표정하게 젖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고 물수건을 내놓았다. 그는 물수건을 포개 한쪽으로 밀고 분식집 내부를 둘러보았다. 네 평 남짓 한 층은 실내에는 테이블 다섯 개가 놓여 있고 출입구 왼쪽에 주방을 대신하는 조리대가 보였다. 조리대는 휴대용 가스버너 두 대와 개수대가 전부였다. 한눈에 보아도 제대로 시설을 갖춘 식당은 아니었다.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쯤은 조리대에서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 내는지 궁금했다.

벽 쪽 스탠드 밑으로 밀어 넣은 여러 개의 간이 의자가 보였다. 스탠드 바 위쪽에 걸린 IP TV에서 한국드라마가 흘러나왔다. 그 아래 한글과 중국어로 쓴 메뉴판이 붙어있었다.

라면, 떡볶이, 순대, 저런 걸 네가 여기서 한단 말이야?

그는 여전히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다. 입가에 커피 거품을 묻힌 김수현의 브로마이드가 한 벽을 차지하고, 그 옆에는 K팝 스타들이 손가락 하트를 하고 활짝 웃었다. 사진에는 워아이니(我愛你), 마상지 엔미엔(马上见面) 같은 사랑을 고백하는 중국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바깥 쯤은 길 건너에 쌀집과 생수 가게, 문방구가 보였다. 상가들은

가로수에 가려 내부가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선희가 큰길에서 한참 벗어난 로컬 동네 한복판에서 어떻게 장사를 할 생각을 했는지 의아했다. 종민이 같이 오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찾아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고기를 씹으면서 종민은 또 다른 고기를 젓가락으로 놀렸다. 종민이 답다는 생각을 했다. 선희가 부엌으로 가서 파 채가 담긴 그릇을 내왔다.

어이 써어니 대표이사, 이리 앉아 봐라. 사진 한 장 찍자. 재중 밴드를 만들어서……, 자. 밴드 제목으로 동아분식 어떠냐? 서울 친구들도 초대하고……. 서울 밴드는 잘 되는 거 같더라. 그런데 너는 어떻게 서울 있으면서 얼굴 한 번 안 내미냐? 하기는 서울에서 못 만나도 중국 오면 다 만나게 되어 있어. 작년에 남경 출장 갔다가 공항에서 기태 만났잖아.

그와 선희의 휴대폰 신호음이 차례로 울렸다. 전화기에 밴드 친구 초청 메시지가 떴다. 요청을 수락하자 종민이 올린 사진이 차례대로 올라왔다. 오십을 넘긴,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친구들이 활짝 웃고 있었다.

종민이 손가락에 끼고 있던 담배를 입에 물고 그의 잔에 술을 따랐다. 엊그제 헤어진 사람들처럼 대화가 이어졌다. 그러나 중년의 얼굴은 예전에 보지 못한 낯선 표정들을 가지고 있었다.

종민이 파 채를 얹은 삼겹살을 입에 밀어 넣으면서 휴대폰을 눌러댔다. 서울에 있는 몇몇 친구들에게도 밴드 초대장을 보냈다. 남은 사진을 마저 올리고 난 종민은 자신의 잔을 그에게 건넸다.

선희가 저 밖에 있는 나무 때문에 고민이 많단다. 볼 때마다 정징거리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보기에는 뭐……, 무슨 그만한 일로 힘을 빼고 사는지 모르겠다. 저런 액자를 공짜로 만들어 주는데. 얼마나 보기 좋고 자연스럽냐.

어이없다는 듯이 선희가 종민을 바라보았다.

나무가 그렇지 않냐? 누가 저기다가 꽂았으니 뿌리를 내렸고, 살아보겠다고 저라고 버티는데.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너무 예민하게 굴면 너

만 피곤해진다. 정 못 참겠으며 창 쪽으로 난 가지만 좀 쳐버리던지.

이렇게 힘들게 만들 줄 몰랐어. 그냥 가게 옆에 큰 나무가 있다고만 생각했지. 가진 돈이 적어서 이 가게 말고는 어쩔 도리가 없기도 했고.

종민이 말대로 가지라도 정리를 좀 하지?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주인은 시정부 환경국에 건의해야 한다고 자기 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부탁해서 민원을 넣었더니 감감무소식이야. 나무는 별문제가 없다네. 나는 문제가 있는데, 말이나 돼?

그는 담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건물 옆에는 들어 올 때 사진을 찍었던 통수나무가 서 있었다. 그는 시청에서 나온 사람처럼 나무의 구석 구석을 살폈다.

다닥다닥 붙은 상가 입구를 알리는 표지석 옆에는 우람한 나무가 자리하고 있었다. 아름드리나무에서 뻗은 가지가 인도를 넘어 건물까지 뻗치고 있었다. 지붕에 닿은 줄기는 벽을 타고 뿌리를 내렸다. 나무 밑동으로 내린 공기뿌리가 굽어져 두세 사람이 손을 잡고 안아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무성한 잎들은 벽면을 완전히 가렸다. 주차장 쪽으로 뻗은 가지는 펜스 너머로 아치형 기둥을 만들었다. 공기뿌리가 구슬발처럼 늘어져 나무 밑이 어둑했다.

그는 허리를 굽혀 바람에 흔들리는 공기뿌리 아래를 살폈다. 풀도 자라지 못하는 습한 땅에서 나뭇잎 썩는 냄새가 올라왔다. 팔에 깨알 같은 벌레들이 달라붙었다. 정수리까지 번지는 가려움 때문에 발작하듯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벌레가 있던 자리가 부풀어 올랐다. 손바닥으로 팔을 쓸어내리자 가렵기보다 살을 애는 고통이 파고들었다.

야, 굉장하다. 저 나무 나이가 얼마쯤 되냐? 잠시 서 있었는데…… 여기 바를 거 좀 쥐.

그는 두드러기처럼 부풀어 오르는 팔을 선희에게 내밀었다.

긁으면 큰일 나. 좀 쌀보다 더 작은 벌레 맞지? 약을 뿌려도 그때뿐이

야. 중국 사람들은 안 물리나 봐. 저 나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붕까지 뻗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도 집주인은 상관없다고 하고. 죽겠네.

바람이 거세지더니 번쩍하고 섬광이 터졌다. 멀지 않은 곳에서 천둥소리가 들리자 선희가 벌떡 일어나 세움 간판을 안으로 옮겼다. 곧이어 천둥이 치고 빗방울이 가게 안까지 들이쳤다.

스콜이 요즘은 저녁이 다 되어 내리네. 가을이 오려나 봐. 가을 아래 야 한국 여름 날씨와 다를 게 없긴 하지만.

선희는 그의 옆에 놓인 선풍기를 3단으로 높였다. 회전하는 선풍기 머리에서 후텁지근한 바람이 쏟아져 나왔다. 습기 때문에 목덜미가 끈적거렸다. 종민이 허리를 숙여 선풍기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머리칼이 흐트러지면서 훤히 드러난 이마가 번질거렸다.

그의 시선이 가로수에 고정된 것을 본 선희가 말했다.

저 정도면 무슨 걱정이겠니. 그늘도 적당히 그늘이어야 그늘이 되는 법이지. 낮에도 불을 켜야 하고, 바람도 안 통하고. 그보다도……, 저 창에 잎들이 어쨌든 기분 나빠.

선희의 말을 끊은 종민이 이죽거리듯이 말을 했다.

가게를 얻을 때부터 나무가 저기 서 있지 않았느냐. 계약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뭐라고 하면 집주인이 네 말을 듣겠니? 안 듣지. 여기가 한국도 아닌데 입맛대로 그렇게 되는 일이 어디 있다고. 넌 여기 사람 되면 아직 멀었다. 나는 저 나무를 보면 말이야……, 그게 막 하고 싶어진다. 숨뿌리가 줄기에 닿아 근육처럼 불끈불끈 일어나잖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참고 있는 거 같아 보이지 않느냐? 뿌리가 줄기에 달라붙어서. 벽계원 풋말 봤지, 파라다이스. 풀고 싶은 걸 다 푸는 거 그게 바로 낙원인거야.

설레발 그만치고 빈 잔이나 채우시지. 너 한국 가서 그런 말 잘못하면 미투로 고발당한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야, 우리끼리 못할 이야기가 어딨나? 그렇다는 거지. 성희롱은 무슨 개뿔. 그나저나 비가 와도 너무 온다. 8시가 다 되어 가는데 형식이 자식은 왜 안 와? 무슨 모기가 이렇게 많아? 선희야, 문 닫고 에어컨 좀 켜자.

종민이 담뱃불로 모기 물린 자리에 연기를 쐬며 선희를 쳐다보았다.
선희는 두 번째 불판을 갈았다.

그러게, 이 모기가 다 저 나무들 때문이야. 정말 못 살겠다니까. 에어컨 기사를 불렀는데 와서 보고는 부품 없다고 그냥 갔어. 다시 온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네. 얘들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와야 오는 거지. 여기 살면서 도를 닦는다, 도를 닦아. 창문이라도 열면 맞바람이 쳐서 좀 나을 텐데…….

종민이 선희의 말을 끊으며 그에게 물었다.

느네 아버님은 편안하시지? 노인네 성격 대단하셨잖아.

뭘, 그런 걸 아직도 기억하느냐…… 병원에 오래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신 지 한 3년 됐나?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어. 그 이야기만 나오면 아직도 내가 짹소리도 못해.

형식이한테 너 왔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 여의도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여기서 뭐하냐?

아까 말했잖아……. 전에 모시던 부사장이 이쪽으로 오면서 세팅 좀 하라고 해서. 이 일 끝나면 계약 끝나. 그런데 일이 만만치 않네. 중국이 예전에 알던 중국이 아니야. 몇 년 사이에 많이 변했네.

가족들은?

집사람은 아직 학교에 있어. 그만둔다고 맨날 노래하더니, 이젠 억울해서 못 그만둔다네. 이러고 해외로 떠돌고 있으니, 차라리 집사람이 일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다 싶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

그들의 시선이 TV 화면에 모였다. 무슨 고발프로그램인지, 한 벌목업자가 강원도 삼림에 들어가 나무를 밀려 죽여 구속된 기사가 나왔다.

저거 좋은 방법이네.

종민이 선희를 쳐다보았다.

그 생각을 왜 안 해 봤겠니. 그런데 두세 아름도 넘는 저 나무 밑동이 줄기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 얼마나 많은 뿌리가 감겨 굽어졌겠니.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저를 죽이려 하는데 보란 듯이 버티고 서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칼질하다가도 섬뜩한 기분이 들어 자꾸 돌아보게 돼. 그러면 귀신처럼 잎들이 창에 붙어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종민이 휴대 전화를 꺼내 검색창을 띄웠다.

반얀트리, 뱅갈보리수.

선희야, 저게 인도 국목이란다. 석가가 도를 깨달은 그 보리수나무 말이야. 그런 큰 의미도 있으니 말이다, 내 생각으로는 참고 잘 지내려고 애써보는 게 어떻겠냐. 싫다고 생각하니 점점 더 싫은 거 아니냐? 인도에서 여기까지 훌러와 살아보겠다고 지랄을 떠는 건데. 살살해라.

종민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선희가 일어나 TV를 끄고 라디오를 켰다. 귀에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김현식의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중국 가수가 번안하여 부르고 있었다. 그는 선희가 옛날에도 김현식을 좋아했었는지 생각해보았다.

확실히 선희의 분식점은 오래전 동아분식과 닮아 있었다. 네다섯 테이블이 다닥다닥 붙은 것도 그렇고 그곳에 갈 때마다 유재하의 노래가 흘러 나왔다.

그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던 이유는 오로지 선희 때문이었다. 동문 선배에게 끌려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선희는 그와 마주 보는 자리에 앉았었다. 자기소개 시간에 김선희라는 이름이 너무 고전적이라며 우아하게 “써어니, 선희”라고 불려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넘기면서 장래 희망이 ‘복부인’이라고 말해 모두의 환호를 자아냈었다.

동아분식이 낯선 시공간에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느닷없이 늙어버린 친구들이 버려진 사원에 갇혀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들은 끝없이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니었다. 뜻도 없는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기를 삼키고 잔을 비웠다. 오래전 동아분식에서 나누었던 말들은 어떻게 해도 심각했었다. 그것이 미래든, 정치든 불안과 불만을 토로하던 이야기 내용이 지금과는 달랐다.

그는 통수나무를 캄보디아 타프롬에서 처음 보았다. 굵은 나무뿌리가 낡은 사원을 휘감고 있었다. 가이드는 800여 년을 밀림 속에 버려진 사원들이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나무뿌리가 건물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뿌리 사이로 간신히 구멍만 남아 있는 문과 무너져 내린 부조들 사이에서 벽을 더듬으며 신기해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옆에 와 옆구리를 쭉 찌르며 물었다.

화양연화 생각이 나네. 당신도 저 틈에다 비밀 묻고 구멍을 막은 거 아냐?

내가 무슨 양조위야? 그럴 비밀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네.

아내는 신혼 초 짐 정리를 하다 그의 대학시절 다이어리를 발견하였다. 그 속에서 부치지 못한 남편의 편지를 꺼내 읽고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했다. 잊을만하면 그의 아내는 남편의 첫사랑을 협상 카드로 내밀었지만, 짹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장난기 어린 트집으로 놀려먹고는 했었다.

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선풍기가 돌면서 셔츠의 깃이 살갗에 들러붙었다. 선희가 그를 향해 부채질을 했다.

이 자식은 왜 안 와? 너무 늦네, 일이 있으면 다른 날로 약속을 바꾸던

가하지. 다 같이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건데…….

빗소리와 선풍기 소리에 종민의 목소리가 묻혔다.

그는 하려던 말을 그만두고 담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비가 오지 않았다면 어슴푸레한 빛이 남아있을 시간이었다. 도로는 인적이 끊어지고 분식집만 백열등 불이 켜져 있었다. 그가 빗속으로 연기를 길게 뿜었다. 마지막 한 모금까지 빨아들인 꽁초를 버리고 바짓가랑이에 뒤어 오른 물을 털었다.

형식이가 와야 2차를 갈 거 아냐.

종민은 초조한 표정으로 자주 문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선희가 시계를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아홉 시가 다 되어 가네. 종민이가 형식이한테 할 말이 따로 있는 모양이지?

취기 탓인지 선희의 눈꼬리도 확연하게 쳐져 있었다.

찌갯거리라도 좀 가지고 올게.

물끄러미 선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종민이 입을 열었다.

네가 보기에도 이만한 분식집 차리는 데 돈이 얼마쯤 들까? 보기엔 아래도 꽤 괜찮은 모양이야. 여기 수입으로 서울 살림을 다 꾸려간단다. 우리 선희가 저렇게 억척스럽게 살지 누가 알았겠냐. 한 3, 4만 위안 정도면 충분해 보이지 않아? 그 정도 투자해서 생활비만 나오면 한번 해 볼만 할 거 같은데.

선희가 한소끔 끊인 부대찌개를 내왔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다시 불을 켜고 사리면을 두 쪽으로 부셔 넣었다.

그가 농담처럼 말을 던졌다.

아무래도 종민이가 동아분식 체인점을 내고 싶은 모양이다.

처음 몇 달은 완전 적자였는데……, 이렇게 구석진 자리에 한국 사람이 식당을 차렸으니 어땠겠니. 골목 상인들이 내가 망할까 봐 점심을 거

의 여기서 먹더라니까. 한국 사람보다 훨씬 인정이 많은 거 같아. 참 좋은 사람들�이야.

어떤 사진작가가 골목 사진을 찍으려 왔다가 우리 집을 본거야. 이런 후미진 곳에 한국에서 본 분식집과 똑같은 집이 있어 신기했나 봐. 파워블로거들이 사진을 보고 퍼 나르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지.

점심 저녁은 학생들이 바글바글하고 주말에는 블로거들이 기차를 네 다섯 시간 타고 와서 김밥과 떡볶이를 시켜놓고 사진을 찍는다. 처음엔 나도 어리둥절했어. 하루아침에 골목 안에 있는 분식집이 명소가 되고, 맛집이 돼 사람들이 몰려들잖아. 사실 저 사진들이 한몫했어. 한류 덕을 특히 본 거지. 내가 옛날에 한국 있을 때 김수현 광팬이거든. 엄마부대.

수현이 참 예쁘지. 나를 보고 웃는 거 같아. 언제 봐도 얼굴에 아우라가 있잖아. 별 그대, 드라마를 보는데 너무 좋아. 그때부터 채가 나오는 종영된 드라마까지 모두 다운로드해서 봤어. 팬 사인회도 찾아다니고. 우리 수현이가 내 손을 잡아주는데 심장이 정말로 멈추는 줄 알았더니까.

김수현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선희의 눈꼬리가 반달 모양을 하고 있었다. 웃을 때마다 눈이 가늘어져 초승달처럼 감겼었다.

옛날에 써니 너도 진짜 이뻤는데…….

예쁘기는, 아직도 써니라고 불러주니 참 듣기 좋다. 오래전에 잊어버린 이름인데. 역시 넌 진짜 내 친구야. 그런데 종민이 와이프는 이런 곳은 일 할 수 있겠니?

종민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형식이가 그러던데 중국 와서 고생 많이 했다면서…….

너희는 상상도 못 해. 여자 혼자 와서 살아보겠다고 나서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다.

그건 그렇고, 어쩌다가 중국까지 올 생각을 했냐? 선배는 어떻게 지내는데, 성공했다고 들었는데…….

성공했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니? 잘나가던 때가 있긴 있었지. 대치동에서 정진학원 했잖아. 남들 말만 듣고 욕심을 부린 게 화근이었어. 부도가 나니까 모든 게 물거품처럼 사라지더라. 빚은 갚아야 하고 애는 어리고, 뭔들 안 해 봤겠니.

달랑 여행 가방 하나 들고 왔어. 갈 곳도 없고 광저우공항 근처 민박집에서 통역도 하고 뒷일을 봐주다가 목사님 만나고, 교인들이 도와주셔서 동관으로 왔어. 여기가 편해. 한국사람 많은 곳은 말이 많아.

목소리가 낮게 잠기는 선희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시스루 블라우스 등 뒤로 검은색 브래지어 끈이 비쳤다. 샴푸 냄새를 풍기던 긴 머리칼은 짧은 커트 머리로 바뀌었고, 새치가 삐죽삐죽 솟아올랐다. 웃고 있었지만 지친 얼굴은 어디라도 기대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제까지 그는 선희가 떠오를 때마다 배신감이 들어 밀어내기만 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묻고 싶었다. 그를 조금이라도 친구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연락을 끊고 사라질 수 있었는지.

가깝기로 하자면 친구 중에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 그는 선희의 흑사였다.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지켜주고 싶었다. 여름 방학 동아리 엠티에서 날밤을 세고 여학생들이 자고 있는 방문을 열었을 때 선희는 벽 쪽에 모로 누워 잠들어 있었다. 입고 있던 티셔츠가 당겨 올라가 옆구리 살이 뾰얗게 드러나 있었다. 아찔하게 빛나는 속살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잠든 친구들을 건너 들어가 수건으로 얼른 덮어주고 나왔다.

그가 입대를 하고 선희는 바로 결혼을 했다. 휴가를 나와서야 결혼 사실을 알았다. 속도위반을 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집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선희를 떠올릴 때마다 뭔가 모를 배신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면서도 한번쯤 연락이 올 거라고 기대를 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며 선희에 대한 아쉬움도 배신감도 점점 기억의 저변으로 사라졌다.

선희와 통화를 하던 날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아내는 탁구장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는 중이라고 할 말 있으면 빨리하라고 했다. 아내도 옛날의 아내는 아니었다. 그의 전화를 받으면 또 무슨 폭탄선언을 할지 가슴이 떨린다는 아내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아내가 변한 것이 자신의 무능 탓이라지만 강해진 아내 앞에 서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위축이 되었다.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며.

파주에서 근무하고 있어. 내가 중국지역전문가로 발탁되면서 그만뒀다가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기간제 교사로 나가더라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임용 시험 봐서 다시 다녀.

그 회사 가고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언젠가부터 네 소식을 아는 애들이 없더라.

초창기에 중국 오래 있었어. 한 7년을 현지 공장 세우는 일하면서 판씨 쌓는다고 술 퍼마시다가 위 천공이 되었잖아. 수술을 받고 나니까 다시 중국에는 오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사표를 냈지. 그 후로는 완전 온탕과 냉탕이었지 뭐. 중국통이 중국밥을 안 먹으면 할 일이 뭐가 있겠냐.

하긴, 이 나이까지 아무 일도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하긴 하지.

그때 벽시계 쪽으로 도마뱀 한 마리가 기어오르고 있었다. 종민은 도마뱀을 향해 마늘을 집어 던졌다. 그 모습을 보고 선희가 정색을 하고 나무랐다.

여기서 몇 년이나 살았다는 사람이 왜 이러니. 지킴이에게 해코지를 다하고. 그런데 와이프가 일하고 싶다고 하든? 대기업 주재원들은 전생에 나라 구한 사람이라고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그 다 돈 벌어서 어디에 쓰려고.

종민의 혀가 꼬이기 시작했다.

인생이 왜 이렇게 개떡 같은지 모르겠다. 생각해보니 꿈도 있었고 옛

날이 참 좋았는데……. 네가 지역전문가로 발탁되는 거 보고 우리 중에서 제일 먼저 출세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렇게 계약직으로 떠돌 줄 누가 알았겠냐. 나는 애들 공부시키려고 중국 왔다. 돈도 좀 모으려고.

잘 되었네. 원하던 대로.

말도 마라. 날벼락이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지 싶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우리 라인을 통째로 협력사로 넘겼잖아. 우리 같은 사람에게 선택할 권한이 있느냐? 해외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주재원에서 졸지에 협력사 하청으로 밀려났잖아. 집값하고 애들 교육비 1년 유예기간 준다더니 드디어 본사 규정 따르겠다네. 가족들 한국으로 보내고, 단신 부임 처우로 수당 지급한다고. 마누라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 한국 들어가라니까 죽어도 혼자서는 애들 데리고 못 가겠단다. 2년만 버티면 큰 애 특례가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야. 그걸 누가 모르냐고. 그런데 국제 학교 학비가 어지간해야 말이지. 내 월급으로 둘 학비 내고 나면 손가락 빨고 살아도 생활비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 이 나이에 집에 손 벌릴 수도 없고. 우리 누나는 이제까지 돈 벌어서 뭐했냐고 하더라. 시팔, 전부 해외 나와 있으면 갈고리로 돈 끌어 담는 줄 안다. 집사람이 김치라도 팔겠다고 나서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형식이 이 자식이 와야 뭐라고 말이라도 붙여보자. 어떻게 현지 채용이라도 재입사를 해야 하는데. 하기야 형식이 그 자식인들 무슨 힘이 있겠냐. 걔도 이제 한국 들어가야 되잖아. 내년에 한국 가면 자리 없을 거 뻔한데. 진짜 미치겠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종민은 말이 줄고 조용해졌다. 술잔을 돌리면서 젓가락 한 짹을 들고 테이블을 수시로 쿡쿡 찔렀다.

그때 종민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마눌님 하고 사진이 떴다.

먼저 가 봐야겠어. 정말이지 피곤해 못 살겠다. 빨리 한국으로 들여 보내든지 어떻게 해야지……, 늦게라도 형식이 오면 나한테 꼭 연락 한번 하라고 해라.

우산을 받쳐 든 종민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재민아, 너 나한테 묻고 싶은 말 많지?

알기는 아네. 그래도 한 번쯤은 연락할 줄 알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졸업이고 뭐고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니까. 우리 아버지 경찰이었던 건 기억나지? 고문치사 사건 때 아버지가 연루되었다고 소문이 났었어. 그때까지 아무도 아빠가 사찰 경찰인줄 몰랐거든. 그런데 종민이가 어떻게 알고 찾아 왔더라. 조용히 해줄 테니 같이 자자고. 너무 무서웠어. 사정해도 안 되고, 욕을 해도 막무가내로 억지를 썼어. 민식이 형이 그걸 알고 나를 안아주더라고. 하필이면 너는 왜 그때 군대에 가 있었니?

나, 강제징집 됐잖아. 갑자기 영장이 나와 보름 만에 입대했어. 본관 점거 사건으로 누가 나를 걸고 들어갔더라고, 난 아니었는데. 어차피 가야 할 거니까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지만.

그때 애들이 스크럼을 짜고 본관으로 몰려갔었잖아. 난 그 발 굴리던 소리가 아직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매일 데모대가 우리 집으로 달려오는 악몽에 시달렸어. 종민이 뒤통수만 봐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짐장이 터질 것 같고. 결혼하고 떠나면 일이 끝날 줄 알았어.

개새끼가. 또라이 아니야?

그의 가슴속에서 꾹꾹 눌러놓았던 감정들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났다. 어디서부터 엉키고 꼬였는지 모르지만, 인생은 방향이 한번 잡히고 나면 그쪽으로 사정없이 흘러가고 만다. 다시라던가, 혹시라는 말도 기우에 불과하다.

그는 선희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창에 붙은 나뭇잎을 보고 있었다. 환한 분식집 안을 들여 보기 위해 밀고 밀치며 찌부러진 얼굴들이 포개져 있었다.

그땐 그런 게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모르겠다. 한 번 일이 꼬이기 시작

하니 가도가도 끝은 보이지 않고. 실컷 살고 나니 모두 부질없는 짓이었는데.

형광등 불빛 아래서 지친 선희의 눈빛이 아득한 곳에 닿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 ‘여제’라는 말 들어 봤니? 우리 집이 기제사에 그 비슷한 걸 올린다. 아마도 시할아버지 첫 기일이었을 거야. 난 시댁이 그냥 단출한 집안인 줄로만 알았어. 결혼식 때도 그렇고 친척을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 어머니가 제사상에 올릴 밥을 뜨는데 큰 양푼에 밥을 푸는 거야. 집에 남은 숟가락을 모두 꽂아 세상에 올렸어. 난 그게 무슨 의식인지 몰랐다. 알고 보니 윗대가 사당패여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 남편에게는 자신의 근본이 트라우마였어. 시아버지가 의처증이 심했어.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정폭력으로 고생도 많이 했고. 처음에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왜 혼자 나와 이 고생을 하고 있어. 선배는 뭐 하고?

모르겠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게 어학원이었는데, 남편이랑 같이 일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확실하게 알았어. 내 마음도 문제였던 거 같아. 남편을 환자로만 몰아붙였으니까. 돈이 좀 모이니까 남편이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더라고.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았어. 감정 없이. 그러다가 부도가 터진 거야.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차를 끌고 나갔는데 강변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하얗게 날리잖아. 그렇게 눈물 나게 아름다운 풍경은 처음이었어. 꽃잎 때문에 멀미가 나더라. 꽃 멀미가. 한 보름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갔어. 그런데 집에는 아무런 일이 없는 거야. 정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남편이 나를 맞이하는데 미치겠더라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우습지. 처음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 집에 나만 없고, 모두들 태연하게 잘 살고 있잖아. 내가 뭘 위해 사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는 선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까지 살면서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된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살다보니 여기까지 왔을 뿐이다. 그렇다고 크게 빛나거나 잘못된 일도 없었다. 그 모든 것이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종민이 채도 참 웃기지.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지만 저렇게 태연한 걸 보면. 대꾸해주는 나도 웃기고. 나, 남편과 다시 합쳐. 남편이 아들 데리고 와.

순간 그는 사례가 들어 기침이 났다.

가게가 좁아 옆집이랑 터서 확장하기로 했어. 지난주에 계약하고 곧 공사 시작하는데 혼자 하긴 힘에 부치네. 솔직히 여기에 뿌리내리고 싶지 않은데 더는 힘들어서 못 살겠어. 돌아갈 엄두도 나지 않고.

그래? 잘 생각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우리 마누라는 자기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오래 있을 일자리나 알아보라고 하던데.

그가 자신의 빈 잔을 마저 채우자 선희는 그만 마시겠다고 손짓했다.

이흔하려고 한국 떠났었어. 어쩌다 보니 애가 벌써 중 3이네. 더 늦기 전에 데려와야지. 한국이 좀 그렇잖아. 대학 들어가기도 어렵고, 졸업해도 할 일도 없고. 그래도 여기는 고생한 만큼은 주어지잖아. 여기서 졸업하면 특례로 심천대학 정도는 들어갈 거 같아. 남편도 여기 오는 거 좋다고 하고. 다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편하네. 어떤 날은 빨리빨리 늙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도 요새는 내가 살아 있는 게 느껴져. 죽을 거 같아도 아침이 되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살잖아. 그건 그렇고 남들이 보기 좋다는 저 나무가 나는 정말 싫다. 창에 저렇게 부비고 있는 나무를 보면 숨이 턱, 막힌다.

그는 선희의 말을 그냥 듣고만 있었다. 선희의 말 사이로 자꾸만 생각들이 끼어들었지만 대꾸를 하고 싶지 않았다. 말이 끊어진 선희가 턱을 괴고 조는 사이 잣아들었던 비가 다시 쏟아졌다.

이제 그만 가봐야지.

그가 일어섰다. 선희는 우산을 들었지만 따라 나오지 않았다.

골목이 끝나는 곳에서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분식집 불이 꺼지고 동아분식에 기댄 통수나무가 품을 벌리고 서 있었다. 어둠보다 더 검은 어둠이 뿌리를 출렁거리고 발 내릴 데를 찾고 있었다.

그 날 새벽을 본 사람들

이태경 (카자흐스탄)

제1장 낡은 마을

내가 러시아에 와서 처음 맛본 음식은 보르시(러시아 전통 수프)였다. 기름에 양파, 당근, 양배추, 감자, 토마토, 비트를 잘게 썰어 기름에 볶은 후, 쇠고기로 낸 육수를 부어 푹 끓여 내는 수프다. 비트에서 우려나 온 붉은색은 수프를 체리빛으로 만들어버린다. 맛은 한국에 뜻국과 비슷하다. 진한 국물이 배 속을 든든하게 채워준다. 어느덧 이 수프가 타국에서 내 외로움을 덜어 주는 음식이 되어버렸다. 어제 남은 보르시를 다시 데워 딱딱해진 빵조각을 적셔 먹기 시작했다. 달콤하고 깊은 맛이 어제 보다 더 맛있었다. 옆집 사람 말이 보르시는 끓인 그 당일보다 다음 날이 더 맛있다더니, 그 말이 맞았다. 그릇 바닥에 남겨진 채소까지 짹싹 먹었다. 그제야 식탁 앞 창문에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다. 뜨거운 수프를 먹을 때는 몰랐는데, 창문 틈을 막을 무언가를 찾아야 했다.

옆에 밀어 두었던 그릇을 대충 행주로 닦았다. 그리고 남아 있던 사과 하나를 그릇에 담아 옆집에 사는 막심의 집으로 향했다.

막심은 러시아로 일하러 온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다. 나이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얼추 20대 초반이지 않을까? 마른 체형에 160cm 정도의 키를 가진 막심은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 8시쯤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가끔 나에게 음식을 가져다줬다. 어제 그가 준 보르시를 담았던 그릇을 돌려주며 창틈을 막을 테이프도 빌리려 했다. 그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시계를 보니 그가 아직 올 시간이 아니었다.

때가 낀 그의 그릇이 갑자기 더럽다고 느껴졌다. ‘간사한 놈! 먹을 때는 보이지도 않더니. 다 먹고 나서야 보이는군.’ 그의 손톱에 끼어있던 검은색 때도 생각이나 속이 거북해졌다.

저녁 8시가 되려면 아직 3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나는 복도 바닥에 버려진 신문을 주워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임시로 신문을 접어 가장 크게 벌어진 창문 틈에 끼워 넣었다. 한결 바람이 덜 들어왔다.

러시아는 중앙난방이다. 그래서 11월 중순이 되어야 아파트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난방을 넣어준다. 10월인 지금이 가장 애매하다. 비라도 오면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 온돌에 몸을 누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집주인은 나에게 너무 추우면 가스레인지지를 켜고 있으라고 했다. 전기는 비싸고, 가스는 싸니, 전기를 쓰는 난방은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전기장판이라도 하나 가져올 것을 후회됐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식탁 앞에 앉았다. 그냥 불만 켜두기 아까워 물이 담긴 주전자를 올려놓았다. 가스를 켜두니 한결 따뜻해졌다.

집주인은 예전에 내 러시아 선생님의 먼 친척이다. 똥뚱한 체구의 러시아 아줌마다. 말이 빠르고 늘 큰 원피스를 입고 다니며 굽은 웨이브 머리를 틀어 올렸다. 키는 170cm쯤 되고 큰 몸집의 그녀는 구소련 시절 빵 공장 관리자였다고 했다. 목소리는 우렁찼고 말할 때마다 크게 팔을 이리저리 흔들었다. 그녀가 흔드는 팔에 맞으면 아프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여름에 입고 다니던 늘어진 원피스 사이로 보인 처진 그녀의 팔뚝 살은 그녀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었다. 그녀가 걷는 팔자

걸음은 몸의 무게를 지탱하기 힘들다고 외치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월세를 받으려 올 때마다 그녀는 작은 나의 아파트를 오랜 시간 살피고 갔다. 족히 50년은 된 이 작은 아파트를 그녀는 애지중지했다. 이제는 낡아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썩은 나무창틀, 벗겨진 페인트 벽, 그리고 잘 닫히지 않는 문까지도 그녀에게는 구소련 때 받은 자랑스러운 훈장과도 같아 보였다. 공산 시절, 그러니까 구소련 시절 나라에서 무상으로 배급받은 아파트였다. 이 아파트 월세는 연금만으로 살기에 빠듯한 그녀와 부모 잊은 손자의 생활비였다.

아파트를 검사할 때면 그녀는 교장 선생님이 된다. 고개를 뺏뺏이 들고 눈을 내리깔고는 삐꺽삐꺽 소리 나는 바닥을 이리저리 다닌다. 그럴 때마다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동자를 한 번만 굴려도 다 보고도 남을 작은 아파트를 그렇게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것도 재주다 싶었다. 내일 그녀가 월세를 받으려 오는 날이다. 그녀는 늘 월세를 받는 날은 잊지도 않고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내가 외출이라도 한 날은 그녀에게 있는 내 아파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 작은 식탁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곤 했다. 그럴 때면 그녀의 살들은 내 작은 의자를 덮어 버리고 의자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오늘 아침 온 그녀의 전화는 내일 꼭 집에 있으라는 내용이었다. 할 말이 있다는 신호였다. 나는 월세를 올리지 않는 조건이라면 까다로운 그녀의 조건들을 다 들어줄 작정이었다. 그녀가 월세를 더 올려 받는다면 난 이 거지 같은 아파트에서도 나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은 ‘옆집에 사는 막심과 같이 살까?’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다. 반반씩 월세를 내고 살면 막심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일이었다. 막심도 나도 러시아어가 짧으니 긴 대화를 할 필요도 없고,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야 들어오는 그가 나를 귀찮게 할 일도 없었다. 이건 최후의 방법이었다.

주전자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건조한 공기를 적셨다. 불을 줄이고 주

전자에 물을 가득 더 부었다. 말라비틀어진 사과 반쪽이 옆에 있어 ‘먹을까?’ 손으로 만지작거리다 막심에게 주려 했던 사과를 한 입 깨물어 물었다. 달고 상큼한 사과 맛이 입안 가득 춤을 췄다. 그 맛이 더러운 부엌에 앉아 있는 나를 위로해주었다. 사과를 입에 문 채 달콤하고 향긋한 사과 향을 코로 들이켰다. 그리고 주위 온 신문 중 남아 있는 한장을 읽기 시작했다. 대충 읽어 내려가던 중 내 눈에 들어온 사진 한 장 때문에 나는 정신이 멍해졌다. 사과즙과 내 침이 뒤섞여 신문 위로 똑! 똑! 떨어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제2장 나타샤

내 눈동자는 급하게 신문의 날짜를 찾았다. 2017년 10월 15일.

오늘이 2017년 10월 24일이니까, 일주일 전 신문이었다. 사진 아래에 있는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어려운 러시아어 단어들이 내 미간을 찌푸리게 했다. 모르는 단어들을 푸른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쳤다. 그리고 휴대 전화에 깔린 번역기로 모르는 단어를 번역하며 읽기 시작했다. 내용은 대략 이랬다.

제목 : 조용한 마을 ‘옴스크’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루스끌로바 124번지에서 발견된 시체는 나타샤라는 40세 여성.

사망시간은 14일 새벽으로 추정.

직장인이며 아들과 딸이 있고 남편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14일 새벽 퇴근하는 여성에 의해 발견.

집에서 사용하는 칼로 목 뒤와 가슴을 여러 번 찔림.

잔인한 수법으로 보아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됨.

더 이상의 자세한 기사 내용은 없었다. 기사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루스끌로바 124번지! 바로, 내가 사는 아파트 주소였다. 작지만 선명하게 인쇄된 아파트 건물과 그 옆에 함께 찍힌 시체는 비닐로 덮여 있었다. 오늘 아침도 내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걸어갔던 그 길이었다. 일주일 전, 한 여자가 그 길에서 죽었다는 생각을 하니 기분이 오싹했다. 범인은 잡힌 건지? 왜 나는 이 끔찍하고 찝찝한 사건을 모르고 있었는지?

문소리가 났다. 막심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시계를 보니 7시 45분이었다. 빈 그릇과 함께 신문을 들고 막심의 아파트 문을 노크했다. 1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고 막심은 작고 검은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으며 나를 보고 웃었다. 앞니에 해 넣은 두 개의 금니가 번쩍였다. 짧은 인사와 함께 빈 그릇을 내밀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파트 사진이 선명히 인쇄된 신문도 내밀었다. 힐끗 보더니 막심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이미 일주일이나 지난 일이야. 모든 것이 괜찮아!”

그러고는 다시 씨-익 웃었다. 그 ‘괜찮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어 다시 물었다.

“범인은 잡혔어?” 그의 대답은 “몰라.” 관심조차 없었다. 그는 웃통을 벗고 있어 추웠는지 자꾸만 문을 닫으려고 문고리를 잡고 뒤로 물러섰다. 엉겁결에 신문까지 막심에게 주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낡은 철제 침대에 몸을 던졌다. ‘띵!’ 스프링 소리가 났다. 헛기침이 났다. ‘먼저 때문이겠지?’

가운데가 꺼진 침대에서 가장 편한 자세는 옆으로 몸을 구부려 눕는 것이다. 벌레 같은 이 더러운 생활도 견디기 힘든데 살인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내 방 창문 아래란 생각을 하니 기분이 정말 더러웠다. 쥐며느리 벌레처럼 내 몸을 맡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제3장 알리바이

새벽 찬 바람 때문에 눈을 떴다. 내 아파트에는 두 개의 창이 있다. 하나는 주방 쪽에, 하나는 침대가 놓인 거실 겸 침실 쪽에 있다. 신문에 실린 사진상으로 봤을 때 내 침대가 놓여 있는 창문 아래에서 나타샤라는 여자가 살해를 당한 것이다.

일주일 전이면 나는 비자를 위해 잠시, 키르기스스탄에 갔던 시기였다. 5년 전에 러시아 공부를 위해 입학한 대학에서 더 이상의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되자, 6개월에 한 번은 다른 나라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했다. 한국으로 다녀오면 좋겠지만 비행깃값이 너무 비쌌고 어쩌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한국에 나가면 나를 한심하게 보는 가족들의 시선이 힘들었다. 그래서 비자 여행지로 정한 곳이 키르기스스탄이었다. 비행깃값도 싸고, 물가도 싸고, 한인 민박도 있어 오랜만에 한식을 먹을 수도 있었다. 비자를 받기 위해 딱! 삼 일을 비웠는데 그때 살인이 일어난 것이다. 내가 그날 이곳에 없었던 일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여기에 있었다면 살인 현장을 봤을 수도 있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했다. 갑자기 추위를 견딜 수 없어 이민 가방에서 겨울 코트를 꺼내 덮고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잠은 오지 않았다.

러시아! 그러니까 이곳은 모스크바에서 2,555km 떨어진 ‘옴스크’라는 곳이다. 이곳에 온 이유는 모스크바의 물가를 감당할 수 없었고, 학업에 한계 또한 넘을 수 없어서였다. 학창 시절부터 성적이 썩 좋지 않았던 나는 성적을 탓하기보다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것을 찾아 그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겠다는 어설픈 방법을 찾았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러시아어였다. 한국에서 대학 3년을 마치고 떠나온 이곳 생활은 나의 꿈을 격려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혹독하게 몰아세웠다. 그래서 밀려

들어온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5년 남짓 배운 언어와 경험으로 옴스크에서 지금 나는 가이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때론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곳의 자유로운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잠 못 드는 새벽엔 맥주가 최고다!’ 침대에서 일어나 유난히 큰 소리를 내는 낡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힘겹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꼭 나 같다!’ 맥주는 미지근했다. 내일은……. 아니다! 오늘 집주인이 9시쯤 온다고 했으니 잊어버리지 않도록 돈을 봉투에 넣었다. 출출하다는 생각에 무엇이든 먹고 싶었지만,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멍하니 앉아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새벽 4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막심이 오늘은 일찍 나가는 걸까? 새벽에도 일을 시작한 걸까?’ 문소리와 함께 작지만 높고 경쾌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문에 있는 작은 유리 구멍을 통해 밖을 봤다. 복도에는 불이 없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구두 소리로 여자의 움직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막심의 집에서 나온 여자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 시간에 남의 집에서 나오는 여자라면 몸을 파는 여자겠지.’ 순간, 순진해 보이기만 했던 막심이 다르게 느껴졌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일을 찾을 수 없어 인종차별이 심한 이곳까지 밀려온 막심. 밤낮 일을 해서 번 돈을 가족에게 꼬박꼬박 보내고 있는 막심. 그는 어려 보였지만 아내도 있고 두 아이도 있었다. 어느 날은 나를 찾아와 가족의 이름을 한글로 써 달라고 했었다. 자신도 드라마 대장금을 열 번도 더 봤다고 했다. 그때 막심은 나에게 자신의 가족사진을 보여줬었다. 막심과 같이 어려 보이는 아내와 귀여운 두 아이는 막심처럼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대부분 나라 이름에 ‘스탄’이 들어간 나라 사람들은 공사장에서 일했다. 아마도 또한 그런 것 같았다. 늘 더러운 손톱과 옷을 보면 짐작할 수 있었다. 이방인이란 공통점 때문인지 그는 자기와 나를

같은 처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그가 못마땅했다.

제4장 나는 아닙니다

새벽 늦게야 다시 잠든 나는 노크 소리에 잠을 깼다. 시계도 보지 않고 집주인이란 생각에 문을 열었다. 막심이었다. 밖에 나가는 길에 들른 것 같았다. 그는 비자를 받기 위해 고향 집에 2주 정도 다녀온다는 것이었다. 어제 만났을 땐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막심은 자신의 냉장고에 남아 있던 쉽게 상하는 채소와 과일 몇 가지를 봉투에 담아 나에게 건넸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하루에 한 번 물과 생선 통조림을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그의 집 열쇠를 받았다. 대부분의 러시아 사람들은 집에 고양이를 키우며 산다. 하지만 막심까지 키우고 있는지는 몰랐다. 열쇠고리를 보니 내가 예전에 주었던 작은 장고가 매달려있는 한국기념품 열쇠고리였다. 나에게 열쇠를 건넨 막심은 큰 손가방을 들고 경쾌하게 아파트 계단을 내려갔다. 나도 바로 겉옷을 입고 빵을 사러 나왔다. 아침이라 쌀쌀했다. 새벽에 비가 내렸는지 거리 바닥이 젖어있었다.

빵집은 아파트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빵집에 들어서자, 구수한 빵 냄새가 났다. 이 빵집은 마을 식당에 빵을 납품하는 작은 빵 공장 같은 곳이다. 이곳에서 ‘끼르뻬치’ 하나를 샀다. 방금 구워 말랑말랑했다. 이 빵 이름의 유례를 들은 적이 있다. 러시아어로 벽돌을 ‘끼르뻬치’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벽돌처럼 아주 딱딱해지고 모양도 벽돌과 같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했다. 2차 대전 때 군인들이 이 빵을 베고 잠을 자고, 행군할 때는 양식이 되어준 효자 빵이었다.

잔돈을 받아 돌아서는데 살인 장소가 한눈에 들어왔다. 갓 구운 끼르뻬치의 온기가 내 손 가득 전해지는데도 등골이 싸늘해졌다. “제기랄!”

빵집 아들 안드레이는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고 했다. 작은 마을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사건이라며 나를 보지도 않고 빵을 상자에 담으며 말했다. 경찰이 자기에게도 질문을 많이 하고 갔다고 했다.

죽은 나타샤가 가끔 자신의 빵집에서 빵을 사 갔고, 항상 피곤해 보였으며 아이들을 위해 비싼 파이도 사 갔다고 했다.

여자가 이 빵집을 들렀다는 것은 근처에 직장이 있거나 사는 집이 있다는 것인데.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말에 짜증과 함께 경찰이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흥기는 없고 지문도 없고 칼에 잔인하게 찔린 시체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안드레이는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여자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제야 사건에 관해 묻는 나를 이해했다. 나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빵을 샀는데도 가게를 떠나지 않는 나에게 빠른 답변으로 ‘이제는 나가 주세요!’라고 눈치를 주고 있었다. 그는 어깨에 이고 있던 빵 상자로 입구에 있던 나를 살짝 밀고는 나가 버렸다. 좀 미안했는지 가게 안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신문을 턱으로 가리키고는 배달 차를 타고 떠나버렸다. 탁자에 놓인 신문은 어제 날짜였다. 집주인이 오기 전, 아침밥을 먹고 청소까지 하려면 시간이 없었다. 나는 계산대에 앉아 있는 안드레이의 아버지에게 묻지도 않고 신문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돌아온 아파트는 추웠다. 따뜻한 차가 생각났다. 나는 차 마실 물을 가스 불에 올리고, 막심이 주고 간 사과를 잘랐다. 그리고 방금 사 온 빵 위에 버터를 발라 준비해 두고,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제목: 단서 없는 살인사건

나타샤 주변인과 시체 발견 지역 주민을 조사 중이나 단서를 찾지 못함.

나타샤는 루스끌로바 거리에서 4 정거장 떨어진 옷 수선집에서 일했음.

그녀의 집 주소는 루스끌로바 130번지.

강도 사건으로 보기에는 분실 물건이 없고 살인 수법도 잔인함.

경찰은 마약, 알코올 중독자의 충동적인 살인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

이번에는 기사 아래에 나타샤의 사진도 실려 있었다. 제보를 기다린다고 했다. 비닐로 덮여 볼 수 없었던 그녀의 정면 얼굴 사진을 자세하게 볼 수 있었다. 근처에 살았으니 우연히라도 스쳤을 텐데. 눈이 크고 머리카락이 풍성한 여인이었다. 전형적인 러시아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중년인 그녀는 예뻤다. 젊었을 때 꽤 인기가 있었을 것이 분명했다. 젊었을 때의 미모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윽한 그녀의 눈빛이 흑백사진 속에서도 뚜렷하게 보였다.

‘제정신일 리 없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이 한 짓으로 보기에는 너무 깔끔한 마무리다.’ 범행수법으로 보아, 원한이라더니 아직도 단서 하나 찾지 못하고 수사의 방향조차 잡지 못한 경찰이 한심해 보였다.

‘누가, 왜 이 여인을 죽였을까?’

복도에 있는 쓰레기를 발로 톡톡 밀어 일 층으로 쓸어내리며 집주인은 소란스럽게 계단을 올라왔다. 큰소리로 욕을 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쓰레기를 버리는 더러운 것들, 짐승 같은 이런 것들, 목을 베 죽여 버려야 해!”

말만 들으면 집주인이 바로 나타샤를 죽인 살인자 같았다.

나는 그녀가 내 아파트 문을 노크하기 전에 미리 문을 열어두었다. 방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녀의 몸 짐이 이 전보다 더 커져 있었다.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으며 식탁 의자에 앉는 그녀는 연신 중얼거렸다.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고 그녀는 나에게 별일이 없는지 물었다. 탁자에 펼쳐놓은 신문을 보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계속 얼굴에 땀을

흘리며 거칠게 씩씩거렸다. 나는 일부러 뜨거운 차를 건넸다. 컵에 있는 손가락 구멍에 그녀의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손가락 구멍 따위가 대수겠냐는 듯 덥석! 뜨거운 컵을 아무렇지도 않게 잡아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갑자기 물었다.

“최근에 옆집에 사는 막심을 봤어?”

오늘 아침에도 만났고, 그의 고양이도 맡았다는 말을 하지 못 했다. 나에게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얼마 전 있었던 살인사건의 범인을 아직 못 잡았어! 내 생각은 막심이 범인이야!”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말했다. “순진해 보이지만 가면을 쓰고 있는 살인자야.” 거의 확신에 가깝게 말했다. 순식간에 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가 말하는 내내 입에서 담배 냄새가 진동했다.

“죽은 여자를 좋아했었는데 여자가 계속 거절하니까, 아마 죽였을 거야!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러시아 여자를 좋아하잖아.” 신문을 한번 곁눈질했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살면 안 되는 건데, 머리카락이 까만 인간들은 짐승 같은 면이 있어. 충동적인 동물이야!” 듣고 있기 거북했다. 한두 번 당한 인종차별도 아니지만 이렇게 면 전에서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아직 증거는 없지만, 곧 증거를 찾을 것이고, 범인은 막심이라고 말했다. 빨라지는 주인 여자의 말에 짜증이 났다. 그녀는 차와 함께 내놓은 초콜릿을 손가락으로 집어 먹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막심을 잘 지켜봐야 해!”라는 말을 하면서 나를 보는 파란 눈동자가 번쩍였다.

그녀의 말은 마치, 막심을 조심하라는 말이 아닌, ‘너는 막심과 뭐가 다른데?’라고 질문하는 것 같았다. 집주인의 눈에는 막심과 내가 다르지 않았으니까! 집주인에게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어 화장실을 평계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그녀는 어김없이 방을 살펴보고 있었다. 내가 재빨리 준

비해 둔 월세를 내밀자, 거대한 손으로 봉투를 거머쥐며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자기는 돈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남기고 거대한 몸을 이끌고 사라졌다.

집주인은 떠났지만, 그녀가 던진 수많은 말들이 범인으로 만들어 놓고 갔다. ‘그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나에게도 들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가 범인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몰랐다. 외투에 넣어 두었던 막심의 아파트 열쇠를 찾았다. 고양이를 살피기 위해 간다는 평계로 나는 그의 아파트를 보기로 했다. 열쇠를 막심의 아파트 문구멍에 넣었다. 열쇠가 잘 돌아가지 않아 몸으로 문을 밀어 열쇠를 돌려보았다. 그제야 돌아가는 열쇠. 처음으로 그의 아파트 안까지 들어가 보는 거였다. 우리의 만남은 늘 서로의 문 앞까지였다. 마치 우리의 관계같이 말이다.

아파트에 들어서자, 고양이 오줌 냄새에 숨을 쉴 수 없었다. 흔히 고양이를 키우는 러시아 집에서 나는 냄새였다.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놀랐다. 창문 넘어 펼쳐진 풍경은 내 아파트에서는 상상조차 없는 풍경이었다.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들도 보였다. 마을 중앙에 있는 중앙공원도 보였고 마을 끝에 있는 루스끌로바 130번지 아파트 건물까지도 보였다. 살해당한 나타샤가 살던 아파트. 파란색 폐인트로 선명히 쓰여 있는 주소 130번지.

불어오는 바람이 참 시원하고 좋았다. 한참을 창문 넘어 풍경을 보고 있는데 품종을 알 수 없는 까만색 고양이 한 마리가 내 다리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태어난 지 3개월 정도 되어 보이는 작은 고양이였다. 작은 울음소리가 귀여웠다. 급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닿지 못한 아파트 문이 삐걱대며 소리를 냈다. 문을 닫고 방을 살피기 시작했다. 생각과는 다르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거울 앞에 꽂혀 있는 가족사진. 디반(침

대 겸 소파로) 위에 깔끔히 정리된 이불. 내 냉장고보다 작지만, 최신 모델의 냉장고도 보였다. 식탁 위에는 내가 찾기 쉽게 고양이에게 줄 통조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막심의 깔끔한 성격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무엇인가 찾아내려는 사람처럼 이곳저곳을 살피기 시작했다. 마치 살인 용의자의 집에 증거를 찾으려 온 경찰처럼. 킁! 하고 열어두었던 창문이 부딪치며 소리를 냈다. 정신이 들었다. 내 행동이 마치 집주인이 오늘 내 아파트에서 한 행동과 닮아 있었다. 다시 내 아파트로 돌아왔다. 더러웠다. 방은 꼭 살인자의 방 같았다. 방 상태로 살인자를 검거한다면 바로 내가 살인자였다.

그렇지만 만약, 2주 후에도 막심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달랐다. 단지 이방인이란 이유로 막심을 의심하고 있는 집주인보다 나는 더 확실하고 타당한 이유로 그를 신고할 수 있었다. ‘고향 집으로 도망친 살인자. 막심!’

제5장 확신

가을로 접어들면서 해가 빨리 지기 시작했다. 내일 한국 사업가 한 사람이 이 지역을 살펴보려 오기로 했다. 나는 통역과 길 안내를 하기로 했다. 오랜만에 들어온 일이었다. 내일 아침 일찍 버스터미널로 나가야 해 미리 목욕도 하고 머리도 감았다. 추웠다. 겨울 잠바를 입고 일찍 침대에 누웠다. 늘 그렇듯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집주인에게 나의 알리바이를 말하지 않은 것이 후회됐다. 물론 그녀는 변명하려는 수작으로 생각하겠지만 말이다.

다음 날 새벽, 일어나자마자 막심의 아파트로 갔다. 오늘은 온종일 밖에서 일하고 저녁 늦게야 집에 돌아오기 때문이었다. 새끼 고양이가 종

일 아무것도 못 먹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쓰였다. 밖은 아직 어두웠다. 휴대 전화 불빛에 의지해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고 어제처럼 몸으로 문을 밀어 열쇠를 돌렸다. 고요한 새벽이라 부딪치는 열쇠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 순간 여자의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났다. 내가 서 있는 2층 쪽으로 내려오는 소리였다. 똑딱똑딱! 여자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 문을 빨리 열고 아파트로 들어가려 했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여자는 빠르게 나를 지나 1층으로 내려갔다. 여자가 지나가며 남긴 진한 향수 냄새가 머리를 땅! 하게 했다. ‘엊그제 새벽에 복도를 지나간 여자인가? 여자가 막심의 아파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나?’ 팬스레 막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온기가 없는 막심의 아파트! 고양이는 자고 있는지 인기척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고양이 앞에 물과 생선 통조림을 놓고 조용히 나오려는데 열린 창문이 보였다. 어제 깜박 잊고 창문을 닫지 않은 것이다. 집안에 차 가운 공기는 이것 때문이었다. 창문을 닫으려는데 가로등 사이로 한 여자가 똑딱! 똑딱! 소리를 내며 루스끌로바 130번지 건물로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고요한 새벽 거리에 여자의 구두 소리는 쩌렁쩌렁 울렸다. 나와 스쳤던 여자가 분명했다. 그녀의 얼굴은 보지 못 했지만, 아파트 복도를 지날 때 내 허벅지를툭! 쳤던 술병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새벽 어두운 빛도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가리지 못했다. ‘한 아파트에 저런 여자가 살고 있었다니 나는 왜 몰랐을까?’

새벽바람은 찼다. 옷깃을 세우고 목도리로 목을 감쌌다.

사업을 하고 싶어 탐색 왔다는 한국인 사업가는 아주 유쾌했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 쉴 새 없이 나에게 말했다. 모스크바에서 이미 운영하는

한국가게를 이곳에도 확장하고 싶다고 했다. 한류 때문에 덕을 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곳이 상당히 흥미롭고 신비롭다는 말을 남기고 저녁 늦게 모스크바로 돌아갔다. 공항까지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밤 11시쯤이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웅크리고 다닌 것이 나를 더 피곤하게 했다.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이미 시계는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불을 덮은 채 이리저리 뒤척이다 고양이가 생각나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막심의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벌써 정이 들었는지 고양이는 나를 보고 반갑다는 듯이 울기 시작했다. 고양이에게 통조림을 까 준 후 창가 앞에 의자를 두고 앉았다. 역시 내 아파트보다 경치가 좋았다. 햇살이 따듯하게 들어왔다.

빵을 나르는 안드레이도 잘 보였다. 책방주인은 한가롭게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부 보였다.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한 날씨 때문인지 사람들이 많았다. 큰길에 있는 루스끌로바 공원 안에 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했다. 뚱뚱한 비둘기들은 사람들이 던져놓은 음식들을 열심히 쪼아 먹고 있었다. 이 평화롭고 한가로운 풍경을 보면서 나는 상상하기 시작했다.

‘막심은 이 창문을 통해 나타샤를 보고 호감을 느끼게 된다. 어느 날 늦게 퇴근하는 그녀를 보게 된다. 혹시 모르니 칼도 준비한다. 말이나 한 번 걸어 보려 했다. 그런데 그냥 그가 그녀에게 다가갔을 뿐인데 나타샤는 막심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놀란 막심은 그녀의 입을 틀어막는다. 계속 발버둥 치는 그녀를 향해 칼을 꿋는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지만, 당황하지 않고 살인 장소를 깔끔하게 정리한다. 자기의 아파트를 정리하듯이. 살인에 사용된 칼은 자신만 아는 장소에 숨긴다. 좁혀오는 수사망에 불안해진 막심은 고향 집으로 돌아가 숨기로 한다.’

가을! 화장한 어느 오후! 나는 살인자의 아파트 창가에 앉아 살인사건

시나리오를 마쳤다. 의자에서 일어나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뒤질 것도 없는 단출한 살림살이였다. 쌓여있는 이불 사이에 손도 넣어보고 두들겨 보기도 한다. 냉장고도 열어 보고 신발장과 작은 서랍장도 꼼꼼히 살펴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방으로 들어가 칼이 있는지 확인했다. ‘막심이 이렇게까지 잔인한 사람이었나?’ 싱크대 서랍을 열자, ‘뭐지?’ 칼은 얌전히 서랍 안에 들어있었다. 약간 실망한 나는 살인할 때 입었을 옷을 찾기 시작했다. 막심이 금니를 드러내며 웃는 모습이 갑자기 생각나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20분쯤 집을 뒤졌을까? 물론 나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오늘도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는 경찰들은 계속 살인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외국인인 나를 의심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더군다나 외국인은 잘 오지 않는 오래되고 가난한 동네에 혼자 사는 남자니 말이다. 살인자가 누구든 지금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었다. 누구든 빨리 잡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설상 막심이 범인인들 어쩌겠는가!!

고양이를 데리고 내 아파트로 돌아와 버렸다. 혼자 고양이를 그 집에 두기가 싫었다.

제6장 내가 모르는 이웃

3일만 지나면 막심이 돌아오겠다고 말한 날이 된다.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아파트 문을 여는데 고양이가 문밖으로 도망쳐 3층으로 올라갔다. 고양이를 잡기 위해 처음으로 3층으로 올라가 봤다. 2층에 사는 내가 3층에 올라가는 일은 없었다. 3층 복도는 2층 복도보다 더 많은 햇살이 들어왔다.

‘새벽에 봤던 여자가 3층이나 4층에서 내려왔을까?’ 고양이를 잡아 품에 안고 내려가려는데 3층에 한 아파트 문이 열리더니 여자가 나왔다. 여자는 고양이를 보고 귀엽다며 고양이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나와

가까워진 그녀에게서 진한 향수 냄새가 났다. ‘새벽에 만났던 술병을 든 환상적인 몸매의 그녀일까?’ 여자는 한 손에 쓰레기 봉지를 들고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화장한 모습이 예뻐 보이기는커녕 들뜬 화장으로 많이 피곤해 보였다. 어제 화장을 미쳐 지우지 못하고 잡든 것이 분명했다.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는 긴 인조 손톱이 눈에 거슬렸다. 어색한 나는 말을 건넸다.

“저는 2층에 살아요.” 그녀는 고양이에게서 눈을 떼더니 나를 봤다. 그녀의 눈은 앗되게 보였다. 진은 화장에 가려진 얼굴은 20대 초반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무표정하게 빤히 쳐다보는 여자의 시선이 쑥스러워 나는 바닥으로 눈을 피했다. 바닥에는 내 쓰레기봉투에서 흘러나온 것이 분명한 쓰레기 물이 길을 만들어 놓았다. 여자는 내가 올라왔듯이 더러운 물길을 따라 내려갔다.

나는 여자와 쓰레기장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다시 내 아파트로 돌아와 문에 있는 작은 유리 구멍을 통해 여자가 쓰레기를 버린 후 3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기다렸다. 3층에 사는 진한 향수의 여인이 누구인지 더 궁금해졌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길에 빵집에 들러 3층에 사는 여자에 관해 물었다. 빵집 아들은 배달을 갔는지 없었고 가게 주인인 아버지만 있었다. 아버지는 아주 오랫동안 이곳에서 빵을 만들어 팔고 있는 토박이였다. 눈은 푸르며 깊었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나의 질문에 자기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며 어깨를 들썩여 보였다. ‘그렇다면 이곳에 오래 산 사람은 아니군!’

어제 구워놓은 빵을 하나 샀다. 어제 구운 빵은 조금 딱딱했지만, 맛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내가 가끔 이 빵을 사는 이유는 당일 구운 빵보다 절반이나 싼 가격 때문이었다. 오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추워지

고 있었다. 내 마음도 추웠다. 그나마 고양이가 옆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위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 ‘경찰일까?’

제7장 완전범죄

생각보다 일찍 돌아온 막심의 모습은 아주 좋아 보였다. 얼굴에 살도 찌고 깨끗한 멋진 옷도 입고 있었다. 가족을 만나고 온 것이 분명했다. 검게 탄 얼굴이 그를 더 건강하게 보이게 했다. 반갑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 막심의 손을 잡으며 나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살인범 막심이 드디어 돌아온 것이다.’ 그는 몇 번이나 가슴에 손을 대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는 자신의 아파트 열쇠를 받아갔다. 그는 언제나 정중했다. ‘돌아온 그를 보고 긴장한 내 모습이 들키지나 않았나?’ 열쇠를 건네고 빨리 문을 닫아 버렸다. 긴 시간 마주하고 있는 것이 불편했다. 5분쯤 지났을까? 막심은 다시 나를 찾아와 고양이를 데려갔다. 그리고 내 손에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져 왔다며 말린 야자수 열매를 두 봉지나 주고 갔다.

‘그가 살인을 저질렀을까? 집주인 말대로 그는 가면을 쓴 걸까? 가면을 쓴 살인자!’ 잘 말린 야자수 열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하니 집어 입에 넣었다. 달았다! 그가 준 야자수 열매는 너무나 달콤하고 맛있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선해져 돌아왔다. ‘살인자가 준 야자수 열매는 왜 이리도 달고 맛있고, 살인자의 얼굴은 왜 저리도 선한가?’

야자수 열매 안에 있던 날카로운 씨앗이 내 입술 천장을 찔렀다.

“앗!”

‘그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범행에 사용한 칼과 피 묻은 옷을 묻고 돌아온 것이다.’ 완전범죄였다.

제8장 증인들

오랜만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 날, 나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동네 식당으로 향했었다. 늦은 시간인데도 식당 안에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나는 고향이 그리워 보르시를 시켜 먹었다. 그러나 나는 몇 숟가락도 뜨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마을 토박이 노인들은 살인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닐 거야!” 책방 할아버지였다.

“우리 동네에는 그런 악한 놈은 없지! 아마도 뜨내기 아니겠어?”

책방 앞에서 신문을 파는 할아버지였다.

이어서 군복을 입고 가슴에 훈장을 단 할아버지가 말했다.

“공산주의 때가 좋았지. 얼마나 평온했어? 우리 세상이었지! 우리 마을에 우즈베키스탄 사람과 중국 사람이 산다고 들었는데 아마도 그들 중 한 명이 범인 아니겠어?”

이 마을에 중국인은 없었다. 그 중국인은 바로 나였다. 많은 사람은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을 구분하지 못했다. 더는 듣고 있기 어려워 돈을 내고 나가려는데 나는 그만! 그들과 눈이 마주쳐 버렸다. 그들은 당황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뭔가 결의에 차 있었다. 소름이 돋았다.

그날 새벽! 살인을 저지른 범인을 봤다면, 나를 법정에 세울 기세였다.

이방인인 나와 막심은 동네 사람들을 위해 살인자가 돼 주어야 했다. 선하고 선한 동네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살인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했다. 살인자가 누구인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중요하지도 않았다.

제9장 수상한 사람들

늘 아침 일찍 집을 나섰던 막심이 오늘은 오후가 다 되어 가는데도 인

기척이 없었다. ‘어제 돌아왔으니 피곤해 늦잠을 자는 걸까?’ 맞은편 막심의 아파트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노크해보려다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 발길을 돌렸다.

습관적으로 들린 빵집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빵을 주식으로 하는 러시아에서 빵집 문을 닫는 일은 거의 없었다. 공원에 있던 비둘기들이 내 머리 위를 날아갔다. 혹시 문을 늦게 열지 않을까 하고 공원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바람이 생각보다 따뜻했다. 20분쯤 지났을까? 시계를 보니 11시였다. 평소라면 빵 배달을 마치고 안드레이가 돌아올 시간이었다. 빵집은 여전히 고요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공원을 사이에 두고 빵집과 마주하고 있는 깔바사(햄, 소시지) 가게로 들어가 빵집이 왜 아직도 문을 열지 않는지 물었다.

나는 모스크바에서 만들었다는 고급 깔바사를 두 개 샀다. 평소에는 비싼 가격 때문에 사 먹지 못한 거였다. 깔바사를 들고 가게 문을 나서는데 문에 달려 있던 종이 경쾌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나의 기분을 훌기분하게 만들었다. 불어오는 바람도 부드러웠다. 계단을 두 개씩 올라 막심의 아파트 문 앞에 섰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노크했다. 문이 열리며 부스스한 얼굴의 막심이 나왔다.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다. 늦은 아침 인사를 건네고는 방금 산 깔바사를 내밀었다. 막심 뒤로 보이는 고양이도 내게 다가왔다. ‘작고 귀여운 이 고양이는 늘 그렇게 막심의 뒤에 있었던 걸까? 예전에는 내가 왜 보지 못한 걸까?’ 막심은 고급 깔바사 때문인지 기분이 좋아져 미소를 지었다. “네가 돌아온 기념 선물이야.” 진심이었다.

막심과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3층에서 내려오는 이삿짐 때문이었다. 막심은 문을 급하게 닫을 수밖에 없었고 나는 복도에 덩그러니 남겨져야 했다.

이사를 할 때 흔히 사용하는 체크무늬의 싸구려 비닐 가방들이 줄줄

이 내려왔다. 꽤 큰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내려오는 덩치 큰 사내는 처음 본 사람이었다. 아마도 이사를 돋기 위해 부른 일꾼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내려오는 사람은 바로, 진한 향수의 여자였다. 화장기 없는 모습은 처음으로 본 거였다. 향수 냄새는 여전했다. 좁은 복도 때문에 나는 짐이 지나가는 동안 꼴깍없이 복도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 바짝 몸을 벽에 붙이고 짐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었다.

여자는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막심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밖으로 나온 막심과 짧은 작별인사를 했다. 덩치 큰 남자도 가볍게 막심을 향해 인사했다. 짐이 무거웠는지 빨리 내려가고 싶어 자꾸만 뒷걸음치는 것이 한눈에 보였다.

‘막심과 이 여자가 아는 사이였나?’ 놀라웠다. 덩치 큰 남자도 막심을 알고 있는 것을 보니 그냥 일꾼은 아니었나 보다. 그들이 다 내려간 후 나는 막심을 향해 물었다. “누구?”

기차 터미널에서 일하는 여자라는 것이다. 자기가 기차를 타고 고향을 갈 때마다 도와줬다고 했다. 그녀는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과 사람들 때문에 늘 피곤하다고 말했지만, 대견하게도 성실히 돈을 모아 더 큰 집으로 이사 간다고 했다. 딸을 시집보내듯 그녀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 막심은 나를 끌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사 온 깔바사를 함께 먹자는 것이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고양이를 안고 창가로 갔다. 이곳만큼 마을 전체를 볼 수 있는 장소는 없었다! 방금 이사를 간 진한 향수의 여자와 덩치 큰 남자가 창을 통해 보였다. 그들은 짐을 들고 공원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다. 루스끌로바 130번지 쪽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어디일까?’ 그들은 닫힌 빵집을 지나가고 있었다.

막심은 내가 선물한 깔바사와 빵을 가져왔다. 그리고 홍차에 우유를

섞어 만든 우즈베키스탄 차를 내밀었다. 나는 우유가 들어간 홍차를 마시지 않았지만, 건네는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좀 크다 싶은 식칼로 깔바사를 손바닥에 대고는 익숙하게 썰어냈다. 빵은 방금 구웠는지 따뜻했다. ‘빵이 어디에서 났을까? 빵집은 닫혔는데.’ 내 생각을 읽었는지 그는 아침에 창문을 통해 빵집이 문을 열지 않은 것을 알았고, 이 빵은 자신이 직접 구웠다고 했다. 장사해도 될 만큼 훌륭한 맛이었다. 난 빵집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안드레이 이야기를 이어 갔다. 나는 비밀을 이야기하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밤늦게 빵집 아들이 살인 용의자로 체포됐으며 그래서 빵집은 오늘 문을 열 수 없었다고. 범인이 잡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빵에 깔바샤를 얹어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동네 사람들 모두 너와 나를 의심했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뻔했다. 억울했다고 말할 뻔했다.

막심은 빵집 아들의 소식을 듣고도 별 반응이 없었다. 무표정한 막심은 창문 밖을 한번 보더니 게걸스럽게 빵과 깔바사를 먹기 시작했다. 나도 막심을 따라 창밖을 다시 봤다. 위층 사람들이 다시 광장을 가로질러 이곳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가져갔던 이삿짐을 어디에 두고 왔는지 두 사람 모두 빈손이었다. 남은 짐을 가지려 다시 돌아오는 길일까?

그들을 본 막심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제10장 사라진 나의 동지

싱겁게도 안드레이는 하루가 지나자, 경찰서에서 풀려났다. 안드레이가 빨리 풀려날 수 있었던 이유는 목격자의 진술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제 나와 늦은 점심을 먹고 집을 나간 막심은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나는 그 목격자가 막심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나타샤가 죽던 그 날, 창을 통해 밖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을 봤을 것이다. 살인자를 본 그는 갈등했을 것이다. 경찰에 신고한다면 이방인인 자기가 겪어야 하는 많은 귀찮은 일이 생각났을 것이다. 그런데 어제 듣게 된 안드레이의 체포 소식으로 그의 마음은 바꾸게 됐다.’

막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사라진 지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나는 막심의 아파트를 보기로 했다. 막심의 집주인인 깔바샤 가게 주인과 함께 아파트 문을 열었다. 그녀는 아파트 문을 열면서 월세를 미리 받아 둔 것이 다행이라고 했다.

문이 열리자, 여전히 가지런하고 깨끗한 그의 방이 눈에 들어왔다. 둘러보니 그의 여행용 가방이 없었고, 고양이도 없었다. 그리고 그의 가족 사진도 없었다. 그가 나에게 인사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안드레이는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 계속 무능한 경찰을 욕하며 다녔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굉장히 모욕적이었으며 그들은 계속 알 수 없는 이야기들로 자기를 괴롭혔다고 했다. 엉뚱한 사람을 잡아 두고는 자백을 강요했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반복해 물었다고 했다. 얼굴이 빨갛게 변하며 말했다. 나타샤의 검은색 고양이에 관해 물었을 때는 억울해서 눈물까지 났다고 했다.

복잡한 마음에 더 그의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없었다. 갑자기 등장한 고양이 때문이었다. 빵집에서 갓 구워낸 바게트를 사서 도망치듯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광장 벤치에 앉아 멍하니 막심의 아파트 창문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의 강렬한 빛이 막심의 아파트 창문을 가득 비치고 있었다.

제11장 마을 사람들의 비밀

안드레이의 무죄를 증언해 준 사람은 막심이 아니었다. 진한 향수의 여자였다. 살인이 있던 그 날, 시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그녀였다. 그녀는 일을 마치고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고 죽어있는 나타샤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타샤의 품에는 검은색 고양이가 있었으며 그 고양이를 가져간 사람의 뒷모습도 기억하고 있었다. 키가 170cm 정도였고 덩치가 컸다는 것이다. 키가 180cm에 가까우며 깡마른 안드레이와는 그림이 맞지 않았다. 경찰은 고양이를 가져간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왜 경찰이 그토록 고양이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게 됐다.

나타샤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늘 고양이를 데리고 다녔다고 했다. 직장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양이를 마치 자식 다루듯 애지중지했다는 것 이었다. 그리고 그 고양이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아주 특별해 보였으며 흔히 볼 수 없는 모양이었다는 것이다. 나타샤에게서 유일하게 살인자가 가져간 것이 고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은 고양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한 것이다. 그리고 고양이 목걸이 안에 3년 전 죽은 그녀의 남편이 남긴 편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편지의 내용이 뭐였기에 사람까지 죽이며 그것을 가져갔을까?

얼마 후 경찰의 조사 결과가 신문에 실렸다. 주요 내용은 고양이와 함께 사라진 나타샤의 남편 빅토르의 편지에 관한 것이었다. 빅토르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죽기 전까지 마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를 모르는 사람은 나와 같은 이방인들뿐이었다.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빅토르는 나타샤보다 25살이나 많은 노인이며 젊은 시절인 구소련 때는 비밀경찰이었다. 비밀경찰 중에서도 악명이 높은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그 당시 비밀경찰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사람들의

약점을 알아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뿐 아니라 개인의 비밀까지도 알 수 있는 대단한 자리였다. 이 작은 마을에서의 힘은 더 했을 것이다.

조사가 발표된 후 나는 마을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이 마을 토박이들에게서는 긴장감마저 느낄 수 있었다. 빅토르에게 아내와 자식이 있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몰랐다는 눈치였다.

‘빅토르는 왜 이것을 숨겼을까?’

살해당한 여자가 빅토르의 아내라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을 더 큰 충격으로 몰아갔다. 범인이 가져간 빅토르의 편자 안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었을까?

벚꽃난장

김수연 (캐나다)

주방모자 밖으로 하얀 머리카락이 자꾸만 빠져나왔다. 실눈을 뜨고 거울을 노려보았다. 모자가 문제였다. 모자를 쓰지 않고 머리를 풀면 아직은 감쪽같이 가릴 수 있는 수준의 흰 머리였다. 나는 모자가 유난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렇다고 요리사가 모자 없이 주방에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오늘따라 웜푹 팬 볼에 그리다 만 것 같이 흐릿한 눈썹도 거슬렸다. 이게 모두 새벽부터 난리를 치느라 아침밥도 건너뛰고 화장도 하는 등 마는 등 했기 때문이었다.

지난밤 맥주 두 캔을 마시고 기절하듯 잠이 들었다. 어느 순간 누가 흔들어 깨우기라도 한 듯 잠이 깼다. 밖은 어두웠고 아직 일어날 시간이 아니었다. 더 자야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잠 속으로 돌아가려 기를 썼다. 몽롱하게 잠으로 빨려 들어가다 번번이 잠의 표면에서 튕겨 나왔다. 그러다가 퍼뜩 그 생각이 떠올랐다.

처음 생각했던 곳은 입지 않고 오래 걸어두기만 했던 검정 코트였다. 두툼한 봉투를 기대하고 손을 쑥 집어넣었지만 호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 그 옆에 걸린 베이지색 바바리코트의 주머니를 뒤졌다. 잉크가 바래서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오래된 영수증 하나가 나왔지만 돈은 없었다.

근래에 입었던 옷에는 없을 게 뻔해, 오래된 옷을 찾아 뒤지다가 결국 걸린 옷들을 모조리 다 뒤졌다. 서랍장은 아예 뒤집어엎었다. 이민 올 때 마련해 와서 한 번도 입지 않았던 한복 박스까지 열어 하나하나 다 털어 보았다.

찾다가 포기하고 기진맥진해서 침대로 돌아와 누우면, 다른 장소가 떠올랐다. 그곳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그곳이 틀림없다는 확신으로 바뀌면서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벌떡 일어나 속옷 서랍장 칸막이 아래, 화장실과 약통 서랍 등을 뒤졌다. 그러다보니 날이 흔히 밝았다.

우연히 머릿속에 놀려붙은 생각은 출근길 내내 따라붙었다. 회사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으면서 비로소 부엌 찬장이 생각났다. 가끔 비상금이나 혼자 먹는 초콜릿을 넣어놓곤 하던 찬장 속 플라스틱 박스. 거기에 덴져 놓은 기억이 너무도 선명해 그게 어떤 모양으로 놓여 있는지까지 눈에 선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박스를 열어 보고 싶었다.

로커에서 나이프 박스를 꺼내 어깨에 메고 유니폼과 모자와 앞치마를 점검했다. 뜨거운 것을 잡는 데 쓰는 초록색 행주 두 개, 주변을 정리하는 데 쓰는 하얀 행주 두 개를 앞치마 허리춤에 꽂아 넣었다. 주방 유니폼 가슴팍에는 물고기 세 마리가 파도 위로 튀어 오르는 레스토랑의 로고가 선명했지만 나는 아직 레스토랑 주방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다. 여전히 메인 키친이라 불리는 백 키친에서 파티용 음식 준비를 돋거나, 해도 표가 나지 않는 허드렛일을 했다.

주방 문을 열자 모니카가 활짝 웃으며 다가와 나를 안았다. 모니카는 만나는 사람마다 껴안고 볼에 키스를 해댔고, 나는 태생적으로 신체 접촉이 편치 않은 사람이었다. 우크라이나 출신 모니카는 파란 눈에 키 크고 늘씬한 전형적인 백인 미인이었다. 하기야 이 호텔에 근무하는 세프 중에는 영화 속에서 톡 튀어나온 듯한, 내겐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그들과 섞이지 못하고 멀찍이

서 그들을 구경하거나, 거꾸로 그들이 나를 구경하는 기분에 휩싸이곤했다. 그건 단지 생긴 모양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들 대부분은 젊고 능숙하고 발랄한 요리사들이었고, 나는 언어도 외모도 나이도 그들과 매우 이질적인 이방인이었다.

“니콜, 매쉬드 포테이토 만들어야 해. 지난 번 건 너무 빡빡했어.”

다정했던 모니카의 얼굴은 어느새 무뚝뚝하고 사무적으로 변했다. 저렇게 재빨리 다정과 무뚝뚝을 오가는 모니카가 내겐 불가사의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케이, 땡큐, 하고 밝게 웃어보였다.

나는 F호텔 주방실습생이었다. 8개월 요리 학교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한 달간의 현장 실습이었다. 많은 학생이 실습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떨어진다고 입학상담 때 카운슬러는 겁을 주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만 해도, 나야 뭐 취미 삼아 시작하는 일이니 언제라도 그만두면 될 뿐이라고 속으로 큰소리를 쳤다. 그러나 막상 닥치고 보니 그만두는 것은 시작하는 것보다 더 용기가 필요했다.

이 호텔의 실습생은 소속이 따로 없어 업무가 애매했다. 주방 멤버들이라면 누구나 실습생에게 일을 시킬 수 있고, 시키는 일은 군소리 없이 해야 했다. 어떨 때는 감당 못할 만큼 일이 많아 쪄쩔매다가, 또 어떨 때는 일이 없어 다들 바삐 움직이는 주방에 혼자 멍하니 눈치만 보며 서 있었다. 둘 다 힘든 건 마찬가지였다. 당근 육백 개를 다듬어 썰기도 하고, 하루 종일 천 개가 넘는 샌드위치를 만들 때도 있지만 실습 2주일이 지나는 동안 특별히 요리랄 것을 해 본 적은 없었다.

감자를 오븐에 구워 껍질을 벗겼다. 체에 내린 뜨거운 감자에 미지근하게 데운 크림과 차가운 버터를 넣었다.

“더 넣어. 호텔 음식을 특별하게 만드는 게 뭔 줄 아니? 바로 버터야 버터. 줄리아 차일드가 사랑했던 버터. 줄리아 차일드 알지? 프랑스 요리

책을 낸 미국 아줌마. 지난번 게 빽빽했던 이유도 바로 이 버터가 부족해서야. 버터가 부족하면 고급진 맛이 안 난다고.”

모니카는 늘 내게 더 많은 버터를 넣으라고 말했지만 나는 버터와 친해지는 게 힘들었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남편 때문에 집에서는 아예 쓰지도 않는 낯선 재료였다. 나는 일 파운드 버터 두 개를 듬성듬성 썰었다. 끈적거리고 미끄러웠다. 버터가 녹아 감자에 스미는 동안 거품기로 노를 젓듯 천천히 저어갔다. 으깨진 감자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어깨가 육신거렸다. 지금쯤이면 메콩강에서 벗놀이나 하고 있을 시간인데. 무슨 영화를 보자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나.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하는 동안 마침내 매쉬드 포테이토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워졌다. 손가락으로 으깨진 감자를 듬뿍 찍어 입속에 넣었다. 손가락으로 음식을 맛보면 안 된다고, 호텔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요리학교 선생님은 늘 강조했지만, 정신없이 바쁜 호텔 주방에서는 숟가락 대신 손가락으로 음식을 찍어먹는 세프는 흔했다.

완성된 매쉬드 포테이토를 모니카에게 건네주고, 화장실로 뛰어가는 중이었다. 폐경이 되고부터는 소변을 참기가 힘들어졌다. 수돗물 흐르는 소리만 들어도 요의가 느껴지고 이내 소변이 찔끔찔끔 새어나와 팬티가 축축해졌다.

“헤이 니콜. 랩스터 죽여 봤어?”

매튜가 나를 불러 세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농담인 것도 같고 놀리는 것도 같았다.

“랩스터 죽이는 거 엄청 재밌어. 캠 온.”

매튜는 살아서 버둥거리는 랩스터를 들어 올리며 인상을 썼다.

“잠깐만. 잠깐만.”

나는 매튜의 말을 가로막고 화장실로 급히 뛰어갔다. 바지를 내리고 변기 위에서 앓고서야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변기 옆 철제 바구니에

는 호텔 투숙객들이 쓰다 남은 동가리 휴지 수십 개가 탑으로 쌓여 있었다. 그 옆으로 떨어져 내린 휴지 동가리들이 굴러다녀 지저분했다. 급한 걸 해결하고 나니 매튜의 표정이 떠올랐다. 꾹 다문 입을 빼죽 내밀고, 한심해 죽겠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나는 맥이 탁 풀렸다. 매튜가 내 아들보다 고작 두 살 많다는 건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또 뭘 잘못 알아들었는지, 또 뭘 망쳐버렸는지, 겁부터 덜컥 나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랩스터를 잡으라는 말일 텐데 거대한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랩스터를 만질 생각을 하니 화장실에서 밖으로 나가기가 싫었다. 발밑에 굴러다니는 휴지 동가리를 발로 걷어찼다. 휴지가 칸막이 밖으로 굴러나갔다.

캐나다로 이민을 온다고 했을 때, 랩스터는 실컷 먹겠다며 부러워했던 친구도 있었다. 하지만 서부 지역에는 랩스터가 그다지 흔한 음식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랩스터는 대형마트 수족관에서 몇 번 본 게 전부였다. 그것들도 모두 동부 바닷가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천 킬로미터 이상을 날아온 것들이라고 요리선생님은 말했다.

열여섯 명의 같은 반 학생 중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았다. 25년 주부 경력을 믿고 시작했지만 집에서 설렁설렁 식구들 밥이나 하던 경험은 직업으로서의 요리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제멋대로 몸에 익어버린 습관과 어중간한 지식이 만든 선입견이 똥고집으로 남아 있어 방해가 될 때가 많았다.

매튜는 시범을 보여주겠다며 랩스터의 머리와 꼬리를 비틀어 분리하고, 두 개의 집게발을 떼어내어 큰 것과 작은 것을 따로 담았다. 매튜의 손아귀에서 랩스터는 수수깡처럼 맥없이 부러졌다. 쳐르륵, 탁, 탁. 박자 까지 딱딱 맞아떨어졌다.

“캔 유?”

나는 랩스터를 죽일 자신이 없었다. 내내 구원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

냈지만 매튜는 기어이 그것을 내게 시키고야 말겠다는 결의에 찬 표정이었다. 랩스터를 손에 쥐자 딱딱한 껍질이 더 딱딱하게 곤두섰다. 랩스터를 죽여보기는커녕 살아있는 랩스터를 만져본 적도 없다는 걸 고백해야 하나. 에라 모르겠다. 랩스터의 머리와 꼬리를 반대 방향으로 힘껏 비틀었다. 경쾌한 소리를 내며 똑 떨어져 나올 것이라 예상했던 랩스터는 비비 꼬일 뿐 분리되지 않았다. 딱딱한 껍질이 오히려 내 살을 조여 왔고 살점이 반쯤 떨어져나간 랩스터는 집게발을 맹렬히 움직였다. 엄마야! 나는 한국말로 소리치며 랩스터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지켜보던 밴쟈민도 크리스도 깔깔거리며 웃었다. 왓 더 퍽! 매튜가 소리를 질렀다. 다른 스태프들이 무슨 구경이라도 난 듯 모여들었다. 나를 둘러싼 스태프들은 자기들끼리 농담을 주고받으며 한바탕 악자하게 웃었다. 나는 랩스터처럼 만신창이가 된 느낌이었다. 얼굴이 금세 후끈 달아올랐다.

“오 니콜. 당황했어? 얼굴 좀 봐. 유 아 쏘 레드. 아 유 오케이?”

또 매튜였다. 제발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으면 싶은 순간, 늘 저렇게 치고 들어오는 얄미운 놈. 요즘 들어 시도 때도 없이 붉어지는 얼굴도 원망스러웠다. 마음이 상할 때도 그랬고, 부끄러울 때도 그랬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럴 때도 많았다. 저 혼자 붉으락푸르락하는 얼굴 때문에 투명한 물고기처럼 속내가 여지없이 드러나 버리고는 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방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부엌을 뒤집어엎었다. 뒤지면 뒤질수록 마음이 더 조급해졌다. 꼭 찾고 싶다는 마음이 어찌나 간절한지, 몇 년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지경이었다. 오랫동안 꺼낸 적이 없는 그릇들을 아일랜드 식탁 위에 내어놓고 의자 위로 올라가 손이 닿지 않는 찬장 깊숙이 들여다봤다. 친구가 지리산에서 보내준 국화차, 둘째가 사다 준 향수, 고흐 그림이 그려진 앞치마 두 개, 아직 뜯지도 않은 일본 밥공기 박스 등을 찾아냈다. 까맣게 잊

고 있었거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 포기했던 것들이었다. 이미 버리고 없다고 생각했던 촌스러운 빨간 찻잔은 아직도 찬장 모서리에서 건재했다. 하지만 돈 봉투는 없었다. 믿고 있던 플라스틱 박스는 텅 비어 있었다.

몇 년 전 한국을 방문 때, 팔순 노모가 채소를 팔아 모은 돈을 고무밴드에 뜰뚝 말아 내게 찔러줬다. 채소 장사는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말려도 황소고집이더니, 그렇게 모은 돈을 내게 내밀어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지게 했다. 아무리 뿌리쳐도 막무가내였다. 자랄 때 제대로 용돈 한번 못 주고 키운 게 마음에 걸리더라는 말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고백처럼 들렸다. 그렇게 억지로 받아온 돈은 녹여 쓸 수도 없는 골칫거리였다.

엄마는 내가 중학교 때 집을 나갔다. 엄마가 집을 나가고 얼마 후 첫 생리가 시작되었다. 오빠 둘과 남동생, 집안에는 온통 남자뿐이었다. 아버지한테 뭐라 둘러대고 생리대 값을 받아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느꼈던 이상한 서늘함은 오래 생생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중·고등학교를 엄마 없이 다니면서 특별히 엄마를 원망하거나 그리워했던 기억은 없었다. 그 기억뿐만 아니라 그때의 기억들은 칼로 긁어낸 듯 대부분이 지워져 있었다.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 후, 엄마는 집으로 돌아왔고 나는 집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엄마도 그다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더 주장이 강해지고 짜증도 많아졌다. 더 이상했던 것은 다른 가족들이었다. 오빠들도 동생도,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엄마의 부재를 모르는 일인 것처럼 능청맞게 굴었다.

이민을 간다했을 때조차 눈도 깜짝 안 하던 엄마가 몇 해 전부터 달라졌다. 비싼 해외배송비를 물며 된장, 고추장을 보냈고, 가끔은 장날에 산 싸구려 내복이나 과자, 말린 나물을 보내주기도 했다. 때아닌 친절이 몹시도 불편했다. 엄마의 뒤늦은 선물은 ‘한때의 부재’를 더 또렷이 상기

시켰다. 이런 선물들로 슬그머니 지난날을 없었던 일로 통치려는 앙큼한 의도가 읽혀 더 불쾌했다. 오랫동안 돈 봉투를 방치하다시피 한 것은 아마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요리선생님이 호텔로 실습을 배정해 줬을 때, 나는 너무 좋아서 환호성을 질렀다. 고급 호텔 주방에는 아무나 보내지 않는다며, 너니까 믿고 보내는 거라고 선생님은 덧붙였다. 늙은 나보다 더 늙은 선생님의 눈물겨운 배려는 감동을 넘어 감격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감동의 눈물은 원망의 눈물로 바뀌었다.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접시를 던져버린다는 악명 높은 주방장과는 부딪힐 일이 없었지만, 살벌한 위계에 과중한 일거리는 소문대로였다.

첫날 출근을 했을 때, 크리스는 나를 다시 호텔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출근 때만 해도 화창했던 날씨가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듯 어느새 잔뜩 찌푸려 있었고, 벚꽃이 피기 시작한 거리엔 때아닌 눈발이 날렸다. 호텔 정문은 짐을 부리거나 싫는 승용차들로 붐볐다. 주방 유니폼을 입고 거리로 나서면 사람들이 모두 나를 쳐다볼 거라 걱정했던 것은 기우였다. 다들 제 갈 길이 바빴다. 한길에 면한 화단을 돌아 나오자 변심한 애인처럼 전혀 다른 모습의 호텔 옆모습이 있었다. 높은 빌딩과 빌딩 사이, 누구 하나 죽어 나가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깊고 검은 골목의 중간쯤에 대형 쓰레기 컨테이너가 있었고, 바로 그 옆에 철문이 있었다.

“직원은 여기로만 다녀야 해. 절대로, 네버, 정문으로 가면 안 돼.”

그는 미리 비밀번호를 적어 온 포스트잇을 내밀고 시범을 보이더니, 내게도 문을 열어보게 했다.

79#. 철문 안에는 좁고 가파른 계단이 끝도 없이 돌돌 말려 있었다. 오래전 벨기에 브뤼셀의 교회 종탑을 올라갔을 때에도 이런 계단이었다. 대학을 막 졸업한 후였다. 별 기대 없이 응모한 신춘문예에 운 좋게 당선

이 되었다. 그 상금으로 유럽여행을 떠났다. 올라갈 때 내려오는 사람을 만나면 몸을 벽에 붙이고 서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는 했다. 내려오는 사람이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먼저 얼른 벽에 등을 붙였다. 내 뒤로도 사람들이 줄줄이 올라와, 힘들어도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평계로 쉴 수 있어 내심 반가웠다. 그렇게 올라간 교회 종탑에서 숨을 헐떡이며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금방이라도 마차가 달릴 것 같은 중세의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두 손을 곱게 모으고 기도했다. 그러나 할머니가 될 때까지 소설을 쓰게 해달라는 허황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단 직후 문학잡지에 몇 편의 소설을 발표했지만 거기까지였다. ‘작가의 대성을 예감한다’던 심사평이 무색하게, 아직도 소설집 한권 내 보지 못했다.

직원용 출입구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오면 미로 같은 복도가 나왔다. 콘퍼런스 룸과 레스토랑, 뱅ケット홀 등이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남은 자투리 공간을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 같았다. 땅굴같이 좁고 긴 그곳에는 유니폼을 수선하거나 세탁하는 세탁소, 직원용 휴게실과 남녀 탈의실이 있었다. 굳이 호텔의 다른 시설에 비교하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소박한 공간이었다. 복도에는 수건이나 대형 뷔페용 그릇들이 쌓여 있고, 객실 청소를 하는 직원들은 샴푸나 볼펜 같은 객실 용품을 실은 카트를 한쪽에 세워두고 벽에 기대앉아 간식을 먹었다. 그 사이로 갖가지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직원들이 호텔의 저편으로 총총 걸어 나갔다.

“홍합의 껍데기에 붙은 이물질은 이렇게 칼로 긁어 제거하고, 입에 물고 있는 거친 섬유질은 쭉 잡아 당겨. 타임과 월계수잎, 양파와 마늘 등을 넣고 생선육수를 부어 데쳐서 해물 리조또를 만드는 거야. 레몬! 비린내를 제거하는 레몬도 꼭 넣어. 다 되면 판자 두 개, 새우 두 개, 조개 두 개를 리조또 가장자리에 빙 둘러 세워 손님한테 내는 거지. 맛과 프레젠테이션 두 개를 다 생각해야 해. 호텔이니까. 참, 리조또는 육수를 한꺼

번에 부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미리 데워놓은 육수를 조금씩, 조금씩 첨가해주는 게 키포인트야.”

어쩐 일인지 매튜는 요리과정까지 세세히 설명해주었다. 실습시간의 대부분은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는 재료를 무작정 다듬는 맹목적인 시간이었다. 그게 유난히 힘들었다. 내가 채치고 있는 양파가 그뤼에르 치즈를 듬뿍 넣은 프렌치오니언 스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지루함과 막연함을 견디기가 훨씬 쉬웠을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 엄마는 세탁소, 식당, 청소부, 마트직원, 안 해본 일이 없어. 그러다가 나이 마흔에 다시 간호사 공부해서 지금 아동병원의 간호사야. 꿈을 쫓는 일에 너무 늦은 때란 없는 법이지.”

뭔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내 나이가 애석했는지 매튜의 가르침이 눈물겨웠다. 나는 매튜의 엄마가 몇 살인지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다. 대신 매튜의 얼굴을 걱정스레 바라보았다. 매튜는 아까부터 홍합 삶을 때 쓸 화이트 와인을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다. 매튜의 발그레한 얼굴을 보니, 갑작스런 친절이 폭풍 전야처럼 불안했다.

매튜는 첫날부터 마치 나를 시험하듯 사사건건 고난에 빠뜨렸다. 버섯이나 샐러리 같이 비교적 다루기 쉬운 것은 자신이 다듬고 단호박이나 버터 스쿼시처럼 손질이 성가신 일은 내게 던져 주었다. 매튜는 일을 시키기 전에 깐족거리며 시범을 보이곤 했다. 짧고 경험 많은 그의 손안에서는 늙은 호박도 두부처럼 쉬워졌지만 내 손에서는 호박이 쟁덩이처럼 단단해졌다. 칼도 들어가지 않는 것을 껍질 벗겨서 주사위처럼 각지고 일정하게 썰고 있자면 손바닥에 금세 물집이 잡혔고, 물집은 곧 터져 벌려 살이 쓰려왔다. 초기 관절염을 앓고 있던 오른쪽 검지는 실습 시작 사흘 만에 두 배로 부풀어 올랐지만, 주방이 일터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은 말할 거리도 안 되는 사소한 일상이었다.

요리 학교에서 제법 인정을 받았던 내 손맛은 한 번도 보여줄 기회가

없었다. 아무도 그것을 요구하거나 궁금해 하지 않았다. 그들이 실습생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숙련된 노동력이었다. 평생 아마추어로 살아온 내게 뼈와 근육까지 길들인 기술이란 게 있을 리가 없었다. 나는 뛰든 서툴렀고, 늘 힘이 딸렸다.

“아직도 못 끝낸 거야?”

홍합을 다듬는 나를 보고 매튜는 잊지 않고 한마디 했다. 서두르느라 칼이 스쳤는지 왼쪽 엄지손가락에서 피가 번져 나왔다. 나는 매튜가 피를 보지 못하게 얼른 손가락을 입에 물고 뺐았다.

처음 한동안은 얼치기 취급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하든 환심을 사려고 애를 썼다. 맹큐를 입에 달고 다니며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만연한 미소를 지었다. 나에게 맹큐는 무의식적인 조건반사에 가까웠다. 미움 받지 않고 밀려나지 않으려는 바둥거림이었다. 하지만 그런 바둥거림은 그 누구도 감동시키지 못했고, 나는 더 의기소침해졌다. 아무것도 단련되지 못했지만 날은 훌륭했다. 사람들은 점차 나를 고문관쯤으로 취급했다. 어느새 나는 불쌍하거나 미련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피로가 적금처럼 쌓여갔다. 지친 몸에 맑은 정신 같은 건 수도자에게나 있는 것이었다. 지친 몸 안에서 정신은 너무 쉽게 달나라에 갔고 그 와중에 꿈틀거리는 자의식은 거추장스러웠다.

“나는 작가야.”

요리 학교에 다니기 전엔 어떤 일을 했냐는 모니카의 질문에 그만 작가라고 대답해버렸다. 내 전직이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양파를 두 시간째 다지고 있는 내가 한심해서였을 것이다. 그것은 느리고 서투르다는 말을 전달하는 모니카의 방식이었다. 모니카의 말은 늘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나, 잠들기 전에 다시 떠올랐다. 들을 땐 몰랐다가 뒤늦게 속뜻을 알아채고 밤잠을 설친 적도 많았다. 그

렇다고 작가라는 말이 불쑥 나와 버릴 줄은 몰랐다. 그것은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참말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했다. 과장은 컸다. 모니카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마치 거지가 왕자였다는 걸 알아차린 듯 호들갑을 떨었다.

“오 마이갓, 오 마이 가쉬! 니콜이 작가래. 소설을 쓴대.”

소설을 쓴 것이 언제 적인지 생각도 나지 않았다. 발표하지 못한 지는 이십 년이 지났다. 하지만 선부른 자백으로 분위기를 죽일 필요는 없었다. 사실 나는 꽤 통쾌해 하고 있었다. 실컷 얻어맞다가 얼떨결에 휘두른 어퍼컷이 제대로 들어갔을 때의 느낌이 이럴까 싶었다.

모니카에게 문학이 어떤 의미일지 이전부터 어렵듯이 눈치채고 있었다. 모니카의 나이프 박스에는 늘 한두 권의 소설책이 들어 있었다. 일시작 전 휴게실에서 혼자 뭔가를 읽거나 끼적이는 그녀를 자주 목격했다. 다른 스태프들에게 최근 읽은 책을 권하기도 했다. 어릴 적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를 언젠가는 꼭 책으로 써 보고 싶다고 말하는 걸 우연히 들은 적도 있었다.

점심시간 직원 휴게소의 둥근 탁자에 둘러 앉아 소설 이야기를 할 때, 유난히 반짝이던 그녀의 파란 눈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아마 내 눈도 그 만큼 반짝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순간에는 늘 뭔가 모자란 주방실습생으로 실추된 명예를 되찾고 싶은 마음이 이글거렸다. 그러나 마땅한 타이밍을 찾긴 힘들었다. 너무 빨라 반쯤은 놓친 대화 속으로 치고 들어 가지 못하고 입안에 돌던 말을 쓰게 삼키기 예사였다. 결국 나는 고개를 처박고 묵묵히 샐러드 속의 병아리 콩을 집어 먹다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서곤 했다.

오랫동안 소설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쓰고 읽는 것을 멈춘 적은 없었다. 늘 새 소설을 구상했고, 플롯을 짰다. 그러니 작가라는 말이 꼭 거짓은 아니었다. 막내가 대학에 진학하면, 큰아이로부터 시작된 육아의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터였으므로, 그때부터 나는 오롯이 글을 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었다. 막내는 지난 가을 대학에 들어갔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전에 환기를 위한 여행을 좀 다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오랫동안 동경했던 인도차이나반도의 깊고 푸른 정글을 석 달쯤 돌아다니다가, 지칠 때쯤 다낭으로 들어가 월세 방을 얻고 소설을 써야지. 틈만 나면 놀러오라며 문자를 보내곤 하는, 치앙마이에서 민박집을 하는 친숙이한테는 깜짝 방문을 해야지. 그곳에서도 두 달쯤은 머물러야겠다. 밤에는 반바지에 슬리퍼를 끌고 동네 재즈 카페에 가서 태국산 맥주를 마셔야지.

여행할 도시를 검색하고 비행기와 싼 숙소를 알아보던 내가 갑작스레 요리 학교에 들어 온 것은 누가 봐도 황당하고 엉뚱한 짓이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면, 어디 밴쿠버의 커뮤니티 칼리지라도 알아봐 달라는 여고 동창의 부탁으로 학교 웹사이트를 돌아보다가 ‘프로페셔널 쿡2 – 요리사 2급’ 코스를 봤던 것이다.

왕복 네 시간이 걸리는 통학 거리와 꽤 비싼 등록금이 마음에 걸렸으나, 배워두면 요긴할 것 같았다. 요리는 집안일 중 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것이고, 재주도 있는 편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운이 좋으면 돈벌이가 되는 직업을 구할 수도 있고, 말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고향 언덕에 작은 게스트 하우스를 차리겠다는 남편의 계획과도 맞아떨어졌다.

나는 틈틈이 모아둔 여행 경비를 모두 등록금에 쏟아부었다. 막상 여행 일정이 다가오자 혼자 가는 여행이 와락 무서워진 것도 이유라면 이유였다. 지난 이십 년 동안 여행이라고는 가족과 함께 한국에 서너 번 다녀온 것이 전부였다. 체력도 자신이 없었다. 나이 든 여자가 혼자 여행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금세 백 가지쯤 모아졌다. 그쯤 되니 소중한 보물처럼 아껴둔 꿈이 곤혹스러운 존재로 변해 버렸다. 요리 학교는 그런 곤혹스러움을 덜어줄 좋은 완충제였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탐구라면 요리 학교가 여행보다 못할 것도 없다는 친구의 충고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더 이상 하루도 버티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실습이 끝났다. 주방 모자를 벗고 거울을 보았다. 얼마 되지 않는 머리카락이 땀에 절어 납작하게 붙어 있었다. 손가락을 넣어 두피를 휘저었다. 하루 종일 눌려있던 머리카락은 짓밟힌 들풀같이 매가리라곤 없었다. 실습을 마쳤지만 성취감이나 뿌듯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다들 멀쩡하게 해내는 일을 유독 나만 눈물을 참는 아이처럼 울먹이며 견뎌냈다는 게 끝까지 부끄러웠다.

서둘러 유니폼을 벗었다. 펜과 스폰이 우두둑 바닥으로 떨어졌다. 파랑 빨강 유성 펜이었다. 재료 수납 시에 날짜와 품목을 꼭 적어야 했으므로 유니폼의 팔주머니에는 늘 이것들이 꽂혀 있어야 했다. 펜을 주섬주섬 주워 나이프 박스에 던져 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냈다. 반납할 행주 속에 펜을 넣고 둥글게 감쌌다. 세탁기 속에서 잉크를 풀어내며 둉둥 떠다닐 것을 상상하니 뭔가 야릇한 기쁨이 몰려왔다. 행주 속에 든 펜을 하얀 유니폼 속으로 옮겼다. 제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무사히 세탁기 속에 들어가 임무를 완수해 주기를 기도했다. 세탁실 앞 커다란 수거함에 옷을 돌돌 말아 던져 넣었다. 나와 함께 실습을 나왔던 존은 매번 펜이 유니폼에 딸려 들어가는 바람에 여섯 개나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렇게 많은 펜을 세탁물에 섞어 넣어도 언제나 유니폼은 하얗게 씻겨 다림질되어 나오는 게 신기하다고 그는 감탄했다. 세탁물에서 펜을 골라내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볼펜 잉크쯤은 간단히 지워내는 특수한 세제가 있는지, 세탁기 속에 볼펜만 모이는 통로라도 따로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마지막 날이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정문으로 나가볼까 하다가 그냥 늘 다니는 계단으로 내려갔다. 마음은 가볍게 텅텅 뛰어 내려오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다리가 너무 무거웠다. 한 달 동안 라커에 넣어두고 썼던 나이프 박스를 메고 어기적거리며 내려왔다. 발걸음을 멎 때마다 나

이프 박스 속의 요리 도구들이 철거덩철거덩 소리를 냈다. 스무 가지가 넘는 요리 도구 중 내가 사용한 것은 칼과 껍질 벗기는 필러뿐이었다.

첫 번째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릴 때, 신호등 바로 뒤에 오래된 상수리나무가 연한 새잎을 매달고 오후의 햇살 아래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였다. 문득 오래 수족처럼 끼고 살았던 어떤 슬픔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낮잠에서 깨어나 이유 없이 서럽게 울던 시간. 온몸이 흠뻑 젖도록 추적추적 비를 맞고 걸어 다니곤 하던 시간. 늦은 오후 까지 벗어나지 못했던 침대 위에서 차츰 작아져서 손톱 만한 점이 되곤 했던 시간들이 내게도 있었다. 편두통처럼 늘 머리 한쪽을 짓누르고 있던 무병 같은 슬픔이 말끔해진 것 같았다.

결국 돈 봉투는 찾지 못했다.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없으니 황당했다. 별별 가능성을 다 떠올려 봐도 돈뭉치가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납득되지 않았다. 그러니 아직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미련을 완전히 떨쳐 버릴 수도 없었다. 여전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이미 뒤집어엎은 옷장을 또 뒤질 때가 있었다. 매트리스나 소파처럼 봉합된 곳조차 뜯어보고 싶어 안달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어렵잖이 알았다. 기대도 실망도 차츰 얹어져 어느 순간 그것을 까맣게 잊게 될 날이 오면, 또 다른 잃어버린 물건을 찾다가 우연히 그것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람에 바다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뭇잎이 가볍게 몸을 뒤척이고 그 사이로 길게 누운 햇살이 지나갔다. 상수리나무 옆 키 작은 벚꽃나무에서 몇 남지 않은 꽃잎이 분분히 흩어져 내렸다. 나이프 박스가 무거웠지만 버스 정류장을 지나 내쳐 걸었다. 퇴근 시간이 시작된 거리는 조금씩 더 복잡해졌다. 철커덩 특, 철커덩, 특. 나이프 박스의 소리가 거리의 소음들에 묻혀 점점 작아졌다.

크라쿠프의 피에로기

신수정 (독일)

1월 말, 엄마가 온다는 연락을 받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듯 싶었다. 1월 설에 시댁을 방문했으니 2월 음력 설에는 친정에 휴가를 올인하겠다는 올케언니의 선언이 내려진 후여서 엄마의 갑작스러운 방문의 이유가 짐작되기는 했다.

부엌대장에서 해방된 엄마의 콧바람 섞인 외유일수도 있고, 또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항의하기 위한 엄마의 방식일수도 있다. 핏줄로 연결된 딸의 감각으로 후자일 가능성성이 높아보였다.

엄마는 공항에서 20리터짜리 등산 배낭에 양손에 가득 쇼핑백을 든 채 나타났다. 엄마는 인사를 푸념으로 대신했다.

“지들이 꼭 다른 명절에는 다 오는 것처럼 그러지. 설날에도 애들 앞세우고 세뱃돈 받으러 왔다가 반나절만에 가버려 놓고선 구정에는 친정에 만 있겠단다. 아이고. 내가 동네 창피해서 여기로 온거야. 이모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냐. 손주들 키워주고나서 지들이 건사할 수 있게 되니까 친정만 챙기는 거 봐라. 아들은 낳아서 혗고생이야. 남만 좋은 일 시키는 거여.”

그 말 속에는 나도 딸이 있다, 그러니 딸 덕 보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 가슴 한 편이 쪼그라들었다. 이민 생활이 8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나는 이곳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허덕이고 있다.

해를 넘겨 엄마를 본 딸의, 공항에서 으레 다시 만난 가족을 반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는 다정하게 엄마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이끌었다. 남편은 엄마의 짐을 카트에 모두 옮겨 넣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일흔에 가까운 노인 혼자 꾸리고 온 짐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부피다.

“저 김은 산다는 거 까먹어서 공항 면세점에서 겨우 사 왔다. 동네 마트에서 원플러스원 하는거 사 갖고 왔으면 쌌을텐데, 세금도 떼는 면세점인데 왜 그리 비싸게 판다니. 저건 나물이랑 얼린 생선. 또 저 작은 백은 된장이랑 고추장 참기름 좀 넣었다. 그리고 깨 볶은 거랑 매실청도 좀 많이 담아 왔지.”

엄마의 부연 설명은 짐 가방을 트렁크에 애써 옮겨 싣는 사위에 대한 미안함을 중화시키려는 변명처럼 들렸다.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와. 집에 있는 먹을 거 다 싸들고 온 거 아니야? 아빠랑 서영이는 엄마 없을 동안 뭐 먹는대?”

퇴직 후 무기력하게 집에서 TV보는 낙으로 사시는 아빠와 직장에 다니는 동생의 안부가 걱정되었다.

“아유, 알아서 잘챙겨 먹겠지. 밥은 느이 아빠가 할 줄 알고 반찬은 서영이네 회사 옆에 백화점 있으니까 서영이가 반찬 사 오던지 뭐 알아서 잘 먹겠지. 뭔 걱정이냐. 야, 요새 그러더라. 남편이 집에서 삼시세끼 다 얹어먹으면 삼식이, 그리고 종종 간식까지 챙겨달라고 하면 종간나 ‘세’끼 란다. 니 아빠가 그거여.” 엄마가 키득거렸다.

외국인인 남편이 이 대화를 못 알아듣는 것이 이렇게 다행일 수가 없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자, 금세 시골 봄날의 장터가 펼쳐졌다. 엄마가 들고 온 배낭에는 혹시 눌릴까 신문지와 포장지로 넉넉히 둘러싼 나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엄마, 음식이 아니라 일거리를 싸 들고 왔네? 이거 다듬으려면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엄마 딸 아니랄까봐, 나는 달래 한 끓음을 집어 들며 엄마의 수고에 고맙다는 인사를 짜증으로 대신한다.

“도토리묵 가루를 엄청 가져왔어. 묵 먹으려면 달래가 있어야 되니깐.”

엄마가 나를 나무라듯 힐끗 보며 나물이 다칠까 아기를 안아올리는 정성으로 신문지에 싸인 나물들을 두루두루 펼쳐냈다.

“와, 나물은 정말 오랫만에 본다. 마트에서 안 팔거든.”

“여기 사람들은 나물도 안 해 먹고 산다니? 자, 이건 방풍인데 풍을 막아 준단다. 느이 시할아버지가 놀졸중으로 가셨다며. 그래서 일부러 구해 온 거야. 네 남편 해주라고. 나물이 금값이야. 요 만큼이 만이천원이다. 먹어 보고, 잘 먹으면 내가 EMS로 계속 보내 줄게.”

엄마는 내심 뿌듯한 목소리다.

“됐어. 괜히 우체국 좋을 일 하지 말구. 근데 우리 애들하고 남편은 빵 먹어서 밥에다 나물 먹을지 모르겠다.”

내가 들어도 얄미운 소리를 나는 찾아서 하고 있다.

이상하게도 엄마가 내 집에 오면서 이렇게 많은 짐을 꽁꽁거리며 지고 왔다는 게 속이 상했다.

결혼한 후로는 엄마가 나를 챙기면 어쩐지 나는 엄마에게 지는 것 같아 부아가 났다. 엄마가 나를 위해 이런 수고를 했다는 것이 왜 속상한 걸까.

아마 엄마가 나한테 잘해 주면 나는 엄마를 계속 미워할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나의 비뚤어지고 모난 마음은 엄마를 그리워하면서도 또 마음 한구석

에 엄마에 대한 서운함을 쌓고 있었다.

엄마가 본격적으로 미워지기 시작한 것은 오히려 엄마와 떨어져 살기 시작한 다음부터였던 것 같다.

엄마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것은 남편을 택한 대신 엄마의 손을 놓아버린 것과 다름없었는데 이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내 엄마인 ‘김선희’라는 사람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 계기가 되었다.

기억속의 엄마는 집안에 있는 것을 못 견뎌 하는 사람이었다. 엄마는 필사적으로 집 밖에서 엄마의 사회를 만들려고 했으나, 좀처럼 잘 되지 않았다. 시골에서 잘살고 있는 엄마친구들을 부추겨서 엄마는 끝없이 장사 계획을 벌였다.

나는 지금도 자영업을 살리자는 투의 기사를 접하면 가벼운 소름이 돋는다. 아니, 자영업은 망해야 한다. 나는 광화문 광장에 나가 외치고 싶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도박이나 다름없다. 대박집이라는 혀황된, 어설픈 행운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

동네 식당이 망하는 확률은 열에 일곱. 흡연으로 폐암을 얻게 될 확률에 비해 월등히 높다. 나는 담배곽에 폐암을 경고하는 문구와 끔찍한 그림이 붙어있는 것처럼, 맛집을 광고하고 성공을 자축하는 티비 프로그램에도 화면 아래 경고문구를 붙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신은 창업으로 임대료 및 권리금을 뜯기고 빈털털이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 문구 아래에다가는 망한 가게의 인테리어를 손으로 뜯어내고 있는, 패배감이 어린 엄마의 얼굴을 집어 넣고 싶었다.

수많은 가게를 오픈하고 또 닫으면서, 시작할 때의 엄마는 사장님 소리에 흐뭇해하며 인테리어 업자에게 당당하게 이것저것 주문했지만 가게가 망할 때면 철거 비용이 아까워 실내 장식을 맨손으로 뜯어내곤 했다.

언젠가 엄마는 풍수지리 인테리어에 관한 책을 하나 사 와서는 곧 피라미드를 주문 제작해서 호프집 입구에 세워 놓았다. 피라미드 안의 미라가 썩지 않는 것처럼, 피라미드 모형을 입구에 세워 두면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인다는 논리였다. 아빠가 이내 미라가 썩지 않는 건 내장을 빼고 방부제를 발랐기 때문인데 손님들 곰장어 구이도 미라로 만들어 내 갈거냐고 반박했지만 엄마의 막무가내를 막지 못했다. 그때쯤 집 근처에 들어선 홈플러스의 지붕 디자인이 피라미드 모양이라는 것도 엄마의 논리를 굳히는 데 한몫했다. 홈플러스가 얼마나 장사가 잘되느냐는 거였다.

“그러든지 말든지.”

동생은 동방신기 화보집을 뒤적거리며 중얼거렸다.

“카시오페이아 마크를 저걸로 했으면 멤버들이 안 나갔을려나?”

그렇게 가게 문 옆을 부담스럽게 지키던 피라미드 모형은 가게가 망한 뒤에는 우리 집 현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새롭게 발견한 엄마의 사채 빚에 분노한 아빠가 바닥에 내려침으로써 수명을 다했다. 아, 그 피라미드 모형은 이별까지도 존재감을 발휘해 관값으로 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불해야 했는데, 그것도 아파트 나무 바닥이 주저앉아서다.

엄마의 요식업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만둣집이었다. 엄마는 달인을 소개하는 티비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는, 만두로 성공할거야! 라고 독립 열사처럼 부르짖었다. 엄마는 그동안 요식업에서 실패한 것은 수업료를 지불한 것이고 이제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만두는 미리 만들어놓았다가 물량이 모자라면 얼려 놓은 것을 꺽 내면 되니 일손이 덜 필요하고, 메뉴가 적으니 재료 낭비가 덜 하고, 또 찐 만두와 군만두, 만둣국으로 분화시켜 놓으면 매일 오는 단골손님도 질리지 않게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였다. 그 때만큼은 아빠도 우리도 엄마를

말렸다. 우리 모두는 엄마의 열정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엄마가 무언가에 열중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모두의 미래의 희생을 담보로 잡아놓는 것이었기에. 그러나 토론에서 이기는 사람은 가장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목소리가 큰 사람이다. 엄마는 기어이 만둣집을 차렸다.

모두의 우려와는 다르게, 만둣집은 차린 후 서너 달까지는 그럭저럭 잘 되었다.

날씨 덕이었다. 영업 개시는 11월 초였고 곧 추운 날씨가 엄마의 동업자가 되었다. 퇴근길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만두에 후각을 빼앗긴 직장인들이 가족에게 줄 만두를 사 들고 갔다. 그러나 봄이 되자, 황사로 인해 만두 통을 밖에 내 놓고 장사할 수 없게 되면서 엄마의 장사는 서서히 과거의 전철을 밟고 있었다.

더워지는 날씨도 문제였다. 만두는 쉽게 상했고 회전률이 높지 않은 날에는 꺽 놓은 만두를 통째로 버려야했다. 우리는 매일같이 만두로 저녁을 때웠다. 만둣국, 만두야채볶음. 만두라면. 너무 지긋지긋한 날에는 동생과 나는 만두피를 벗겨내고 만두속을 고추장 듬뿍 친 밥에 비벼 먹었다. 트림을 하면 만두 냄새가 올라왔고 온 가족이 풀썩풀썩 귀는 방귀 냄새가 똑같아졌다.

엄마는 필살의 일격으로 텔레비전 출연을 결심했다.

알음알음해서 브로커를 소개받았는데, 오백만 원을 주면 먹거리를 소개하는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갈 수 있다고 했다.

맛집으로 소개되는 거니 동원되는 손님도 적어도 하루동안 낮 밤으로 오십 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지불은 별도라고 했다. 피디 상납 등의 떡값까지 모두 헤아려보니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엄마는 내 이름으로 넷 대출로 이 돈의 일부를 충당했다. 그리고 방송이 결정된 날에

우리 가족 모두는 백인분이 넘는 만두를 만들어 놓고서 방송국 차를 기다렸다. 하지만 오후 5시가 넘도록 약속된 방송국 차와 브로커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엄마는 만둣집을 닫았다.

모든 사업의 꿈을 접은 후 엄마는 한동안 집 안에 갇혀 살았다. 햇빛을 보면 죽는 가녀린 꽃, 아니 엄마 말대로 지렁이라도 된 듯이 엄마는 집 안에서 화초를 가꾸며 흙을 쥐고 살았다. 사람처럼 징그러운 생물체는 없다고 했다. 꽃을 보고 있으면 세상에 대한 배신과 세상에 당한 모멸을 잊을 수 있고, 인간의 삶의 굴레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아니, 이건 엄마가 한 말이 아니라 당시 중 2병을 앓고 있던 동생이 한 말이다.

그리고 나는 천안에 있는 독일계 자동차 회사에 경리로 취직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사에서 파견 나와 있던 독일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말이 없고 조용한 내가 우아해 보여 좋다고 했다. 우아하다는 말은 그 말 자체로 나를 압도시키는 힘이 있었다. 마치 내가 자라온 환경과 가족들을 통째로 부정하는 배신을 선사하는 기분이었다. 쉽게 표정을 드러내지 않는 나를, 눈치를 보는 기민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 고요한 분위기의 여인으로 봐 주는 사람은 흔치 않을 뿐더러, 서로의 배경에 대한 계산과 가족의 간섭이 적은 국제결혼이라, 나는 그의 정혼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점차 그의 은근한 다정함과 세심함에 매료되어갔다.

이번 엄마와 나 둘만의 여행을 제안한 사람도 남편이었다.

남편은 열 시간 넘는 비행을 견디고 엄마가 독일에까지 왔으니 유럽의

다른 나라도 보여 주는 것이 외국에 나가 사는 딸의 도리라고 했다. 하긴 잘 키운 딸은 비행기를 태워준다니 그 말이 맞다.

지난 방문에서 엄마를 모시고 서유럽의 여러 나라를 다녀왔으니 이번에는 동유럽이 어떨까 했는데, 마침 출장이 잦은 남편에게 폴란드 유명 호텔의 풀코스 바우처가 있었고 그걸 쓸 목적으로 우리 모녀의 여행지는 크라쿠프로 정했다.

지난 여행에서 성당의 웅장한 모습과 스테인드글라스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했던 엄마의 말도 이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 스트라스부르의 대성당에서였나. 어린 시절, 고요하게 기도하는 언니들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 한동안 성당에 다녔다고, 엄마는 수줍게 고백하듯이 나에게 속삭였었다. 그 때 엄마의 눈은 혼자 어떤 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것 마냥 촉촉했던 것 같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크라쿠프는 ‘천주교 성당의 도시’라는 별칭이 있다고 했다. 그는 크라쿠프 시내 관광 지도를 프린트해서는 카톨릭 성당의 위치를 가장 편한 동선으로 짜서 표시해 주었다. 누가 독일사람 아니랄까봐. 하지만 엄마의 관심사를 챙겨주는 남편의 자상함이 뿌듯하게 느껴지는 것은 역시 어쩔 수 없다.

그런 남편의 기대와는 다르게, 엄마는 성당에도, 동유럽에도 그다지 흥미가 없는 듯했다.

여행을 떠나면 어쩐지 저기압이 되는 엄마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체크인 줄에 벌써부터 입이 나와 있었다.

저가 항공답게 버스를 타고 탑승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은 차치하고, 수화물을 추가 요금을 내고 부쳐야 하는 데에서 또 작은 실랑이가 있었다. 엄마는 그 몇푼을 아끼고자 하는 나의 가난한 근성이 불만이었고, 나는 또 엄마의 배포 큰 관광객의 호기로움이 거슬렸다.

나름 서프라이즈였던 행선지를 알려 주니 엄마는 2월의 추운 날씨에 동유럽을 가는 것도 당혹스러워했다. 아마도 엄마는 좀 더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 이탈리아나 포르투갈의 해변을 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와서야 그런 생각에 미치다니.

추운데, 더 추운데를 찾아가다니 하고 엄마는 입이 벌써 나와 있다. 엄마가 무언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때는 엄마와의 대화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수다.

이 와중에 손에 땀이 나는 긴장감이 어쩐지 여행이 주는 설레임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날씨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독일의 것과는 비교 불가의 얼음이 박힌 듯한 바람이 얼굴로 내려 꽂힌다. 크라쿠프는 오늘 영하 5도.

엄마는 한국에서부터 입고 온 얇은 까만 통쾌딩이 전부였다. 체구가 크고 당당한 보폭의 서양사람들 사이에서 작고 마른 나이든 동양여자의 무언가 쓸쓸해보이기까지 하는 빈약함이 나를 슬프게 했다. 이곳 사람들 이 입는 두터운 가죽이나 털이 달린 아우터를 좀 사 주면 나아질까 싶어 나는 크라쿠프 역에 딸린 쇼핑몰로 엄마를 끌고 돌아다녔다.

엄마는 한 밝은 베이지색 코트 앞에서 발을 뗄지 못하고 서성였다. 만지면 바로 사야할 까봐 두려워하듯이. 활달하고 두려움 없는 엄마의 모습에 익숙한 나는 소심해진 엄마의 그런 모습이 낯설다. 어느새 숱이 많이 비어 횃한 것 같은 엄마의 정수리마저도.

“엄마, 이쁘겠다. 한번 입어 봐.”

“글쎄. 때가 될 것 같아서. 엄청 따뜻해보이긴 한다, 그지?”

코트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펼쳐들고 보니 아주 고운 달걀껍질색이다. 엄마를 대형 거울 앞으로 끌고 가서 양지로 입힐라치니, 엄마는 선물

을 받는 아이처럼 두근두근한 표정이다. 코트는 아주 예뻤다. 옷을 빛나 보이게 하는 매장의 불빛을 받으니, 걱정없이 자라난 어느 부잣집 아가씨의 날개처럼 코트도 그렇게 빛이 났다.

하지만 xs사이즈인 코트의 소매가 엄마에겐 너무 길어서 어른의 옷을 몰래 입은 아이같은 모양새다. 코트는 더구나 심술쟁이여서, 엄마에게서 나는 멋조차도 빼앗아 자기것으로 만들어 빛날 요령이기라도 한 마냥, 코트는 혼자 마냥 예뻤다. 그것을 엄마도 눈치챘을까봐, 내 심장은 더더욱 쪼그라들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코트를 벗겼다.

“서양사람들이 팔이 긴 가봐. 핏이 좀 안 맞네.”

“에잇, 옷이라고 하는게 다 꼴같잖다.” 엄마는 횃하니 먼저 매장을 성큼성큼 나가버렸다.

예민해진 엄마는 호텔의 작은 엘리베이터도 불만이었다.

“여기는 짐은 큰거 가지고 못 타겠다. 한국 호텔들은 다 널찍넓찍한데. 너네는 참 알뜰하게도 사나보다. 기껏 유럽까지 와서 이건 좁아빠진 데 있다 돌아가는 꼴이고.”

호텔을 후진 걸로 예약했다는 투가 남편을 무시하는 것 같아 속이 끊어올랐다. 나는 아직 남편이 정성스럽게 체크해준 지도를 손에 꼭 쥔 채였다.

엄마는 대체 우리한테 월 그리 잘해줬는데? 나 결혼할 때 이불 한 채라도 들려보내줬어? 아니면 오빠네 애들을 키워줬던 것처럼 우리 애들한테 다정한 할머니가 되어줘봤어?

나는 이 날카로운 말들을 삼키느라 볼이 얼얼해질 지경이었다. 나는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려 했다. 단지 엄마가 내가 살고 있는 유럽을, 그리고 내 남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한 선택을 엄마가 비웃는 것 같아 마음이 찔리고 또

괴로웠다. 마치 시댁을 남몰래 흉보고 싶지만, 친정엄마가 흉을 보면 그 것은 또 그래도 괴로운 것이다. 나는 내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날이 돋힌 말은 결국 호텔 방에서 우리 둘의 공간을 만나자 사정없이 튀어나왔다. 완충 작용을 해 줄 아이들도, 남편도 이곳에 없다. 이제 겨우 시작한 2박3일의 모녀여행이 처절하게 실패했음을, 나는 먼저 온순한 딸의 가면을 벗어던짐으로 인정하고야 말았다.

결국 우리는 모녀다. 우리는 서로가 가장 아플 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는 지난 날들에 대한 엄마의 후회를 공격했고 엄마는 가족을 떠나 이민을 가버린 내 선택을 비난함으로써 딸로서의 죄책감을 타겟으로 삼았다.

“애를 낳고 나면 부모가 이해가 된다던데, 나는 애를 낳고 나니까 더 엄마가 이해가 안 가더라.”

나는 태연하게 짐을 풀며 트렁크의 옷을 옷걸이에 걸어 옷장에 넣으며 말을 던졌다.

“어떻게 꿀랑 아홉살, 네살된 애들을 놓고 밖에 나가냐. 아홉살짜리도 그냥 앤데. 그 애한테 어떻게 더 동생을 보라고 해.

우리 딸이 지금 여덟살인데 나는 집 열쇠도 못 쥐. 학교에서 돌아올 때 되면 항상 집에 있지. 마음이 달아서.”

엄마는 아무 말도 없다. 나는 좀 더 공격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엄마 사위는 엄마 말대로 대학도 못 나오고 별볼일 없는지도 몰라도, 나 그거 하나는 부럽더라. 우리 시어머니같은 엄마 둔 거. 본인 아들 잘 챙기시고 우리 애들도 정말 잘 놀아주셔. 시간을 내어 준다는게 나는 그

게 육아구나 싶더라. 그거 하나는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배웠지.”

“그래, 시어머니라도 제대로 뒀으니 잘 됐다.” 엄마는 트렁크의 지퍼를 거칠게 내렸다.

“그래서 키워 놔서 직장 좀 다니나 했더만, 대학 못 나온 놈한테 시집을 쪼르르 가버리냐? 장녀라고 있는게 집이 제일 힘들 때 외국놈이랑. 내가 쪽팔려서 너 결혼한다고 말을 못해서 축의금 다 날렸어, 이년아. 돌려 받지를 못해서 그 아까운 걸 어쩔거냐고.”

엄마는 빨간색 때타을을 챙겨 샤워실 문을 쾅 닫았다.

“아이구 이건 앉을 데도 없네. 목욕도 이렇게 불편하게 하라구. 여긴 왜 비누도 없어!”

엄마의 짜증 섞인 소리가 샤워실을 타고 귓가에 꽂혔다.

크라쿠프는 들판 대로 성당이 많았다. 추운 날씨에 동동거리며 성당 투어를 하고 나니 작은 올드타운을 거의 다 돈 셈이었다. 올드타운 끝을 지키는 수문장처럼 서 있는 작은 성에 올라가 그 옆을 유유히 흐르는 강을 배경으로 사진까지 찍고나니 더 이상 할 게 없었다. 우리는 메인 광장의 기념품 가게를 왕복으로 돌며 시덥잖은 열쇠고리와 스카프를 한 두개씩 사고, 러시아식 텔모자도 머리에 써 보고 귀마개도 해 보았지만 사지는 않았다. 걷고 있으나 두 다리가 동동 뛴 기분이다. 여행자의 의무로서 반사적으로 다리가 움직인다. 나는 어느새 관광가이드의 자세로 엄마라는 고객님의 만족을 위해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다.

남편이 소개해 준, 미슐랭가이드에 나왔다는 한 해산물 레스토랑에서 엄마와 나의 허둥댐은 극에 달했다. 우리는 연미복을 입은 웨이터가 가져다 준 서너 개의 유리잔의 용도를 궁금해하며, 또 몇개나 되는 포크의 쓰임이 맞는지에 불안해하며, 팁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 문제로 식사 내용 고민했다. 여행의 긍정적인 긴장도 이제는 삼키면 체할 것 같은 불청

객이 되고 말았다.

점심으로 선택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은 만큼의 기를 다 빼앗기고 왔던 우리는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진정한 허기를 느꼈다.

“밥 먹고 나온 게 4시가 넘었는데 조금 헛헛하다야.”

엄마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나 역시 허기에 따뜻한 호텔방마저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던 차였다. 나는 프론트에 전화해서 어설픈 영어로 지금 영업하고 있는 근처의 식당을 문의했다.

식당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지배인은 이곳이 폴란드의 전통음식인 피에로기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피에로기(Pierogi)? 안내책자에서 본 기억이 났다. 얼핏 본 그림으로는 사우어크림을 얹은 작은 만두 같은 모양이었는데, 호텔에서 한 거리 떨어진 이곳에 찾아와 메뉴판을 보니 그야말로 한국의 만두와 똑같이 생겼다.

추천메뉴는 고기와 시금치가 들어간 피에로기와, 계절과일들로 채운 피에로기 모듬. 각각 굽거나 삶은 것이 있는 모양이다.

엄마는 메뉴 설명을 듣고 무언가 불평을 하려다가, 나의 지친듯한 모습에 말을 삼키는 모습이었다.

곧 잘 시간인데 고기 소를 넣은 것은 싫고, 과일을 넣은 만두라니 그게 웬 이상한 음식이냐. 아마 이런 말을 엄마는 하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말없이 주인에게 메뉴판의 오늘의 추천메뉴를 짚으며 어색한 미소로 주문을 대신했다.

무뚝뚝해보이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 주문하지 않은 수프를 머그컵에 가득 담아 서비스로 내어 주었다.

낡은 나무 의자와 뭉툭하게 잘라진 작은 테이블로 채워진 작은 레스토

랑은 아무래도 근처 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단골집인 것 같았다. 우리말고 홀 안의 다른 손님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조심스러움의 아우라를 풍기는 관광객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주인은 금세 만두를 끓는 물에 데쳐서 크림과 후추를 듬뿍 뿌렸다. 만두의 표면이 물기를 먹어 홀의 조명에 반짝거렸다. 엄마와 나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주인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엄마의 움직임도 저렇게 잽싸고 군더더기 없는 것이었던가. 아마도 그랬던 것 같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엄마와 나는 우리 앞에 놓인 피에로기를 맞아 아무 말없이 앉아, 오직 이 음식을 위해 폴란드까지의 먼 길을 온 것처럼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두를 갈라 속을 확인하고 냄새를 맡아보고 입에 넣었다.

음식을 관찰하는 것은 우리의 오랜 습관이다. 엄마는 음식점에 가면 노하우를 얻기 위해 음식을 분석했고, 그런 엄마와 같이 있던 어린 시절의 나는 엄마의 행동을 따라하곤 했다.

잊고 있었던, 엄마가 마지막으로 승부를 걸었던 만두의 맛이, 오래전에 대뇌에 저장된 기억이 반사적으로 미뢰에 찌르르 전해져왔다.

그러나 피에로기는 우리나라의 만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맛.

잔뜩 먹고 트림을 내뱉으면 토탄듯 산미가 올라오는 엄마의 김치 만두와는 다르게, 폴란드의 피에로기라는 이름의 만두는 후추를 뿐만 아니라 만두피의 텁텁한 밀가루 냄새를 잔뜩 머금게 될 것만 같다. 그러나 과일을 저며 만든 소가 상큼한 끝맛을 주어 계속 입이 당겼다.

“고기랑 김치만두 맘고 이렇게 과일을 넣었으면 잘 팔렸을라나.”

침묵을 깨고 엄마가 한숨같은 말을 내뱉었다.

나는 대답을 피할 요량으로 빨간 물이 비치는 피에로기를 자르지도 않

고 입 안에 집어넣었다.

푹 익힌 딸기 속이 씹자마자 터져 입안을 채운다.

“여기는 과일이 싼가봐. 과일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고도 만두 열 개에 삼천원이라니. 한국같으면 어림도 없다.”

엄마는 언젠가 본 적이 있는 슬픈 얼굴이 되어 피에로기를 오래 씹었다.

나는 자꾸 목이 메어 머그잔의 수프를 들이켰다. 자잘한 야채 건더기가 목을 간지럽히며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다.

호텔 방의 밤은 고요하다.

시내 중심가의 성당에서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닫힌 창문 사이로 들려왔다.

나는 엄마가 깬까 조심히 몸을 들어올려 널찍한 창턱에 걸터앉았다. 바로 밑의 라지에이터가 창문턱을 데워 엉덩이가 프라이팬 위의 인절미 마냥 따끈히 녹는 것 같다.

비가 왔는지 거리가 촉촉해져 있다. 구름이 땅에 내려앉은것 마냥 거리의 표면은 뿌옇다. 노오란 가로등이 뽑아내는 먼지 섞인 빛이 돌바닥의 튀어나온 부분에 닿아 반짝거렸다.

내 마음도 물을 머금은 스펀지처럼 무겁고 또 촉촉하다. 기억이 누르면 금세 물기가 올라올 것 같은 밤이다.

나는 같은 호텔 방에 있는 엄마와 나의 거리를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또 미워하는지를.

나는 너무 가벼워서 눈송이처럼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엄마. 나는 엄마한테서 벗어나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엄마에게서 벗어난 나는 너무나 가볍고 또 너무나 무겁다.

엄마, 나는 엄마 말대로 도망가서 맘 편히 잘 살고 있지는 않아.

나는 요새 이상해.

독일어를 할 때에 나는, 더듬고, 말을 찾고, 그리고 두려워. 한국말을 할 때도 가끔 그래. 자주 쓰지 않으니 매끄럽게 나오지 않는 모국어가 아쉽고 그리워.

이곳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외국인으로서의 어색한 미소와 꾸며낸 밝음으로 무장하고 살아.

그런 내가 무겁고도 또 하찮아서 가벼워.

기억 속의 어린 나는, 매우 많은 시간 동안 혼자였다. 오빠가 친구들하고 놀러나가면 나는 동생을 돌봐야 했다. 동생은 꽤나 자주 울어서 데리고 나가기가 창피했다.

동생의 어린이집이 끝나면 하원버스에서 내리는 동생 손을 잡고 집 근처 빵집에 가서 먹을거리를 샀다. 동생이 저녁으로 빵과 우유를 먹고 혼자 티비를 보다 잠들면 나는 베란다에 빨간 플라스틱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 엄마가 아끼는 꽃을 하나씩 잎을 따며 엄마와 아빠를 기다렸다.

베란다에는 작은 장독대에 엄마가 해 놓은 쿰쿰한 된장과 고추장 냄새, 그리고 또 약간은 오래된, 햇살에 바랜 듯한 공기와 그리고 먼지냄새가 섞여있었다. 그립지는 않지만 떠올리면 마음을 저릿하게 만드는, 나의 유년시절의 냄새.

그때의 나를 안아주고 싶다.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어렸던 나를. 가만히 안아주고 얘기해 줄 것이다. 쓸쓸해하지 말아라. 마음에 그늘을 두지 말아.

비를 가득 머금은 듯한 마음 속 한 구석에 아직도 그 아이는 혼자 쓸쓸한 그림자를 남기며 꽃잎을 따고 있다.

엄마와 함께 있는 이 호텔방의 냄새는 그 때의 그 냄새와 닮아있다.

베란다의 공기는 엄마의 체취와 닮아있었던 걸까.

때문한 눈을 비비고 나니 아침이었다. 새벽녘에야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던 것이 오히려 꿈같다. 엄마는 모처럼 개운한 얼굴이어서 마음이 놓였다.

비행기는 자연없이 예정된 시간에 크라쿠프 공항을 출발하기로 되어 있다. 저가 항공이어서 자리를 지정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했기에 건너 뛰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시간 남짓의 비행 시간 동안 엄마와 떨어져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날카롭게 돋아난 나의 가시를 좀 쉬게 하고 싶었다. 엄마는 좌석표대로 저만치 뒷자리에 착석했다. 하지만 이젠 또 엄마를 돌아보지도 않고 자리에 앉아버린 것이 마음에 걸린다. 엄마는 비행기가 익숙치 않을텐데. 나한테 있는 휴지라도 주고 올까. 엄마는 긴장하면 코를 푸는 버릇이 있다.

나는 발가락을 끔지락거리며 몇 번을 망설이다가 일어서서 엄마에게 갔다.

“엄마, 있다가 도착하면 내려가서 기다려. 엄마가 먼저 내릴 거 같으니까.”

나는 일부러 밝은 표정으로 휴지를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엄마는 떨떠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피곤한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눈을 감았다.

작은 비행기는 바람을 조금 힘겨워하며 계으른 승객의 잠을 깨워주는 진동과 함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미끄러지듯 착륙했다.

비행기에서 나오자마자 폴란드의 것과는 다른 햐풍이 얼굴을 간지럽힌다. 비행기로 한 시간 거리인데 이렇게 다를까 싶다. 잔뜩 여미었던 옷의 지퍼를 내리는 여유를 부리며 아슬아슬한 비행기 계단을 내려오니 비행장과 공항을 연결해주는 셔틀버스 두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아마 엄마는 벌써 버스 안에 있겠지.

나는 뒤쪽에 주차되어 있는 셔틀버스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앞 버스는 그 순간 문을 닫고 출발해버린다. 이리저리 봐도 내가 탄 버스 안에는 엄마가 없었다. 엄마는 앞 버스로 갔나보다. 아, 공항에 도착해서 만나겠지 뭐.

나는 비스듬히 앉아 여행의 마지막 풍경을 즐겼다. 익숙한 독일어 표지판이 어쩐지 마음의 위안을 준다. 여행은 어쩌면 익숙함을 감사하기 위해 떠나는 고행인지도 모르겠다.

셔틀버스는 만나는 횡단보도 마다 서면서 느릿하게 운행했다. 독일은 벌써 봄인가.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짹하다. 공항에 도착하자 버스 안을 채운 사람들이 각자 짐을 챙기며 일어났다. 그런데 버스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 알고 보니 공항의 자동문이 고장이 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버스를 세워두기로 한 모양이다. 텁텁해지는 버스 안의 공기에 사람들의 짜증이 짙어지고 있다. 문득 다리 한 짹을 내밀면 닳을 듯한 공항의 유리문 안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엄마다.

엄마는 사색이 된 얼굴로 이리저리 작은 홀 안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나는 차 안에서 엄마에게 눈에 띄기 위해 손을 흔들었지만 엄마는 자동문 밖의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풀짝풀짝 뛰며 손을 높이 올렸지만 엄마는 공항의 유리문이 고장났음을 모르는 눈치였다. 버스 안의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흘깃거림이 느껴졌다.

소리를 지른대도 닫힌 이 버스와 공항의 문을 통과해서 엄마에게 닿기란 불가능해 보여서 나는 손만 높이 쳐든 채로 염치불구하고 버스의 문 쪽으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와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 나 여기 있어. 다른 데 찾지 말고 앞을 봐. 엄마에게 텔레파시가 전달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휴대폰 로밍을 해놓지 않은 엄마가 에스컬레이터라도 타고 다

른 곳으로 가버리면 넓은 공항 안에서 엄마를 잃어버리게 된다. 불길한 상상에 닿자 머리 끝이 빠죽 솟았다.

5분도 안되는 시간이 말랑한 옛가락처럼 길쭉하게 늘어졌다. 자동문을 고치는 수리기사가 오고 버스기사는 다시금 양해의 안내방송을 내보내었다. 엄마는 그새 한 승무원을 붙잡아 비행기표를 내밀며 어설픈 영어로 무언가를 물어보는 눈치였다. 승무원은 얼굴에 귀찮음이 한가득이다.

몇 미터 떨어져 바라보는 나는 어느새 울음이 터질 것 같다.

그 순간, 이제는 습관적으로 이리저리 사방을 둘러보는 엄마의 눈길이 버스 안에서 손을 들고 있는 내 그림자를 스쳤다. 엄마는 나를 확인하자 당혹감이 가신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입모양과 손짓으로 고장난 자동문을 가리켰다. 엄마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눈에 수긍한 분위기다. 엄마의 얼굴에 안도감이 점점 더 크게 번져 나갔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지각 직전의 직장인들처럼 서둘러 버스에서 몰려나가고 나도 질세라 엄마를 향해 뛴박질로 달려간다.

엄마의 눈에는 살짝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너가 비행기 내리는 바로 그 깨에서 만나자고 했나 싶어서, 큰일이다 싶더라. 나는 까먹고 금방 버스 올라타고 왔는디 너가 없응께 뭔일인가, 이렇게 추운데 그 바람 쌩쌩 부는 데서 여적까지 기다리면 너가 올매나 추울것이여. 그래서 내가 다시 너 있는데로 가야한다고 했는디 승무원들이 안된다고만 그러지, 한국말 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는 공항 와이파이로 전화를 해 보라는데, 아유, 너 추운데서 고생할까봐 심장이 덜그럭거리대.”

당황한 엄마는 사투리를 섞어 쓴다. 아닌게 아니라 엄마의 표정에서 엄마의 덜그럭거리는 심장을 느낄 수 있다.

무언가 뭉클한 것이 내 심장을 덥혀서 내 심장도 같이 덜그럭거렸다.

엄마의 노기는 벌써 무뎌져 있었다. 우리는 한층 편안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캐리어를 끌고 기차역으로 향하는 수많은 관광객 사이로 녹아 들어갔다. 각설탕이 따뜻한 차에 적셔지는 기분으로 나는 ICE에 안에 앉아 프랑크푸르트와 만하임을 잇는 숲과 평원의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다.

엄마는 극한의 긴장감에서 탈출한 지친 모험가의 얼굴이 되어 기차의 리드미컬한 진동과 움직임에 압도된 모양이었다. 차표 검사를 하는 검표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엄마는 고개를 떨구고 꾸벅꾸벅 졸았다. 엄마의 미간 주름이 더 깊어보였다.

엄마가 귀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하루 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의 열중에 다섯번째에는 들어가는 평범한 모녀 사이로, 날카로운 날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적인 관계로 지낼 수 있었다. 엄마는 이곳에서 산 초콜릿과 과자를 포장하고 오빠네 집으로 보낼 살라미를 비닐로 몇번이고 싸서 밀봉했다. 이 햄이 꼬들꼬들 말랐어도 이리 냄새가 강한데, 이 냄새가 빠져 나가지 않아야 맛이 있을거 아니냐. 엄마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며느리를 줄 젤리도 한 봉지라도 더 끼워 넣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공항은 항상 그렇듯 익숙하던 모든 것들을 어색하게 만든다. 엄마를 배웅하는 나의 태도도 마중 때의 어색함을 닮아 있다.

여권과 탑승권을 꺼내 들고, 내일 또 볼 사람처럼 인사하는 엄마를, 나는 일부러 끌어안았다. 엄마는 나의 기억보다 작아져 있어서 뭉클했다. 패딩점퍼를 벗은 엄마의 허리는 아홉 살 내 딸아이 모양 가늘었다. 엄마는 이 작은 몸으로 엄마의 우주를 감당했을 것이다. 엄마의 우주는 보통의 것보다 더 유성우가 찾게 내리는, 약간은 슬픈 보랏빛 반짝이가

감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나는 처음으로 엄마의 세계에 걸쳐졌다는 기분이 들었다. 내 세계는 끝없이 엄마의 우주에 충돌한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내 세계는 이미 엄마의 우주에 감싸져 있다는 것을.

공항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예약해 둔 플릭스버스의 알람벨이 울렸다. 곧 버스가 떠나니 놓치지 않으려면 서둘러야겠다.

신문지에 돌돌 말아 발코니에 둔 달래가 시들까 걱정되었다. 쌀쌀해 도 3월의 햇살은 봄볕이긴 하다. 그리고 냉동실에 얼려둔 인절미를 꺼내어 콩가루에 돌돌 굴려 조청을 찍어 먹어야지. 전자렌지에 돌리지 말고, 걸이 바삭하도록 프라이팬에 올려 천천히 굽자. 엄마가 가져온 된장도 날이 더위지기 전에 옮겨 놓아야 한다. 오늘 저녁은 강된장이랑 양배추 쌈으로. 양배추가 찜기에서 투명하게 익어갈 생각을 하니 침이 고이고 등뼈가 주욱 폐지는 느낌이다.

햇살이 좋았다. 나는 바삐 걸음을 옮겼다.

검은 시계가 있는 정물

정명숙 (캐나다)

김은 세잔의 ‘검은 시계가 있는 정물’을 보았다. 시계에는 시곗바늘이 없다. 검은 시계는 세잔의 오랜 친구였던 에밀 졸라의 것이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어릴 적 친구로 삼십 년 동안 우정을 쌓았다. 그러나 그들의 우정은 졸라가 세잔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끝이 났다.

김은 도서관 사이트에서 읽은 세잔과 졸라에 관한 이야기를 미리에게 들려주었다. 미리는 시곗바늘이 없는 시계는 결함을 의미하므로 그들의 끝은 예견된 것이라고 다소 엉뚱한 소리를 했다. 미리의 살짝 들어 올린 입꼬리에서 경멸의 빛이 스쳤다. 미리는 결함을 관계의 끝으로 몰고 갔다. 김은 미리를 걱정스레 보았다.

검은 시계는 자신의 결함에도 아랑곳없이 그림 가운데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시곗바늘이 없어도 그것은 여전히 시계라고 불린다. 그것마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김은 그렇게 생각했다.

수학 튜터, 현재 12학년, 수학 성적 상위 5%, 라고 적은 광고지에서 전화번호가 적힌 부분을 길쭉하게 가위질하다 말고 미리는 못마땅한 눈으로 그림을 쳐다보았다.

“도대체 그 그림은 어디서 난 거야.”

주말이면 킴은 세리를 데리고 동네 도서관에 갔다. 세리가 레고 놀이를 하는 동안, 킴은 코리안 풋말이 붙은 서가에서 한국어 책들을 뒤적거리곤 했다. 세잔의 그림은 도서관 카탈로그에서 처음 보았다. 제 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등 뒤에서 매몰차게 달리는 대문 소리 때문에 정작 발길을 옮기지 못하는 사람처럼, 서가에 바싹 붙어 수필집을 읽고 있을 때였다. 신설 프로그램이 있으니 관심 있으면 참석하라고 도서관 직원이 킴에게 카탈로그 한장을 건넸었다.

카탈로그 앞면에는 자궁심 북돋우기, 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고, 뒷면에는 ‘사과 하나로 세계를 평정한 세잔의 자궁심’이라는 문구 아래 몇 점의 그림이 실려 있었다. 검은 시계 그림은 사과 그림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 킴은 사과 그림보다 웬지 시계 그림에 눈길이 갔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미리는 자궁심을 키우려면 사과 그림을 골랐어야지, 하고 마치 제가 엄마인 양 킴에게 충고를 했다. 하지만 이제와 새삼스럽게 자궁심 따위를 북돋울 필요는 없다고 킴은 생각했다. 말라비틀어진 연시만큼이나 자궁심이 쪼그라들었던 때에도 그럭저럭 잘 버텼으니까.

칼리지 다닐 때 킴은 그룹 프로젝트를 싫어했다. 프로젝트가 있는 날이면 억지웃음을 짓고 ‘Can I join’을 반복하며 교실을 돌아다녀야 했다. 어느새 무리지어 앉은 학생들은 킴의 등장에 서로 모종의 눈빛을 교환하며 선뜻 예스, 라고 대답하지 않았다. 킴은 바이더 모서리를 긁으며 뻘쭘하게 서 있다 요행히 무리에 끼기도 했고 거부당하기도 했다.

같은 처지의 학생들과 팀을 이룰 때도 있었다. 그들은 어느 팀에도 합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킴과 같은 처지이긴 했지만, 킴과 달리 대화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쉬는 시간에 유창하게 잡담을 늘어놓다가도 그룹 프로젝트 시간이 되면 입을 함구하고 낙서를 하거나

볼펜을 돌리거나 다리를 달달 떨었다. 그룹 점수가 곧 구성원의 점수였으므로 킴은 열심히 벼벽거렸고, 그들은 가끔씩 히죽거리며 킴을 쳐다보다가 팀플레이가 끝나면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어디론가 후다닥 사라졌다.

학점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도 킴의 자존심은 하데스의 지하세계로 추락하곤 했다. 목요일 아침이면 학생들은 그 전날 시청한 ‘Dragons’ Den’이라는 리얼리티 TV 쇼에 관해 떠들었다. 그들은 교실이 떠나갈 듯 큰 소리로 웃으며 숨도 쉬지 않고 수다를 떨어댔다. 킴은 컴퓨터 작업을 하는 척하면서 당나귀처럼 귀를 벌리고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다. 대화가 절반 이상 들리는 날이면 괜히 우쭐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그렇지 않은 날이면 딸기잼과 땅콩버터를 잔뜩 바른 점심 샌드위치를 목구멍으로 밀어 넣으며 식당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지도 교수의 추천으로 캐나다 회사에 취직했을 때 킴의 자궁심은 말라비틀어진 연시에서 그런 대로 잘 알려진 곶감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듯 했다. 하지만 프로젝트 미팅이 있는 날이면 킴의 자궁심은 다시 쪼그라들었다. ‘Can I join’을 구걸할 필요는 없었지만 동료들의 친절이 오히려 문제였다.

미팅에서 동료들은 벼벽거리는 킴을 도와준답시고 킴의 말을 끊고 중간에 설명을 보충했다. 그 횟수가 잦아질수록 킴은 조바심을 내며 머릿 속으로 문장을 만드느라 바빴고 완성한 문장을 써먹을 기회를 엿보느라 바빴다. 그러다 어영부영 미팅이 끝났고, 킴은 다른 동료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후에도 테이블에 남아 깍지 낀 양손가락을 손등이 시뻘개지도록 문질러댔다. 미팅 날이면 배속에서 벌레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속이 울렁 거려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야 했다.

남편이 모든 건 자기 실수라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김은 손에 든 시리얼 그릇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을 꾹꾹 눌렀다. 낡은 카펫에 배를 깔고 그림책을 보고 있는 세리를 보며, 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세리는 캐나다에서 태어났다. 한국에 가본 적도 없다. 한글도 쓸 줄 모른다. 미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걸음마를 막 시작했을 때 한국을 떠났다. 한국어 실력이라고 해봤자 영어 문장 사이에 한국어 단어 몇 개 끼워 넣는 정도다.

남편은 도리어 언성을 높였다.

“그러게, 애들 한글학교 열심히 보내라 했지 내가. 사람 말을 똥으로 알아듣더니……. 캐나다가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애들 데리고 여기서 살아.”

김은 기어이 시리얼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언어가 어떤 건지 몰라? 가족 생각은 눈곱만큼도 안하는구나.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켜놓고, 뭐? 이제 와서 돌아가자고?”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고? 계속 이렇게 등신처럼 살라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잘난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남편은 대기업 연구실에 근무했었다.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유학을 결심한 것도 남편이었고, 캐나다에 놀러 살겠다며 이민 신청을 한 것도 남편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대학원을 마친 뒤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 케이에프씨에서 닭다리와 감자를 튀긴 건 김이었다. 버섯공장 조립라인에서 온종일 케이스를 패킹한 것도 김이었다. 기껏 남편 입에서 나온 변명은 전공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이었다. 순수물리학이 아니라 응용물리학을 선택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김은 물리학을 몰랐다. 김이 아는 물리학이라고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전부였다. 사실은 그마저도 아는 것이 아니라 들어본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물리학이란 단어에 가슴 뛰던 시절은 있

었다. 김은 아인슈타인처럼 언제나 머리칼이 부스스한 남편을 떠올렸다. 취직이 되지 않는데도 두뇌 쓰는 일에만 이력서를 내는 남편에게 김은 말했었다.

“튼튼한 팔다리가 있잖아.”

남편은 웬만한 서양 남자에게 절대로 밀리지 않을 만큼 체격이 좋았다. “닭다리는 그냥 튀겨지는 줄 알아? 그것도 머릴 써야 해.”

남편은 요지부동이었다.

“차라리 공부를 더하는 건 어때? 지도 교수가 당신 좋아했다며. 박사학위 받으면 학교 연구실에 남을 수도 있잖아.”

“나더러 그 지긋지긋한 공부를 또 하라고.”

남편은 물리학을 지긋지긋한 공부라고 했다. 김에게 물리학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학문이 되어갔다. 결국 남편은 대덕단지에 직장을 잡았고, 한국을 떠났을 때와 다름없이 통 넓은 바지와 어깨가 헐렁한 점퍼 차림으로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때가 8년 전이었다.

남편이 없는 동안 김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고양이 세수를 하고 도시락 세 개를 싸고 세리를 씻기고 입히고 유모차에 태우고 미리를 앞세워 아파트 주차장으로 향했다. 김이 세리를 뒷좌석 카시트에 앉히고 유모차를 접어 트렁크에 넣는 동안, 미리는 도시락과 가방을 카시트 옆자리에 가지런히 놓았다. 김은 미리를 학교 정문에 내려주고 영어학교로 갔다. 학교 주차장은 요금을 내야했으므로 근처 쇼핑몰에 차를 주차했다.

김은 한 손으로 세리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두꺼운 바인더를 들고 목에 도시락 두 개를 걸고 누구보다 똑똑했던 남편을 생각하며 학교 건물을 향해 뛰었다.

‘실제로 보니 타조는 새보다 낙타를 더 닮았다.’

김은 타조도 낙타도 본 적이 없다.

‘타조가 낙타보다 새에 더 가깝다는 증거로 날개라는 것이 달려 있기 는 하다.’

김은 타조의 날개도 본 적이 없다.

‘타조도 가끔은 가슴을 펴고 날갯짓을 하지만 깃털 몇 개로 큰 낙타를 하늘로 들어 올려보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잘라버렸음이 분명하다.’

김은 현명한 타조를 저주하며 학교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남편은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캐나다로 돌아왔다. 통 넓은 바지와 어깨가 헐렁한 점퍼 차림 그대로였다. 피곤하고 후줄근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상하리만치 눈동자가 번뜩거렸다.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편은 한국은 정말 빠르다, 예전과는 완전 딴판이다, 변하지 않은 건 직장문화뿐이다. 소매가 어떻게 회식 때 고기 굽는 방법이 어떻게, 변명도 모험담도 뭐도 아닌 이야기를 쉴 새 없이 쏟아냈다. 김은 운전대를 잡고 앞만 보았다. 어쩌면 타조는 애초부터 날개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남편은 캐나다에서 다시 이력서를 썼고 인터뷰를 했고 취직을 했고 몇 개월 후 그만두었다. 그 과정을 두어 번 반복하더니 어느 순간 아예 이력서도 쓰지 않았고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 취업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남편은 지하실에서 먹고 자고 컴퓨터와 씨름하다 마음내키는 대로 아무 때나 산책을 나갔다. 그러곤 땀에 젖어 착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흔들며 집에 들어와 서태지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오랫동안 샤워를 했다.

어느 날, 김은 수박 몇 조각을 쟁반에 담아 지하실로 내려갔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고개도 돌리지 않고 모니터만 응시했다. 김은 슬쩍 모니터를 곁눈질했다. 체격에 맞는 산악자전거 고르기,라는 글자가 보였다.

남편이 마우스를 클릭하자 한눈에도 꽤 비싸 보이는 자전거 사진들이 나타났다. 남편은 스크롤을 내리며 사진들을 쭉 훑다가 침을 보더니 얼른 창을 바꿨다. 김은 무슨 말인가 하려다 그만두고는 수박 쟁반을 그대로 들고 남편의 지하벙커를 나와 버렸다.

남편은 결혼기념일 한번 변변히 쟁진 적 없는 무심한 성격이지만 나름 따뜻한 구석이 있었다. 이를 테면, 치킨 광고를 보다 김이 치킨 먹고 싶다, 하면 슬그머니 치킨 집에 전화를 걸어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을 주문하거나, 김이 밥하기 싫다, 하면 꼬들꼬들하게 끓인 라면에 계란 노른자를 동그랗게 얹어 내놓거나 하는 식이었다.

김이 회사일로 며칠 야근을 했을 때 남편은 김의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 버무리는 일을 도와주었다. 앞치마는 남편의 거대한 몸을 절반도 감싸지 못했다. 양 옆으로 아무렇게나 빼져나온 남편의 흰색 티셔츠에 불그스름 고춧가루 물이 배었다. 김은 남편의 티셔츠를 세탁기에 돌리다 문득 앞치마 생각을 했다. 앞치마가 아니라 티셔츠를 사야 했을 것이었지만, 김은 앞치마를 샀다.

김이 카키색 앞치마를 내밀었을 때 남편은 프레리 지역의 토네이도 뉴스를 보고 있었다. 남편은 거대한 몸을 휙휙거리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사람을 뭐로 보고 이따위 수작이야.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술 기세로 허공에 휘젓는 주먹. 팔뚝에 짙푸른 힘줄이 선명하게 내돌쳤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김은 손에 앞치마를 들고 반쯤 내민 팔을 뻗지도 걷어 들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못 박혔다. TV 화면에서는 토네이도로 지붕이 날아갔고 벽이 사라졌고 골조가 무너졌다. 조금 전까지 집이었던 것이 몇 분 만에 쓰레기 더미가 되어 너른 평원에 쌓였다.

남편은 괴성을 지르며 주먹으로 벽을 쳤다. 김은 멍하니 서서 망연스레 남편을 쳐다보았다. 목소리에 물기가 서렸다. 내, 가……. 남편은 내,

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내, 가……. 그러곤 말이 없었다. 남편은 두 주먹 사이에 머리를 묻었다. ‘통곡의 벽’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그는 꼴깍하지 않았다.

옅은 불빛이 지하실에서 새어나왔다. 남편은 도대체 몇 시에 자는 걸까. 밤을 꼬박 새우는 건가. 아침엔 몇 시에 일어나는 걸까. 아침에 깨어나긴 하는 건가. 알 수 없었다. 남편에 대해 점점 아는 게 없었다.

김은 냉장고에서 버드와이저 한 병을 꺼냈다. 자동차 불빛이 어두운 실내를 훑고 지나갔다. 프라이데이 나이트 파티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듯 건너편 유닛의 짧은 커플이 음악소리를 팽팽거리며 차를 세웠다. 군데군데 페인트칠이 희웁스름하게 벗겨진 타운하우스 담벼락이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기괴하게 보였다. 옆집의 창문 닫는 소리가 밤공기를 거칠게 갈라놓았다. 옆집 여자는 파티나 즐기는 짧은 커플이 어떻게 우리 타운하우스에 입주했는지 모르겠다고 의심스러워했다. 평소에 하이, 하고 인사만 하던 옆집 여자가 다짜고짜 짧은 커플 험담을 늘어놓았을 때 김은 뒤로 물러서며 고개만 끄덕였었다.

타운하우스 단지는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이었다. 불긋불긋 녹물이 든 등근 손잡이를 열고 집안으로 들어서면 퀴퀴한 카펫 냄새가 코끝에 매달렸다.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에 곰팡이가 슬 것처럼 목이 칼칼했다. 싸구려 카펫은 때에 절어 발꿈치의 두툼한 각질을 벗겨내 도 될 만큼 거칠고 딱딱했다. 내부는 협소했다. 그러나 방은 많았다. 이 층에 방 세 칸, 일층에 거실과 주방, 지하에 방 한 칸이 있었다. 렌트비는 같은 크기의 일반 타운하우스의 절반이었다. 소득은 적고 대책 없이 자식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김은 취직을 하자마자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놓고 6개월 만에 입주했었다. 십 년간 렌트비가 싼 아파트를 전전하며 딸애들과 한 방에서

지냈던 킴으로서는, 한밤중에 단지가 떠나갈 듯 자동차 오디오의 볼륨을 높이는 파티 마니아가 있다 한들 대수도 아니었다. 자동차 시동이 꺼지자 음악 소리도 멎었다. 아무 일 없었던 듯 사방이 고요했다. 킴은 카펫에 발뒤꿈치를 문지르며 맥주병을 비웠다.

남편이 산악자전거를 들고 현관에 들어섰을 때, 킴은 수화기를 왼쪽 턱과 쇄골 사이에 끼우고 제니언니와 통화를 하면서 일주일 치 참치 샐러드를 만들고 있었다. 참치 캐를 따서 물을 버리고 마요네즈와 막 섞으려던 참이었다. 미리는 옥수수를 넣어야 맛있다며 옥수수 깡통을 따고 있었다. 제니언니는 키우던 고양이가 죽었다며 하소연을 했다.

“뭐야?”

김은 남편에게 말했다.

“뭐가 뭐야, 얘는. 우리 톰이 죽었다니까.”

남편은 자전거잖아, 멋있지, 하고 엉덩이 모양으로 가운데가 예쁘게 갈라진 자전거 의자를 쓰다듬으며 흥분 섞인 어조로 말했다.

“뭐?”

“고양이가 죽었다고!”

김은 수화기를 팽개쳤다.

“어디서 난어.”

“어디서 나긴, 샀지.”

“무슨 돈으로.”

“카드. 다음 달에 카드 비용 좀 나올 거야. 놀라지마.”

남편은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양 말했다.

“얼만데?”

“세일 많이 해서 싸게 샀어, 걱정 마.”

“얼마나니까?”

“850불”

그것은 킴의 주급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미리가 깡통따개를 조리대에 내던졌다. 깡통따개에 부딪친 세리의 플라스틱 컵이 바닥에 떨어졌다. 미리는 컵을 발로 걷어찼다. 핑크색 컵이 남편 발치로 튕겨갔다.

“올라가.”

김은 미리에게 말했다. 미리의 눈빛이 날카롭게 남편을 향했다. 남편이 양미간을 찌푸렸다.

“올라가라니깐.”

미리는 석상처럼 끔찍하지 않았다. 눈동자에서 분노와 적의와 경멸의 빛이 활활 타올랐다. 남편의 양미간에 두 줄의 깊은 골이 패였다. 토네이도가 집들을 산산조각 내며 프레리 지역을 초토화시키던 날처럼 남편의 눈빛이 이글거렸다.

“왜? 또 때리려구.”

미리가 쏘아붙였다. 남편은 자전거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제발…… 좀, 올라가야, 응.”

김은 미리에게 애원했다. 팔을 잡아끌고 등을 떠밀었다. 미리는 킴의 손을 뿌리치고 계단을 뛰어올라갔다. 문짝이 떨어져나갈 것처럼 거칠게 문이 닫혔다. 아무렇게나 쌓아올린 찬장의 그릇들이 흔들렸다.

“미쳤어?”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자전거를 번쩍 들고 거실로 갔다.

“미쳤냐구?”

김은 남편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남편은 소파와 벽 사이 좁은 공간에 자전거를 세우고 은색 커버를 씌웠다. 그러곤 아무 말 없이 지하실로 내려갔다.

김은 옥수수 알갱이를 한 움큼 쥐고 양손으로 힘껏 눌러 물기를 짜냈다. 미친 놈. 탱글탱글한 노란 옥수수 알갱이가 짓뭉개어졌다. 김은 뭉개

진 옥수수를 참치 그릇에 던져 넣고 주걱으로 퍽퍽 치댔다. 미친 놈. 노란색 알갱이가 허옇게 될 때까지 치대고 또 치댔다.

미리는 룰루레몬 레깅스를 사고 싶어 했다. 제 친구들은 룰루레몬만 입는다고 했다. 김은 옷 같지도 않은 것에 비싼 돈을 쓰는 게 아까웠다.

“그깟 천 쪼가리가 다 똑같지. 룰루레몬이라고 별달라?”

“별달라.”

“뭐가 다른데?”

“뒤태가 달라.”

“내 눈엔 다 똑같아 보이던데.”

“아줌마 눈이라서 그래.”

“너, 아줌마란 말. 하지 말라 그랬지. 이게 뼈 하면 아줌마래.”

“아줌마가 싫으면 트렌드에 눈을 뜨던지.”

“트렌드가 밥 먹여 줘?”

“아이씨, 됐어. 내가 퓨터 해서 살 거야.”

미리는 10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수학 과외를 했다. 그러나 룰루레몬 레깅스를 사지는 않았다.

김은 참치 샐러드를 락앤락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고 이층으로 올라가 미리의 방문을 열어젖혔다.

“옷 입어. 나가자.”

낮잠을 자고 있던 세리까지 깨웠다. 세리는 졸린 눈을 비비면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다.

“이제 우리 부자 되는 거야?”

레고 프렌즈 선샤인 크루즈를 가슴에 안은 세리가 들떠서 말했다. 세리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부터 레고만 갖고 놀았다. 김은 가라지 세일에서 오래된 레고블록을 사 주거나 도서관 레고 프로그램에 세리를 데

리고 다녔다.

“바보같이, 창피하게.”

미리는 한심한 눈으로 세리를 보았다.

“언니는 맨날 저래. 나한테.”

세리가 투덜거렸다.

“왜 그래. 동생이 좋아서 그러는데.”

김이 세리를 편들어주자 세리가 미리에게 혀를 날름 내밀었다.

“애기 흉내 좀 그만 내. 4학년이나 되어 가지고. 역겨워. 보면 몰라.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돼. 북극 빙하가 다 녹아서 뉴욕이 물에 잠겨도 안 돼. 알겠어? 이 바보 멍청야.”

미리는 ‘that person’이 있는 한, 이라고 덧붙이며 뚜벅뚜벅 혼자 걸어 갔다.

남편이 무직 상태로 컴퓨터만 들여다보는 동안, 미리는 가슴이 봉긋 해졌고 오월의 나뭇잎처럼 쑥쑥 자랐다. 또래보다 키가 한 뼘이나 더 컸고 수학에서 언제나 A학점을 받았다. 미리가 가장 싫어하는 건 아빠를 닮아 키가 키고 수학을 잘 한다는 말이었다. 언제부턴가 미리는 남편의 물음에 침묵으로 일관했고 남편의 지시에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남편은 미리의 침묵과 눈빛에서 자신에 대한 적의와 경멸을 읽었다. 남편은 점점 화를 삼이지 못했다. 남편의 분노는 가끔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되었다.

남편에게 맞아 귓바퀴 언저리에 멍이 들었을 때, 미리는 ‘that person’이 무슨 자격으로 자기를 때리느냐면서 김의 손에 수화기를 쥐어 주었다.

“신고해 줘. 엄마가.”

“싫어.”

“왜?”

“그냥”

“그냥이 어딨어?”

“몇 번 맞았다고, 그깟 게 뭐라고, 경찰에 신고까지 해?”

“야만인. 사람을 왜 때려?”

“엄마랑 이모는 할아버지한테 수도 없이 맞았어. 자식 키우다보면 그럴 수도 있어.”

사업이 망했을 때,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셨고 어머니와 잣은 말다툼을 했고 가재도구를 부쉈고 자식들을 때렸다. 어머니에게 화가 나서, 바깥일이 잘 안 풀려서, 자식들 성적이 나빠서, 자식들이 말대꾸를 해서, 혹은 술에 취해 당신 성미를 못 이겨서.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았다.

김의 여동생은 김보다 늘 몇 대씩 더 맞았다. 꼬박꼬박 말대꾸를 했었기 때문이다. 김은 매번 똑같이 반응하는 동생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냥 가만있으면 될 걸 굳이 아버지의 성미를 건드려 매를 부르는 게 어리석게 느껴졌다. 그런 김을, 동생은 한심하게 쳐다보았었다.

“자식이 소유물이야? 때리고 싶으면 맘대로 때려도 돼?”

“여튼, 난 못해. 하고 싶으면 니가 해.”

김은 허공에 대고 악을 썼다.

“나도 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신고하면 경찰이 학교에 오고, 그럼 소문이 짹 퍼질 텐데, 학교엘 어떻게 다녀. 그러니까 엄마가 해야 돼. 모르겠어? 일 년만 버티면 되는데. 일 년…… 그것도 못 해 줘? 대학을 가야 that person을 안 볼 거 아냐?”

미리는 울음을 터뜨렸다. 김은 목구멍에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숨이 막혔다. 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김은 미리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신고는 안 돼. 그것 말고 뭐든 다해 줄게. 응?”

미리는 김의 품에서 몸을 빼며 말했다.

“그럼, 이혼해, 그래야 엄마를 오래 볼 수 있을 거 같아.”

김은 잡고 있던 미리의 손을 놓았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도 손찌검을 했다. 지금 어머니는 아버지와 그럭 저럭 잘 지낸다. 어머니는 이러니저러니 해도 늙고 아프면 남편밖에 없다고 했다. 살아봐야 별놈 없다고도 했다. 김은 혼자 사는 어머니를 상상 할 수가 없었다. 상상만 해도 무섭고 두려웠다.

퇴근길이 혼잡했다. 김은 주유소를 끼고 우측으로 돌아 이차선 도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사고가 났는지 차량들이 가다가 서기를 반복 했다. 김은 시계를 보았다. 미리의 과외가 있는 날이었다. 미리를 학생 집에 데려다 주어야 했다. 김은 좌회전 깜빡이등을 켜고 일차선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쌩 달려오던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경적을 울렸다. 김은 미안하다는 표시로 오른손을 들어 올리고 재빨리 차선을 변경했다. 바로 앞 사거리에서 유턴을 한 후 국도를 탔다.

아치형 카노피를 이루는 나뭇잎들 사이로 햇살이 너울거렸다. 빨갛고 노랗게 물든 나뭇잎들이 반짝거리며 춤추듯 땅으로 떨어졌다. 자동차전 용극장의 스크린처럼 차창 밖 풍경이 김에게로 다가왔다. 고통스럽도록 아름다웠다.

출퇴근길에 김은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출근길에는 미리를 학교에 데려다주어야 했고, 퇴근길에는 몇 분이라도 빨리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였다. 남편과 미리의 충돌이 잣아지면서 김은 자동차 액셀러레이터의 폐달을 더 힘껏 밟았다. 제니언니는 만날 때마다 지금 몇 시지, 하고 수시로 시간을 확인하는 김에게 너 왜 그러고 사니, 하다가도, 외로울 시간은 없어서 좋겠다며 쓸쓸한 표정을 짓곤 했다.

제니언니는 고양이가 죽고 이를 만에 동물보호소에 입양 신청서를 냈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뒤 테리어 맵서를 입양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애인을 대하듯 강아지를 물고 빨고 법석을 떨었다. 이번엔 왜 강아지야,

고양이가 아니고. 김이 물었을 때 제니언니는 같이 둑굴고 부대끼고 싶어서라고 했다. 고양이는 너무 독립적이거든. 강아지는 나만 봐. 옆에 붙어서. 강아지가 옆에 붙어서 자기만 바라보는 건 어떤 기분일까. 김은 딸아이들 생각이 났다. 어깨가 뻐근하게 저려왔다.

머리를 봉두난발한 채 남편이 서 있는 바닥 어딘가를 미동도 없이 노력보는 미리를 떠올리면서 김은 뻐근한 왼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쳤다.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김은 그만 내려놓고 싶었다. 이를 전 김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였다. 미리의 손에서는 날카로운 물건이 번쩍거렸고, 바닥에는 은색 자전거 덮개의 찢어진 조각들이 널려있었다. 그 조각들을, 분노가 아닌 절망의 눈으로 남편은 바라보고 있었다.

빵, 하고 경적이 울렸다. 일차선 도로에서 김의 자동차가 노란 차선을 밟았다. 김은 황급히 자동차 핸들을 바로 했다. 마주 달려오던 자동차의 운전자가 창문 밖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지나갔다.

휴대 전화의 진동음이 울렸다. 미리였다. 김은 시계를 보았다. 응, 그래. 차가 막혀서. 얼른 갈게. 김은 액셀러레이터를 세게 밟았다. 계기판 속도계의 바늘이 치솟았다. 그 순간 건널목의 신호등이 갑자기 깜박거렸다. 할머니 한 분이 유모차에 강아지를 싣고 건너려는 참이었다. 할머니는 휘둥그런 눈으로 달려오는 자동차를 보았다. 끼익. 김은 브레이크 폐달이 부서져라 힘껏 눌렀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할머니는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괜찮아, 괜찮아, 하고 말했다. 무언가 뜨거운 것이 김의 심연을 뚫고 올라왔다.

김을 보자마자 미리는 가위를 바닥에 던지고 제 방으로 뛰어올라갔다. 김은 찢겨진 은색 천과 과일 껍데기를 쓰레기통에 넣고, 바닥에 둑구

는 플라스틱 컵과 접시와 포크를 개수대에 넣었다. 킴은 멍하니 서있는 남편을 지나쳐 이층으로 올라갔다. 미리는 천장을 노려보며 누워있었다.

“좀 참지. 왜 그랬어.”

“뭘 왜 그래?”

“니가 자꾸 이러니까…….”

미리는 킴을 쏘이로았다.

“내가 자꾸, 뭐?”

미리의 원망 섞인 눈에 눈물이 고였다.

“괜찮으냐고, 무슨 일이냐고, 먼저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냐?”

미리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제발 나가달라고 킴에게 소리쳤다.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잇츠 오케이를 연발하는 할머니를 보며 킴은 중얼거렸다. 쏘리. 쏘리. 불을 타고 눈물이 흘렀다. 킴은 차창 밖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다. 쏘리 쏘리. 할머니는 의아한 눈으로 킴을 쳐다보며 황급히 유모차를 밀고 짱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넜다.

김은 신호등 앞에 그대로 멈춰 섰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액셀러레이터에 발을 올려놓았다. 흐르는 눈물 때문에 시야가 부옇게 흐렸다. 킴은 차들이 쌩쌩 달리는 좁은 갓길에 차를 세웠다. 노랗게 물든 나뭇잎 하나가 차창 위로 떨어졌다. 방향감각을 잃은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무언가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이 눈이 아렸다. 킴은 자동차 핸들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그녀의 어깨가 오랫동안 들썩거렸다.

똑똑. 유리창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괜찮습니까?”

남자는 가볍게 주먹을 훈 채 가운데 손가락 마디로 유리창을 두드렸

다. 킴은 고개를 들고 남자를 보았다.

“괜찮습니까?”

남자는 재차 물었다. 킴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괜찮다고 말했다.

“바깥 공기라도 쐬는 게 어떠세요?”

남자는 창문을 내리라는 손동작을 하며 공손한 태도로 말했다. 킴은 경계의 빛을 보이며 망설였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무슨 신분증 같은 것을 보여주었다. 킴은 창문을 열었다. 남자는 차창으로 약간 상체를 기울이더니, 한 손을 가슴 부근에 대고 심호흡하는 시늉을 하며 킴이 따라하도록 유도했다. 킴은 아이처럼 남자가 시키는 대로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좀 나아 보이는군요.”

남자가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여기 갓길에 오래 정차하면 위험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근처까지 에스코트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김은 깜빡이등도 켜지 않은 채 급하게 도로를 향해 자동차 앞부분을 들이밀었다. 빽빽. 다급하게 경적이 울렸다. 멀찌감치 있다고 생각했던 자동차 불빛이 킴 바로 뒤에 와있었다. 남자가 황급히 다가왔다. 그는 에스코트를 다시 제안했다. 킴은 괜찮다는 말을 반복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이립시다.”

남자는 이런 상태로 운전하는 건 위험하다며 두 블록 떨어진 대로변에 스타벅스가 있으니 그곳 주차장에 잠시 정차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좁은 갓길에 정차해 있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남자의 회청색 눈동자에 따스한 가을햇살의 잔상이 어렸다. 킴은 남자의 넓은 어깨를

보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킴은 남자의 뒤를 따랐다. 남자는 사이드 미러를 통해 킴을 살피며 적당한 속도를 유지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 사이로 후드득후드득 햇살이 떨어졌다. 집요하게 울리는 휴대 전화의 진동 소리를 들으며 햇살에 몸을 맡긴 채, 킴은 시간 너머 어딘가로 서서히 달리기 시작했다.

○ㅈㅂ?(완전범죄)

이현주 (미국)

성후는 열흘의 휴가 중 여드레를 거실 앞 소파에서 보냈다. 밤새 보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보고, 피곤하면 낮잠도 마음껏 자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웅웅거리는 텔레비전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서, 모처럼 딸네 집에 온 장모는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낮에도 거실에서 자고 있는 사위 때문에 방 밖으로 나오기가 조심스러웠다.

비행기표가 싸게 나왔다고 딸이 사 보냈기에 조용하게 딸하고 같이 있을 생각에 오긴 했는데, 휴가철도 아닌 이 때에 맞추어 사위가 휴가를 낼 줄은 몰랐었다. 출근해야 하는데 사위가 일어날 생각을 안 하기에 걱정스러워 물으니 그제서야, 오늘부터 휴가를 냈다고 했다.

부부가 둘이 오붓하게 있을 시간에 자신이 있어서 방해되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딸이 구해 준 저가 항공표는 환불도 날짜 조정도 안 되는 것 이었다.

사위가 잠을 자는 동안 딸과 쇼핑몰 구경이라도 가면, 분명히 자던 사위는 두 모녀가 돌아올 때까지 수십 통의 전화를 해서 언제 오느냐고 확인했다. 부랴부랴 집에 돌아오면 사위는 다시 소파에 누워 자고 있었다.

방으로 들고 갔던 커피 잔을 부엌에 가져다 놓으려고 조금해서 지나가

는데 사위가 으으으, 하더니 몸을 뒤틀며 일어났다.

머리카락은 제멋대로 헝클어져 있고,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파자마 바지와 위에는 속옷만 입은 채였다. 잘 때 덮으라고 내어 준 담요는 항상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자네, 일어났는가?”

“네, 어머니. 뭐 해 주시려구요? 해 주세요. 제가 언제 가리는 거 보셨어요?”

성후는 자신이 배고플 때 먹고 즐릴 때 잤다.

모녀는 사위가 원할 때, 좋아할 것 같은 메뉴를 고민해서 대령했다. 그러면 성후는 모녀를 앞에 앉혀 두고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음식에 가깝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맛있는지 진지하게 설명해 주었다.

밥 먹을 때 전화가 오면 영상 통화로 어떤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지 전화를 건 사람에게 다 보여 주었다. 그는 진정한 휴가를 즐기는 중이었다.

순식간에 열흘이란 시간이 지나갔다. 언제 갔는지 모르게 장모가 떠나고 성후는 다시 출근했다.

밤에 잠을 안 자는 올빼미족, 성후는 점심시간에 낮잠을 자려고 머리를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그때 휴대 전화에 빨간색 알람이 반짝거렸다. 액정 화면에 파란색 메시지가 떴다.

“외출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스윽 밀었다.

외출하는 아내의 모습이 동영상으로 보였다. 아내는 검은 핸드백에 검은 바지와 구두, 회색 니트 자켓을 입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다.

“어디세요?”

아내는 한동안 답이 없었다. 그리고, 한 시간이나 지나서 답장이 왔다.

“쇼핑하러 나왔어요. 뭐 필요한 건? 필요한 거 있으면 30분 안에 보내요. 지금 구두 수선하려 맡기고 장 보러 와서 주차했어요.”

“네.”

아내의 동선은 대형 할인 마트 앞에서 정지되어 있었다. 둘이 사는 살림에 대형 마트라 마음에 안 들었지만 성후는 그런 것으로 아내를 타박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잠시 후 다시 휴대 전화에 알림이 떴다. 187.54달러 결재되었습니다. 성후의 눈썹이 올라갔다. 퇴근하고 나면 알 일이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성후는 휴대 전화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내가 보낸 카톡, 받은 카톡, 소셜 미디어 포스팅과 클릭, 댓글,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확인하려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다 써도 모자랐고, 한밤중에 일어나 확인하느라 수면은 항상 부족했다.

그나마 새로 계약한 프로그램 ‘V’가 이 모든 것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요즘엔 한결 수월해졌다.

V는 그가 지정한 사람들이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를 차단하거나 미리 저장해 둔 답장을 자동으로 보내 주었다. 그리고 아내에게 오는 영업용 전화 중, 이혼관련 변호사나 상담사들의 전화는 확실하게 차단해 주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은 저렴한 대신 기능에 제한이 있지만, 시판 전 상태인 V는 전문적인 타겟 분야를 정하기 전이라 제한이 없었다.

실생활에 적용되기 전, 모의 소비자 집단에 성후가 지원해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학벌이 좋고, 전과도 없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성후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엄청난 항목의 전자 서류에 사인을 하고, 사용하는 도중에도 정기적으로 때로 돌발적인 설문 조사에도 응하고, 만족도를 표시해서 보내야 했다.

프로그램이 시판되면 꽤 비싸질 거라는 예상을 하며, 성후는 하루하

루가 행복했다. 이번에 잘하면,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 또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다.

V를 받자마자, 아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었다.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아내는 수면제를 먹고, 입원실에 있으면서 상담 치료를 받아야 했다. 성후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그는 아내의 병실을 열심히 지켰다. 아내는 성후가 있는 동안 눈을 뜨지도 않았고 말을 하지도 않았다.

성후는 휴대 전화에 설치한 V의 미션을 입력했다. ‘아내 길들이기’. 파란 글씨가 그 아래에 나타났다. ‘자존감 삭제와 고립’ 오후, 성후는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글씨들이 사라지고 다른 글씨가 떴다. 성후는 눈을 크게 떴다.

우선 자신에 대한 정보를 다 입력해야 했다. 취업 서류를 작성할 때처럼 출신 학교와 성적, 봉사 활동과 기간, 수상 경력, 현재 업무와 연봉을 쓰고 심지어 자신이 나가는 모임이나 친구, 취미 생활까지 물었고, 병원에 갔을 때처럼 키와 몸무게, 입원과 수술을 비롯해서 가족 중에 병력이 있는 것까지 다 써야 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한 정보도 입력해야 했다. 다행히 아내의 경우는 쓸 것이 별로 없었다. 고등학교 중퇴인데, 미국 학교의 이름을 다 모른다고 하니, 괜찮다고 했다. 마사지 샵에서 일하던 것을 쓰고, 별도 란에 자신이 손님으로 샵에 처음 갔다가 아내를 만났고 결혼하면서 빚을 갚아 주고 아내와 장모의 체류 신분도 해결해 주었다는 것을 기입했다. 친구를 따로 만나지는 않는데, 봉사 활동 모임이 있어서 그것을 적었다.

아내의 가족이라고는 장모밖에 없는데, 모녀가 다 건강해 보여서 아내의 키와 몸무게를 제외하고는 쓸 것이 없었다. 별도 란에는 아내가 수면제를 많이 먹어서 입원해 있다는 것을 썼다.

기입한 것들이 다 정확한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잠시 후에, 이메일로 입력이 다 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나이도는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아내가 입원한 다음 날부터, 교회 사람들과 아이들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 성후는 아내가 지금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전해 드리겠다고 공손히 말하고 끊었다.

그동안에도 V는 아내의 휴대 전화로 오는 메시지에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다는 짧은 답을 보냈다. 그리고 다시 알람이 떴다.

“원하시는 기능을 실행하기 위하여, 받으신 메시지는 전달하지 않으셔야 하고, 지금은 혼자라는 고립감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내의 휴대 전화로 온 메시지와 전화 기록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성후는 고개까지 끄덕이며 확인 버튼을 눌렀다.

성후는 블랙 라이트 데이 준비팀의 팀장을 맡고 있었다. 블랙 라이트 데이는 모든 관공서에서 일제히 컴퓨터의 전원을 끄고 시스템을 초기화시키는 날이고, 1년에 두 번 있었다. 처음에는 관공서의 컴퓨터 네트워크만 시작했지만,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기업들도 이미지 광고를 위해 참가하고 엄청난 수의 비정규직을 고용했다. 그 날을 위해서 1년 내내 자료를 보관할 준비를 하고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입력을 했다. 대부분의 일들은 기계화되었지만, 블랙 라이트 데이 두 번을 위한 작업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일자리는 많았다.

작은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전기를 쓰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초를 켜기도 했고 차들은 정해진 단 1시간 동안 신호등이 꺼진 거리에서 모든 방향 정지 신호의 기준에 맞추어 운행했다. 사람들은 그 시간에 될 수 있는 한 나오지 않거나 고속도로를 달렸다.

블랙 라이트 데이를 위해 비정규직으로 지원해서, 1년 중 최대한 9개 월을 일하고, 한가해지면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도, 기본급을 받으며 1년 내내 일하는 사람들과 연수입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성후가 쓰고 있는 시판 전의 프로그램은 블랙 라이트 데이에 전원을 끌 필요가 없는 대신, 소비자 테스트용으로 등록되어 모든 정보가 별도

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었다. 소비자가 프로그램의 종료를 원하는데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네트워크로 신고해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중재위원회를 통해 테스트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블랙 라이트 데이에는 가능하면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가 뜨고, 신호등이 꺼지는 한 시간 동안은 휴대 전화에 노란색 불빛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지만, 성후는 그런 날 그런 시간에 더 집중적으로 시험 프로그램에 매달렸다. 성후는 이전에도 간단한 시험 프로그램들을 신청해서 사용했는데, 이 시간에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해 했다.

성후가 V를 받은 지 며칠이 되지 않아 블랙 라이트 데이였는데, 아내가 그 전날 밤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어 응급실에 실려 왔다. 그러나 성후는 병가를 내고 하루종일 아내 곁에서 새 프로그램을 알아가는 것이 한없이 기뻤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휴대 전화에서 빨간색 알람이 들어왔다. 아내가 현관을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갑자기 누군가 왼쪽 어깨를 톡톡 쳤다. 사무실의 상사였다.

“일해야지. 뭘 보나?”

성후는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말했다.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상사는 다른 말 없이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갔다. 상사의 지적에 심사가 뒤틀린 성후는 쉬는 시간에 바로 아내에게 전화했다.

“어디세요?”

“장보고 와서 정리해요. 집. 왜요?”

“아니. 그냥.”

말끝을 흐리며, 성후는 헛기침을 했다. 그리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아내가 불안해 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무슨 일 있어요?”

다시 성후는 잠시 뜻을 두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들으려고 전화해 봤어요.”

아내는 완전히 불안해 하고 있었다.

성후는 아무 말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서서히 기분좋은 느낌이 온몸에 느껴졌다. 흐뭇했다. 상사에게서 받은 스트레스도 어느새 많이 풀려 있었다.

저녁을 먹은 아내는 상을 치우더니 나갈 차림을 했다. 어디 가냐는 말에, “운동하러 가는 거야.”

아내는 날듯이 가벼운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성후는 아내의 일정에 운동을 입력했다.

휴대 전화에 메시지가 떴다.

“근처 헬스클럽 무료 체험권을 인터넷으로 받아서 갑니다. 막아야 합니다.”

성후는 의아했다. 다시 메시지가 떴다.

“운동으로 자기 관리를 하면, 다른 사람이 조절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자신의 사고로 사리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려 듭니다. 운동을 비롯한 취미 생활은 제한해야 합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성후가 물었다.

“운동을 간다는데 무슨 이유로 말리지?”

“논리로 접근하면 못 말립니다. 운동을 가는 시간에 아프다고 누워 있거나 급하게 집에 있어야 할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연을 가장하여 포기를 반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후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한 번씩 침묵 고문을 하면 상당히 긴장하던데, 나 잘하고 있는 건가?”

파란 불빛이 다섯 번 깜박거렸다.

초록색 불빛이 길게 들어왔다. 광고라고 했던가? 성후는 다시 휴대 전화로 시선을 돌렸다. 접착식 초소형 카메라였다. 휴대 전화와 연결되어 카메라는 끄고 오디오만 쓸 경우 훨씬 수명이 길어진다고 되어 있었다.

“오프라인 정보 직접 수집하고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시판되는 것 중에서는 비용과 기능이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추천합니다.”

성후는 망설이지 않고 구매 버튼을 눌렀다. 하나를 구입하면 다른 하나는 반값이라고 해서 아예 두 개를 구입했다.

카메라는 다음 날 배달되었다. 배달 시간과 상자를 둘 곳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출근길에 박스채 가지고 나와서 아내는 알 턱이 없었다. 포장을 회사 입구의 휴지통에 다 버리고 성후는 내용물만 소중히 품에 넣었다.

집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다음 날 아내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온다는 희소식이었다. 성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분좋은 느낌이 온몸에 퍼졌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는 자신이 할 테니 너무 늦기 전에 운동하고 오라며 아내를 내 보낸 성후는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먼저, 식탁이 내려다 보이는 장식장 안의 십자가에 카메라를 달았다. 욕실에서 휴대 전화를 통해 보니 사람 얼굴은 하나도 안 보이고 천장과 벽만 보이는 각도였다. 장식장 안이라 말소리가 들릴 것 같지도 않았다.

다시 휴대 전화를 들여다보며 여기 저기 카메라를 달아 보고, 최종적으로 식당에서 부엌으로 가는 문설주 위에 하나, 그리고 거실 피아노 위에 하나를, 사람 얼굴이 보이도록 각도 조정해서 달아놓았다. 안방 모서리에 서서 휴대 전화를 들여다보니 화면이 마음에 꼭 들었다. 성후는 제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작은 걸음으로 콩콩 뛰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커피를 내린 성후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차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성후는 차고에서 들어오는 문 앞에 서서 아내를 맞았다.

“끌났어요? 지금 커피 내렸는데, 차가운 거 아니면 따듯한 거? 물 마실래요?”

아내는 물을 마셨다고 했다. 다시 얼음을 한 잔과 커피를 달라고 말하고, 입고 갔던 옷들과 운동하면서 땀에 젖은 옷들을 세탁실로 가져갔다.

“내일 몇 시쯤 친구들이 오나? 몇 사람이나 와요? 뭐 필요한 거 지금 사러 같이 갈래요?”

아내는 친구들이 아니고 봉사 모임의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데 자신의 차례가 되어 우리 집으로 오는 거라고 말했다.

“11시쯤 여섯 명이나 일곱명? 마트에서 장을 미리 다 봤어요. 더 살 것 없어요.”

성후는 아내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친구들 오고 좋겠네요. 저는 그럼 자러 들어갑니다.”

다음 날, 성후는 일을 하는 동안, 수시로 휴대 전화를 확인했다. 11시 부터는 묵음으로 한 채 휴대 전화 화면을 켜서 책상 위에 올려 두었다.

여섯 명이 집으로 왔고, 여자 넷에 남자 둘이었다. 성후는 이어폰을 꺼내 전화기에 연결하고 오른쪽 귀에 꽂았다. 여자는 아내 또래 두 명, 오십대 초반 한 명, 그리고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었다. 두 남자는 모임에 온 여자들의 남편들로 보였다. 아내 또래의 여자가 둘러보며 말했다.

“집이 단정하고 이쁘네.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가 정말 깔끔하다.”

아내는 한숨과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음질과 화질이 완벽했다. 성후는 심장이 뛰는 것을 실로 간만에 느꼈다. 직장 상사가 성후의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그는 근무 중에는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매너이며 회사 방침이라고 항상 강조했다.

성후는 전화기를 들어서 사람들이 모인 화면 중 남자들이 서 있는 부

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책임지겠습니까?”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인지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큰 것 같았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성후를 쳐다보았다. 상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성후가 항상 마사지 샵에서 만난 아내를 걱정하는 것은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다. 지난 번 아내가 입원해서 병가를 낸 후에 출근했을 때도, 동료들은 성후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 주었다.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특별히 성후를 아껴주는 나이 든 여자 직원들도 있었다.

퇴근하는 성후에게 상사가 잠깐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성후는 거절했다.

“아까 보셨잖아요. 집에 급하게 가 봐야 합니다.”

상사는 성후에게 그러면 내일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다. 근무 시간 중에 찾아가도 되나는 성후의 물음에 언제든 편한 시간에 오라고 했다.

다음 날, 성후는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상사에게 갔다. 점심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집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비몽사몽한 상태로 상사를 만나는 게 나았다.

“요즘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아직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불안해?”

“긴장을 늦출 상황은 아닙니다. 저한테 제일 소중한 건 가정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지만요.”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할 때는 일에 집중을 해. 다른 직원들이 신경 쓰인다고 불만을 토로하더군. 그런 줄 알고 있으라고.”

성후는 화가 나서 머리 위쪽이 뜨거워졌다.

“제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책임집니까?”

“아니지. 그러나 성후씨가 해고 당해도 그 사람들이 책임지지는 않지.”

“알겠습니다.”

상사의 말은 듣지도 않고, 성후는 일어섰다. 화가 나서 주체할 수가 없었다. 휴대 전화에 빨간 불이 켜졌다.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이 메신저 연락을 합니다. 2주 후에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고 부부동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야지.”

“간다고 하고 약속을 어기는 편이 낫습니다.”

성후는 잠시 휴대 전화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되지 않았다.

남편에게 이야기해 보고 안 되면 혼자라도 간다면, 그 전에 연락하겠다고 보내는 아내의 메시지가 휴대 전화 화면에 떴다.

V가 다시 강조했다.

“같이 간다고 하고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 안 가면 됩니다. 그때 못간다고 연락을 하면 메시지 전송이 안 되도록 차단하겠습니다. 오는 줄 알고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치면 아내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입니다.”

퇴근길은 차가 많이 밀렸다. 그래도 콧노래가 나왔다. 길 옆, 오가면서 본 식당에서 풍기는 냄새가 유난히 좋았다. 성후는 멋지게 곡선을 그리며 한 번에 주차를 하고 식당으로 들어갔다.

햄버거 두 개, 딸기 쉐이크, 감자튀김, 닭 날개도 6조각 주문해서 포장을 했다. 집으로 들어가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차도 있고, 신발도 제자리인데 아내는 차고 문이 열려도 나오지 않았다.

성후가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니 아내는 자고 있었다.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높았다. 사이드 테이블에는 물컵과 감기약이 있었다. 성후는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부엌으로 나왔다.

딸기 쇼이크는 냉장고에 넣어 두고 손을 씻었다. 텔레비전을 틀어 놓고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먹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기는?”

“자요. 열이 좀 높네요.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니고.”

“자도록 놔 둬. 밥 챙겨 먹어라. 집안일이 표가 나지 않아도 할 일이 많고 사람 진을 빼는 일이다. 행여나 임신을 하면 초기에 잠이 오니까 충분히 자야 하고.”

“피곤한 건 일하고 온 제가 더 피곤해요. 몸조리도 제가 해야 되고.”

성후는 안성을 높였다. 그리고 전화를 그냥 끊었다. 거친 발소리를 내며 방문을 열고 아내를 흔들어 깨웠다.

“나 왔어요. 일어나.”

아내는 좀처럼 눈을 뜨지 못했다. 성후는 부엌에 가서 커피를 진하게 탔다. 물 반 컵을 데우고 커피 믹스 세 개를 넣어 녹였다. 아내의 머리를 받치고 커피를 입에 조금씩 흘려 넣으니 아내는 눈을 간신히 떴다.

아내가 만들어 준 만둣국을 먹고, 소파에 누운 성후는 리모콘을 들었다. 그 때, 다시 휴대 전화의 알람이 울렸다.

파란 글씨로 테스트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메시지다. 성후는 아쉬워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를 후, 테스트가 종료되고 성후에게 이메일이 올 거라고 했다. 시판되면 구입가가 얼마인지 다시 물었고, 이메일에 모든 것이 나와 있을 거라는 메시지가 떴다.

이틀 후, 성후의 사무실로 몇 사람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상사에게 신분증을 보여 주고 밖으로 불러냈다. 상사는 그 날 퇴근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 날 자정이 되도록, 성후는 휴대 전화를 계속 들여다보았는데, 아무런 메시지도 뜨지 않았다. 수시로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프로그램을 제작한 회사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튿날 새벽, 난폭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성후는 잠에서 깼다. 사무실로 찾아왔던 사람들이었다.

침실로 가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옷을 입고 나와서 따라가겠다고 해도 소용없었다. 그들은 성후를 어린아이처럼 들어 차에 태우고 유치장에 가두었다. 성후는 어이가 없었다. 휴대 전화가 없어서 불편했지만, 무슨 조사라도 받게 되면 말을 하려고 기다렸다.

관공서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절차를 무시하는 건 무식한 짓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기다렸다.

그는 독방에 갇혔다. 방 안에 침대와 컴퓨터가 있었고, 원할 때마다 밥을 주었다. 음식은 꼭 비행기 기내식같은 느낌이었다. 성후는 먹는 것에 별로 불편하지 않았고, 술도 마실 수 있었지만, 와인이나 맥주를 한잔 마실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 그들은 다시 성후를 데리고 어느 곳으로 갔다. 대도시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이었고, 그를 데려간 곳은 65층의 스튜디오였다.

작은 욕실이 있었고, 옷장에는 집에 있던 성후의 옷들이 걸려있었다. 작은 부엌과 냉장고에는 그가 잘 쓰던 냄비와 식기, 좋아하는 라면과 냉동식품류까지 잘 정리돼 있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야경을 보고, 성후는 밤인 것을 알았다. 창 아래의 가구를 살펴보던 성후의 눈이 커졌다. 그냥 평범한 장이 아니라, 사물이 전송되는 첨단기기였다. 그는 행복해서 몸을 떨었다.

성후는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었고, 성후가 쓰던 컴퓨터의 모든 자료가 그대로 옮겨져 있었다. 지칠 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성후는 라면을 끓여 먹고 바로 잠이 들었다.

충분히 자고 일어났을 때, 성후는 컴퓨터 스크린에 있는 시계를 보았다. 오후 2시 30분, 그는 고개를 들어 구름이 흐르는 하늘을 보았다. 다가가 보니, 창은 열 수 없는 스크린이었다. 때때로 바람이 부는 효과까지

재생되었다.

성후는 컴퓨터를 켜고, 911을 불렀다. 컴퓨터 스크린이 삼등분되었다.
커다랗게 무슨 일이십니까, 메시지가 뜨고, 두 개의 작은 화면에는 성후
의 뒤에서 보는 모습과 위에서 보는 모습이 있었다.

-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어서 새롭게 위치 지정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일거리가 보
내 질 것입니다. 식료품과 생필품은 사용한 즉시, 전송기를 통해 보충될 것입니다.

- 집은? 아내는? 직장은?

- 이곳이 당신의 집입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직장은 당신이 전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후가 속해 있는 모임은 아예 없었다. 그래서 더 물을 것도 없었다.
그러나 성후는 어이가 없었다.

-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 프로그램 체험단 동의서에 나와 있습니다.

동의서 중에서, 프로그램 체험단은 프로그램과 상호 작용을 하기 때
문에, 사용자의 모든 입력 정보와 그로 인한 결과가 다 기록되고, 그것이
반윤리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면 구속을 포함한 법적인 절차가 진
행될 것이라는 내용이 화면에 떴다. 성후의 서명이 있는 부분도 화면에
떴다.

책자 한 권 분량의 동의서를 다 읽었을 리가 없었다. 마구 내려가면서
전자 서명을 하는 데도 십 분이 걸렸다.

성후는 심호흡을 했다. 화면을 보고 작은 화면에 보이는 자신의 모습도

다시 한 번 보았다.

- 아내를 보고 싶습니다. 변호사도.

다시 화면에 동의서의 일부분과 자신의 서명이 떴다.

-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족이라 해도 피해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연결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다른 글씨체의 메시지가 떴다.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사람 없나? 나 이 방에서 못 나가? 누구 오는 것도 안 되나?

- 당신은 인간의 자기표현 및 의사소통, 행복 추구권을 말살하고자 계획하고 실행
하였습니다. 당신은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인
간의 자존감을 삭제하고 주변으로부터 고립시키라는 명령을 수행하도록 지시하
였습니다.

- 내가 아니라고 하면? 인정 안 한다고. 뭐 묻고 답하고 조사하고 그런 것 없나?

- 당신이 입력하고 지시하고 구입한 것들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다시 동의서의 일부 내용과 자신의 서명이 떴다.

빠른 속도로 자신과 프로그램이 서로 주고받은 자막들, 녹화한 영상

들, 심지어 상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자신의 모습까지 화면에 지나갔다.

- 진작 말렸어야지. 안 말렸으니 내 잘못이 아니야.

- 체험단을 위한 프로그램은 정지 기능이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시험단에게 있습니다. 동의하셨습니다.

동의서의 일부 내용과 자신의 서명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다.

- 오염된 프로그램은 원형까지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 그럼 나 집에 언제 가?

- 당신은 다른 인간과 더불어 살기에 대단히 위험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당신은 기기와 교류할 때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곳이 당신의 집입니다.

- 아내를 보고 싶다. 모두가 아내를 보호하려고 한 일이야. 가정을 지키려고. 그 사람은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어.

- 당신은 아내에게 포식자입니다. 아내를 볼 수 없습니다.

- 여기서 언제 나가지?

- 당신이 적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3차원 체험을 통해 여행하고 운동하고 아내를 만나 사랑하거나 실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신은 인간을 만나 교류하지 않습니다.

성후는 벌떡 일어섰다.

- 내 변호사라며.

- 당신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당신의 변호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하던 일에 점차적으로 난이도를 높여 성취감이 느껴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화면에 집이 나왔다. 성후가 처음 카메라를 위치와 각도 그대로 였다. 아내와 동네 사람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성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 카메라는 그대로 있나?

- 카메라는 당신의 뒤와 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기존의 화면을 분석하여 창조하고 설치한 것입니다. 당신이 사용할 3차원 체험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성후는 눈을 감고 머리를 뒤로 기댔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다. 다시 눈을 뜬 성후는 입력했다.

-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방 밖으로 나갈 수 있나? 내가 한 일은 직장으로 전송되나?

- 당신은 인간과 교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인간의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방에서는 당신의 호르몬 분비를 항상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공기 청정기에서 마리화나 기체가 적절한 농도로 나올 것입니다.

당신은 기기들과 교류하면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도 해치지 않고, 아무런 프로그램도 오염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성후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 컴퓨터의 전원을 끌 수 있나?

- 전원 버튼이 없습니다. 당신이 조절할 수 있는 기기는 이 방에 없습니다. 옷장 위에 놓인 안경을 쓰면 3차원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뇌 속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변호사입니다. 당신의 권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성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침대에 가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쓰고 울기 시작했다. 컴퓨터 스크린에 올고 있는 성후의 모습이 나타났다.

체험수기

대상
가방 싸는 여자
신경화 (중국)

우수상
살리 삼촌
강윤길 (터키)

딸애의 첫돌
허은주 (일본)

작자
조폭 열차 탈출기
유재원 (중국)

캐나다 일기
조은주 (캐나다)

거지 같은 나이지리아에서
고향으로
박미선 (나이지리아)

가방 싸는 여자

신경화 (중국)

시작–절망이 아닌 해방의 모티브

내 기억이 왜곡되었다는 각성이 있기 전, 2002년 5월 15일 광저우는 화창한 날씨, 따사로운 햇빛에다 상큼한 바람까지 불었다.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마냥 좋았던 날이 그날이다. 더러운 나라, 미개한 나라, 갈 곳이 못 되는 나라, 부러움보다는 안타까움과 동정으로 시작한 중국 아주였지만 누가 무슨 소리로 찬물을 끼얹어도 이 거대한 땅덩어리의 시크함이 좋았다.

나중에 알았다.

그날의 평균 습도는 80% 이상 기온은 35도를 웃도는 덥디 더운 한여름의 살인 더위였다는 것도. 어찌되었던 간에 그날은 나에게 더 없이 설레고 격하게 만족스러운, 그지없이 행복한 해방의 날이었다. 원래 자리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1%의 불평도 용납하기 싫어서 등줄기에 땀이 줄줄 내렸다는 사실조차도 왜곡할 정도였던 그날.

2002년 5월 그날 이전의 나는, 최대한 오래가는 뾰글거리는 파마머리에 화장도 최소 비용. 푸석푸석 살이 쪄서 게을러 보이기 까지하는 아줌마. 그 파마머리 아줌마가 과거 어느 시점 한 자락에서는 총망 받는 열정 일꾼이었다고 말해도 누가 믿지도 않을, 사회로 다시 소환될 가능성도 없는데 시도는 무슨 시도. 다 포기하고 살아. 이유 없는 짜증과 근거 없는 분노로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도 싫게 만드는. 그런 여자. 찾으면 길이 있다던데, 길이고 미래고 희망이고 찾을 생각도 시도도 하지 않던 그 여자가 남편 덕분에 중국으로 기약 없는 짐 가방, 두 개를 2002년 5월에 쌌었다.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그러나.

니하오(你好). 안녕이라는 이 말도 할 줄 모르고 시작했던 해방의 목마름은 참으로 무모하기 그지없었다. 중국말에는 성조가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던 나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지도 못했고 숫자가 없어서 손짓 발짓도 못했다. 아는 사람 하나 없으니 남편이 출근한 시간엔 어딜 가야 할지, 3살난 아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난감했다. 말 못하는 벙어리. 영어는 조금 할 수 있었지만 영어나 한국말이나 그들이 못 알아듣기는 마찬가지.

이 깨고 싶지 않은 해방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중국어 공부였다. 모두들 중국어는 어렵다고들 수년 생활하고도 난 한마디도 몰라, 중국 사람 앞에 서면 말문이 막혀. 이런 소리는 하고 싶지 않았다. 낯선 곳에 살기 시작하면, 우울증도 걸리고, 향수병도 걸리고 그런 됐다. 선진 문화 한국에 살던 사람들은 중국과 같은 제3국들은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꾸며대도, 중국은 살 수 없는 나라에 불과하니 살 수 없는 이런 나라에서 우울증, 향수병, 지독한 외로움에 수반되는 징징거

림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 당연한 하나의 통과의례처럼 여겨지는 듯했다. 그러나 나는 그 틀, 평계 안에 나를 정당화하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얼마만큼이 주어졌을지 모를 그 시간을 충분히 알차게 활용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사실, 남편이 대기업의 주재원이거나 시댁 혹은 친정으로부터 넉넉한 자금을 충분히 받아서 떠나온 여유로운 이주가 아닌 이상 처음 몇 년간의 약간의 생활고, 세상에 혼자만 힘든 것 같은 외로움, 집이 떠나가라 핏대를 세우는 부부싸움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너무나 진부하고, 쓰기도 싫다. 처음부터 나는 우울증이 뭔지, 향수병이 뭔지-사실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 그럼 돌아가. 뭐 하려고 여기서 고생이야. 남편만 있고 넌 애랑 같이 돌아가.’라고 누가 등 떠밀며 고국 땅으로 돌려 보내기라도 할까 봐 유령섬에서 어렵사리 보물찾기를 하듯 ‘즐거움’ 찾아 헤매기에 여념이 없었다.

준비-그 나이에 공부는 무슨!

처음 2년 동안 남몰래 중국어 개인 과외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먼지구덩이 비포장도로를 뚫고 시내 영어학원에서 회화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영어학원엔 여러 사연으로 모인 여인들이 많았다. 홍콩 남편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 공부를 시작했다는 20대 어여쁜 젊은 새댁과 사업에 신물이 나서 이제는 자기의 생활을 즐겨보자고 ‘영어나’ 시작했다는 40대 벤츠 아주머니- 우린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그리고 나, 한국 사람 같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갓 한국에서 온 열망으로 가득한 이방인까지.

사실 일도 하지 않는 내가 두 가지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은 주제 넘는 짓이었다. 특히 집안 어른들이 알면 돈도 못 벌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당연히 욕먹을 짓이니 늦깎이 공부는 나와 남편만 아는 비밀이었다. 이런 형편에, 애도 아직 어린데 도대체 뭘 위해서, 그 나이에 뭐가 되려고 공부를 하느냐? 누군가 묻는다면 막연히 혹시 모르니까, ‘기회’가 올지도 몰라서 라고 답한다는 것이 얼마나 철없고 무모한 대답인지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 막연한 공부를 위해서 아들은 만3살 때부터 집 근처의 전일 중국어 유치원으로 보내고, 나는 아침 8시부터 저녁 4시까지 무한 자유를 누렸다. 나는 머리가 좋거나 명문대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이 오히려 쉽게 적응되었을지 모르겠다.

뭔가에 미쳐본다는 그 느낌. 고추, 양파, 이거 얼마예요? 고작 이런, 현지인들이 공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들을 쓰고 쓰고 또 쓰고. 그래 봤자 고추고 양파인데…… 아무튼 난 중국어가 너무 재미있었다. 30대에 시작한 공부이니 발음도 볼품없었고, 뇌의 회전도 10대, 20대처럼 빠르지 않아 자꾸 잊어버리기를 반복했어도 “잊어버렸네. 또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외우고 또 외웠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나서 접었던 영어 공부도 병행을 하니 공부의 즐거움이 뭔지, 무식을 유식으로 바꾸는 과정의 쾌감까지 잘 알게 되었다.

사람의 욕심이 참 끝도 없다.

그 형편에 몰래 들이던 과외비가 염치없는데도 다른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 중산대학교. 주변을 돌아보니 누구는 중산대학교에서 어학 코스를 받는다더라. 대학교에서 어학 코스? 그건 30대가 누리기에는 사치스러워도 너무 사치스러운 꿈! 막연한 꿈…… 하지만 왜 막연해야 하나? 라고 다시 이기적 정당화를 시작했다. 그냥 감자, 고구마, 야채 편안히 사고, 길을 잊지 않는 그 정도에 멈춘다면 내가 생각하던 막연한 ‘기회’는 하잘

것없이 돈만 낭비하는 사치였다. 욕이나 한껏 먹을 부질없는 열정에 불과 할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나는 중국에 거주하는 2년간, 아침 9시에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는 중산대학교에서 어학 코스를 밟기 시작했다. 보통은 1급부터 시작 하지만, 한동안 혼자서 열심히 했으니 4급 반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20대 어린 학생들과 친구로 지내면서 1초도 아깝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아들이 오기 전까지 숙제도 하고 배운 단어들을 영어로 다시 번역하여 정리하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었다.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 학급 우등상과 작문상 두 개를 받는 영광을 누렸다. 남편의 만류에도, 이기적인 나의 본성 탓에 제 생각만 하는 나쁜 여자의 낙인을 받으면서도 또 중국어 연수 접수를 했다. 4급반을 마무리했으면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반이 6급 반이었지만 다시 한 번 과감한 시도를 했다.

무리해서 8급 반에 접수를 하니, 교수들이 모두 무모한 짓이라 말렸고 몇 번의 수업을 듣는 동안 모두 다 알아듣는 문제를 나만 못 알아들여 교수에게 노골적으로 망신을 당했던 적도 있었다. 8급 반을 마치면 중산 대의 대어문화 과에 2학년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니 난이도는 말할 것도 없었다. 반에서 꼴찌 중에 상 꼴찌. 이것이 교수들이 나를 평가하는 단어였다. 이렇게 망신스러운 상황에 놓이고 보니 또 오기가 발동하기 시작했다. 저녁마다 <은밀한 열정>이라는, 참으로 성인물다운 제목이지만 중국어 발음을 공부하기에 더없이 좋았던 더빙드라마를 매일 공부하고, 아직은 들리지 않는 중국 뉴스를 들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2개월 만에 8급 반에서 중간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었다. 그때도 관용구나 어려운 단어들은 영어와 병행하며 공부했기 때문에 비단 중국어만 실력이 향상된 것이 아니라 영어도 같이 나아졌다. 들을 수 없으면 말할 수 있어도 소용없

다는 생각에 <길모어 걸스>라는 시즌7까지 나왔던 장편의 미국 드라마를 10번 이상 반복해서 보면서 영어의 일상 표현들을 익히려고 노력했다.

도약- FOUR IN ONE, 바이어도 없이 시작했던 해외 무역 담당자

8급 반을 무사히 마치고 HSK7급 (당시에는 12급까지 있었는데 6급 이상은 대학 수업이 가능했다.) 자격증도 따고 나니 남편의 시선이 달라졌다. 마치 아주 잘 연마된 도구를 만족스럽게 바라보는 느낌? 남편은 그 때 매출 5000만 원이 목표였던 작은 회사를 갓 차려놓고 고전하고 있던 때였고 마침 동업하던 ‘FOUR’의 구성원 중 마지막 한 명까지 지쳐 떨어져 나간 상황이니 돈도 안 들고 월급도 줄 필요 없었던 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다. 어느 토요일 오전, ‘내일부터 네가 출근을 해줘야 겠는데?’ 하는 이 전화 통화에 월요일부터 나는 남편의 작은 무역회사 해외영업담당자로 일을 시작했다.

내 파트의 매출은 0원, 바이어 0명.

그렇게 시작한 일이 ‘언젠가 있을 기회’가 온 것으로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초라한 출발이었다. 모두들, FOB로 가냐 CIF로 가냐, 포워더에게 서류는 보냈느냐, 이런 말들을 하고 열띠게 일에 열중하는 동안 귀가 있어도 알아듣지 못함에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다. 본래 잘 싸우던 부부였던 남편과 나는 하루가 멀다 하고 더 많이 싸웠고, 그때마다 머릿속에서는 이까짓 것 때려치워 버릴까, 마치 60평짜리 FIO 왕국에서 나 혼자서만 느끼던 남편의 도도함과 당당함에 내 속은 수백 번도 더 터져나갔었다.

아침이면 늘 출근 안 할까, 차라리 이혼해 버릴까, 역시 남편과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반성과 후회를 거듭하던 중 내가 보냈던 바이어 발굴 E-MAIL 한 통의 답변을 받았다. 내가 만든 프레젠테이션 파일의 제품들이 홍콩에 지사를 둔 미국 10대 화장품 약세사리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와 기적적으로 잘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만약 내 인생 어느 구석에 ‘기적’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면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 시절의 어느 바이어가 이름도 모르는 세일즈 매니저가 보낸 메일에 그처럼 답변해 줄 수 있을지, 기적이라는 말로밖에는 설명될 수 없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제품들 중 일부를 샘플로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은 것이다. 곧바로 정성껏 만든 샘플을 정리해서 홍콩으로 보냈다.

매출 0원의 내 파트에 브러쉬 아이섀도라는, Bull's Eye 아이섀도라는 오더가 발생한 것은 2008년 3월. 홍콩에서의 첫 미팅에서 미팅룸 한쪽 구석에 진열되어 있는 그 초라하고도 조잡스러운 샘플 속에 어렵사리 오더를 주려고 파란 눈을 굴리던 첫 바이어 Katie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첫 오더를 계기로 해서 조금씩 매출이 올라가고 샘플의 모습들도 제법 당당해지고 기품 있어졌다. 그때는 MAC이라는 큰 화장품 회사에서 아이섀도가 한 색상씩을 단품으로 히트를 치기 시작한 무렵이었기 때문에 우리 제품인 Bull's Eye 아이섀도도 정말 많이 팔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이어가 지정해주는 팬톤 컬러로 샘플을 만들어도 무수한 시행착오를 반복했다. 아무리 같은 원료로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으로 생산을 해도 그날의 날씨, 습도, 원료의 미세한 차이들 때문에 산적 날짜를 겨우 지킨 적도 많았다.

뜻하지 않은 난관은 수도 없이 많았다. 2008년 9월쯤, 공장에서 그동안 받았던 오더 중 가장 큰 것이었던 아이섀도 36칼라 킷 2,000 세트에 가격표를 거꾸로 붙이는 사고가 있었다. 출고일은 이틀 후이고 물건은 이

미 홍콩의 포워더에게 선적이 된 상태였다. 그 상태 그대로 출고된다면 미국에서의 가격표 재작업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보다 이제 갓 시작해서 한참 도약하려는 시기에 그런 사고는 치명적이었다. 해결 방법은 나와 직원 중 한 명이 가서 그 라벨을 모두 떼고 다시 붙이는 방법밖에 없었다. 홍콩의 포워더 창고에서 임시직 8명과 2,000 세트의 가격표를 모두 다 붙이던 과정! 빼어도 빼어도 끝날 거 같지 않던 그 단순하고도 고단한 과정이 정말로 힘겨웠다. 그 단순한 노동을 다 하고 나니 시간은 새벽 3시.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심천의 황관역을 거쳐 중국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죽을 듯 피곤했다. 하지만 그때 그 성취감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산을 넘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쉴 수 있는 계곡이 나타나는 게 정상 아닐까. 일을 하면서, 특히 이방인으로서 중국인들과 일을 하면서 작은 산을 넘으면 언제나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홍콩에서 ‘가격표 거꾸로 붙인 사건’은 공장이 저지른 작은 만행이 불과하다. 겨우겨우 쌓아 올린 성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듯한 사건이 늘 일어났다.

무역 용어도 잘 알지 못하던 내가 그럭저럭 책임자로서 자리를 잡아갈 즈음, 새 여름 시즌 프로젝트로 Bull's Eye 아이섀도 글리터를 많이 집어 넣어서 진행했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전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화장품 공장에서 이미 검사 기준을 통과한 글리터를 몰래 저렴한 것으로 바꿔치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심할 여지없이 바꿔치기한 글리터에서 문제가 터졌다. 허용치의 수십 배를 능가하는 중금속 함유! 이런 이유로 통관 과정에서 FDA에 적발이 되어 납품 담당인 우리 회사와 공장이 FDA의 금지 업체 목록에 오른 것이다. 그 일은 무엇으로도 변명의 여지도 없고, 앞으로 내가 바이어와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자체도

불투명해진 상태였다. 같은 회사의 이름으로 같은 품목은 절대로 팔 수가 없게 되었으니 내 운명은 거기까지가 끝.

나는 사태의 심각성을 듣고 모든 제품 파괴 비용과 그밖에 발생하였던 바이어측의 일체의 비용을 모두 배상해주기도 했다. 금전적인 손해도 컷지만, 내가 담당했던 일 때문에 회사의 운명은 물론 중국 거주 자체까지 불투명해지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글로벌 기업으로 전 세계의 매장수가 3,000개가 넘는 회사였는데 거기서 끝이었다면 정말로 기적을 날려버리는 일이었다. 마지막의 그 미팅에서 완벽하지도 않은 영어 실력으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의미 전달이나 제대로 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할 수가 없었다. 진심으로 열변을 토했다. 미팅 시간이 끝나갈 무렵 바이어는 메인이었던 화장품 대신 브러쉬에 좀 더 본격적인 진행을 해 보자는 제안을 했다. 끝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동안 오더 진행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했었던 벤더 중 하나였다는 점이, 할 수 있는 만큼 늘 최선을 다했던 그런 태도들이, 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한 철저한 책임 의식이 기회를 준 것 이었다. 문제가 생긴 제품을 파괴 비용까지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난제가 남아 있었지만, 나에게 다시 찾아온 기적, 브러쉬가 메인이 되는 납품업체가 되었다.

브러쉬의 비상(飛上)-플레티엄 벤더 상을 업체 수상

브러쉬 공장에서는 내가 방문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오더 수량보다 샘플수량이 더 많아요. 어째…… 참 자주 뻔질나게 오시네.”

장난처럼 던진 농담이었다는 사장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너무 큰 상

쳐였다. 마치 구걸하러 온 느낌이었다. 공장 측에서도 5,000개가 최소 생산 수량인데 1,000개, 1,500개 어떨 때는 500개도 해 달라고 폐를 썼으니 아무리 좋은 말로 희망을 설명해도 감언이설에 불과했다. 2년을 넘게 최소 생산 수량 이하로 물건을 해 가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진실되게 들릴 리 없었다. 하지만 모두들 불가능한 꿈이라고 해도 나는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3,000개가 넘는 매장 전체에 브러쉬를 베스트셀러 아이템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브러쉬를 공부하고 모든 브랜드에 잘 팔리는 브러쉬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미팅 때마다 브랜드 별로 가장 잘 팔리는 제품들, 신제품, 핸들에 유행하고 있는 도금이나 인쇄 효과들까지 보고서로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한국사람이라는 것은 큰 메리트였다. 한국 시장에서 유행하는 제품들은 디자인에서도, 아이디어면에서도 바이어에게 상당히 중요한 참고서였으니까.

2010년부터는 미국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도 초대되기 시작했다. 좀처럼 올 수 없는 기회였다. 난생처음으로 가는 미국 출장, 샘플이 가득 들어 있는 가방 두 개를 쌌다. 이 가방은 내가 처음 중국으로 올 때 호기심과 기대로 가득 찼던 2002년의 그것보다 훨씬 격이 높아진 녀석이었다. 영어도 할 줄 알았고, 외국 출장 경험이 그 전에도 있기는 했지만 샘플 가방 두 개를 들고 혼자서 미국을 간다는 결심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렇다고 그 중요한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둘 수도 없었고, 대신 해 줄 수도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혼자서 미국에 가게 되었다. 대부분 회사들이 상당한 매출 수준의 공장들이었다. 삼삼오오, 호텔 아침 뷔페에서도 모두 짹이 있었다. 아마 혼자 오는 회사는 나 혼자뿐이었던 것 같다. 남편은 회사의 이미지도 있으니 직원들을 데리고 다니라고 했지만, 온전히 내가 해야겠다는 팬한 욕심에 그 후에도 몇 년을 혼자서 다녔다. 혼자서 다녀도 늘 당당한 모습으로, 항상 완벽한 커리어우먼의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2002년 뚱뚱한 그 아주머니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점차 작은 규모에 비하면 믿기지 않은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다. 바이어도 제품 개발이나 아이디어는 상당 부분 나의 시장 조사와 매 시즌 타 브랜드 제품을 참고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품질만큼은 꼭 최고로 지키겠다는 고집을 꺼지 않았던 점이 많은 이바지를 했다고 생각되었다. 어느 제품들과 달리 브러쉬는 얼굴에 직접 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색상보다 터치감이었다. 그 부드러운 터치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이어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정말, 이 길이 아니면 할 것이 없다는 각오로 일했던 것 같다.

2016년 여름, 홍콩에서의 미팅을 마쳤을 때였다. 다른 행사가 있으니 다른 미팅룸으로 옮기라는 얘기에 그곳으로 가 보니 나를 위한 작은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플레티엄 벤더 어워드. 매출 규모와 제품 개발의 기여도, 영향력 등을 고려해서 중요한 벤더들에게 주는 상장이, 나는 있는 줄도 몰랐었다. 그리고 마흔이 넘은 나이에 '상'이라니! 공부 잘해서 받은 상도 별로 없었던 일반학생이었던 내가 사회 우등생으로 받았던 최고의 상이다.

지금의 나-아직도 더 높은 산을 넘고 있다.

중국의 노동비와 원자재 값이 턱없이 올라가면서, 작년 10월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 오르는 때가 있으면 내려오는 때도 있다. 내가 늘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인지 무척 두려웠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모두가 힘든 시기라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금은 안일한 생각으로 사업을 했던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해 12월

에 또다시 잡힌 컨퍼런스 때문에 시카고에 도착했을 때였다. 오랜 비행에 피곤이 밀려왔지만, 호텔로 가지 않고 여행 가방도 택시에 실은 채 직접 15개 매장을 돌아가며 제품 조사를 했다.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나는 매장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내 제품들에게서 이유를 찾았다. 잘 팔린다고 수년간을 고수하던 그 제품이 마치 퇴색한 뒷방 노인처럼 매장에 진열되어 있었다. 왜 매출이 줄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시장은 변하고 있었는데 잘 팔린다고, 잘 팔릴 거라는 예상으로 너무 안 이하다 보니 결국 매장에서 왕따 당하는 학생처럼 혼자만 따로 놀던 내 브러쉬들. 브러쉬가 매장에서 퇴출 당할까? 바닥을 친 위기지만 사실, 또 하나의 기적의 계기가 되었다. 더 높은 산이었다.

시장 조사의 결과와 디스플레이 사진, 매장 직원들의 한 마디 한 마디를 보고서로 40페이지 프레젠테이션을 밤새워 만들었다. 그것밖에는 별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바이어들에게 시장 조사의 경험을, 내 제품이 매장에서 가장 낙후되었다, 잘 팔렸었지만, 앞으로는 안 팔릴 것이라는 내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어쩌면 낙후되었으니 아이템 자체를 뺄 수도 있다고……. 내 무모한 솔직함의 결과는 드라마 같은 반전을 가져왔다. 바이어는 새로운 컬러와 파격적인 디자인의 제품으로 그동안의 부진이 무색할 만한 오더를 내렸고, 파격적인 변화가 파격적인 매출 신장으로 이어졌다.

황금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2017년 5월.

남편과 나는 아들에게도 비즈니스 마인드를 심어 주기로 하고 고등학생인 아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참여하기로 했다. 시카고 공항에서 통관을

할 때 엄청난 난관에 부딪혔다. 깐깐한 세관 직원이 너무 많은 샘플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모든 샘플과 함께 돌아가야 한다는 엄포를 놓았다. 거리에서 물건을 팔려는 노점상 취급을 당했다. 법이 그러하고 나는 그 법을 몰랐던 것이다. 수년을 그리 다니고도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만, 왜 하필 아들과 함께 왔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다그치듯 따져 묻는 세관 직원에게 주눅이 들어 처음에는 영어도 잘 나오지 않았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할까, 그 짧은 순간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오갔지만, 무지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부터 하고 앞으로는 꼭 샘플을 판매 불가 상태의, 샘플이라는 순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지하겠다는 설명으로 겨우겨우 통관되었다. 그 중요한 샘플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이 기적이었다. 바이어의 눈에 선택된 샘플 하나가 장대하게 창출해 낼 수 있는 매출을 생각하면 정말로 아찔하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인 아들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하고, 왜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너무 비글한 것이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참으로 교과서다운 정직함이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것이 맞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정의로운데 굽히지 않는 절개! 하지만 짧디짧은 감정의 자존심 때문에 4박 5일 시장 조사와 컨퍼런스, 개별 미팅, 아들에게 익혀 주려 했던 비즈니스 감각까지 모두 수포가 된다면?

그 작은 감정의 자존심은 개에게나 던져줘도 상관없었다.

나는 아직도 가방 싸는 여자

2018년 현재, 중국 생활 16년에 이른 지금까지 수도 없이 가방을 싸고 풀었다.

“무시라 무시라, 나이 오십이 다 돼 가는데 구두로 사람도 찍어 죽이겠다. 오매오매 그누무 사람보다 큰 가방은 왜 맨날 질질 끄꼬 다니꼬!”

아직도 10센티 하이힐을 신고 출장 가는 나를 보는 어머니는 늘 혀를 친다. 나잇값 못한다고. 그러면서도 “미국 가면 영어로 회의하고 다 알아는 듣나?” 딸을 보는 홀어머니 우쭐한 눈빛. 나이 따위 잊어버리고 어디서도 에너지가 넘치는 늙은 딸의 당당한 눈빛.

2002년 5월 중국으로 이주해 오며 싸 왔던 두 개의 가방 안에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어서 슬프고 기가 죽었던 한 여자의 비릿한 절망과 도피의 갈망이 있었으리라. 앞으로도 셀 수 없이 많은 일로 가방을 쌌다 풀었다 같은 일을 반복하겠지만, 그 가방 안에는 포기나 절망, 비판이나 부정, 두려움…… 이런 것들은 흔적조차도 없다. 그 가방에서 무엇이 나올지, 일이 아니면 또 무슨 이유로 가방을 싸게 될지 모르지만, 기억의 지우개가 생겨 거동 불편한 할머니 되는 그 날 까지 나는 가방 싸는 여자다.

간택되기 기다리는 어여쁜 샘플도 담고,
우쭐거리며 뽑낼 10센티 하이힐도 넣고,
청춘이 부럽지 않은 철철 넘치는 열정도 한 가득 넣어서
신나게 출발할 줄 아는……
그런 가방 싸는 여자.

살리 삼촌

강윤길 (터키)

‘김순자 / 서울 성북 경찰서 큰 길 건너편 집’

사람을 찾아달라고 건넨 쪽지에는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글은 쓰여졌다기보다는 마치 어린애가 그린 것처럼 빼뚤 빼뚤 했다. 한글을 읽으실 줄 아시냐고 물었고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다. 모르는 글자로 쓰여진 이름과 주소를 이 할아버지는 도대체 몇 년을 가지고 계셨던 걸까.

내가 살리 삼촌을 처음 본 것은 약 7년 전이다. 터키로 이주한 지 3년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현지어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 때였다. 공장이 소재한 곳은 대도시 외곽의 한적한 소도시로 아시아계 외국인은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한국 회사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인지 살리 삼촌은 내가 근무하는 공장을 직접 찾아왔다. 어느 화창한 초여름 날로 기억한다. 한국전 참전 용사 한 분이 한국인들을 만나보고 싶다며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경비실에서 물어왔다. 내가 직접 만나보겠다고 했다. 한국인으로 터키에 살면 현지인으로부터 가장 흔하게 듣는 얘기가 그들의 할아버지, 삼촌 또는 동네 아저씨가 한국전쟁

때 한국을 도왔다는 얘기다. 어찌나 참전군인이 많은지 동네마다 최소한 한 명은 한국전에 참전했거나 싶을 정도로 자주 듣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한국전 참전 군인이고, 내가 싸운 한국이 발전해 이렇게 우리 동네에도 공장을 세운 것을 보고 너무 감격했고, 한국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왔소. 그렇게 척박하고 가난한 한국이 지금 부자 나라가 됐다니 참 잘 된 일이요”

자그마한 키에 허름한 자켓과 모자, 한 손에는 지팡이와 다른 손에는 쇼핑 봉투를 든 평범한, 그리고 인상 좋은 터키 시골 할아버지였다. 자세히 봤을 때, 남색 모자에는 총과 대포 모양의 마크가 중앙에 새겨져 있었고, 자켓 왼편 가슴 언저리에는 훈장도 2개나 걸려 있었다. 터키군 한국전 참전 용사를 실제 처음 마주하게 되어 신기했지만 특별한 감동은 길지 않았다. 아마도 그 이전 한국전쟁은 나랑 상관 없는 역사로 생각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한참 인기를 끌었던 90년대에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녔던 소위 말하는 X세대다. 나는 X세대를 고생을 모르고 자란 첫 세대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그런 의미에서 내게 한국전쟁은 그저 옛날 얘기다. 차를 대접하고 적당한 담소를 나누고 배웅을 했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뭐 길게 얘기할 꺼리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두 번째로 공장을 찾아왔을 때 조그만 쪽지를 내밀었다. 너무 오래되어 색이 바랜 종이에는 빼뚤빼뚤한 글씨체로 이름과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우선 그는 그 이름과 주소를 깨끗한 종이에 새로 적어줄 수 있는지 부탁해왔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니 바로 여려 장 새로 출력하고

서 나는 그에게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오래된 애창곡을 꺼내 부르듯 희미한 흥분과 함께 한국전쟁 얘기를 시작했다. 그가 한국전쟁 시절 수색임무 중에 웅크리고 숨죽여 숨어있던 사람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할 때는 60년 전 흥분과 놀라움이 마치 어제 일인 마냥 아주 생생한 표정을 지어냈다. 무엇이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살리 삼촌은 그 물체가 사람이라서 또한 여자라서 다행이라고 했다. 안 통하는 말이었지만 그녀는 제발 자기를 군에 넘기지 말아달라는 듯 사정했고, 그녀가 먹여 살려야 할 서너 명의 어린 애들까지 확인한 살리 삼촌은 그냥 그 여자를 놔주었다고 했다. 그 여자와 자식들이 살아있는지 관심이 가기 시작하자 거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들을 돌봐주기 시작했다고 했다. 미군이 주는 보급품은 항상 충분했었고, 특히 이슬람 율법에 맞지 않아 남는 음식과 보급품이 많았다고 했다. 살리 삼촌은 남는 보급품들을 모아 꾸준히 그녀에게 전달했다. 굶어 죽는 아이들을 많이 봤기에 그 아이들이라도 죽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했었다고 했다. 그 이름의 여자가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식들이라도 살아 있다면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몇 차례 참전군인 행사가 있을 때 여기저기 찾아봐 달라 부탁했었으나 마땅한 소득은 없었던 모양이다. 메모에 적혀 있는 이름은 분명 한국사람의 이름이었고, 정확하지 않기는 하나 주소도 대략 서울 어딘가였음이 분명한 내용이었다. 아마도 1953년의 서울일 게다. 무언가 찡했다. 내 앞에 앉아있는 터키 시골 할아버지가 60여 년 전 했던 일이 어쩌면 지금의 나와도 사소하게나마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다. 적어도 그가 대한민국에게 작은 크든 무언가를 베풀고 희생했음을 명확해 보였다. 누가 알까 그가 걸었던 도로와 지나쳤던 건물을 들을 반 세기 시간차를 두고 내가 무심코 지나쳤었는지. 나는 그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한국전쟁에 대한 관심도 생겨났다.

살리 삼촌은 겨울을 빼고 1년에 두 번 정도 공장을 찾았다. 터키어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살리 삼촌은 내 손님이 되었다. 처음에는 조금 귀찮았으나 금새 정이 붙었고 볼수록 반가웠다. 살리 삼촌은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쾌활했으며 친근했고 격이 없었다. 그렇게 고집스럽거나 권위적 이지도 않았다. 살리 삼촌은 빈손으로 오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항상 한 손에는 지팡이와 다른 한 손에는 짐 보따리가 있었다. 정원과 텃밭에서 모아 말린 꽃잎과 나뭇잎들은 차 용도로, 때로는 감이나 체리 같은 열매를 모아 오시곤 했다. 아주 가끔은 서류 꾸러미를 들고 오시는데, 그 안에는 한국전 참전과 관련한 사진과 서류들이 들어있다. 살리 삼촌이 자랑삼아 보여주는 문서들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명의의 감사장도 있고, 참전 용사로 한국 초청 방문 시 찍은 사진들, 터키군이 활약한 전투를 간략하게 정리한 인쇄물 등도 있다. 살리 삼촌은 그것들을 보물인 양 간직한다.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진은 한국에서 찍었다는 젊은 시절의 사진이다. 자세히 보면 닮은 점이 있어 보여도 한 눈에 같은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리고 잘 생겼다. 서양인 특유의 큰 눈과 뚜렷한 이목구비가 꼭 고전영화의 남자 주인공 같다. 전쟁 중 찍은 사진이라고 하지만, 사진 속 살리 삼촌은 웃고 있었다. 살리 삼촌은 스물 다섯 살에 전쟁에 갔다 했으니 이제는 아흔을 넘긴 나이다. 내가 그 사진에서 1950년 전쟁을 본다면, 살리 삼촌은 그 사진에서 20대 젊음을 보는 게 틀림없다. 그런 의미에서 살리 삼촌에게 한국전쟁은 잊고 싶은 과거일 동시에 그리움 속 젊음일 것이다. 처음 공장을 찾아왔던 시절에는 나름 건강해서 자택에서 공장까지 20분 거리를 항상 걸어 오셨다. 걷기가 많이 힘들어진 이후에는 1년에 두어 번 내가 그를 찾아간다. 가끔은 내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데, 손자손녀까지 장성한 살리 삼촌과 아주머니는 아직 어린 내 아이들을 무척 반가워한다. 낮을 가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살리 삼촌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옛날 얘기를 해주는 게 전부다. 살리 삼촌의 얘기를 들어보자.

“이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를 해줄 테니 잘 들어보렴. 지금은 이렇게 늙어서 이가 빠지고 머리도 빠져 흰 수염만 남았지만 나도 아주 옛날에는 너희들처럼 어린애였단다. 나는 사이프러스에서 태어나서 엄마랑 살다가 딱 너희들 만한 나이에 아버지를 찾아 터키 본토로 왔단다. 너희들이 역사책에서 배우는 터키의 국부 무스타파 캐말 아타튀르크가 대통령으로 터키를 이끌던 시절이란다. 아주 옛날이지. 내가 조금 더 커 군대에 갔을 때 멀리 한국이란 나라에서 전쟁이 났단다. 솔직히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랐지. 그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어려움에 처했고, 우리 터키 정부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군대를 파병한다고 들었단다. 많은 터키 군인들이 차출되어 한국으로 갔단다. 믿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나는 한국으로 가겠다고 자원했단다. 나는 젊었고 모험을 원했던 거 같다. 군대에는 병과라고 병사마다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때 내 병과는 영화를 틀어주는 일이었단다. 옛날에는 필름을 사용해 영화를 찍었고 영사기라는 기계를 통해 영화를 봤단다. 나는 휴식하는 군인들을 위해 영화를 틀었고, 시골 마을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장마당 같은 곳에서도 영화를 틀곤 했단다. 나는 멀리 한국으로 전쟁하러 우리 군인들이 가니 거기서도 영화는 틀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멀리 이국 땅에 가는 우리 군인들에게 터키 영화라도 보여줘야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고 나 같은 병사도 있어야 된다고 했더니 높으신 분들이 나도 한국으로 보내줬단다. 1951년 추운 겨울에게해 유서 깊은 도시 이즈미르에서 한국으로 출정하는 배를 탔단다. 터키에서 한국까지는 배로 한 달을 가야 했단다. 한 달이나 가야 되는 먼 길이라 배 안에서 나는 종종 영화를 틀었단다. 내가 영화를 트는 병사라 미군 병사들도 나를 좋아했단다. 바다 위 폭풍은 정말 무서웠는데, 한번은 폭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도에서 몇 일 정박해야 했단다. 덕분에 인도 구경도 했지. 드디어 우리 부대는 부산에 도착했단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신기

하기도 했고, 전쟁과 가난에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 불쌍했단다. 전쟁은 정말 무서운 거란다. 한국에 가기 전에는 총 한번 안 쏴본 나도 한국에서는 총을 들고 싸워야 했단다. 무섭고 두렵지만 싸우는 거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경기도 인근에서 서울로 진입할 적에는 총에 맞아 부상 당하기도 했단다. 그 덕에 일본으로 후송되어 일본 구경도 했지만 정말 죽을 뻔 했단다. 판문점 근처에서 오래 근무를 했단다. 판문점에서는 휴전 협의는 물론 포로 교환도 이뤄지고 있었단다. 하루는 수색 작전 중에 길을 잃어 우리 편과 멀리 떨어진 적이 있었단다. 추운 겨울날이었다. 수색 중에 나는 한 중공군과 한 여자를 생포했는데, 아무래도 두 사람은 무리가 될 거 같아 여자는 놔주고 중공군만 포로로 잡았단다. 근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던단다. 보아하니 아군과 적군 사이 딱 중간 지역에 끼어 있는 것 같았단다. 잘못 움직였다가는 아군 또는 적군의 포격에 동시에 노출될 것만 같았다. 더구나 아군이라고 해도 미군은 말이 통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빠질 수도 있었단다. 그 중공군 포로와 동굴 안에서 3일을 기다렸단다. 그러던 중 근처에 미군이 수색 중인 걸 발견하고 먼 거리에서 소리를 질렀단다. 터키 군 살리 보즈쿠트가 여기 있다! 터키군 살리 보즈쿠트가 여기 있다! 나는 중공군 포로도 한 명이 같이 있지만, 포격이 무서워서 동굴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소리쳤단다. 얼마 후 돌아온 미군은 내 신분을 확인한 듯, 그날 밤 동굴과 적군 사이 지역으로 포격으로 할 테니 그때 아군 쪽으로 이동하라고 말해줬단다. 그날 밤 나는 무사히 우리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알고 보니 내가 잡은 포로는 몽골인이었다고 하더라. 내가 기억하는 최악의 전투는 네바다 전초전으로 알려진 1953년 5월 경에 있었던 칼슨 벨린 베가스 고지 전투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많은 중공군이 몰려왔다. 최전선의 중공군은 무기가 있었는데, 뒷선의 중공군들은 무기도 없이 달려와선 죽은 동료들의 무기를 들고 싸웠다. 우리의 화력이

중공군에 비해 월등했기 때문에 그나마 싸울 수 있었단다. 그 날은 밤이 새도록 전투가 있었고 많은 전우가 죽었다. 그날 많은 적군을 사살했고 몸을 움직일 수 조차 없을 정도의 탈진으로 나는 시체들 틈에서 죽은 체 하며 새벽을 맞았다. 시체 냄새가 천지에 가득했고 엄청난 포격에 야산에 나무란 나무는 다 터져 없어진 듯 했다. 전쟁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란다. 다행히 한국전쟁도 이제는 먼 옛날 얘기가 됐구나. 너희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에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렴.”

살리 삼촌은 한국 파병에서 돌아온 후에 결혼을 했고 삼 남매를 낳았다. 그 삼 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 억척스럽게 일만 했다고 했다. 야간 근무를 밥 먹듯이 했으며 돈을 벌기 위해 리비아 터널 공사에 근로자로 나갔다가 전쟁이 나는 바람에 돌아와야 했던 과거도 있었다 한다. 지금 모두 장성해 중손자까지 봤으니 건강하게 오랜 산 편이라고 자평했다. 내가 보기에도 형편이 그리 나쁜 편은 아닌 것 같다.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글곡의 세월을 걸어온 것과 유사하게 터키의 현대사도 많은 부침이 있었다. 두 번의 군사 쿠데타에 의한 정권 교체, 반공주의 열풍에 따른 좌우의 반목, IMF로 상징되는 경제 위기들을 보면 어찌 이렇게도 우리랑 닮았을까 싶기도 하다. 이럴 때 느끼는 게 사람 사는 거 별거 없고 다 똑같다는 생각이다. 내 할머니는 일제시대 때 제주에서 태어나 4.3 사건 때 남편을 잃고 유복자인 아버지를 혼자 키우셨다. 올해 아흔 여덟인 우리 할머니의 삶이 자꾸 살리 삼촌 인생과 겹쳐 보이기도 한다. 그러고 보면 인생, 지나고 나면 불쌍하고 허무한 것에 다름 아니다.

걷기가 눈에 띄게 힘들어진 요즘 살리 삼촌은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래서 내가 가끔 찾아가는 일이 전부인데, 그런 날에는 일부러라도 밥이나 디저트 등을 얹어먹고 온다. 친할머니한테 배웠다.

뭐라도 맛있게 먹고 오는 게 나이든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기 때문이다. 살리 삼촌과 있을 때는 일부러 옛날 얘기를 많이 물어본다. 마를린 먼로가 한국에 위문 공연을 왔었다고 하는데 실물을 봤느냐, 판문점 안에 들어가 봤느냐 이런 식이다. 살리 삼촌은 칼슨 벨린 베가스 전투가 있던 날 13명을 사살하고 적군의 귀를 잘랐다는 얘기를 나중에 조용히 털어놓았다. 아직도 그때 생각이 나느냐고 물으면 6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악몽을 꾸고, 가위에라도 놀리는 밤에는 움직이지를 못한다고 했다. 모든 고통에 시간이 약일 수는 없을 거다, 그냥 안고 가는 고통도 있겠지. 살리 삼촌은 ‘승만 리’를 두 번이나 봤으며 얘기도 해봤다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했다. 훈장을 달아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니, 살리 삼촌이 오래 살긴 오래 살았구나. 나는 김순자 씨와 자식들은 못 찾을 테니 더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솔직하게 얘기도 했다. 나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아는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었지만 너무 옛날 주소라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김순자 씨가 아직까지 살아 있을 가능성도 거의 없고, 어린 자식들은 살아 있어도 기억을 못 할 거라고 그냥 얘기했다. 꼭 찾아서 봐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어디서든 후손들이 잘 살고 있으면 된 거 아니냐라고 했고, 알라신 곁으로 가면 다 볼 수 있으니 조금만 더 참으시라고 농도 쳤다. 살리 삼촌도 거의 체념한 듯 한데, 이름과 주소를 적은 종이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최근 터키에서는 한국전쟁 중 터키군 장교와 한국인 전쟁고아 소녀와의 인연을 다룬 영화 ‘아일라’가 공전의 히트를 쳤다. 2010년 경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방영된 바 있는 실화를 다룬 영화였다. 터키군 장교 술레이만은 전쟁고아 한 명을 보살피며 ‘아일라’라는 이름을 주었고, 터키군 막사에서 함께 지낸 아일라는 터키말까지 배워 술레이만을 바바(아버지라는 터키어)라고 불렀다. 많은 정을 나눴지만, 헤어질 수 밖에 없

었다. 귀향을 앞둔 슬레이만은 아일라를 터키로 데려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터키에 돌아온 슬레이만은 아일라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 2010년, 백발의 노인이 된 슬레이만은 마찬가지로 할머니가 된 아일라와 극적으로 재회하게 된다. 무척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화다. 아일라는 영화가 제작되고 있었던 건 이미 알고 있었고, 개봉하면 꼭 모셔다 드리겠다고 약속도 했었던 일이었다. 나는 우선 혼자 영화를 봤다. 재미있는지 없는지 살리 삼촌은 물론 아주머니나 우리 아이들과 같이 보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훨체어를 타고 오면 동선이 나오는지 등등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영화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었고 감동적이었으며 물론 전전했다. 극장에는 참전용사 할아버지를 훨체어로 모셔 올 계획이니 훨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중간석 맨 가운데로 좌석을 구매했고, 관리자 출입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사전에 요청해 놓았다. 약속된 날에 가족과 함께 살리 삼촌과 아주머니를 모시고 극장에 갔다. 살리 삼촌은 나를 처음 만난 날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 자켓과 모자는 한국전 참전군인을 위해 제작되어 선물 받은 복장으로 살리 삼촌에게는 공식 행사복이었다. 극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이목이 살리 삼촌에게 집중됐다. 몇몇 사람들은 살리 삼촌에게 다가와 인사와 안부를 묻기도 했다. 영화가 시작되고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자, 전쟁 당시의 부산항이나 터키군 참호와 막사, 전투 장면들이 이어졌다. 나는 약간 걱정이 됐다. 영화가 너무 많은 옛 생각을 들춰내 살리 삼촌을 힘들게 하지나 않을까 걱정됐다. 슬쩍 슬쩍 살리 삼촌의 얼굴을 확인했다. 웃음기 빠진 경직된 얼굴에, 눈가는 약간 충혈되어 있었다. 허투루 말을 걸기가 어려워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어떤 마음일까 궁금했다. 영화는 다시 봐도 슬펐고 감동적이었으며 눈물이 났다. 극장 내 곳곳에서 눈물을 흡치는 소리가 들렸다. 살리 삼촌은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없었다. 깊고 긴 영화의 여운이 가신 후

밖으로 나왔고, 살리 삼촌과 아주머니는 오랜 만에 극장에 온 모양새로 매우 흡족해 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잘한 일이었고, 내 자신이 대견했다. 나중에 아주머니는 우리와 영화를 본 이후에 주지사랑 시장도 살리 삼촌을 영화관에 초청했다고 했지만 이미 봤으므로 거절했다고 했다.

이미 세월이 많이 흐른 탓에 터키에도 한국전 참전용사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살리 삼촌만 해도 올해 아흔 둘이 되니 터키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아주 장수한 편이다. 얼마나 더 사실인지 잘 모르겠다. 뭐 아쉬워할 일도 걱정할 일은 아니다. 때가 되면 다들 그렇게 가야 하는 게 순리니 말이다. 중요한 건 기억해주는 것이다. 나를 또는 우리를 사랑했던, 도와줬던, 고마운 사람이, 그리운 사람이 있다면 기억해주는 것이야 말로 진짜 도리라고 본다. 기회가 된다면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회가 없으면 그냥 가끔 기억해주면 되는 거 같다. 잊혀지지 않으면 의미가 있음이다. 살리 삼촌이 한국전 참전용사라고 내가 특별히 배려하거나 호의를 베푼 것은 없다. 그냥 좋은 친구로, 아는 아저씨로 편하게 대했고 교우했을 뿐이다. 앞으로도 그럴 테고, 그 이후에는 기억할 결심이다.

딸애의 첫돌

허은주 (일본)

어느새 딸애가 태어난 지 9달이 지났다. 슬슬 첫돌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게 되는 시기가 왔다. 우리 민족은 돌잔치, 결혼 잔치, 환갑잔치를 인생 3대 행사라고 한다고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그리고 각 행사마다 상을 차려 의식을 진행하고 축복한다. 어머니도 내가 첫돌이 됐을 때 상을 차렸다고 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첫돌에 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고향을 떠나 민족과 풍습이 전혀 다른 이국(異國)에서 생활한다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첫돌을 맞이하는 자식에게 돌상을 준비해 주고 싶은 것이 조선민족으로서 부모 된 마음일 것이다.

나는 중국인, 조선인이민 제3세 중국조선족이다. 2009년 일본에서 교환학생을 시작으로 나는 일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1년 남짓한 교환학생을 끝내고 귀국했다가 반년 뒤 다시 일본으로 유학을 와서 6년간, 그리고 회사원으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유학하는 동안 나는 학회에서 만난 미국인과 결혼을 하고 지난해 2월에는 딸애를 낳았다. 그리고 2018년 2월, 딸애는 첫돌을 맞이하게 되었다. 남편의 제안으로 우리는 딸애가 태어난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일본식으로 하츠미야마이리(初宮參り)를 진행했다. 그런데 첫돌이 다가오자 나는 딸애에게 돌상을 차려주고 싶어

졌다. 일본식으로는 첫돌에 떡 한 되(一升餅, 잇쇼모찌=떡 2킬로그램 정도)를 등에 짊어지고 기어다니게 한다. 그 유래는 여러가지 설(說)이 있지만 그 중 하나를 보면 일본어로 평생을 뜻하는 잇쇼(一生)와 발음이 같은 의미에서 평생 먹을 걱정 없이 살라고 떡 한 되를 짊어지게 한다. 한편 우리 민족이 첫돌 돌상을 받는 유래는 좀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저명한 인류학자 반 즈네프(Arnold van Gennep)의 통과의례 중 탄생 의례에 꼭 들어맞는 의식이고 인생 행사이기도 하다. 의료 시설이 따라가지 못했던 옛날에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1년 동안에 사망률이 꽤 높았다 한다. 그래서 첫돌이 되어서야 비로소 낯선 세상에 적응하였다 하여 돌상을 차려서 조선민족이라는 집단의 일원으로 맞이하는 행사를 치르며 축복한다. 이 행사가 바로 우리 민족의 인생 중의 첫 행사인 돌잔치이다.

내 어머니가 나에게 해 주신 것처럼 나도 딸애의 첫돌에 치마저고리를 입고 돌잡이를 하게 차려주고 싶어졌다. 또한 일본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가진 딸애가 한글을 익힐 기회가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엄마가 코리안 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첫돌에 치마저고리를 입고 돌잡이를 했다는 사실을 딸애의 성장 노트에 적어 주고 싶었다. 내 생각을 남편에게 전 했더니 남편은 흔쾌히 찬성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오카야마현에서 이 소망은 실현하기 어려운 것 같으니 우리는 가까운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오카야마 공항에서 해외로 가는 노선이 네 갈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천 국제공항이다. 1시간 정도면 바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마침 2월에는 부모님도 서울에 계신다기에 서둘러 돌잔치 식당 예약 및 숙소를 예약했다.

돌잔치는 직계가족끼리만 아주 소규모로 한식당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국제통화로 하는 예약이었지만 한식당에서는 친절하고 꿈꼼하게 설명해 주었다. 10명 이하 예약을 받아준다 하니 바로 정했다. 돌상은 한식

당에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전통식 또는 현대식으로 차려 준다 하여 전통식으로 주문했다. 이왕이면 치마저고리 입고 돌잡이를 하는 딸애 모습을 보고 싶어 추가로 주문할 수 있나 물었더니 필요하면 무료로 제공해 준다 한다. 그러면서 요즘은 다들 현대식으로 예쁜 옷을 입고 돌잡이를 하더라고 알려 준다. 어찌 보면 우아한 현대식 돌상차림이 아닌 전통식을 고집하고 게다가 치마저고리를 찾는 내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촌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인생 3대 행사 중의 하나이고 의식인 만큼 되도록 옛 방식 그대로 따르는 게 신성한 의식에 대한 경외라 생각된다.

숙소는 방이 3개인 곳을 이리저리 찾다가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로 정했다. 돌잔치 날에는 동경에서 출근하는 이모님도 참석해 주신다 하기에 하룻밤 편안히 묵을수 있는 방을 찾다보니 숙소위치는 남산 근처에 있는 한식당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잔치에 참석한 분들에게 답례품을 드리는 관례가 있다 하기에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돌잔치 날에 임박에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어서 짐이 되더라도 일본에서 다 준비해서 가기로 했다. 그리하여 일본에서 인기가 좋은 이마바리 수건 세트와 돌잔치 날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이니까 메이지 초콜렛 세트, 그리고 추운 날 손이나 따뜻하게 녹이시라고 카이로 손난로를 봉투에 넣어 답례품으로 준비했다.

서울에서 필요한 것은 이 정도로 준비하고 2월 12일 출발해서 2월 21일 귀국하는 항공편도 예약했다. 그런데 남편과 딸애는 미국 국적이니까 언제든지 수시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지만 중국 국적인 나는 항상 비자가 필요하다. 내가 처음으로 받은 한국 비자가 재외동포 비자인데, 2016년에 끊긴 후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같은 비자를 받으려 하니 준비할 서류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 그래서 아직 비자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한국 비자를 받으려 가진 가야 하는데 하고 생각하던 와중에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법무부에서 사증에 관해 새로운 정책

이 나왔다. “중국인 제한적 무비자 입국허가 시행 안내”라는 뉴스를 보고 조건들을 보니, 마치 나에게 구세주 같은 안내문이었다. 꿈같은 소식이 현실이라니, 그러나 지역에 따라 적용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정책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요즘은 비자가 필요한 승객이 해당 국가의 비자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항공사에서 탑승 수속을 거부할 수 있다기에 확인도 할겸 곧 탑승하게 될 오카야마공항의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에 가서 문의했다. 대한항공 직원은 나의 여권을 보더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책에 의하면 탑승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어찌될지는 탑승하는 날이 되어야 만 알 수 있다고 한다. 참 애매한 대답 같기도 해서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내 여권으로 무비자 탑승은 가능하냐고 덧붙여 물었더니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나의 여권 복사본을 요구했다. 나는 대한항공 직원에게 여권 복사본을 흔쾌히 남겨주었다. 오카야마공항의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에서 법무부에서 나온 정책도 접수했고 또 나의 여권에 찍힌 한국 출입국 정황을 보고는 여권 복사본까지 남겨 놓았으니 다른 정황이 생기면 연락이 올 거라고 나는 굳게 믿었다.

출발하는 당일까지 대한항공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우리는 2018년 2월 12일, 10시 40분에 출발하는 항공편을 탑승하지만 체크인을 끝내고 아침 식사도 할겸 일찌감치 공항으로 출발했다. 우리는 아침 8시 전에 이미 공항에 도착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의 애간장을 태우는 일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대한항공 탑승 수속이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첫번째로 체크인 카운터에 가서 여권을 건넸다. 그런데 탑승 수속을 하는 직원이 나의 여권을 보더니 한국 비자를 받지 않았음을 내게 확인한다. 그래서 무비자 입국 조건에 부합되니 그리하려 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한참 후 다른 직원이 전화로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본 결과 2012년 이후부터 5년 내에 받은 비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내가 가진 재외동포 비자는 2011년에 받은 비자이기에 무비자 입국은 불가능

하기에 탑승 수속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이게 무슨 황당한 소린가? 뭐라구요? 인제 와서 이런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래서 일부러 탑승날이 되기 전에 여권을 들고 공항까지 와서 확인했었잖아요! 그때 왜 정보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애매한 대답만 주고 이제 와서 이러십니까? 하고 나는 따지고 들고 싶었지만 항공사의 직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지시를 전할 뿐 그들과 분쟁을 일으켜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나는 분을 가라앉히며 오늘 꼭 한국에 입국해야만 하니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항공사의 직원은 내 앞에서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었다. 대화는 한국어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 분이 오늘 꼭 입국해야 된다는데 다른 방법 없냐고 하셔서요.”

“성함이…… 오늘 비자 없이 입국은 불가입니다.”

“인천공항에서 환승으로 중국으로 가는 티켓을 갖고 있으면 한국으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출발해서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항공편을 소지해도 중국인은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한국에 입국할 수 없으니 꼭 그리 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 전할께요. 걱정마세요.”

대화 내용은 똑똑히 들릴 정도였지만 통화를 끝내고 직원은 나에게 일본어로 재설명했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미 내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일행의 이름을 모두 파악했으니 비행기를 탑승한다 해도 오늘은 한국으로 절대 입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나 없이 이제 막 첫돌이 되는 딸애와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다고 말한다. 엄마를 찾느라 비행기 안에서 딸애가 소란을 피우면 남편은 어찌 할 방법이 없다. 아직 모유를 먹는 딸애는 울다가도 젖만 물리면 얌전하다. 그러니 나 없이 딸애를 비행기에 태우는 것은 남편한테 큰 부담을 주

는 일이기도 하고 다른 승객에게 아주 폐를 끼치는 일이 되니 절대로 그 리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남편은 내가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면 모든 티켓을 취소하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빨리 이모님한테도 돌잔치 행사를 미룬다고 전하고 예약한 식당과 숙소에도 연락하라고 독촉한다.

이번 돌잔치를 위해 들인 공과 시간만 해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딸애가 태여난 후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모두 한자리에서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미루면 어떻게 될지 언제 가능할지 가능성 조차 할 수 없다. 나는 그리할 수 없어서 비행기 탑승을 포기할 수 없었다. 무비자 입국 조건에 의하면 한화로 20만원 이상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지니면 입국할 수 있다 하니 그 방법으로 어떠하나 직원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한참 후 그 방법은 있긴 한데 당장 실행하긴 어렵다고 한다. 왜냐하면 입장권은 반드시 중국에 있는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 구입해야 하며 또한 탑승 날이 되기 전에 미리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엊친 데 덮친 격으로 2월 16일은 규정이라 중국에서는 연중 행사 중 가장 큰 명절, 춘절이기에 아마 그믐날인 15일부터 휴식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한국 비자를 받기 위해 중국으로 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차라리 일본의 거주지역의 관할 구역에 있는 주고베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가는 편이 더 합당하다.

내가 돌잔치 날짜를 미루는 일을 주저하자 남편은 인천공항까지 딸애를 바래다 주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비자를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이 어떠냐고 나에게 다시 제안한다. 그렇게라도 딸애를 바래다주려고 나는 다시 체크인 카운터로 갔다. 그랬더니 일본 국내 이동이여서 국제선 비행기를 태워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얘기가 너무 어리고 엄마 없이 탑승이 어렵다는 사실과 내가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바로 오사카로 돌아오는 항공권을 소지하는 조건으로 예정대로 대한항공을 탑승할 수 있었다. 그 조건으로 나는 2월 13일 아침 7시 30분에 인천공항에

서 출발해서 간사이공항으로 오는 페치항공권을 현장에서 구입했다. 나는 탑승 수속하는 직원에게 구매한 항공권을 보여주고 또 이메일로 지정한 주소에 구입한 티켓을 보내 수신이 확인된 후에야 비로소 무사히 대한항공 탑승권을 받아 줄 수 있었다.

10시 30분경, 드디어 우리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리고 이내 탑승구문이 닫혔다. 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공항에 마중 나올 어머니한테 메시지를 보냈다.

“탑승했습니다. 저는 비자가 없어 입국할 수 없으니 내일 아침 비행기로 일본으로 돌아와서 비자를 받아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 두 사람을 잘 부탁합니다.”

“알겠어. 조심해서 안전에 주의해서 다녀라, 한국 일은 걱정 말고.”

비행기는 이륙하기 위해 이미 활주로로 향하고 있고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낼 수 없어서 짧게 마무리했다. 어머니한테서 받은 답장 역시 짧지만 나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곁에 있을 때는 “안전에 주의해서 다녀라”는 어머니의 당부를 귀찮게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와닿으면서 코끝이 찡해났다. 나 자신이 어머니로 되고 보니 무릎 아래 자식이라는 말에 더욱 공감이 가는 같다.

여느 때 같으면 오카야마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비행하는 동안 식사를 끝내고 물을 마시고 나면 어느새 착륙 준비를 한다고 안내가 나오는 느낌이지만 오늘은 달랐다. 탑승구 문이 닫혀서부터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까지 약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일본에서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시댁으로 갈 때보다 더 긴 시간을 비행하는 것만 같았다. 일본에서 펜실베이니아주까지 가려면 나리타에서 환승하여 워싱턴 D.C.로, 그리고 다시 거기서 환승한다. 나리타에서부터 탑승 시간만 해도 갈 때 14시간 정도, 올 때 12시간 정도 걸린다. 두 번 환승시간까지 합하면 일본에서 출발해서 시댁까지 가려면 22시간 정도 걸린다. 오카야

마에서 인천까지 거리가 오늘은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 거리만큼 멀게 느껴졌다.

나는 중국을 떠나 있는 동안 제3국으로 출장을 여러 곳 다녔어도 오늘처럼 외국이 멀어 보이긴 처음이다. 지난 5년간은 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했었기에 한국으로 입국은 마치 이웃에 마실 가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다르다. 탑승권을 내게 건네주면서 절대 한국에 입국하면 안 된다고 강조를 거듭하던 항공사 직원의 당부가 한국을 더 멀게 느껴지게 했다.

물조차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던 시간은 지나 비행기는 끝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순간, 인젠 딸애와 이별 시간이 됐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머릿속을 스쳤다. 오늘 밤은 딸애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괜히 벌써부터 슬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몇 분간이라도 딸애와 함께 있고 싶어 꼭 껴안고 비행기에서 내렸다. 20분 정도 걸어서 환승 입구까지 왔다. 9킬로그램 넘는 딸애를 20분간이나 안고 걸으려면 보통 때는 몇 번이나 쉬어야 겠지만 오늘은 팔이 아픈 줄도 모르고 꼭 껴안은 채 내내 걸었다. 남편은 이제 환승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면서 딸애를 받아 안으려 했다. 나는 조금만 더 바래다주겠다고 하고는 그냥 걸었다. 입국 심사로 가는 검역까지 오게 되자 남편은 딸애를 받아 안으려 했다. 나는 팔이 감각을 잃을 정도로 벅차고 있었지만 마치 영영 헤어지는 것처럼 애절한 마음에 좀처럼 놓아줄 수 없었다. 그래서 입국 심사하는 곳까지 바래다주겠다고 하자, 남편은 입국할 수 없는데 검역을 지나가면 돌아 나올 수 없기에 강제 출국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비자를 받는데 큰 영향이 있다고 무작정 반대표를 들었다. 1년 내에 수십 번이나 출입국을 거듭하는 남편의 우려도 틀리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검역창구에 계시는 분한테 다가가서 문의했다.

“안녕하세요, 검역을 지나갔다가 입국할 수 없으면 다시 여기로 돌아

나올 수 있나요?”

“그럼요.”

“강제 출국 되거나 하진 않죠?”

“그냥 여기로 나오면 되는데. 왜 입국 못한다 하시는 거죠?”

“사실 저는 중국인이고 현재 한국 비자를 갖고 있지 않아요. 내일 아침에 출국하는 비행기를 탈 예정인데 입국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입국 심사하는 곳에 가서 물어보세요. 안 되면 다시 돌아 나와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검역을 지나 입국 심사하는 곳으로 향했다. 외국인 행렬에 우리뿐이다 보니 바로 차례가 왔다. 그래서 나는 딸애를 안은 채로 입국 심사관 앞으로 걸어갔다. 나의 발길이 향한 입국 심사석에는 2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젊은 여성분이 앉아 계셨다. 한눈에 보이는 인상은 단아한 외모에 인자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 분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딸애 곁에서 지내게 해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도움을 청해서라도…… 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이 걸음은 어느새 심사관 앞에서 멈췄다. 그래서 나는 걱정어린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저…… 저는 중국인이고…… 내일 아침 비행기로 일본으로 갑니다…… 입국해서 오늘 밤만 얘기랑 같이 지낼 수 있을까요? 애가 아직 어려서 저녁에 잘 때면 꼭 제가 필요하거든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일본에서 왔어요.”

“그러시면 원칙상 입국은 불가합니다마는 일단 여권을 보여 주세요.”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나의 여권만 전했다. 심사관은 나의 여권을 펼쳐보더니

“입국 서류는 쓰셨어요?”라고 하면서 서류를 건네받으려 한다.

“네, 여기요.”

사실, 기내에서 나는 남편과 딸애의 입국 서류를 쓸 때 내 것도 써 놓았다. 비록 “절대로 입국할 수 없다”는 항공사 직원의 신신당부를 받고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입국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은 그냥 버리지 않았다. 아니, 버릴 수 없었다. 나 없이 딸애가 밤을 어찌 지낼까, 아니 딸애 곁을 떠나 내가 어찌 밤을 지낼까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꼭 한국으로 입국하고 싶은 나의 욕망이 나더러 입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준비는 모두 하도록 하게 한 것만 같았다.

“다른 분들도 입국하세요? 여권과 입국 서류를 이리 주세요.”

“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말을 전혀 모르는 남편은 어찌 된 정황인지, 강제 출국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 눈빛으로 나를 보며 물었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강제 출국은 아닌 것 같으니 입국이 가능한 것 같다고 남편의 질문에 대답했다.

잇달아 “원칙상 중국 여권으로 비자가 없이 한국으로 입국은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올림픽 기간이라서 가능해요. 여권에 지난 5년간 한국으로 정상적으로 출입국한 기록이 있으니 3월 31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요.”라고 입국 심사관이 설명해 주었다.

역시 내가 인터넷에서 읽은 정보는 나에게도 유효했다. 그런데 항공사 직원이 전화로 연결했던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책임자는 지난 5년간 출입국기록은 무시하고 마지막으로 받은 비자가 2011년이라고 찍혀있기에 무조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왜 그랬는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한다는 책임자가 이런 경우도 분간이 어려운지, 그래서 항공사 직원에게 내 여권으로 입국 불가라고 해서 괜히 애꿎은 사람만 속 타게 한 건지 따지고 싶은 심정이 순간적으로 치솟아 올랐다. 그러나 따져봤자 내가 오매불망 바라던 한국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 지금 이 순간, 그냥 다 용서하고 재빨리 입국 심사하는

곳을 빠져 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졌다.

내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곁에 있던 남편이 입국 후 나의 체류 허가 기간을 묻길래 나는 심사관에게 문의했다.

“입국하면 며칠 동안 머물 수 있나요?”

“15일내로 출국하면 됩니다.”

“오늘 입국이 정말로 가능합니까?”

“네, 원칙상으로 안 되지만 올림픽 기간이라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15일내로 출국하시면 별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입국 후 10일 째 되는 날인 2월 21일에 일본으로 돌아가니 체류만료일 전에 출국한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저도 몰래 입국 심사관에게 놀라움과 고마움의 인사를 연신 전했다.

여권을 심사관으로부터 넘겨받고 나오자마자 남편은 내 여권에 기한이 제대로 찍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재촉한다. 법률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로 안 하고 살아온 남편이니 더구나 입국 심사가 인정사정 봐서 일 처리 하는 사적 기관이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으니 비행기 탑승 전의 사건을 돌이켜 보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여권을 펼쳐봤더니 여권에 아무런 도장은 안 찍히고 자그마한 종이 조각이 끼워져 있었다. 거기에는 내 이름과 여권번호, 입국날짜, 그리고 체류만료일이 2018년 2월 27일이라고 중국어로 똑똑히 기재되어 있었다. 지금은 한국을 출입국할 때 모두 도장을 찍지 않는다 한다. 그제야 남편은 안심한 듯 짐 찾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나도 딸애를 안고 짐 찾는 곳으로 향했다. 엄마의 비자 문제 때문에 하마터면 돌잔치를 놓칠 뻔한 딸애한테 미안해지는 마음에 나는 꼬옥 껴안았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나는 저도 모르게 휴~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아침 8시부터 한국으로 입국 수속이 끝날 때까지 이 5시간 반 동

안 겪은 시련은 무엇이었는지, 남편의 말대로 진작에 한국 비자를 받았더라면 비행기 탑승 수속도 최단 시간내로 끝내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을 터이다. 어찌 되었든 이미 한국으로 입국한 지금 무엇을 어떻게 추궁할 생각은 더 이상 안 나고 그제야 배고픈 느낌이 들었다. 엄마의 비자 시비 때문에 밥을 먹어야 할 시간에 제대로 먹을 새도 없이 젖만 먹은 딸애도 배고프기 시작한 듯하다.

우리는 집을 찾고, 나는 유모차에 딸애를 앉혀서 밀고 출구로 나갔다.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와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눈길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행기 출발 전에 보낸 메시지를 끝으로 더 이상 어머니한테 연결할 새도 없이 보내다 보니 입국할 수 없다고 하던 딸이 외손녀를 데리고 같이 나타나니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다. 어머니는 곁에 다가와서 외손녀를 품에 안고 나서야 실감이 나는지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다던 내가 어찌하여 입국했는지 묻는다. 내가 보낸 메시지를 받고 외손녀와 사위만 만나서 엄마 없는 아이를 받아 안을 생각을 하니 어머니는 기가 막히기 그지없었다 한다. 그리고 오늘밤에 엄마 없이 아이를 어찌 재울 지 걱정이 많이 됐다고 한다. 어머니는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더니 어찌 되었거나 입국 했으니 정말 다행이라 하며 마무리하신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계획한 날짜에 한국에 입국하여 예정대로 딸애의 첫돌 잔치도 무사히 치르고 일본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 날 바로 주고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가서 나는 비자를 신청했다. 그리고 나흘째 날, 나는 5년간 유효한 단기방문 비자가 붙여진 여권을 받았다.

여권을 받고 나는 국적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국적이라는 표지로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통제하기 시작된 것은 국민국가가 생긴 이후의 일이다. 국민국가는 18세기이후 유럽의 시민혁명을 거쳐 그 개념이 생겨났다. 그리고 국적이 도입된 것 역시 200년도 되지 않는다. 한반도 한인 사이에서도 국적의 제한을 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70여

년 전 일이다. 한반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한인들이 그 나라 국적을 소지한 경우, 그 후손들은 오늘날 한반도로 가려면 국적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사람은 높은 곳을 향해 더 나은 삶을 지향하기 마련이다. 나의 조상 때는 삶을 찾아 한반도에서 북간도 지역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뿌리내리고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살았다. 그런데 나의 세대에 와서는 또 다른 삶의 터전을 찾아서 현재 오카야마현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제 딸애의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어디에서 살아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국땅에서 이국적(異国籍)으로 태어난 딸애에게 “우리 민족 집단의 구성원으로 맞이하는 의식”을 차리고 싶었던 것은 나의 작은 욕망이였다. 이런 작은 욕망이 우리 온 가족을 서울로 출동하게 했고 국적이란 큰 욕망 앞에서 반나절 동안에 희비의 교차를 감수하게 했다.

국적이란 표지로 내국인, 외국인을 분간하고 또 특정된 지역, 국적을 소지한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비자 발급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내 질서의 안정과 보호에 유익한 것이라 하겠지만 집권자들이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욕망의 표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애초에 인간의 욕망이 국적이란 표지를 만들어 냈고 그러한 욕망이 존재하는 한 국적은 사라 질수 없겠지. 그러나 그러한 욕망을 초월하는 또 다른 욕망이 있을 수 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국적을 초월해서 민족이 통합하고 언제든지 가족이 단란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이어주는 이런 욕망이 실현되는 날이 오리라. 이것을 인류의 무궁한 가능성의 힘이라 할 것이다.

조폭 열차 탈출기

유재원 (중국)

“월급 포기하고 돌아와.”

누차 얘기했지만, 남편은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약속했던 월급을 한푼도 받지 못한 채 이미 3개월을 넘겼다. 소통에 별 무리는 없었지만, 공무 팀 현장 중국어, 소위 ‘전투 중국어’로 단련된 남편에게 한국어 기획서의 중문 번역을 맡길 때부터 수상했었다. 덕분에 오랜만에 중국어책과 씨름하느라 애쓰는 남편. 그래, 공부가 남는 거지, 하며 나는 일찌감치 마음을 비웠다. 궁할 때는 지푸라기도 튼튼한 동아줄로 보이는가 보다. 미심쩍어하는 나와는 다르게 남편은 광동성 동관시 버스정류장 관련 기획서가, 선수금 받고 도장 찍은 작업 계약서라도 되는 양 희망에 들떠 동관으로 향했다. 이곳 칭다오에서 약 1,900km 떨어진 곳이었다. 10여 년 전, 2003년 12월, 탄탄한 K 기업 소속으로 처음 중국에 파견 나올 때도 신랑은 그랬다. 양산 사택에 신혼살림을 차린 지 두 달 만에 갑작스레 중국으로 떠나면서 감추지 못했던, 희망으로 들뜬 모습.

“오늘내일 온다니까 사장만 만나고 바로 갈게. 경비나 차비라도 받아야지….”

먼 곳은 왜 늘 매혹적일까? 대학원 한 학기 선후배 사이인 언니와 나

는 이곳 칭다오를 떠나 시안, 뤼양을 들러 돌아오는 기차 여행을 계획했다. 바로 가면 1,150km, 그러나 중간에 16개 역, 다섯 개 성을 거쳐 가는 완행열차가 실제로 달리는 거리는 왕복 3,000km 이상은 될 것이다. 오늘 내일 온다는 사장 덕분에 우리는 시안이라는 목적지만 정한 채, 일정은 ‘신랑이 돌아오는 대로 출발’로 정하고 대기해야 했다. 남편은 이곳 칭다오에 사무실 주소만 빌려 간판도 없는 무역회사를 차려 놓은 상태였다. 명색이 사장이지만 사실은 수입도 거의 없고 출퇴근도 필요 없는 실업자 신세, 1년이 넘었다. 그러니 잘 되면 뜻을 나누어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몇 달만 일 좀 봐 달라는 업체의 요청을, 마른땅에 내리는 단비라고 굳게 믿고 싶었을 것이다. 어쨌든 이런 처지 덕에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언니와 함께 훌쩍 떠날 수 있었다.

칭다오-시안, 오전 10시 8분 출발, 다음 날 오전 7시 37분 도착. 기차 표를 받아 들고 나니 떠나도 된다는 허가증이나 자격증을 얻은 기분이었다. 언제부턴가 목적지가 어디든 장거리 기차를 무척이나 타고 싶었다. 더구나 오랜만에 아들을 두고 나의 길을 떠난다. 몸이 가볍다 못해 허전하기까지 하지만, 특별한 휴가인 것은 분명했다. 아침을 먹지 않은 데다 출발 시각까지 아직 여유가 있었지만, 식사를 하기는 좀 모호한 시간이었다. 하긴 언니나 나나 기차에서 여유롭게 먹는 식사의 즐거움을 또한 만끽하고 싶었으리라. 간단한 음식을 사서 기차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기로 했다. 그렇게 바오쯔¹⁾ 2인분과 간단한 음료를 사서 기차에 오를 때까지, 우리 마음은 그저 소풍 떠나는 순진한 소녀의 그것이 되어 있었다. 고속 열차나 침대칸 등 다른 표는 이미 모두 매진이었고 최하급 완행열차의 잉쭈오²⁾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좀 고생스럽겠지만 어차피 부유

한 사모님의 고급스러운 휴양을 기대할 처지는 아니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럴 수가, 기차에 오르는 순간 웃음 띤 얼굴 근육이 어색하게 굳어져 벼렸다. 호기가 지나쳤다! 기차 안 승객들은 90%, 아니 99%가 남자였는데 모두 조폭처럼 보였다. 동행한 언니 또한 이미 바짝 긴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언니는 신혼에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은 후 오십 중반이 넘은 지금 까지 혼자 지내면서, 타인과의 교류를 거의 단절하다시피 살던 터였다. 명문대 출신에, 3개 국어에 능통했으며,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던 남편. 역시 누구나 알만한 서울의 한 대학에서 영문과를 졸업하고 강남에서 고액 과외 선생님이었던 언니. 언니는 그렇게 인생의 최고점에서 한순간에 낙으로 떨어진 것이다. 다친 날개를 웅크린 채 다시 펴 볼 엄두조차 못 냈던 30여 년의 세월이 언니의 피부에, 차림에, 말과 눈빛과 손놀림에 아무렇게나 들려붙어 있었다. 무기력과 우울을 당연한 자기 몫인 양 끌어안고 있던 언니를, 날개가 있다는 것조차 잊은 새처럼 웅크려 숨죽이고 있던 언니를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난생처음이라는 중국행 비행기를 타게 했다.

“재원 씨, 나 거지인 데다가….”

“일단 비행기만 타세요. 고급으로 모시지는 못하지만 한 달쯤 식구 한 명 들어도 다 살아요.”

그렇게 나 하나 믿고 중국에 온 언니를 난데없이 이런 ‘조폭 열차’에 태우다니!

나도 신랑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 중국이 밟고, 신랑이 야속해 1년 반을 버티다가 결국 신랑을 따라 중국에 발을 들였다. 장쑤성 난퉁시, 당시 그곳에는 신랑이 몸담은 K 기업 외에 한국 기업이라고는 의류 공장 하나가 전부였다. 더구나 가족들이 함께 나와 있는 경우는 내가 유일한 것 같았다. 모두 적개는 몇 개월, 길어도 1, 2년 단위

1) 包子, 작은 찐빵처럼 생긴 중국식 만두

2) 硬座, 중국 최하 등급의 열차 좌석

로 파견되어 나왔다가 1년 더, 2년 더…, 이런 식으로 회사의 단기적인 인사 조정에 미래를 맡기고 있었다. 번화한 도시도, 푸르른 시골도 아닌 난통 개발구는 시멘트로 가로세로 반듯하게 골조만 세워 놓은 거대한 구조물처럼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던 남편의 그 약속했던 설렘과 반짝이던 눈빛도 쟁빛이 되어 있었다. 공장 신설과 안정화 과정, 한국 직원들은 낯선 언어와 문화, 환경에 적응할 사이도 없이 회사의 한국 임원들과 중국 직원들 사이에서 분투해야 했다. 제시간에 퇴근하는 날이 없었고, 토요일은 물론, 때로 문제라도 생기면 한밤이고 휴일이고 없이 공장으로 달려가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랑은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하루 수십 알의 약을 챙겨주며 나는 한국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렸다. 그리고 중국어 공부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못마땅한 현실에 1인 시위를 벌였다.

청다오 역, 출렁이던 인파 속에 줄을 서서 전날 예매한 기차표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그곳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것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10여 개의 매표소 창구는 고속 열차 타는 사람과 완행열차 타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비행기와 고속 열차만 경험했던 나는 순진하게도 열차 등급의 차이를 승객 등급의 차이와 연관 지을 수 없었다. 남편보다는 늦은 출발이었지만 나 또한 중국에 온 지 10년이 다 되어간다. 그런데 그간 익숙하다고 자부했던 중국인의 세계, 비행기와 고속 열차에서 경험했던 중국인의 세계가 이 열차에는 없었다. 낡고 지저분한 차림새나 시커멓게 그을린 얼굴들이 그들 특유의 냄새도 느낄 사이 없이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우리를 두렵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 ‘교육’이라는 문명의 안전장치, 그들에게서는 그것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야만의 거친 생명들 사이에 던져진 느낌, 그것은 공포였다. 불혹의 나이를 넘기기까지 겪을 만큼 겪었다던 착각이 스멀스멀 꼬리를 내릴 때쯤, 꿀꺽, 침을 한번 삼키고는 눈에 힘을 주었다. 혼

재는 내가 언니의 보호자였다.

“저도 이런 열차는 처음 타 봐요. 좀 다른 세계네요. 괜찮겠어요?”

“어, 어, 나야 뭐, 어차피 재원 씨 하나 믿고 따라나선 건데 뭐….”

“앉아서 스물한 시간 반이에요, 극기 훈련한다 생각하시고…, 하하.”

슬픔도, 아픔도, 불안도, 공포도, 그리고 미안함도…, 때로는 이렇게 ‘하하’가 되어 나온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 회사 그만두면 안 될까….”

힘들수록 침묵하던 그가 결국 입을 열었다. 6개월 정도의 철저한 관리 끝에 폐결핵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도 남편은 자주 몸살을 앓거나 불면에 시달리는 등의 증상에 시달렸다. 남편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어렵게 말을 꺼내고는 내 반응을 기다렸다. 이것이 내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문제일까? 이미 돌 지난 아들의 아버지이고 한 여자의 남편이었지만, 가정이 개인의 인생 모두를 내놓으라고 요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평화를 가장한 ‘가정 폭력’이 아닐까?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입사해 15년을 넘게 근무해온 회사였다. 연애 시절 자신은 이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싶다고 말하곤 했던 K 기업을, 남편은 그렇게 타지에 나온 지 4년 만에 그만두었다.

“아무래도 이게 한계인 것 같아. 여기까지 버틴 것도 용하지.”

먼 길을 돌아 돌아 뒤늦게 문학의 길에 발을 들이면서 언니를 만났다. 영한 번역과 책 편집, 출판 보조 등의 일로 근근이 살아간다는 언니가 사실상 부여잡고 있던 생명줄은 문학이고 시였다. 깜깜한 동굴 속에서 나오지 않고도 살아가게 하는 작은 샘물, 빛을 받지 못해도 샘물은 샘물이다. 글에 대한 언니의 절실한 열망과 더불어 나는 언니의 축적된 지식과 방대한 독서량에 매료되었다. 문학도라기에 너무나 초라한 나의 그것에 비하면, 언니의 어두운 세월 속에 켜켜이 쌓인 묵은 힘이 부럽고 존경스러웠다. 언니의 이름으로 출판된 번역서 몇 권을 읽으며 나는 언니가 자

신의 글로 먹고살 수 있어야 한다고 단정하게 되었다. 아니 최소한 ‘작가’라는 명찰은 달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 시 다시 써야죠. 일단 와서 다른 공기도 좀 마셔 봐요.”

그것이 이 정도로 다른 세계를 말한 것은 아니었건만….

열차표에 찍힌 지정 좌석을 찾아 좁은 통로 사이로 걸음을 옮겼다. 당혹스럽게도 열차 안의 모든 좌석이 식당 칸처럼 서로 마주 보도록 배치되어 있었다. 왼쪽은 둘씩 마주 앉는 4인용 좌석, 오른쪽은 셋씩 마주 앉는 6인용 좌석이었다. 우리 좌석은 6인용 중 창 쪽과 그 옆자리였다. 먼저 탄 네 명의 사내가 다리를 테이블과 의자 등에 올린 채 비스듬히 기대어 우리 자리를 점령하고 있었다. 깍두기 1, 2, 3, 4! 일행은 아닌 듯했는데 두상이 드러나도록 짧은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그 무엇인가가 서로들 닮아 있었다. 나는 표를 보여 주며 우리가 거기 앉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내들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시큰둥할 뿐 선뜻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다시 한 번 물려서지 않을 기세로 이야기를 하자 성가시다는 듯 굽뜨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깍두기 1이 동그란 얼굴로 인상을 쓰며 우리를 훑어 보았다. 정보를 얻기 위한 시선이 아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시선이 있다. 그는 미간과 입 주변 근육을 총동원해, 이방인에게 그 어떤 것도 뺏기지 않겠다는 경고와 위협의 메시지를 만들어 잘 보라는 듯 게시하고 있었다. 암, 우리 영역이고말고. 깍두기 2, 3, 4도 다를 바 없었다. 언니를 창 쪽으로 보내고 가운데 자리에 앉으며 빈약한 식사를 빈약한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시커먼 네 명의 깍두기들에 둘러싸인 형국, 옆 사람과는 물론 앞사람과의 거리도 민망할 정도로 가까웠다. 이렇게는…, 스물 한 시간은커녕 당장 준비한 점심이나 먹을 수 있으려나… 그러나 열차는 출발했고, 우리는 먹어야 했다, 여행을 포기하고 다음 역에서 내리지 않는 이상. 왼쪽 라인의 4인용 좌석이 비즈니스석처럼 좋아 보였다. 그쪽은

다음 역, 혹은 그다음 어느 역에서 탈승객의 자리인 모양으로 아직 비어 있는 좌석이 꽤 있었다. 암담한 심정으로 바오쯔를 담은 비닐봉지를 열다가 결단을 내렸다.

“언니, 일단 식사는 저쪽에서 하죠.”

퇴사 후 우리는 뤄양으로 이동해 한국 수입 여성복 가게를 차렸다. 1, 2년이면 귀국할 예정으로 서울에 얹어둔 방에 한국 신혼살림을 그대로 두고 있었지만, 남편은 실업자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내 키지 않는 듯했다. 또한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기회의 땅이었다. 결혼 전 경력 덕분에 나는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의 도매 루트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난통에서 내가 지목했던 목 좋은 자리는 물론이고 우리만의 힘으로는 중국 어디에도 작은 가게 하나도 차릴 수가 없었다. 다행히 외주업체 중 친분이 돈독했던 한 사장이 뤄양으로 오면 무엇이든 도와줄 수 있다며 조건 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뤄양에서 우리는 집과 가게 계약, 인테리어와 서류상의 문제 등 일체를 도움을 받아 해결했다. 여러 일로 바빴던 사장은 주변 사람들까지 동원해 우리를 도왔는데, 그 중심에 ‘마지에(馬姐)’가 있었다. 마지에는 사장의 여자 친구로 난통에서부터 안면이 있었다. 첫 만남에서 생일이 나보다 몇 개월 빨라 언니라는 의미로 마씨 성에 ‘지에’를 붙여 불렀고, 가게를 준비하는 동안 거의 매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마지에와 나는 곧 단둘이 술 한잔할 정도로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중국에서 사귄 첫 번째 친구였다.

비어 있는 4인용 좌석을 찾아 언니와 단둘이 마주 앉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했다. 언니도 긴장이 조금 풀린 듯 우리는 소곤소곤 이야기도 나누며 제법 유쾌하게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 그제야 창밖, 한가을, 한낮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열차는 도시를 벗어나 무르익은 가을의 평평한 풍경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평평하고 넓고 먼 풍경, 저속 열차의 속도로 흘러가는 그 지루한 풍경이 나는 좋았다. 높은 곳이 없는 데서는 오

르지 않아도 된다. 그 너머를 궁금해하거나 경계하지 않아도 되었다. 예상대로 4인용 ‘비즈니스석’을 단둘이 사용하는 호사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임자가 나타날 때마다 자리를 내주고 언니와 나는 때로는 나란히, 가끔은 대각선으로, 그리고 다시 마주앉으며, 그렇게 원래의 자리를 아예 포기하고 빈자리를 찾아 열차 안을 떠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객실로 이동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이 객실엔 언제라도 돌아가 권리を持つ 수 있는 우리 좌석이 있었다. 오르내리는 승객들은 대부분 버거워 보이는 짐을 어깨에, 등에 이고 있었는데, 바퀴 달린 여행용 트렁크를 사용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어디서 저런 것을 구했나 싶은 커다란 자루를 짐칸에 올리고 큰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앉는 그들 주변으로 피로가 똑똑 떨어지는 듯했다.

중국은 도시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달랐다. 시장 조사나 분위기 파악 조차 제대로 못 하고 시작한 가게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종업원들은 손님들이 한국 수입품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걸 난처해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한국을 오가며 가져온 옷들이었다. 중국말도 거의 못 하는데다가 이제 돌을 갓 넘긴 아들을 데리고 온종일 가게에 있을 수는 없었다. 더구나 그곳은 이제 막 신설한 곳으로 상가가 반도 채 차지 않은 상태였다. 전망은 있어 보였지만 상권이 활성화될 때까지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중국에서의 두 번째 실패가 선명해지는 동안 마지에와의 우정이 깊어갔다. 마지에는 내가 가게에서 진열이나 가격표 작업 등을 할 때면 아들을 데리고 나가 한참씩 돌보다가 데려오곤 했다. 친구이자 은인이었다. 우리는 제법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구체적으로 알아갔다.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마지에는 20대 초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한번은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있다며 사진을 보여 주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남자 친구인 그 사장 때문에 속상해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다. 마지에는 당연히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었

고, 당시 나의 중국어 실력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소통은 말과 글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때부터 믿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게, 중국과 중국어에 관심을 두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어 주었다.

“여기 사람들 보니…, 사는 게 구질구질하다, 어떻다, 나 투정이 심했나 봐.”

이들 중 누구도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특혜를 누리며 언니가 속삭였다. 우리의 알아듣지 못할 언어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힐끗거리는 이들도 있었으나 지친 그들은 대부분 싸구려 간식을 먹거나 쉽게 잠에 빠져들었다. 한 시간, 두 시간, 서너 시간…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 그들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자세히 바라본 적이 또 있었던가. 그들 짐의 크기, 그 피로를 감각하고 보니 그들의 살과 옷에서 반들거리는 찌든 때가 읽어 내릴 만한 글귀로 다가왔다. 언니도 그것을 읽은 것이라. 폭력이라고 착각했던 그것은 노동이었다. 조폭이 아닌 노동자들, 객실 승객의 대부분이 육체 노동자였던 것이다. 경계심이 느슨해지면서 마주앉은 낯선 이들과 조금씩 말을 섞게 되었다. 중국어가 유창하지는 않아도 이제는 웬만한 소통에는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들 대부분이 그들 고향의 방언을 사용했기 때문에 명확한 소통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미소를 보내면 미소가 왔다. 웨이팡에서부터 마주앉은 사내는 화이트칼라의 느낌을 풍겼다. 그는 작은 광고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급한 출장으로 지난에 가는 길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에 신기해하며 지난역에서 내릴 때까지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건축 현장의 많은 노동자는 일단 사장에게 한번 속하면 그 사장을 일생 따르는데, 사장이 먼 곳의 일을 받아오면 공사 현장을 따라 이렇게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쉴 새 없이 이야기를 쏟아내는 통에 일일이 통역을 하기는 어려웠지만, 언니도 최소한 이 사내의 호의와 환대를 이해하는 듯했

다. 외국인에게 중국에 대해, 중국인에 대해 최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려는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사내가 못내 아쉬워하며 지난역에서 내린 후, 언니는 이전에 중국을 다녀갔다는 다른 한국 사람들에게서 중국인에 대해 들었던 인상과 상당히 다르다며, 그들이 본 것이 극히 표면적이고 편파적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해가 내려앉으면서 창밖으로 설명했던 지평선, 경계선들이 흐릿해져 갔다. 우리 자리를 차지했던 깍두기 1이 종종 화장실을 오가며 우리를 돌아보았다. 이 자리 저 자리 옮겨 앉은 우리를 바라보는 그에게서 처음의 그 위협적인 인상은 더는 찾아볼 수 없었다.

웃 가게가 6개월쯤 적자를 내던 차에 남편에게 중소기업 입사 제의가 들어왔다. 칭다오에 있는 철강 업체인 H 기업에 들어가게 된 공장장이 팀원을 조직하면서 남편을 부른 것이었다. 남편은 항상 가볍게 잘도 떠난다. 한번 자리 잡으면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나와는 참 다른 사람이었다. 장사도 안 되었지만, 남편 없이 혼자 가게를 계속하기는 무리였다. 언어도 그렇고, 아이는 이제 막 두 돌을 넘기고 있었다. K 기업 때보다 월급은 줄었지만, 공장장 이하 한국 직원들끼리 마음이 잘 맞아 마음만큼은 편안해 보였다. 남편은 가게 정리를 나에게 맡기고 먼저 칭다오에 도착해 출근하기 시작했다. 전화기 저 너머, 내가 아직 가본 적 없는 또 다른 먼 곳에서 남편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쳐나고 있었다.

“여보, 여기는 중국이 아니야, 한국이야! 한국 음식점도 많고, 한국 사람도 많고, 한국 슈퍼마켓도 있어! 빨리 정리하고 와!”

저녁으로 열차에서 중국 컵라면 하나와 밥이 있는 도시락 하나를 샀다. 컵라면은 붉은 기름이 둥둥 떠 있었고 다 식은 밥은 설익은 듯 까칠했지만, 다행히 언니는 음식을 가리는 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맛과 새로운 경험에 기분 좋은 흥분을 느끼는 듯했다. 안내하는 입장에서

는 참 감사한 일이었다. 의자를 조밀하게 배치한 탓인지 객실은 우리나라의 열차보다 좁고 길게 느껴졌다. 그래서 빈 좌석이 적당히 있어도 내내 가득 찬 느낌이 들었다. 사실 객실을 가득 채운 것은 백여 명의 사람들보다 그들의 몸과 음식에서 나오는 냄새였을 것이다. 조금 다른 상황에서 맞닥뜨렸다면 심히 역하게 느낄 수도 있었을 이 공기를 우리는 이미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거기에는 우리의 일부도 뒤섞여 떠다닐 것이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께서 빠져나간 냄새에는 색이 없고, 그래서 경계가 없다. 누군가 객실에 들어서며 인상을 찌푸리면 나는 민망해해야 할까? 문득 궁금해진다.

난통, 뤼양에서 중국 ‘새내기’ 시절을 보낸 우리에게 세 번째 도시 칭다오는 남편 말대로 한국 부러울 것 없는 낙원이었다. 하지만 아이가 곧 세돌이 되는데….

“유치원 갈 나이야. 한국 돌아갈 계획이면 나, 아들 데리고 한국 가서 유치원 보낼게.”

그때까지는 한국에 자주 오가며 그곳 살림도 돌아보곤 했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았다. 남편은 꽤 진지하게 생각하더니 말했다.

“우리 중국에서 자리 잡고 살자. 만약에 이 회사에서 일 못하게 돼도 여기서 다시 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전공인 철강 쪽은 이미 많은 기업이 해외로 나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다시 자리를 차지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남편이었다. 5년여 한국과 중국의 여러 도시를 떠돌며 남겨두었던 한국 살림을 정리하고 국제 이사를 했다. 당장은 이곳 칭다오에 있는 한국 유치원을 보내기 시작했지만 앞으로 아이는 초중고 교육을 중국에서 받게 될 것이었다. 나는 이곳에 사는 이상 국제학교나 한국계 학교보다는 최대한 현지인과 섞여 현지인이 받는 교육을 받는 것이 낫다

고 판단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중국어 공부는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신기한 것은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나의 모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다. 더불어 아들의 모국어 학습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렇게 중국어 공부도, 문학 공부도 아들이 그 시작이었다. 그리고 사소하고 우연한 만남 속에서 중국 친구가 하나둘 늘어갔다.

열차가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자 자연히 시선이 객실 안을 향했다. 일행이 아니었던 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카드놀이를 하거나 간식을 나누며 대화의 장을 펼치고 있었다. 오래전 기억 속 어느 민박 촌의 한 장면 같기도 했다. 웃고 떠드는 그들의 눈빛과 표정이 그들의 피로와 어울리지 않게 맑고 순수했다. 내가 알던, 저들보다 부유해 보이던 이들이 과연 저들보다 더 행복할까? 저런 웃음을 과연 저들보다 더 자주 웃을 수 있을까? 겉모습은 조폭인데 웃는 얼굴은 어린아이 같아 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졌다. 깍두기 1이 화장실 가면서 나에게 손을 흔든다, 동그란 얼굴로 천진한 미소를 보내면서. 우리 덕에 자신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가고 있다고, 고맙다고, 눈으로 웃음으로 말하고 있었다. 나도 따라 손을 흔들어 주었다. 여정 중에는 간혹 이들과는 다른, 좀 색다른 승객도 있었다. 어느 역에서인가 세 남자가 열차에 올랐는데 그중 한 사람은 앞으로 모은 양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보니 나머지 두 명은 사복 경찰인 것 같았다. 수갑 찬 사내를 자리에 앉히고 경찰은 그의 발목에도 수갑을 채워 다른 한쪽을 의자 다리에 걸어 잠갔다. 피곤해 보이면서도 그 경찰의 눈이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헐긋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죄수는 표정 없이 고개를 숙였다. 평생을 도망치며 숨어 사는 것보다는 저렇게 묶여 짓값을 치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밤이 깊어지면서 노동자들이 낮선 이에게 서로 기대어 잠들어갔다. 기대다 못해 겹쳐져 자는 형국이었다. 자신에게 기대오는 낮선 이에게 누구 하나 짜증을 내

거나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수직이던 것이 사선이 되고, 다시 가로가 되어 포개진다. 그들의 얹힌 모습은 기묘하면서도 평화로웠다. 소리 없어도 알아볼 수 있는 그것, 그것은 삶이고 생명이었다. 불편한 자세로 잠든 언니를 보며 이 고생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잠시 생각해 본다. 그러나 그 끝을, 내일을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니 거기까지 가 보는 수밖에.

직장에 이번이 생겨도 중국에 남자 하던 남편은, 이번엔 사퇴도 아닌 해고에 완전히 기가 꺾였다. 유쾌한 회사 생활은 4년도 채 안 되어 끝이 났다. H 기업이 외국 대규모 기업에 인수 합병되면서 영업팀을 제외한 모든 한국인이 정리되었다. 사드 문제 훨씬 이전부터 이미 중국 정부의 정책은 박해지고 물가와 인건비는 폭등하고 있었다. 당시 H 기업 뿐 아니라 여러 회사의 많은 한국 직원들이 정리하고 되거나, 쫓겨 가듯 원하지 않는 곳으로 좌천되고 있었다. 아직 남아 있는 한국 직원들도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한 날들을 보냈다. 일단 직장을 잃으면 대부분은 서둘러 한국으로 돌아갔다. 역시나 허둥지둥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려는 남편, 또 떠나려 하는군. 그런 남편을 이번엔 못 가게 잡았다.

“북경에 아는 언니가 사업하고 있어. 비자는 어떻게 부탁해볼 수 있을 거야. 한국 가서 잘 돼도 또 어디로 일이 잡힐지도 모르는데…, 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 여기서 버티는 게 낫겠어.”

그러다 지인을 도와주면서 무역 일을 배우게 되었고, 회사까지 차린 것이다.

열차는 드디어 어둠을 뚫고 나왔다. 얼굴을 익힌 깍두기 1과 몇몇 중국 승객에게 눈인사하고 목적지인 시안에 내렸다. 오전 7시 반쯤, 21시간 반 만에 밟아보는 흔들림 없는 지면이 새삼스러워 오히려 현기증이 나는 듯했다. 먼 길을 이동하는 데 긴 시간을 소요하는 건, 생각해보니 참으로 마땅한 일이었다. 몸은 무거웠지만 웬지 뿌듯한 느낌이 들었다.

“피곤하실 텐데…, 시안 일정 바로 시작해도 되겠어요?”

언니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힘드신가 싶었는데, 잠시 후 눈을 빛내며 웃는 언니.

“그 열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런데 재원 씨, 그 많은 중국 사람들과 하루 낮, 밤을 보내고 나니까, 나, 중국 사람들하고 아주 친해진 느낌이야.”

역을 나오니 또 다른 세계가 아침 햇살 속에 빛나고 있었다. 여기서 하루를 보내고 내일은 뉴욕에 가서 마지막에 만난다. 거기서 또 하루를 묵고 칭다오로, 알 수 없는 내일로 향할 것이다, 이미 탈출한 조폭 열차를 타고서.

- 에필로그 -

그로부터 다시 4년쯤 지났다. 희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어느새 우리 부부는 부쩍 성장해 있었다. 기계밖에 몰랐던 남편은 기획, 운영, 영업, 업체 관리 등을 폭넓게 익혔다. 그리고 다시 한국 기업에 발탁되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나는 중국에 있는 동안 주로 인터넷 환경을 이용해 여러 가지 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했고,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2년 전부터 근처 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 중국 대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고, 주말에는 아들을 포함해 한국 아이들에게 모국어 논술을 지도하고 있다. 종종 우리를 보면 이제 중국에서 완전히 정착했다며 부럽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국땅을 딛고 사는 이들에게, 특히 내가 아는 이곳 중국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정착이라는 것 있을까? 아직도 여전히 1년마다 비자를 갱신하면서, 여전히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해 묵묵히 걸어갈 뿐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국제 정세와 관계없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든든한 친구들이 이곳 칭다오에도 여럿 생겼다는 점일 것이다.

캐나다 일기

조은주 (캐나다)

두 아이 모두 대학이 있는 도시로 떠나고 썰렁해져 버린 식탁에서 남편과 술 한 잔 기울이는 때가 많아졌다. 챙겨야 할 자식이 눈앞에 없으니 비로소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염색할 때가 돌아오는 술 성근 머리, 이마 중간에 도로를 낸 굵은 일자 주름과 눈가의 잔주름들. 왼쪽 볼의 거무스름한 얼룩은 검버섯인가? 그리고 보니 눈꺼풀도 제법 처져 있다.

공연히 심란해져서 남편에게 묻는다.

“자진, 후회 안 해?”

“뭘?”

“이민한 거.”

“글쎄,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

남편이 말한 그때가 그곳에 있더라도 하듯 창 너머로 눈길을 돌렸다. 어둠 짙은 창밖엔 지나간 시간 대신 식탁 앞에 앉은 또 하나의 내가 있다. 마흔 살에 이민해 이제 막 순이 된 여자. 남편이 바라보는 나도 남편 못지않게 나이가 들었겠지?

“우리나라에도 구경할 곳이 천진데 해외여행을 왜 가?”하던 내게 ‘이민’의 화두를 던진 사람은 남편이었다.

“이민? 이사가 아니고 이민?”

낱말이 지닌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묻는 내게 남편은 말했었다.

“대안 학교다, 홈스쿨링이다, 당신이 말하는 것들이 모두 한국 교육을 믿지 못해 나오는 대안이잖아.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시절 우리 가족은 지금은 평택시에 합병된 ‘송탄’이라 불리던 지방 도시에 살았다. 송탄 시내 중심에는 주한 미군의 공군 기지가 들어서 있다. 시내에 나가면 나 같은 여자 들쯤은 넉넉히 들어갈 만한, 가슴에 성조기를 단 티셔츠가 내걸린 상점들과 알록달록 야한 속옷 차림의 마네킹들이 늘어선 좁은 거리가 나타난다. 그 거리에선 노르스름한 냄새가 났다. 남의 나라의 평화를 지킨다는 거창한 포부를 품고 태평양을 건넌, 코 높은 젊은이들이 뿐어내는 우월감과 타향살이의 외로움이 뒤섞인 냄새였을 것이다.

남편은 공군 기지에서 오 분 남짓 떨어진 동네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치과를 열고 있었다. 고향도 아니고, 학연도, 자연도 없는 송탄에 개업하게 된 건 순전히 돈 때문이었다. 남편은 홀어머니 슬하의 오 남매 중 유일하게 대학물을 먹은,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난 용’이었다. 송탄은 의사면허증을 담보로 은행 대출에 의지해 출발해야 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터전이었다.

아이들 교육 문제가 고민거리로 떠오르기 전까지 우리의 선택은 꽤 성공적이었다. 남편은 화장실 갈 틈이 없을 정도로 바빠졌고 빛더미로부터 차츰 자유로워졌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과 나는 제집에서도 발끝 눈치 봐야 하는 아파트 생활을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산과 논이 바라보이는 작은 땅을 사, 마당이 있는 우리 가족의 첫 집을 지었다. 큰 아이 방은 초록, 작은 아이 방은 파란색으로 꾸몄다. 나를 위한 작은 공간도 마련했다. 책으로 둘러싸인 방을 갖고 싶던 어린 시절 소원대로 방 한 칸의 벽을 불박이 책장으로 마감하고 공간이 넉넉한 책상

을 놓았다. 별 좋은 날엔 마당에 줄을 매고 빨래를 널었다. 빨래처럼 나도 햇살에 등 대고 서서 옆집 울타리에 편 접시꽃과 해바라기의 키 대결을 구경하곤 했다.

눈에 밟히는 온갖 미련을 뒤로하고 이민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삼 년 반이 걸렸다. 가장 큰 현실적 고민은 남편이 일을 접어야 하는 것이었다. 기러기 생활에 대해선 남편도 나도 고개를 가로저었다.

‘부모, 자식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인생사,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는 거겠지.’

이민 가방 열한 개와 함께 태평양을 건너던 날,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시어머니는 믿고 의지했던 막내아들을 보내며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다. 시어머니 몇까지 친정어머니가 우셨다. 야속함도 쏟아 내셨다.

“너는 남편 자식 거느리고 훌훌 떠나면 그만이지만, 몹쓸 병 걸린 네 아비 데리고 난 어떡하라고……”

평소에도 병약하던 친정아버지는 치매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셨다.

“여긴 걱정 말고 언니나 잘 살아.”

보다 못한 동생이 내 등을 토닥였지만, 졸지에 맏자식의 역할을 떠안게 된 얼굴엔 서운함이 역력했다.

어떻게 돌아설 수 있었을까? 강산이 한 번 변할 만큼의 세월을 지나 돌이켜 봐도 뻐근하고 아리다. 이제 와 생각해 보면, 자식 교육은 우리의 이민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명분은 아니었을까?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해 앞만 보고 달려가던 남편에게, 그리고 그런 남편 곁에서 혁혁대던 나에게도, 가쁜 숨을 고를 수 있는 변화가 간절했던 건 아닐까? 이민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여행이라도 떠나는 철없는 기분으로 말이다.

2007년 7월 25일, 우리 가족은 캐나다 밴쿠버에 도착했다. 아이들이 다니게 될 초등학교 근처에 집을 얻고, 이민자를 위한 영어 학교에도 서

둘러 등록을 마쳤다. 영어에 대해 우린 무턱대고 낙관적이었다.

‘일 년쯤 열심히 하면 언어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될 거야. 캐나다 사회 돌아가는 것도 보일 테고.’

실전 영어와 캐나다 사회를 배우기 위해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남편은 노인 보호 시설에서 일하며 동네 산책로 청소와 나무 심기 행사 등을 챙겼고 나는 장애인 센터에 도우미 자리를 구했다. 봉사 활동 경험을 살려 Special Education Assistant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춰 볼 작정이었다.

그러나 야심 찬 포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구심으로 바뀌었다.

‘하면 된다는 진리가 영어에도 적용되는 걸까?’

오전 9시에 등교해 오후 2시 반에 하교하는 종일반 영어 수업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생활 영어가 필요한 나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 나라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시와 소설을 읽고 에세이를 쓰는 과제가 주어졌다. 영어 공부가 아니라 영문학 공부였던 셈이다. 선생님이 써 오라는 에세이가 봇 가는 데로 쓰는 수필 형식의 한국적 에세이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글이라는 사실은 빵점이라는 기막힌 점수를 받고서야 확실히 이해했다. 눈앞에 놓인 점수를 인정할 수 없어 찾아간 내게 선생님은 말했다.

“이 글에서 어디가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이지? 나는 에세이를 써 오라고 했는데 너는 일기를 썼어.”

책장 구석의 빛바랜 책, <유안진 에세이, 지란지교를 꿈꾸며> 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쓴웃음이 지어지는 대목이다.

늦게 배우는 언어는 노력하는 만큼 늘지 않았다. 밤늦도록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하고, 에세이를 써도 영어로 하는 대화는 인사말 수준을 땜돌았고 번번찮은 소통 능력은 장애인 센터 일에도 적잖은 걸림돌이 되었다.

장애인 센터에서 만난 케이티는 신체장애뿐 아니라 극심한 언어장애

도 갖고 있었다. 그 애 곁에서 수족처럼 움직이며 원활한 소통을 돋는 것 이 내 임무였다. 요구르트가 먹고 싶다거나, 핫초코가 뜨겁다거나, 화장실이 급하다는 등의 간단한 의사 표현에도 천근의 무게를 들어 올리는 기운을 쏟아부어야 하는 케이티에게 “뭐라고? 다시 한 번 말해 줄래?”라고 매번 부탁해야 하는 건, 그 애는 물론, 내게도 고역이었다. 도움이 아니라 민폐가 되고 있다는 자격지심에 안절부절못했다. 그런 내가 안쓰러웠던지 한 동료가 직언해 왔다. 홍콩에서 온 그는 이 년 반 동안 대학에서 Special Education Assistant가 되기 위해 공부했지만, 번번이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해 고전 중이라고 했다.

“…… 이민자에겐 영어 발음도 걸림돌이에요.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은 아이를 돌볼 사람의 자질에 대해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내 수준에서 보는 그의 영어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는데도 말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애아를 돌보는 일은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잘할 수 있는 일은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초보 이민자로서의 첫걸음은 돌부리에 걸리기도 했지만 길섶에 편 낮선 꽃을 발견하기도 했다.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새로운 방식의 문학 수업은 문학을 전공했던 내게 학창시절에도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열정을 일깨워 주었다. 문학 작품을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 글을 써내면 빨간 펜으로 도배하다시피 한 문법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너는 작가야! 너의 글을 즐길 수 있어 행운이었어.”

입에 발린 칭찬이 몸에 밴 문화라는 걸 알면서도 아이처럼 가슴이 뛰었다. 이민자의 소소한 일상을 일기 쓰듯 기록하기 시작했다. ‘캐나다 일기’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사람들과 나누기도 했다. 나다운 나보다 이민자로서의 내가 되길 강요했던 각박한 시간 속에서 나를 위로하고 지켜낼 수 있었던 건, 오롯이, 글쓰기 덕분이다.

“장인어른, 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큰딸 사는 모습이라도 보셔야지.”

이민 일 년 만에 남편의 권유로 양가 부모님의 캐나다 방문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비행기 도착 정보가 뜨고 한 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부모님이 입국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뜨문뜨문 이어지던 승객들의 발길마저 끊어지고 초조한 시간이 얼마나 더 흘렀을까? 옆에 섰던 아이가 외쳤다.

“어? 저기 나오신다!”

“어디? 어디야?”

고개를 빼는 순간, 내 앞에 성큼 다가선 건 부모님이 아니라 먹은 것을 모조리 토해버릴 것 같은 역한 냄새였다. 시어머니의 굳은 표정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내 눈은 시어머니를 황급히 지나쳐 두어 걸음 뒤에 선 친정 부모님에게 달려갔다. 불에 달궈진 듯 새빨갛게 상기된 엄마. 휙청휘청 뒤를 따르는 아버지. 나를 발견한 엄마가 억장 무너지는 한숨을 내뿜었다.

“짐 찾는 데서 네 아비가 글쎄…… 아이고, 내가 네 아비 땀에 몬 산다, 몬 살아. 내가 죽어야 이 업보가 끝나지.”

나는 할 말을 잃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손이고, 옷이고, 신발이고 온통 오물 범벅인 채로 멍한 눈을 깜빡이며 휙청거리는, 일 년 새, 꼬챙이처럼 마른 아버지.

“장모님, 가방에서 아버님 바지 하나만 찾아 주세요.”

남편의 다그침에 엄마가 쭈그려 앉아 가방을 뒤적였다. 한참을 그러더니 체념한 듯, 남편 손에 뭔가를 톡 건넸다.

“어디 뒀는지 도무지 안 보여. 우선 이거라도 갈아입혀.”

당신의 빨간색 꽃무늬 파자마였다. 화장실로 아버지를 모시고 갔던 남편이 잠시 후, 곤혹스러운 얼굴로 나타났다.

“급한 대로 바꿔 입히긴 했지만, 여기서 해결될 상태가 아니야. 집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어서 가자!”

아이들은 짐 가방과 두 할머니의 손을 하나씩 잡고 앞장을 섰고, 남편은 아버지를 부축했다. 나머지 짐 가방을 끌고 남편 뒤를 따르는 내 앞에서 엄마의 빨간 파자마가 위태롭게 흔들렸다. 우리 가족은 뛰었다. 코를 싸쥔 사람들의 짜증스러운 눈빛으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도망치기 위해.

남편이 아버지를 셧기는 동안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아버지 옷을 빨았다. 사돈 영감 덕분에 일 년 만에 본 아들과 황망한 상봉을 한 시어머니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텔레비전만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계셨다. 오물 냄새는 수십 번 문자르고 행궈내도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세찬 물소리에 숨어 깨이꺼이 울며 병든 부모에게 등 돌리면서까지 선택했던 이민에 대해 처음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꼈다. 이민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나의 이기적인 선택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한국에서 삶을 제대로 산다는 것이 조금은 철학적인 고민이었다면, 이민자가 된 후에는 먹고 사는 문제와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적인 고민이 되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쉬울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한국보다는 여유로운 교육환경에서 어른보다는 수월하게 언어를 습득하고 타문화에 익숙해져 간다.

반면, 이민 1세대가 된 부모들의 삶은 녹록지 않다. 영어권에 살면 영어가 저절로 늘 거란 생각은 착각이었다. 넓은 땅덩어리에 산다고 넓은 세상이 보이는 것 또한 아니었다. 언어적, 문화적, 정서적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이민자의 눈에 들어오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그 한계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이곳에서 뭔가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가장들이 갖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은 결코 작지 않다. 남편의 처지도 여느 이민 가장들과 다르지 않았다. 실체가 아리송한 사회에서의 새로운 도전은 성공보다 실패가 먼저 점쳐지는 모험이었다. 이민의 세월이 쌓일수록 앞날

에 대한 불안도 커져만 갔다.

이민의 허니문이 끝나고 삼 년 차 이민자가 되었을 무렵이었다. 먹고 살길을 찾아 동분서주하던 남편이 Dental Assistant 자격증을 따겠다고 했다. 한국에선 주로 이십 대 초반의 아가씨들이 하는 일이지만, 긴 준비 기간이 필요치 않았고 남편이 일하던 분야라 꽤 안정적으로 보였다.

남편의 늦깎이 학교생활은 예상보다 고달팠다. 다른 무엇보다 남편이 버거워했던 건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었다. 많지는 않지만 남자들도 지원한다는 입학 상담자의 말과 달리, 스무 살 안팎의 여자들 틈에 남자는 달랑 남편 혼자였다. 마흔을 훌쩍 넘긴 한국 남자가 나이도, 성별도, 인종도, 문화도, 관심사도, 뭐하나 통하는 게 없는 사람들 틈에 끼어있는 시간이 어떨지는 보지 않아도 알만했다. 젊은 그녀들은 따라잡지 못할 정도의 빠른 영어로 남편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깔깔거렸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으니 선불리 대화에 낄 수도 없다고 했다.

“내가 우리 반 왕따야. 왕따.”

엄마에게 고자질하는 어린 자식처럼 남편은 우스갯소릴 했지만, 나는 마주 웃지 못했다.

남편이 코스 중단을 선언한 건 한 달간의 실습까지 마치고 졸업을 코앞에 둔 때였다. 캐나다 정부가 외국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고 했다. 실습 시험 포함, 다섯 번의 시험을 통과하면 캐나다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편의 도전 선언을 들으며 희망에 부풀기는 키녕 가슴이 답답해졌다. 마흔보다 쉰에 가까운 남편의 나이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한두 번도 아니고 다섯 번씩이나 큰 시험을 치러야 한다니! 남편도 남편이지만, 그 모든 과정을 가슴 졸이며 지켜볼 일이 까마득했다.

“이제 곧 졸업인데, 그동안 애쓴 게 아깝잖아. 당신, 적은 나이 아니

야. 욕심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살자.”

도전을 만류하는 내게 남편이 뜻밖의 고백을 했다.

“그동안 말 못 했지만, 현장 실습하며 알겠더라고. 치과 조무사로 취직 하긴 어렵겠다는 걸. 한국처럼 여기도 나같이 나이든 남자는 원하지 않아.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일을 다시 찾고 싶어. 한국에선 먹고 살기 위해 무조건 했던 일이었는데, 이제야 알겠어. 내겐 그 일이 천직이었다는 걸.”

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남편의 도서관 출퇴근이 시작되었다. 점심과 저녁 도시락이 든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걸어가는 허허로운 세 줄 추리닝. 그 시절을 상기할 때마다 자연스레 그려지는 남편의 뒷모습이다.

시작은 했지만, 이십 년 만에 다시 잡은 공부가 수월할 리 없었다. 이십 년의 세월만큼 공부할 분량이 많아진 건 당연했고 의학의 발전으로 생소한 공부도 많다고 했다. 남편은 새로운 지식을 단숨에 습득할 만큼 젊지 않았다. 엉덩이로 버티며 반복하는 것 외엔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다.

1차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 실습 시험을 준비할 일이 막막해졌다. 남편은 미국 LA까지 날아가 실습에 필요한 기구와 재료를 사 왔다. 차고를 비우고 간이 실습실을 만들었다. 수년 동안 떠나 있던 본업으로 돌아가기 위해 남편은 하루 열두 시간 이상을 그곳에 머물렀다. 침침한 백열등 아래 꾸부정히 앉아 연습용 치아를 깎고 다듬는 일을 반복했다. 철 지난 공부를 못 견디겠다며 먼저 들고 일어난 건 정신력보다 체력이었다. 침침해지는 시력 때문에 안경 도수를 높여야 했고, 콜레스테롤과 당뇨 수치도 덩달아 올라갔다. 다리 저림으로 밤잠 설치는 날이 많아지더니 결국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진통제 투흔 끝에 실습 시험에 합격했지만, 3차 시험에서 남편은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남편 모르게 한숨이 절로 나왔다. 시험에 떨어졌다는 사실보다 재시험을 위해 일 년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 더 끔찍했다. 남편

은 시험 준비도 할 겸, 진료 감각도 되찾을 겸, 몇 달 정도 한국에 들어가 일하기로 결심했다.

‘몸까지 상해가며 저러느니 차라리 기러기 생활이 낫지 않을까?’

통증 때문에 뒤척이는 남편을 볼 때마다 고민했던 일이지만, 막상 아이들만 데리고 혼자 남으려니 두려웠다. 물설고 낯선 곳에 사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남편은 한국으로 떠나고 두 아이와 나는 이곳에 남았다. 낯설다는 핑계로 남편에게 미루곤 하던 모든 일이 내 차지가 되었다. 아이들과 관계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영어 때문에 진땀을 뺐다. 남편의 부재를 알기라도 하듯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뻥뻥 터졌다. 아이들 등교 시간에 차가 방전되어 지각 사태가 벌어지고, 변기가 막혀 넘치는 통에 한바탕 난리가 나오고, 물탱크가 터져서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되기도 했다. 살면서 생기는 문제는 고치고 바꾸면서 해결해 나갔지만, 남편의 빈자리는 좀 체 적응되지 않았다. 남편의 빈자리를 보며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우리가 옳았다고. 할 수만 있다면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2012년 봄, 봄바람을 타고 남편이 돌아왔다. 그해 여름, 남편은 실패를 맛봤던 3차 시험을 통과하고, 늦가을에 치른 4차, 5차 시험에도 연달아 합격했다. 시험 준비를 시작한 지 이년 육 개월 만의 결실이었다.

내가 이 나라에서 과연 써먹을 일이 있을까 싶던 교사자격증을 찾아들고 밴쿠버 한국어 학교에 이력서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남편 덕분이다. 남편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끝이 뻔히 보이는 길 대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모퉁이 길로 들어섰다. 수없이 많은 모퉁이를 돌아 자신이 천직이라고 믿는 일을 다시 찾았고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했다. 남편이 보여준 본보기가 없었다면 ‘이 땅에서도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나의 바람은 실천으로 진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고맙게도, 부모

가 정신없이 초보 이민자의 삶을 겪어 내는 동안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은 엄마 손이 필요치 않을 만큼 훌쩍 자라 있었다.

칠 년째,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내가 만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이곳에서 태어난, 영어가 모국어인 아이들이다. 그 아이들은 한국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한국보다 캐나다의 문화와 정서에 익숙하다. 그런데도 한국을 배우기 위해 토요일 이른 아침, 눈곱 끈 눈을 비비며 학교에 온다. 꽃잎 같은 입술을 열어 서툰 한글을 읽고, 고사리손으로 송편을 빚어 보고, 세배하는 법을 익히고, “끼치 까치 설날”을 부르며 한국을 알아 간다.

내 마음속에서 ‘저 아이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소망을 발견한 건 최근의 일이다. 동화를 쓰며, 나는 코리언 – 캐네디언이란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의 모습을 좀 더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었다. 부모의 선택으로 이민 1.5세대가 된, 때론 한국인으로 때론 캐나다인으로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는 아이들, 인종이 다른 엄마 아빠의 문화적, 정서적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아이들, 가족의 결합이 여의치 않은 이민의 현실로 인해 한쪽 부모와 떨어져 살며 그리움을 쌓아가는 아이들……. 따뜻이 위로하고 “영차! 영차!” 열렬히 응원하고 싶은 내 동화 속 주인공들이다. 아직은 습작 수준인 어설픈 이야기가 제대로 무르익어 세상 구경할 날이 올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 날을 꿈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 좋다.

오물 묻은 아버지 옷을 빨며 이를 악물었던 날로부터 적잖은 세월이 흘렀다. 이민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겠다던 그날의 약속은 어찌 되었냐고 나 자신에게 물어볼 때가 있다. 이민의 명분이었던 두 아이는 독립적인 사람으로 든든하게 자랐고, 한국에서의 경력을 이어가기 힘든 이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남편과 나는 우리의 전공을 살려 일하고 있으니 행운이고 감사한 일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살고 있다고 감히, 떳떳하게 고

개를 세울 수가 없다.

지난십년 동안,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몇 해 전엔 시어머니가 고통스러운 투병 끝에 저세상으로 가셨다. 두 분 모두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나날이 기운이 쇠하는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속에서 아슬아슬 이어진다.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께 그랬던 것처럼 태평양 건너에 사는 자식은 병원 한 번 모시고 갈 처지가 되지 못한다. 하나뿐인 이모가 입학도 졸업도 챙기지 못하는 사이 다섯 살이던 조카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고, 이민 이듬해에 태어난 막내 조카는 친구들을 불러 열 번째 생일 파티를 할 거라며 재잘댄다.

머리 굽은 자식들이 떠난 허전한 둑지에 남편과 나만 남았다. 빈 술잔을 채우며, 남편은 세월이 가도 깊은 정이 들지 않는 외국인 동료들과의 관계에 대해 슬그머니 한숨짓는다. 그에 질세라 나의 푸념도 길게 늘어진다.

“고3 엄마 졸업 기념으로 친구들끼리 제주도 여행 간대. 올레길 걸을 거라나. 다들 신나게 사는데 왜 나만 점점 쓸쓸해지나 몰라.”

수십 년이 지나도 아니, 어쩌면, 남은 생애 전부를 이곳에서 보낸다 해도 채우기 힘든 이민의 결핍이고 얻은 것만큼의 잃음이다.

이민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나의 물음에 남편이 “글쎄”라고 얼버무리고 만 것처럼 나 또한 잘 모르겠다. 시간을 돌이켜 십여 년 전의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연 다른 선택을 하게 될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우리가 선택했던 이민은 서론, 본론, 결론이 분명한 캐나다식 에세이가 아닌, 일기 같은 것이었다. 삶이란, 오늘 힘들어 죽겠다고 투정을 해도 내일이 이어지길 소망하고, 밀려드는 회한에 마음 밑이 축축해지다가도,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야.”라고 스스로 격려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므로, 선택의 옳고 그름을 단정할 수 없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그래서 그 어떤 결론도 욕심내지 않고 내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을 성실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

거지 같은 나이지리아에서 고향으로

박미선 (나이지리아)

2006년 10월 6일 10개월 된 아이를 업고 나이지리아 공항에 발을 내디뎠다. 냉방은 안 되고 사람들은 북적북적, 수화물은 나오지 않고, 입국 심사에선 요구하는 서류는 많고, 아이는 더워서인지 낯선 땅이어서인지 울어대고 있었다. 몇 시간 뒤 공항을 빠져 나와보니 남편과 같이 나온 직원이 “welcome to Nigeria”라고 외치며 나를 반겼다. 그 순간 나의 코끝에 이제껏 맡아보지 않았던 냄새 또한 나의 입국을 반겼다. 난 지금도 그 냄새를 잊을 수 없고 그 냄새를 ‘나이지리아 냄새’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게 나의 나이지리아 생활은 시작되었다.

신랑과 이곳에 2년을 계획하고 들어왔다. 그런데 벌써 12년째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이젠 나의 고향처럼 편안해져 버렸다. 처음 공항에서 남편 회사에서 마련한 사택을 간 날을 일을 수가 없다. 30층쯤 되는 희미한 노란색 전등이 집안을 밝히고 있었고 에어컨은 켜져 있었으나 내부는 전혀 시원하지가 않았다. 더 황당한 것은 집에 수도가 없어서 외부 물차가 이틀에 한번 정도 와서 물을 받아놓고 쓰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도 공짜는 아니었다. 한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당황스럽기 그지없었다. 더욱이 거실에 앉아있으면 무언가 움직이는 것들 때문에 놀

랐는데 나중에 보니 아주 작은 쥐였다. 쥐를 보면 기겁을 하는 내가, 한국에 있으면 이해할 수 없는 생소함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되어 버렸고 쥐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생활로 변하고 있었다. 한 가지 나의 위안은 집안일을 돋고 있는 도우미가 2명, 운전기사 있는 자동차가 있었다라는 것. 밥 해주고 청소 해주고 가끔 애도 돌봐주는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백조 같은 삶이 시작되었다. 치안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집 밖을 자유스럽게 다니지 못했고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시장도 꼭 차를 타고 다녀야 했다. 정말 감옥 생활이 따로 없었던 시간들이었다.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나의 정신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나이지리아에 가정이 나온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한국인들이 많지 않았기에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는 게 쉽지가 않았다.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우울하게 만들었다. 또한 한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들이 더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다. 전기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정전이 되었고 이런 상황이 365일 반복되었다. 또한 전기 변압이 일정하지 않아 가전제품이 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집집마다 발전기는 필수로 있어야 했다. 이곳에 와서 발전기라는 것을 처음 볼 수 있었다. 그나마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갖출 수 있는 거였고 대부분의 소위 말하는 서민들은 발전기가 없이 암흑 속에서 살았고 지금까지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은 해가 떨어지면 자야 하고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생활이다. 그래서인지 여진 하루가 빨리 시작된다. 수도는 공동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각 가정집마다 지하수를 이용하기에 펌프가 고장 나서 물 없이 2주 정도를 살아본 적도 있었다. 정말 전기 없이 살 수 있지만 물 없인 살 수 없다라는 걸 그때 알았다. 또 밤에 잠을 자다가 에어컨에 불이 붙어서 어린 두 아들을 잊을 뻔한 아찔한 일도 있었다.

슈퍼마켓이나 현지 시장을 가서 물건을 사면 항상 하는 소리가 “잔돈

이 없다. 그래서 줄 수 없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얼마나 나에겐 충격이던지……. 그래서 남편이 나에게 붙여 준 별명이 있다. ‘쌈닭’이라는……. 너무나 상식 밖의 일인지라 매번 가서 불만을 제기했던 것 같다. “어떻게 슈퍼에서 잔돈이 없을 수 있나?” 때론 “찢어지거나 너무 낡은 돈은 받지 않겠다라며 다른 깨끗한 돈으로 바꿔 달라.”라는. 그렇지만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 그것 또한 이곳의 문화인 것 같다. 나 또한 잔돈이 없을 땐 “다음에 줄게.” 하면 “no problem.”이라고 답한다. 사람은 역시 환경에 적응하는 것 같다. 여기에선 포기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내가 살아온 방식은 내가 살았던 곳에서 적용된다라는 걸.

지금도 있는 것 중 하나는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일이다. 차가 막히면 우리나라에서도 뻥튀기 장사꾼들이 어디에선가 나타나서 간식거리를 파는 것처럼 이곳도 교통 체증이 있으면 어디선가 별별 장사꾼들이 다들 나타난다. 야채를 파는 사람, 과일을 파는 사람, 장난감을 파는 사람, 책을 파는 사람, 매트리스를 파는 사람,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시장을 방불케 한다. 그것도 도로 한복판에서 말이다. 정말 황당한 건 안경을 파는 사람, 신발을 파는 사람이다. 껴 보지도 신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물건을 살수 있을까? 정말 신기한 곳이다, 라고 생각했다.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며 보내다 보니 어느덧 첫 휴가를 가게 되었다. 막상 휴가를 갔지만 시댁에서 머물렀던 우리 가족은 내 집이 아니어서인지 나이지리아에 있는 우리 집이 매우 그리웠다. 아마도 그걸 우리 큰 아들이 제일 먼저 느꼈던 것 같다. “엄마 우리 집에 빨리 가자.” 그렇게 또 2년을 기약하고 우린 이 냄새 나는 나이지리아로 다시 돌아왔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엔 ‘청소의 날’이라며 매달 마지막 토요일 날은 청소하는 날이라고 지정을 해서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통금을 제한한다. (사람도 차도) 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길거리에 마구 버려진 쓰레기가 원인이 아닐까 한다. 쓰레기통은 찾아 볼 수

없고 개념 없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마구 길가에 버렸다. 지나가는 사람도 차를 탄 사람도. 곳곳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였고 재활용도 없기에 비닐과 폐트병으로 인해 하수구는 막히고. 아마도 우리나라 6~70년대 초반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그때를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나보다 먼저 오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다. 한번 비가 오면 도로는 금세 잠겼다. 어떤 날은 차가 반쯤 잠겨서 남편이 차를 길거리에 세워 놓고 들어온 황당한 적도 있었다. 이곳은 스콜이라고 해서 우기 때 짧은 시간에 엄청 많은 비가 내린다. 다행히도 지금은 길거리 를 청소하는 사람을 많이 배치하고 ‘Green Lagos’라는 슬로건 하에 도로 가 깨끗해졌다. 또한 쓰레기 더미가 없어지고 꽃을 심고 작은 공원을 만들고 있으며 하수구 공사를 하면서 예전보다는 많은 곳이 좋아졌다. 그러나 그러는 와중에도 하수구 공사로 곳곳을 파놓아서 교통 체증에 한 몸을 거들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도 큰 위기가 닥쳤다. 바로 ‘청소하는 날’에 일어난 일이다. 남편과 남편직장 동료가 아침 일찍 골프를 치러 간다 해서 새벽같이 일어나 따라나섰다. 그런데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라 경찰에게 붙잡히게 된 것이다. 이곳은 경찰이건 공항세관이건 어느 곳에서나 돈이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종종 쓰고들 한다 ‘This is Nigeria’라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또 상식 밖에 일이 있을 때에도 종종 쓰고 하는 말이다. 우리도 돈으로 합의를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다른 경찰에게 또 붙잡았다. 불과 100 미터 뒤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합의를 했다”라고 했더니 자기는 상관 없는 일이라며 우리 차를 빼앗고 몸과 차를 뒤진 후 있는 돈을 내라며 강도로 돌변한 것이다. 그러면서 더 큰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죽고 싶냐 여기는 나이지리아다. 너희들이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 라면서. 너무나 무서웠다. 종종 사람들이 강도를 당했다라는 말도 들었다. 돈

도 빼앗기고 물건도 빼앗기고 맞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막상 나에게 닥친니 뭐라 말할 수 없는 무서움과 불안이 엄습했다. 남편은 현지인과 함께 붙잡혀서 현지 미니 버스를 타고 끌려오고 나와 직원은 술 냄새가 가시지 않은 경찰이 어디론가 차를 몰고 한참을 달렸다. 뒤따라오던 경찰과 한적한 곳에 차를 멈추어 세우더니 더 이상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낼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있는 돈만 챙겨서 우리를 알 수 없는 곳에 버려두고 그들은 떠났다. 심장이 오그라드는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정말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런 공포에서 벗어난 우린 한숨을 돌리며 다치지 않고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천만다행이라 서로 위로하며 한적한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11시가 지나가기를(11시 이후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음) 기다기고 있는데 순찰을 돌던 또 다른 교통경찰이 이곳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견인 당해서 나중에 다시 차를 되찾는 데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그날의 악몽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며 나의 인식은 ‘경찰은 곧 강도’라고 바뀌었다. 나중에 현지인을 통해 들어보니 실제로 경찰이 강도로 돌변한다면서 특히 현지인들도 밤에 버스 타는 것을 무서워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 운전기사와 경찰이 서로 짜고 강도짓을 한다면서. 특히나 이곳은 연말이 되면 실제로 강도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크리스마스라는 대목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해서 그렇다고들 한다. 그래서 더욱더 신변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한번은 이곳 나이지리아 한인 교회에 강도가 들었던 일도 있었다. 그로 인해 사모님이 많은 충격을 받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일들도 있었으며 안타깝게도 칼에 찔려 목숨을 잃는 한국인도 있었다. 그래서 이곳에선 밤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커튼도 암막 커튼을 이용해 밖으로 노출되는 걸 막기도 한다. 또한 경찰이 길거리 곳곳에 서있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Madam happy Sunday”, “happy Christmas”하고 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의 입에서는 이 말이 떠나질 않게 되었다. ‘거지 같은 나이지리아’

그렇지만 감사하게 아이들은 잘 커 주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라는 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커 가면서 교육이 걱정되었다. 교육의 질을 생각할 때 많은 것을 해줄 수 없는 것이 가장 미안했다. 많은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체험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고 미안했다. 이곳에선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부족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다. 날씨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은 적지만 아이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문화적인 질이 떨어지는 게 부모들의 큰 고민인 것 같다. 그렇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은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 한국 아이들은 학교 외에도 학원에 쫓기며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공부라는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듦다. 모든 세상사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다. 이곳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에 비하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자란다. 또한 부모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인지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순수하게 크는 것 같다. 이곳 엄마들이 흔히들 하는 말이 애들 사춘기를 쉽게 보내서 다행이라고들 한다. 또한 IT기술이 떨어진 이곳은 미디어로부터의 많은 노출을 줄일 수 있고 부모의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것 또한 큰 장점인 것 같다. 그래서 더욱더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늘려 주고 혼자서 책을 보는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또한 좋은 점이다. 요즘은 인터넷 속도가 많이 빨라져서 살만하다. 처음에 왔을 때는 2년 동안 메일을 열어 보질 못했다. 속이 터져서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에 비하면 지금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곳에서도 인터넷으로 쇼핑도

할 수 있으니까!

거지 같은 나이지리아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6년 여의 시간이 흘렀다. 더 이상 나이지리아에서 살고 싶지 않았던 나는 남편을 졸랐다. 다른 자사로 발령을 내달라고 회사에 요구해보라고……. 나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남편은 토고로 발령을 받았다. 나이지리아만 아니면 어디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기에 난 토고로의 발령이 탈출구가 되었다. 토고는 프랑스 식민지였기에 불어를 공통어로 쓰고 있다. 환경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그렇지만 나이지리아와 느낌이 다른 곳이었다. 일단은 언어가 되지 않으니 불편했다. 불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 나로서는 시장을 가도,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와도 통하지가 않았다. 아프리카 나라 중 불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순한 편이라고들 한다. 그래서인지 사람들도 온순하고 거리도 조용하고 모든 것이 나이지리아보다는 나았다. 토고는 치안도 좋은 편이어서 차 없이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그리 위험하지 않았고 심지어 같은 회사 직원 아이는 혼자서 밤에 택시를 타고 올 정도로 안전했다. 시장에서도 잔돈이 없다라는 억지도 없었고 정리가 되어 있고 웬지 상식이 통하는 나라였다. 토고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나이지리아에서 살았느냐? 사람 살 곳이 아니라고 하던데’ 하며 놀라워했다. 그렇지만 특별한 시장경제적인 요소가 없는 토고는 웬지 사람들도 활기 없이 보였고 마치 한적한 시골 같은 그곳이 오히려 나 또한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웬지 북적거리던 거지 같은 나이지리아가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살았던 동네도 그립고 나와 같이 지냈던 도우미며 기사,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그리웠다. 차로 20분 정도면 시장, 학교, 마트 등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리가 오히려 따분하게 느껴졌다. 왜 일까? 왜 나이지리아가 그립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아이들도 나름 그곳 생활에 적응하고 만족해하며 학교생활을 잘 보내는 것 같은데 남편과 나는 그곳 생활이 적응이 되지 않았다. 6

년의 시간을 무시할 수 없는 걸까? 아니면 언어의 문제일까? 가장 큰 건 언어의 문제였던 것 같다. 언어가 되지 않으니 남편도 직장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았다.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다른 나라를 가려면 그곳의 언어를 먼저 습득하고 가는 것이 빨리 적응하고 쉽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그때 마침 우리에게 나이지리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1년여의 토고 생활을 접고 나이지리아로 우리 가족은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이곳 나이지리아 한인 교회의 속설 중에 ‘떠날 때 웃으면서 떠나는 사람은 다시 돌아오고 울면서 떠나는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난 나이지리아를 떠나면서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했던 나라였는데 막상 떠나려니 눈물이 났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생각했었다. 그렇게 결심하고 떠났던 내가 다시 이곳을 돌아오다니. 내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속설은 깨지고 말았다. 나를 알던 모든 사람들은 ‘왜 다시 돌아왔느냐’고 물었다. 나 또한 시원하게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이 거지 같은 곳이 그리워서 다시 왔다라고 했다. 참 신기했다. 나이지리아를 다시 돌아왔을 때 나의 마음은 마치 고향에 돌아 온 듯이 너무 편안했다. 내가 다녔던 거리, 시장, 가게, 음식점. 모든 것이 익숙했다. 무엇보다 말이 통해서 너무 좋았다. 이게 너무나 그리웠었던 것 같다. 다시 돌아온 나는 처음 와서 살았던 시간만큼의 시간을 또 다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주 큰 변화를 느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곳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이곳 나이지리아에 오는 사람들은 내가 처음 겪었던 경험을 하면서 ‘별 거지 같은 나라가 다 있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10여 년 이상의 생활을 하다 보니 치안도, 전기도, 도로 상황도, 사람들의 의식도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높은 빌딩들도 많이 세워지고 도로의 가로등에 밤이 되면 불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같으면 폐차를 해도 진즉 했어야 했던 차들이 즐비했던 거

리, 까만 매연을 뿜으며 달리던 오래된 트럭, 창문도 없이 비닐로 막고서 달리던 노란색 버스, 달리는 버스 뒤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가는 사람들, 차가 막히면 역 주행하던 차들, 쓰레기 더미에서 돼지 몇 마리들이 먹이를 찾던 장면들…….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 찾아볼 수 없는 추억들이 되어가고 있다. 첫째 아이가 10개월 때 데리고 들어와서 둘째는 여기에서 출산하여 벌써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었다. 열악한 의료 환경이라 늘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치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아왔다. 그렇지만 나의 걱정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주었고 또 둘째 아들의 고향이 되어 버린 나이지리아. 지금도 한국에 휴가를 가면 집 생각이 많이 난다. 물론 이곳 나이지리아 우리 집. 세상에서 간장 편한 곳은 바로 내 집인가보다. 한국에 휴가를 갈 때면 입국 심사부터 빠르고 공기부터 다른 한국. ‘역시 한국 좋아’, ‘역시 한국 최고야’라고 연신 소리를 지른다. 아이들도 커 가면서 눈높이가 높아지고 분별력이 생기면서부터는 한국이 좋은 곳임을 안다. 누구나 자기 나라를 벗어나면 다들 애국자가 된다라고 들 한다. 나 또한 똑같다. 벗어나서 보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임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다시 나이지리아로 돌아오게 되는 건 무엇일까? 휴가 갔다 들어오면서부터 이민국 심사에서 비상식적인 딴지를 걸고 요구하는 것이 많다. 그러면 여지없이 내 입에서는 ‘이 거지 같은 나라’라는 말이 나온다. 그렇지만 입국장에 내려서 맡아지는 이곳 냄새와 북적이는 거리를 접어들 때면 ‘아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내 집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편안함이 몰려온다. 이젠 아들의 고향이 아닌 우리 가족 모두의 고향이 되어 버린 나이지리아. 이곳에서 살면서 포기라는 걸 배웠다. 또한 시간의 여유로움을 경험했다. 가장 큰 건 자족감을 배웠다. 서로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아도 좋다. 그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면 그게 행복이고 감사인 것 같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어

떻게 보면 미련하고, 내일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저들이지만 많은 욕심 부리지 않고 하루하루 주어짐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비밀을 깨달은 저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나와 우리 가족이 언제까지 이곳 나이지리아에 더 머물진 모르겠다. 머무는 그날까지 이들과 더불어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또한 이런 가르침과 깨달음을 안겨 준 이곳 나이지리아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베풀며 살아가고 싶다. 거지 같은 나라에서 고향의 나라로 바뀐 나이지리아 고맙고 사랑해!

청소년 글짓기

중·고등 부문

최우수상 기행
김지영 (중국)

우수상 평화의 바람 답사기
함현강 (중국)

모범
강지민 (태국)

장려상 나의 공간
박현서 (중국)

호주에 살지만 나는 한국인
지은교 (호주)

내가 사랑하는 한국
이다윗 (키르기스스탄)

기행

김지영 (중국)

한 달 동안 부모님도 친구도 없는 낯선 마을에서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부모님의 직장으로 인해 상해에서 거주했다. 일 년에 한 번 건강검진 차원으로 일주일 간 한국에 다녀오는 일외에는 일 년 내내 외국인 마을과 미국학교를 전전하는 일상이었다. 그래서인지 학교에서 한 달간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열여섯 명을 선정해 원난성에 보내준다는 말을 들은 날, 생각할 것도 없이 귀신에 훌린 사람처럼 프로그램 지원서를 제출했다. 위의 질문은 고려해 보지도 않은 채.

중국 서남부에 위치한 원난성은 쿤밍이라고도 많이 불리운다.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과 접경지역이기도 하며 대부분의 지역이 원구이 고원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일부 지역에 올라가면 숨이 금방 차오르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저 무료한 일상과 학업에서 탈출하려는 방편이었던 원난 여정은 공식적인 출발 다섯 달 전부터 내 일상을 압도했다. 삼 개월 간에 걸쳐 지역 문화와 역사를 스스로 공부하고, 한 달간 원난에 있을 때 연구할 주

제를 선택해야 했다. 학교를 떠나 있을 동안 꾸준히 진도에 뒤쳐지지 않게 자율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제야 나는 내가 생각보다 훨씬 엄숙한 여정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은 놀랍게도 빠르게 흘러 9월에 신청서를 넣은 나는 이듬해 3월, 항상 함께 살아온 부모님을 떠나 반평생을 살아온 상해로부터 2,000km 밖의 작은 마을 시조우로 떠나게 되었다. 동급생 15명과 지도 선생님 2명과 함께 공항에 내렸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내가 알던 중국과 완전히 상반되는 기이한 풍경이었다. 푸른 하늘. 사방을 요새처럼 가로막아 시야를 가리는 붉은 산. 내 발 밑에 바다처럼 펼쳐진 유채꽃. 또 그사이를 비집고 나와 수줍게 얼굴을 내민 안개꽃.

우리의 숙소는 80년 전 지어진 가정집을 최근에 보수한 건물이었다. 정사각형인 돌 바닥 마당을 중심으로 세 개의 방이 둘러싼 구조를 띠고 있었는데, 숙소는 2층에 이런 마당이 둘, 18명이 사용하기 충분했다. 4명의 다른 학생들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다. 평생을 외동딸로 혼자 방을 사용했고, 그 흔한 캠프도 참여해 본 적이 없어서 이때가 처음으로 다른 이와 방을 공유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오래된 건축물인 만큼 방음도 끔찍하게 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16명 모두가 어디를 가든 종종걸음으로 걸어야 했다. 아침저녁으로 샤워하기 위해 줄을 서야 했고, 위층을 차지한 학생들의 발소리에 내 잠을 설쳤다. 이제 와 돌이켜 보면 이를 계기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 공동체 생활로 인해 다른 이를 배려하는 것이나 주변 환경에 내가 미칠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아직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습관들을 학습할 수 있었다.

15명의 학우와 한 달이란 오랜 시간 동안 가깝게 생활한 만큼 시시콜콜한 경험까지 함께하기도 했다. 악자지껄한 마을 골목길을 맴돌며 색다른 식당을 찾다 수다에 시간을 빼앗기고, 늦게 숙소로 돌아와 한동안 지도 선생님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는데, 그날 나와 함께 나가 야단을 맞은 학생 3명이 서로 큰 위안이 되기도 했다. 어느 날은 함께 참가한 친한 친구와 크게 다투고 학교에선 말 한번 섞어보지 않은, 즉, 낯선 사람이나 다름없는 학생에게 하소연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일도 있었다. 목소리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아이였는데, 그 순간에 옆에 앉아 있어 준 것만으로도 어찌나 위안이 되던지! 우습지만 그 후에도 그 학생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우리는 하루 종 한 끼는 숙소가 아닌 마을 식당에서 먹는 것이 필수였는데, 식당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중 마을 주민 분들과 말을 트는 일이 잦았다. 그 중 시장에서 알게 된 ‘리’ 할머니는 항상 나와 다른 학생들을 볼 때마다 직접 키우신 당근을 나누어 주셨다. 한때 검었을 머리카락은 한 올도 빠짐없이 희게 새어 마치 설화 속에 산신을 뵙는 것 같았다. 항상 즐겨 입으시는 푸른 상의는 실오라기 하나 터져 나오지 않고, 전신의 절반만 한 바구니를 채소로 가득 채워 머리에 이고 걸으시는 모습이 길가에 그 누구보다 꽂꽃하고 당당하신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편해하지 않고 매일같이 찾아간 이유는 뒤돌아 설 때마다 내 가슴 한편에 고여 시큰거리게 한 환히 웃으시는 모습이다.

오랫동안 머문 상해에서도, 하물며 몇 년을 함께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마주친 사람에게 눈인사를 건네는 것조차 드물었는데, 이 여행은 학생들의 친화력을 이상하리만치 상승시키는 것 같았다.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학생들은 길에서 보행자의 물건을 들어드리고 저녁 식사에 초대받기도 했다. 함께 참가한 학생들과 새로 쌓은 인연도 기억에 남지만, 상해로 돌아온 후 몇 달째 잊히지 않는 것, 가장

그리운 것은 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인정이다.

그동안 내 나라가 아닌 타지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며 중국인에 대한 편견은 쌓이기만 했었다. 중국인은 시끄럽게 떠든다, 중국인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중국인은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다, 중국인은 세치기한다, 중국인은 비도덕적이다 등등. 나는 말이 완벽히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위에 벽을 짓고 눈을 가리고 다닌 것일지도 모른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원난에서 지낸 한 달간 나의 이런 편협한 견해는 깨끗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긴 여정 후 가장 아쉬움이 남았던 것은 마을 사람들과 더 친해지지 못한 점이다.

원난에서의 일상은 바쁜 도시 생활만큼 시간에 쫓겼다. 평일에는 오전 일곱 시 반에 아침 식사 후, 이 층에서 열 시까지 학교 공부를 했다. 그 후 12시 점심시간까지 방 청소, 설거지, 다음 주 식사 메뉴 짜기 같은 당번 일을 했다. 1시에 점심을 먹고 돌아오면 바로 개인 문화 연구일로 저녁까지 한없이 쉴 새 없었다. 주 중에는 하루 한 시간 꼭 운동해야 해기에 부족한 시간을 쪼개 외출을 했다.

나는 웬만한 운동엔 소질이 없어 자전거 타기를 즐겼는데, 태어나서 그토록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당시 오후에는 바람이 세게 불었는데, 시원한 기류가 내 얼굴을 가로질러 갈 때 그 해방감은 이루 설명할 수 없었다. 도착한 날 본 산 사이로, 유채꽃 사이로 나아가다 보면 강과 산이 한데 어우러진 절경을 볼 수 있었다. 투명한 강물은 시리도록 푸른 하늘을 거울처럼 담았다.

날이 좋으면 산 위에 아기자기하게 지어진 작은 마을들도 눈 안에 들어왔다. 마을들은 멀리서도 눈에 띄게 지역의 붉은 흙과는 상반되게 푸

른 기와와 흰 벽을 자주 사용하는 건축 양식을 지녔다. 평소라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 바빴겠지만, 그런 일을 대비해 우리는 휴대전화라곤 십 년 전 노키아만을 소지하고 있었다. 2018년에 노키아를 들고 여행하는 중학생이라니! 휴대전화기가 없으니 강을 마주하고 딱히 할 일이 없어 멍하니 산 너머를 바라보던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주시한 현지인들이 생 각난다. 그야말로 기이한 여정이라 볼 수 있지 않은가?

물론, 한 달간 좋은 일만으로 가득 찬 것도 아니었다. 일일이 따져보면, 유난히 행복했던 시간보단 그 어느 때보다 컸던 정신적 압박으로 인해 마음고생 한 시간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한 달간의 극단적인 희로애락만큼 내 인생에 다시 찾아보기 힘든 기회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새벽에 몰래 살금살금 방을 빠져 나오면서 나를 맞이했던 저물어가는 별들처럼 이 경험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는 기억이 퇴색되기 시작한 후였다. 그래서 더 간절히 가슴에 새기어 간직하려 노력한다. 한 번도 몰랐으면 좀 마음이 가벼웠을 것을, 적막한 상해 한복판에서 피폐한 삶에 다른 방식의 생활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준 마을 시조우에 감사한다. 한밤중에 눈을 가리는 형광비색으로 빛나는 건물의 사이에서도 적막함을 머리맡에 두고 살았던 나에게 푸른 산의 검은 그림자 아래서 고요함 속에 받은 위안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돌아온 지 두 달이 지난 후에도 무심코 자기 전 창 밖을 바라보면 칠 흑 같은 하늘을 수놓아 밤을 밝히던 별들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어찌나 선명 하던지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 미세하게 푸른색 붉은색 흰색으로 다르게 빛을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난에선 사람 목소리보다 새 지저귀는 노랫소리를 더 자주 들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바퀴 보단 말굽소리와 자전거 벨소리가 더 귀에 익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혀보다는 눈과 귀를 더 자주 사용했다. 그럼에도 내 일상은 더 흥미로운 대화, 더 단단해진 우정으로 풍요로웠다. 항상 사람 사이에 살아가며 사람을 그리는 나의 인생도 어찌 보면 하나의 길고 긴 기이한 여정이다. 그래서 짧게나마 고요하고 새로웠던 삶이 더 주옥 같은 것일 수도 있다.

평화의 바람 답사기

함현강 (중국)

해가 아직 중천에 뜨기도 전인데 땀이 온몸을 적시기 시작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명동 성당 '평화의 바람'발대식에서 있다. 기다리는 동안 여러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어지럽힌다. 나는 누구일까?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춘기의 성장통으로 좌충우돌하며 부모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나만의 해결책을 고민하기 시작할 때,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연히 서울 가톨릭 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여름 방학에 주최하는 평화의 바람-국토순례 모집 광고를 보게 되었다. 난 주저 없이 지원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고등학생은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 잔심부름이나 나의 강점인 통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생떼를 써 결국 전 세계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지니는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일주일간의 국토순례에 함께하게 되었다. 한국인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자라지도 않은 나.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중국에서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던 나는 국토순례를 통해 한국과 한국에 대한 정체성을 수립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국토순례의 첫발을 내디뎠다.

국토순례의 첫날, 한국인을 비롯해 중동, 아프리카, 세르비아, 크로아

티아, 중국 등 갈등으로 고통을 겪었거나 현재 갈등이 진행 중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형, 누나들과 강원도 고성군 거진에 위치한 거진 성당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얼핏 보기엔 내가 사는 중국 동북 지역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았다. 서너 시간을 차로 이동하면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처음 생각과는 달리 곳곳에 보이는 높은 산들로 인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얼마 전 학교에서 길림성 박물관 견학을 갔을 때 고구려 광개토대왕 비와 장군총의 전시물을 보며 고구려를 우리의 역사 일부로 알고 있던 나와 중국의 변방 역사를 주장하는 반 친구들과 하마터면 몸싸움까지 할 뻔 했던 기억과 함께 내 조국에 대해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하는 생각에 눈 한번 붙이지 않고 창밖을 내다봤다. 거진 성당에 도착하고 우린 서로를 알아가는 일환으로 간단한 게임을 하고 하루를 정리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미사를 드리고 아침 식사를 한 후 통일전망대를 향해 출발했다. 통일전망대를 향해 올라가는 중간중간 내려다보이는 동해 바다의 푸른 물결, 그 동해 바다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봉우리 하나가 금강산 자락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분단국가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곳이라며 흥분을 하는 우리 조의 한 형을 보며 내가 가질 수 없었던 한국인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박물관에 들러 한국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교과서를 통해서 혹은 한국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지는 못했지만 나도 조금씩 한국을 알아간다는 것을 깨달으며 흐뭇한 생각이 들었다. 한국! 나의 나라, 나의 조국, 근래 중국과의 여러 가지 마찰로 인해 나는 한국의 물리적인 크기, 국가 경쟁력, 무역 흑자 등을 고민하며 통일 한국이 되면 중국과 조금은 대등하게 되지 않을까를 생각했던 적이 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내려오는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우리가 해파랑길 봉수대에 도착해서 해안도로를 따라 17km 행군을 할 때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로

바뀌었다. 내 마음 속의 여러 잡생각들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 더욱 시원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미국에서 영어보다 한국어를 먼저 배워야 한다면서 한글학교 교사로 자원봉사를 하시며 나에게 한글을 가르치시던 엄마를 떠올리며 잠자리에 들었다.

삼 일째 되는 날 거진 성당에서 짐을 꾸려 다음 행선지인 두타연에 도착했다.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있어 원시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두타연에서 12km 행군을 했다. 분단, 이산가족 등 슬픈 한국 현대사가 자연 그대로를 지켜주었다고 생각하니 풀 한 포기도 그냥 보이지 않았다. 금강산에서 흘려내려 온 물이 바위 사이를 헤집고 떨어지며 만들어 낸 폭포, 폭포 아래에 연못에 비춰진 파란 하늘과 푸르른 녹음이 나를 정화시켜 줬다. 행군하며 지뢰 표지판을 심심찮게 보았다. 낮은 철조망은 위협이 되지 않아도 지뢰 표지판은 아직 한반도에 남아 있는 휴전국의 의미를 실감나게 해주었다. 진한 녹음에 취했다가도 수풀 속에 버려진 포탄 껍질과 낮은 고사목에 걸린 녹슨 철모를 보며 전쟁의 비극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발전된 서울의 모습과 대조적인 이곳의 정경이 한국의 지인들이 중국을 경시하는 말에 한 마디 대꾸도 못하고,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이 얼마나 약소국인지 떠들어댈 때 눈치만 보고 있던 내 모습과 닮게 다가오는 것은 왜 일까? 한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을 넘어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 민통선 지역이 자연스러운 생활 공간으로 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발길을 읊지전망대로 향했다.

나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막바지에 강제로 동원된 인민군으로 남한에 내려와 공산주의가 싫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한에서 평생 통일만 기원하다 돌아가셨다. 미국에서 태어난 나를 보러 오실 때 큰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보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땅에 사는 것도 아닌데, 보고 싶은 손자를 보기 위해 미국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여든 고

령의 나이에 열 시간이 넘는 비행이 무리라고 생각했던 한국 식구들이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든 한마디였다. 어린 나를 보며 북한에 남겨두고 온 어린 아들을 떠올리셨다는 할아버지는 손수 쓰신 전쟁 기록물을 우리 가족에게 남겨 주셨다. 자세히 적힌 당시의 기록들을 읽으면서 할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헤아려졌다. 이러한 이유로 난 이곳 민통선 지역을 걸으며 얼마나 많은 실향민들이 통일을 원하는지 그리고 휴전국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

한국에 들어오면 부모님은 날 데리고 한국의 여러 곳을 방문하셨다. 우리 가족이 한국에 오는 것은 여행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서울의 경복궁, 남산, 명동을 비롯해 저 남쪽에 자리한 해남 땅끝 마을, 강원도 설악산, 무주 구천동, 부산 해운대 등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하나라도 더 보고 느끼게 해주셨다. 그중에 용산 전쟁기념관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갔을 때 나는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마주하고 있는 한국 전쟁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인민군 포로로 이북에 처자식을 남기고 오신 분이고, 할머니는 남한 군 병사로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돌아가신 전 남편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 이 두 분이 휴전되고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 성당에서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 형제분들을 낳아 기르셔서 우리 가족이 생기게 되었다. 두 분과의 전쟁기념관 여행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전사 통지서를 받아든 채 울고 있는 모형 전시물 앞에서 할머니는 오열하셨고 할아버지는 다른 전시물 앞에서 눈물을 거두시지 못하셨다. 머릿속 깊은 곳에서 나는 항상 한국의 통일을 생각해왔는지 모르겠다. 할아버지께서는 늘 내가 사는 지역을 만주벌판으로 부르셨고 육안으로 북녘 땅이 보인다는 얘기봉에 날 데려가셨다.

민통선에서의 행군은 과거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들려주신 한국의 근현대사 속으로 나를 자꾸만 인도해갔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유독 손자 사랑이 많으셨던 분으로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시고 끝내

통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직도 전쟁이 무서워 북한 관련 뉴스만 보시면 전화해 우리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할머니가 나를 이 평화의 바람 국제 청년 평화순례로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하니 현재 내가 마주하는 한국의 모습이 그냥 자연의 풍경으로만 다가오지 않았다. 그것은 현재의 나를 있게 해 주신 조부모님이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안고 살아가신 인생의 모습을 반영해 준 것이었다.

며칠 간 무더위와 싸우면서 매일 진행된 행군이 참가자를 더욱 각별한 관계로 만들어주었다. 철원 생태탐방로를 거쳐 평화전망대에 도착해서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래프팅 장소로 이동했다. 래프팅은 우리의 더위와 피로를 한 방에 날려 주었다. 한국의 자연을 숨 쉬고 체험하며 숙소에 도착해서 진행한 평화토론 및 평화부채 만들기 등의 여러 활동은 내가 한국에서 처음 하는 단체 활동이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 한국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국에서 살아가는 내 사촌들에게 찾아 볼 수 없는 이런 고민들이 날 더욱 한국적이고 한국을 사랑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일까?

국토순례 육 일째 되는 날 파주 율곡 습지로의 여행은 나에게 자부심을 심어 주었다. 난 사실 한국이 중국과의 역사에서 늘 당하기만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엄청난 문화유산을 지닌 중국과 비교해서 한국 만이 가진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해왔다. 뭐가 다를까? 서로 비슷해 보이는 것 사이에서 다른 그 무엇을 꼭 꼬집어 내지 못했다. 임진강 주변에 위치한 파주 율곡 습지는 이런 나에게 한국의 모습을 다시 정의할 기회를 주었다. 옛 농기구가 있는 초가집에서, 들녘에서 풀을 뜯는 소의 풍경에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정자에서, 빼뚤빼뚤하고 익살스럽게 세워진 장승에서,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솟대와 높게 쌓아 올린 돌탑에서 한국 옛 농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웅장하지 않게 소박한 모습을 통해 자연을

거스르는 위대함이 아니라 자연과 어우러진 한국인의 생활을 보았다. 이번 평화순례를 통해 나는 다시 한 번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며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용기와 포부를 얻을 수 있었다.

모범

강지민 (태국)

낭랑 18세. 나는 삶의 반을 한국의 빌딩 숲에 둘러싸여, 나머지 반은 치앙마이의 산들에 둘러싸여 살았다. 한국을 떠난 많은 친구들이 그렇듯 나에게 있어서 나의 정체성이란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문제였다. 정체성이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아서 표현할 수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도 없어 더더욱 어려웠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미술이 답이 정해져 있는 수학보다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나의 9년의 태국 생활은 그랬다. 무언가를 대표하며 살아왔다. 반에서 유일한 한국인인 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모범을 보이려 했고 교회에서 같은 학년 아이들 중 혼자만 다른 학교였던 나는 우리 학교를 대표하고 집에서는 젊고 진보적인 세대를 대표했다. 어쩌다 한국을 방문해도 나는 태국 문화와 서양의 교육 시스템을 대표했다. 그래서인지 나는 정말 남들 앞에서 ‘나’였던 적이 별로 없었다.

“이제 네가 한국의 대표야.” 엄마는 9학년쯤이 된 나에게 농담처럼 말 씀하셨다. 어린 나에게 그 말은 꽤나 충격으로 다가왔고 나는 우리나라

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보여 주고 싶지 않아 모범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지나치게 이타적이고 내성적이게 변했다. 수업 시간에 경청을 하려 노력하고 숙제는 꼭 해왔으며 수업을 빠지거나 늦지 않아 나는 우리 반에서 유일하게 결석과 징계를 한번도 받은 적 없는 아이가 되었다. 어떤 친구는 내가 여러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모습에 한국인은 고지식하다라는 편견을 버리게 해주었다고 했고 어떤 선생님은 내가 상냥하며 모범적이라며 칭찬을 해주셨다. 나는 나를 향한 칭찬도 기분이 좋았지만 한국에 대한 칭찬을 들을 때면 뿌듯해지고 자랑스러웠다. 물론 나 혼자만의 영향력은 아니었겠지만 고작 나같은 어린아이가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다른 나라의 친구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것에 ‘나비효과’를 떠올렸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런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상냥하고 모범적인 한국인, 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인식했다. 상냥하고 모범적인 한국인은 당연히 호감이 갈 수밖에 없었고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나는 화가 나도 참아야 했고 가끔 즐거워 보이는 친구들의 사소한 일탈을 멀리서 지켜보며 부러워했다. 나의 그러한 성격들은 분명히 나의 장점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장점을 때문에 나는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없었다. 어른들이 이해해줄 정도의 작은 일탈과, 오해와 다툼 후의 화해 등이 없었던 나는 결국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진정한 친구가 없는 아이가 되었다. 친구들과 어울려야겠다고 다짐한 어느 날 나의 선생님은 나를 불러 “네 친구들이 너를 망치게 두지 마.” 라며 걱정하셨다.

어른들은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을 바랬다. 성실한 학교생활과 좋은 성적, 건강한 몸과 예쁜 외모, 그리고 착한 마음씨와 좋은 친구들. 나는 소

심해졌고 내성적으로 변했으며 수동적이고 자신보다 타인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다. 모두가 그랬든 사춘기가 찾아왔고 나는 정체성을 찾아 방황했다. 학교 아이들은 날 보수적이라고 말했고 교회 아이들 사이에서는 개방적인 사람이 되었다. 어른들은 내게 “여자애가 조신해야지”, “외모를 꾸며야지”, “순종적이어야지”라고 지적했고, 친구들은 내게 “재미 없는 겁쟁이”라고 삿대질했다. 나에게 나는 사람들이 말한 내가 되었다. 그리고 그런 내가 되려 했다.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다. 내가 누구인지 정하는 게 나라는 걸 깨닫기 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너무나 많은 성장통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깨달은 후에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방황해야 했다. 나는 사람들이 정한 내가 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런 나에게 “사춘기가 왔다”라고 했다. 나의 사춘기는 사람들이 원하는 ‘나’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들을 저울질하고 고민하여 어떤 내가 되어야 하는지 또 어떤 내가 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요란하고 혼란스러운 고민이었다.

결국 나는 이도 저도 아닌 내가 되었다. 이타적이면서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굴지만 상냥한 성인이 되기에 가까워진 최근에서야 난 겨우 그 이도 저도 아님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게 어떻든 나쁜 것이 아닌 그저 나의 정체성임도 깨달았다. 정체성을 말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아주 느린 치앙마이에서 빠르고 아주 빠른 한국에서 느린 나’ 이게 나였다. 나에게 있어서 정체성이란 그런 존재라고 결론내렸다. 내가 들고 있는 상자지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여러 추측들을 해나가 알아내는 것. 나의 의지나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이 아닌 나의 의지와 사람들의 판단을 토대로 찾아가는 것.

“태국 치앙마이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 2000년생 강지민입니다.” 한국에서 자기소개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나는 나의 이름, 나이, 국적,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치앙마이를 소개한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치앙마이를 소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정한다는 것을 치앙마이에서 9년 동안 무언가를 대표하며 살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몰랐을 것이다.

어느 날 누군가 나에게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고 이야기해 줬다. 나는 그 말을 18년 살면서 들어 본 최고의 조언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나로 만드는 것은 나의 외모나 신체, 말투도 아닌 나에 대한 나의 기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억들을 조합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을 대표하며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대표하는 것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가진 나도 나지만 화를 내고 제멋대로 구는 나 또한 나라는 것을 나는 치앙마이에 왔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치앙마이에 사는 아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스러워 한다. 그것은 치앙마이의 문화가 여러 문화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치앙마이의 한국 아이들은 모두 ‘소수자’에 속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언가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행동을 제한시키고 조심스러워 한다.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 하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치앙마이 아이들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되려고 했으면 좋겠다.

곧 졸업을 앞둔 학생들 중에 나와 같은 방황을 하는 동생들이나 문화 차이의 갈등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 남들이 강요하는 모습들 정말 되고 싶은 모습들 그리고 무언가를 대표함으로써 필요한 모습들 사이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모습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심지어는 내가 누구인가 고민하는 것도 모두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완벽하게 깨닫는 것은 어렵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은 진정한 ‘나’와 나의 정체성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싶다.

나의 공간

박현서 (중국)

나는 잠을 잘 때 꿈을 많이 꾼다. 궁금하다. 내가 해외에 살고 있어서 이런 꿈을 꾸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사는, 내 또래의 친구들도 이러한 꿈을 꾸는 것인지.

우리 나이의 아이들은 꿈을 많이 꾼다. 내 나이의 아이들처럼 나도 꿈을 많이 꾸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가지각색이고 흥미진진하다. 일상적인 내가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꿈에서부터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하늘을 비행하는 꿈, 다른 사람에 비해 별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 꿈이지만 나는 내 꿈에서 의아한 것 하나를 발견했다. 비록 내용은 다르지만, 비현실적인 꿈은 말할 것도 없고, 자극적 현실적인 꿈에서도 꿈을 깨고 나면, 꿈의 배경이었던 모든 곳들이 전혀 진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꿈에서 깨고 나면 그곳이 한국이었을까, 중국이었을까, 학교도, 집도, 꿈에서는 현실로 생생하게 느껴졌던 모든 곳들이 깨고 나면 비현실적 공간이었다는 것이다.

나는 7살 때 중국에서 살기 시작했고, 나는 이미 이곳에서 10년이나 생활하게 되었다. 나는 점차 한국에서 자란 시간보다 중국에서 지낸 시간이 많아졌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두 공간에서의 살아온 시간을 비

교하게 되면서 ‘한국인’이란 무엇인지,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꿈은 무의식의 반영이라고들 한다. 나는 왜 이런 배경이 나오는 꿈을 꾸야 했을까에 대해 생각해 봤다. 무의식 중에 ‘한국인인 나’와 ‘중국에서 보낸 시간이 만든 나’의 모습이 갈등을 일으킨 건 아니었을까. 나는 한국과 중국 어느 곳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이미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꿈에서 나의 공간들이 모호한 배경으로 나타났던 것이었을까? 나는 가끔 이러한 생각을 하며 혼란스러워했다.

평소 과학에 관심이 많은 나는 과학 관련 기사를 읽던 중, ‘생명 공간’이란 단어를 접하게 되었다. 생명 공간은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을 말한다. 인간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그 결과로 자연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경제와 교통, 문화도 현실에 맞게 발전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특정한 범위의 생명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과 특징은, 새로운 ‘생활 공간’을 불러 오게 되는 것이다. 생활 공간이란 한 개체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간이라는 곳은 단순히 지구상의 위도와 경도로 지정된 곳은 아닌 것 같다. 나라와 도시에서 더 나아가 공간은 눈에 보이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적된 변화가 지층처럼 쌓여 있는 곳이다. 나는 오랜 시간 중국에서, 여러 다른 지역에서 중국의 발전 과정을 지켜 보고 있다. 중국이 세계 무대로 오르고 있는 지금, 나는 그 현장에서 중국의 엄청난 발전 속도도 느낀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인 과학으로 말하자면,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각광 받을 정도로 빠르게 과학 강국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우주 과학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드론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가속화되는 중국의 변화 속에서 많은 기업의 흥망도 있었고,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 간의 갈등도 있었다. 한국과 중국 사이, 한류와 사드 등의 역동적인 관계도 나는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에 덧입혀지는 한층 한층의 시간과 변화들은 현재의 중국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나는 중국이라는 광범위한 생명 공간 내에서 여러 도시를 거쳐 다양한 나의 생활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중국의 여러 지역, 그리고 한국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나의 생활 공간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나의 행동과 선택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각에 당자 한국인과 중국인이라는 두 개의 집단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던 소외감과 혼란스러움이 조금은 정리가 되었다. 한국이라는 곳에 뿌리를 두면서, 내가 살아온 확장된 ‘공간’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로 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생활 공간에서 충실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내 생명 공간이 넓어지고 확대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새로운 꿈을 꾸고자 한다. 예전 꿈속에서 나는, 내가 그리고 원하는 모습이었을 때도 무언가 어색하다고 느꼈다. 한국에서의 미래를 꿈꾸지만 정작 한국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빛어낸, 내 자신에 대한 불안이 만들어 놓은 모호한 배경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꿈을 꾸려 한다. 불투명한 막에 싸여 있는 듯한 아득한 상상에 불과한 꿈이 아닌 진짜 꿈을. 나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소외감을 주었던 막을 걷어내고, 진정한 나의 꿈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의 밑바탕에는 나의 ‘생활 공간’에서 비롯된 경험과 지식들이 꿈을 향한 나의 선택을 지지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공간에서 살고 있다고 그 공간을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공간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볼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에서 변화되고 있는 공간의 매력과 깊이를 느끼고자 한다. 그래서 시공간의 역사가 만들어 내는 그 지층 속에 나도 무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려고 한다. 한국인으로서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시공간에서 하나의 작은 역사로서 존재한다는 벅찬 사실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고 싶다.

호주에 살지만 나는 한국인

지은교 (호주)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지은교라고 합니다. 저는 만 14세이고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Penrith Anglican College입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호주에서는 보통 초등학교를 마치고 하이스쿨이라고 부르는 학교에 6년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스쿨에 들어가면 7학년부터 시작해서 12학년까지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유치원 과정부터 초등학교, 하이스쿨 과정까지 함께 있는 학교입니다. 저는 8학년에 다니고 있고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은 호주 시드니의 유명한 관광지인 블루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는 근처 동네입니다. 시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시골 동네라서 그런지 한국인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한국인이나 아시안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6학년을 시작할 때부터 이 동네에 이사 와서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학교나 동네에 한국인은 물론 중국인도 보기 힘드니까 처음에는 정말 이상했고, 엄마는 호주에 산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마치 처음 이

민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도 가끔 어쩌다가 동네 근처 쇼핑 센터 같은 곳에서 한국 사람을 보게 되면 마냥 반갑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가 시골 동네에 있다 보니 재미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굉장히 넓습니다. 학교 안에 농장도 여러 군데 있고 넓은 잔디밭도 많이 있습니다. 대낮에도 야생 캥거루가 뛰어다니도 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키우시는 말이 농장에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가끔은 뱀이나 타나서 온 학생들이 도망다니는 일도 있고 주로 동물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놀랐지만 2년 반이 넘어가다 보니 이제 학교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겪은 일 중에 한번은 학교에서 뮤지컬 연습이 있어서 끝나고 엄마가 데리러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두리번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인줄 알고 뒤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라고 말하기도 전에 말이 턱 막혀서 멍하니 서 있게 되었습니다. 2미터 정도 되는 거인 크기의 캥거루가 까만 눈동자를 끔뻑이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저도 몇 초 동안 얼음처럼 얼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자주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천천히 뒤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를 빤히 쳐다보던 캥거루는 횃 돌아보고 쿵쿵대며 뛰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캥거루를 그렇게 가까이에서 본 적은 없지만 아직도 캥거루를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교회에서 만나는 한국인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 주면 모두 놀라고 신기해 합니다. 친구들이 사는 곳에는 야생동물 구경하기도 쉽지 않고 보기도 드문 일이니 엄청 신기해 하며 듣습니다.

요즘 한국의 케이팝이 전세계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방

탄소년단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호주에서도 케이팝은 인기가 높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케이팝을 좋아하는 언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고, 한국어를 잘 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저를 따라다니며 한국어를 배우는 언니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단어만 외우다가 이제는 완전히 국어책까지 구입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언니들과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 모두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국인이 거의 없는 이곳으로 이사하기 전에는 별로 느껴보지 못했던 한국인으로서의 자랑스러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4월 27일에는 역사적인 남북 회담이 있었습니다.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 교류 등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을 전 세계에 발표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회담 내용은 호주에서도 놀라워하며 관심을 기울이는 일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계속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고 미사일을 쏜다는 뉴스가 나와서, 학교에서 노스 코리아 하면 엄청 무서운 나라이 것처럼 말하고 한국인인 저를 보는 눈빛도 다른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북한이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쁜 마음과 놀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약속들을 지켜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하기도 합니다. 60년 동안이나 아무 약속이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 남북한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계속 만나다 보면 언젠가 통일이 되겠다는 소망이 다시 커졌습니다.

북한은 약속대로 핵시설을 폐기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억류되었던 미국인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뒤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회담을 하려고 약속까지 다 되어 있었는데 이 약속을 갑자기 취소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남북 회담에 이어서 북미 회담을 통해서 더욱 좋은 소식을 기대하던 저와 저희 가족은 물론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실망이 더욱 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놀라운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취소한다고 하자 마자 바로 다음 날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차 회담을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남북한의 문제를 남한과 북한이 만나서 자꾸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정말 멀지 않은 시간에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한국이 이제 남한 북한이 아닌, 그냥 한국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호주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알려 주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먼저 한국어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해서,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한국에 사는 대학생이나 어른처럼 한국어를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한국의 언어나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어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 줄 수 있다면 정말 기쁘고 보람된 일일 거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항상 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이 자랑스럽고 한국어가 모국어인 지은교.

저는 한국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한국

이다윗 (키르기스스탄)

2016년 여름, 엄마와 저는 키르기스스탄 비쉬켁에서 출발하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아빠를 만났습니다. 아빠는 두 달 전에 먼저 한국에 나와 계셨습니다. 아빠는 한국이 많이 변해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몰랐습니다. 저는 아빠하고는 한국말로만 하고 엄마하고는 러시아말로만 합니다. 우리는 할머니가 계시는 천안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연세는 89세입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뵙 것이 제가 3살 때 할머니께서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셨을 때입니다. 이제 할머니께서는 매우 연세가 많으셔서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우리를 보고 매우 반가워하셨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해 주시는 맛있는 한국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고모와 삼촌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삼촌들이 외모는 아빠와 매우 닮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빠는 종종 목소리가 커지고 감정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삶이 아빠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저는 아빠도 그전에는 삼촌들처럼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엄마와 저는 5일 동안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

다. 키르기스스탄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처음 본 바다는 너무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저희는 골든튤립 호텔에 짐을 풀고 맛있는 굴과 해산물을 먹고, 잠수함도 탔습니다. 아쿠아리움, 한림공원, 만장굴, 우도도 여행했는데 가는 곳곳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호텔에서 우리는 요트투어를 예약하고 택시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의 실수로 우리를 다른 장소에 내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헤매다가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 우리가 예약했던 김녕요트투어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친절한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착하고 김녕요트투어 사장님께서 전후 사정을 말씀 드렸더니, 오히려 할인을 받아 요트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바다를 구경하면서 갓 잡은 물고기 회도 먹어 보고 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트투어가 끝난 후 친절하게도 김녕요트투어 사장님께서 자신의 승용차로 우리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맛있는 칼국수집도 알려 주셨습니다. 사장님은 택시 기사 때문에 한국의 이미지를 나쁘게 보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런 친절이 한국 분들의 따뜻한 마음에서 우리나라에는 애국이면서 한국의 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려 주신 칼국수집도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칼국수 집에서 칼국수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제주도 관광지도에 가고 싶은 곳을 표시해 둔 제주도 관광지도를 끼내 보았습니다. 지도에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표시해 두었는데 아까 택시 기사에게 엄마가 다른 곳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택시 기사가 잘못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엄마는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알고 보니 택시 기사의 실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택시 기사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서울로 돌아와 코엑스, 경복궁, 에버랜드, 롯데월드 몰, 동대문, 명동 등을 구경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많았지만 거리는 깨끗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을

하셨습니다. 편의점을 가거나 표를 구입할 때 등 어디를 가나 그 많은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선 모습이 엄마와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엄마는 비쉬켁에서처럼 사람이 많으면 손으로 다른 사람을 밀치곤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이상하게 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모든 자동차가 서서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습도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엄마는 고려인이고 저도 한국인 핏줄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서인지 한국 사람과 저희들이 생활 습관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쇼핑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다양한 상품과 새로운 디자인의 옷을 보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큰 가방 두 개에 꽉 들어갈 만큼 많은 옷을 샀습니다.

저희는 한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가격을 할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잘합니다. 저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태어나고 자란 키르기스스탄 시민이지만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러시아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만 수년간 토요일에 주말한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에 와서 한국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는 한국에 와서 지갑을 손에 쥐고 가방 깊숙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안전한 나라인 것을 알았습니다. 첫날에 우리는 밤에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아빠는 한국에서는 안전하다는 것과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우니 즐기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서울의 야경은 낮처럼 밝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편안함과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비쉬켁에는 7개의 한국 식당이 있지만 거기서 맛보았던 음식 말고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보고 먹어 본 음식들은 너무 맛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모두 볼 수는 없었지만 2주라는 시간은 한국을 배우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다

른 세계 같았습니다. 여기는 생활 수준이 매우 높고 사람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어떤 장소를 가고자 하면 곳곳에 친절한 안내 센터가 있고, 지하철 안내 방송도 영어로 여러 번 방송해 주었습니다. 그 전에 엄마가 터키, 독일, 캄보디아, 중국 및 CIS 국가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면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나라들 중 한 곳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계에서 교통카드를 사는 방법을 물었는데, 모두가 거절해 결국 택시를 타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길을 몰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본인이 잘 몰라도 휴대 전화로 검색한 후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모습이 저희들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는 이 한국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떠나는 날, 할머니께서는 공항에서 우시면서 저희를 배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꼭 올 것이라고 다짐을 하면서……. 2017년 비쉬켓에서 저는 아팠습니다. 1년 반 동안 저는 엄마와 함께 제일 좋은 병원으로 다니면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사들마다 다른 진단을 하였고 치료는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해외에 있는 병원을 찾았고, 한국에 있는 부천 순천향병원으로 검사를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7년 8월 9일 인천 국제공항에 마중을 나온 병원분들과 함께 병원 근처에 있는 호텔을 잡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러시아어 통역사와 함께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모든 의사와 간호사는 매우 예의 바르면서 친절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침과 오후에 우리는 수혈, 초음파, CT 검사를 받고 의사들과 면담을 합니다. 저녁에는 부천의 아인스월드, 식물공원과 현대센터에 가 보았습니다. 식물공원에서 우리는 소풍 온 어린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부러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기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배우는 것이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엄마와 저는 천안에 계시는 할머니를 찾아뵙고, 시간이 될 때는 서울에 가서 쇼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분수도 구경하였습니다. 부천에서는 병원 근처에 은행이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해 은행에 환전하러 갔더니 은행 직원분이 왜 돈을 환전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엄마는 병원비를 내려고 한다고 대답을 하자 은행 직원이 더 높은 환율로 환전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비를 낼 때에는 재외동포 우대도 받았습니다. 모든 진료비의 10%를 할인해 주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한 한국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태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히 비쉬켓 의사들의 진단은 잘 못되었지만 저에게 약간의 건강 문제가 발견되어 작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꼭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청소년 글짓기

초등 부문

최우수상

비슷하지만 다른 중국에서의 생활
송지나 (중국)

우수상

다국적 삼종사의 인도네시아의
성장기
김재이 (인도네시아)

피아노

손준영 (나이지리아)

장려상

바람의 도시 바쿠
홍찬양 (아제르바이잔 (미국))

치앙마이가 맺어준 인연
유시우 (태국)

양철 용기에 담긴 쪽지
이아론 (아르헨티나)

비슷하지만 다른 중국에서의 생활

송지나 (중국)

내가 다니는 중국 학교에서 제일 친한 친구는 중국 아이 제니퍼이다. 지난 토요일, 나는 그 아이의 집에서 하는 파자마 파티에 초대 받았다. 같이 모인 반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먼저 노래방에 갔다. 중국어 노래와 팝송인 영어 노래도 불렀지만 중국 아이들에게도 유명한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 노래를 부를 땐 중국과 대만, 일본 아이들도 다 따라 불러서 한국인인 내 어깨가 으쓱해졌다.

노래방에서 열심히 놀고 우리들은 제니퍼의 집에 갔다. 제니퍼 아버지는 요리사셔서 아주 풍성한 저녁밥을 준비해 주셨다.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중국에 와서 계속 살아 온 나는 우리 엄마도 못 드시는 중국 ‘향채(고수)’라는 채소도 잘 먹고, 여러 가지 특이한 중국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친구의 집에서 평소 집에서 보지 못한 세 가지 고기를 먹어 보았다. 고기를 잘 먹는 나는 세 접시의 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었다.

밥 한 그릇을 똑딱 먹은 후 부른 배를 만지면서 ‘이게 무슨 고기이냐?’고 여쭤봤더니, 제니퍼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대답하셨다.

“이건 토끼 머리, 이건 오리 목, 그리고 이건 개구리야.”

난 순간 당황했다. 내가 그런 걸 먹었다니! 제니퍼 아버지는 이건 중국

식 요리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거라고 하시며 제니퍼 가족이 즐겨 먹는 요리라고 하셨다. 나는 침을 크게 끌꺽 삼키고 진정했다. 그때 머리에 떠 오르는 말은 딱 한 줄이었다. ‘와, 중국 사람은 책상과 비행기 빼고는 다 먹는다더니, 정말 대단하다.’

저녁을 먹은 후 나는 우리 집에서 하던 대로 샤워를 했다. 샤워를 끝 낸 후 제니퍼에게 물었다.

“너는 목욕 안 해?”

“난 어제 머리 감았어, 보통 3일에 한 번 머리 감아.”

나의 의아한 표정을 본 친구는 할머니가 해 주신 이야기를 해주었다. 중국집은 겨울에도 춥기 때문에 목욕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고, 물값도 아주 비싸기 때문에 자주 목욕하는 것은 습관이 되지 않은 일이라고 하였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종종 중국 사람들에게 났던 냄새의 정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제니퍼 아버지는 우리를 이른 아침 6시에 깨우셨다. 보통 일요일에 늦잠을 자는 나는 왜 이렇게 일찍 깨우시냐고 했더니, 제니퍼 아빠가 아침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시며, 어린이도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니 빨리빨리 일어나라고 하셨다. 나는 ‘빨리빨리’는 한국사람이 주로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제니퍼의 가족들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한국어 단어 빨리빨리, 오빠, 그리고 강남스타일은 안다고 해서 한참을 웃었다.

운동을 다 한 다음에 제니퍼 아버지는 시장에 가셨다. 금방 돌아오시자 마자 “밥 먹자”라고 하셔서,

“어떻게 아직 요리를 안 했는데 밥을 먹어요?”

하고 여쭤보니 제니퍼 아빠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어제 저녁에 죽은 다 끓여놨고, 시장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전병과 전병 소스, 두유를 사 왔단다.”

하셨다. 우리 집은 아침으로 보통 엄마가 만드신 밥이랑 국, 김치를 먹는다. 하지만 중국 사람은 죽이나 전병을 아침으로 먹는다. 전병을 전병 소스에 빌라먹으니 맛있었다. 그런데 죽을 먹으려고 하니 제니퍼 엄마가 젓가락을 주셨다. 제니퍼네 가족은 죽 그릇을 들어서 입에 대고 젓가락을 이용해서 죽을 먹었다. 나는 ‘어떻게 젓가락으로 죽을 먹지?’라고 생각했지만 제니퍼네 가족을 따라서 먹었다. 친구의 가족들이 하는 행동을 같이 해 보는 것이 내가 중국 친구 집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침을 다 먹은 후 제니퍼네 가족은 ‘꺼억’ 하면서 큰 소리로 트림을 했다.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하면 예의 없다고 엄마가 뭐라고 하시지만 평소 학교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트림을 하기 때문에 그리 놀라지는 않았다.

나는 밥을 다 먹은 후, 좀 짜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제니퍼가 안 된다고 하였다. ‘왜?’라고 물으니, 중국에서는 밥을 다 먹고 바로 물을 마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아파진다고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조금 참고 30분 정도 후에 마시라고 하였다.

한국에서는 밥을 먹고 트림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버릇이라고들 하지만, 유럽에서는 트림은 괜찮게 생각하나 우리 한국 사람이 잘 하는 재채기는 좋은 버릇이 아니라고 해서 조심해야 하다는 것을 전에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나라마다 사는 모습이 다 다르니 그 나라 사람들의 행동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외국 친구들을 사귀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학교의 반 아이들과 있으면 나를 중국 아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다. 10년이 넘게 살다 보니 중국, 특히 상하이는 나에게 낯설지 않은 곳이다. 한국과 비슷해 보이지만 많이 다른 중국 생활, 정말 특이하면 서 신기한 경험을 하며 나는 하루하루 재미있는 중국 생활을 하고 있다.

다국적 삼총사의 인도네시아의 성장기

김재이 (인도네시아)

“얘들아, 좋은 소식! 이번 주 토요일에 JIKS(자카르타 한인학교)에서 바자회 열린대.”

“대박! 한국 옷 판매하는 아저씨 또 왔으면 좋겠다. 그 아저씨 코미디언 같아.”

“저번에 떡볶이 한 접시만 먹은 거 얼마나 후회하는지 알아? 이번에는 실컷 먹고, 집에도 싸 가야겠어.”

제가 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일 년에 서너 차례 한국 학교나 교회, 성당에서 한국 물품을 사고파는 바자회가 열립니다. 한국 물건을 가져다 팔던 분들이 가게에서 파는 가격보다 싸게 옷, 핸드폰 케이스나 한국 식품을 교민들과 현지인들에게 싸게 파는 거죠.

1~2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 한국에서 돌아올 때면 엄마는 넋두리를 늘어 놓으세요.

“이 좋은 물건들 다 이고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엄마의 여행 가방은 배불뚝이 아저씨처럼 불룩하게 부풀어 있어요. 엄마에게 뭐냐고

물으면 질 좋은 한국 팬티와 저희 두 자매의 옷, 비타민, 수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막상 가방을 열어 보면 한국 수세미, 양말, 치약, 칫솔, 약 등 자질구레한 물건이 가득해요. 책에서 읽었던 책 속의 만물상이 바로 엄마의 가방 속에 들어 있었네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어깨에 멘 가방이 무거우신지 훌러내리는 가방끈을 올리는 엄마의 가방에는 저와 제 동생이 사용할 한국 문제집과 필독서가 가득해요. 10kg이 넘는 짐을 따로 갖고 타시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스튜어디스의 말에 창피해서 슬며시 고개를 돌리지만, 집에 도착하면 동생과 저는 엄마의 팔다리를 주물러 드려요.

이야기가 잠깐 저희 엄마 얘기로 셨지만, 외국에 살다 보면 한국에서 는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는 생필품과 한국이 그리워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한국 바자회 나들이’가 취미인 저의 절친한 친구들, 일명 ‘다국적 삼총사’를 소개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국제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한국인인 저(12세), 인도네시아인 아이다(12세)와 싱가포르에서 온 데프니(13세). 이렇게 셋은 매일 같이 붙어 다녀요. 요즘 한국에서 유명한 다국적 아이들 그룹 같지 않나요? 같은 학교에 다니지만 친해진 계기는 방과 후 활동인 ‘K-Pop 댄스 동아리’ 덕분이었어요.

어느 날 연습실에 갔더니 긴 다리로 홍학처럼 춤을 추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모델처럼 멋있는 그 아이의 절도 있는 춤을 뒤에서 몰래 따라 추다 연습실 대형 거울에서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무안해서 얼굴이 빨개진 저를 보더니 성격 좋은 데프니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넸어요. 이야기를 해 보니 이야기도 잘 통하고 관심사도 딱딱 맞는 거예요. 아이다는

처음에 절대 친해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국적 아이들이 다니는 국제학교이지만, 대부분은 국적이 같은 아이들끼리 어울리는 성향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여자 아이들 다섯 명이 어울리는 그룹에 있었던 아이다는 나이가 의심될 정도로 왜소한 체구의 아이였어요. 제가 늦잠을 자서 도시락을 안 가져간 날이었어요. 점심을 사려고 학교 식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 제 차례가 되었어요. 아, 이런! 깜빡 잊고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뒤에 선 아이들은 웅성대지, 식당 이모는 돈 안 내고 음식이라도 먹으려던 아이 쳐다보듯이 바라보고 서 계시지. 당황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돌아서는데 아이다가 학생 식당의 쿠폰을 내밀며 저를 구해 줬어요. 심지어는 안 갚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의 착한 마음에 반해 친구가 되었어요.

이렇게 국적도 다르고 피부색, 키도 다르지만 저희들은 마음이 참 잘 통해요. 셋 중 하나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 주는 그런 사이예요.

그런 저희의 취미는 K-pop댄스와 한국 아이돌 이야기 말고 또 있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한국 물품 바자회 나들이예요. ‘없는 것 빼고 다 판다’는 광고 문구처럼 다른 주말 계획이 있어 가지 못하면 어찌나 아쉬운지 다음 바자회를 기다려요. 저희 삼총사가 좋아하는 가게는 바로 분식 코너예요. 한국 음식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분식을 소개시켜주는 재미도 있었는데 이제는 제 친구들이 저보다 한국 음식 냄새를 더 잘 맡는 듯 해요. 작년 10월에 마지막으로 바자회를 다녀온 후, 4개월 만에 열리는 바자회를 기다리는 일주일 내내 기분이 들떠 있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요일 아침. 단톡방은 들뜬 메세지들로 가

득 채워졌어요.

‘정말 기대된다!', ‘이번에는 돈 더 많이 갖고 가야겠다.ㅎㅎ', ‘분식점에 갈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임에 군침이 돌아~'.

저희 집에서 모여서 차를 타고 가는 데 20분이면 갈 거리를 40분이 되어서야 도착했어요. 도로가 좁고 자동차는 넘쳐나는 자카르타는 교통 정체로 악명 높은 도시예요. 지루해지려던 찰나, JIKS 교문이 시야에 들어오자 우리들의 얼굴은 금방 활기를 되찾았어요.

첫 번째 들른 곳은 당연히 분식 코너.

“이모, 안녕하세요?”

분식점 주인 이모는 얼굴이 하얗고, 조금 까무잡잡하고, 까만 꼬마 손님들이 익숙하신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 그래. 너희들 또 왔구나!”

임시로 만들어진 식탁에 자리를 잡은 후, 김밥과 오뎅을 계눈 감추듯 먹어 치웠어요.

“잘 먹었습니다. 이따가 또 올게요.”

분식점 안의 경쾌한 음악을 뒤로 한 채, 우리 셋은 배도 식힐 겸 뽕망치 게임장으로 들어갔어요.

게임을 하고 자질구레한 물건을 산 뒤 다시 분식점으로 들어가, 이번에는 떡볶이와 김말이를 시켰어요.

“역시 한국 음식 중에선 분식이 최고지!” 참새떼처럼 조잘대며 먹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어요. 뒤를 돌아보니, 분식점 이모가 순대 한 접시를 들고 있었어요. “애들아, 이렇게 매번 잊지 않고 분식 코너를 찾아와 줘서 고맙구나. 맛있게 먹어 주는 너희들 덕분에 장사가 더 잘되는 것 같아. ‘자동 홍보’네!” 웃으시더니 덧붙이신다.

“이거 받으렴. 이모가 너희들 예뻐서 주는 선물이야.”

분식킬러인 저희들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피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모님. 잘 먹을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저희 손에는 싸게 산 물건들과 중고품이 가득 들려 있었어요. 짐이 꽤 무거웠지만, 손에 든 짐보다 더 큰 추억을 담아 돌아 갔어요. 그 후 저희 삼총사는 더욱 가까워졌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저희에게 왔어요.

“애들아. 우리 땡 잡았어! 엄마들끼리 만나서 계획하셨는데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 음식 만드는 요리교실에 참석한대. 한국 문화에 관심 많은 외국 아이들도 요리 교실 참여해도 된다.”

“진짜야? 우와! 정말 신난다!”

아이다와 데프니는 제가 전해 준 좋은 소식에 놀란 토키 눈을 하고 기쁨의 탄성을 질렀어요. 저는 수업 시간 내내 벌써 음식을 몇 개 만들었어요. 엄마는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데 전 왠지 요리하는 게 더 재미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한국 요리 몇 개 정도는 배워서 다음부터 친구들이 놀러 오면 제가 직접 요리를 해서 대접해야겠어요.

요리 교실은 정말 재미있어요. 한번은 김치볶음밥을 만들었는데, 그때 아이다가 김치볶음밥을 먹고 나서 물을 몇 컵이나 마신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웃음이 나와요. 또 데프니가 만든 김밥 옆구리가 터져서 저희가 그 김밥을 같이 먹다 웃었던 적도 있죠. 한국 요리 교실을 꾸준히 다니면서, 저희 삼총사의 우정이 더 끈끈해졌어요. 또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미래에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될 법한 다국적 레스토랑을 차리자는 저희 셋의 공통된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우수상

20년 뒤 여행을 하시다 삼총사(Three Musketeers)란 이름의 식당을 보신다면 꼭 들려주세요. 눈이 동그랗고 볼 보조개가 있는 멋진 여자가 있다면 “혹시 김재이 씨 아니세요?” 하고 말을 걸어 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서비스 음식 한 접시를 쏘겠습니다!

피아노

손준영 (나이지리아)

저는 태어난 지 10개월 때 이곳 서부 아프리카의 한곳 나이지리아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그때부터 12년 동안 살고 있는 손준영입니다. 거의 모든 아프리카가 그렇지만 이곳 나이지라 역시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특히 교육적으로 한국처럼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도 좋은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글학교에 피아노 교실이랑 선생님이 생겨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 피아노를 배울 때 별로 설레지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피아노 의자에 앉고 선생님께 인사 드리고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악보도 못 읽고 건반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더 실력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런던 어느 날 선생님이 연주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당황했죠. 사람들 앞에서 잘 하지도 못하는 피아노를 친다는 것이 두려웠고 더욱이 아직 배운지 일 년도 안 됐는데 벌써 연주회를 하자고 해서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면서도 그 연주회를 안 하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피아노를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해 보라고 응원을 해 주는 바람에 선생님과 엄마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주부

터 바로 연주회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연습을 하는 동안에도 힘이 들고 어렵기도 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 아니었고 더욱이 엄마한테 꾸중 듣는 것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서 저보다 더 어린 동생들이 연주회 연습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린 동생들도 매일매일 연습하고 매주 토요일 한글학교마다 선생님에게 검사 맞고 때론 혼도 나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자극이 됐고 형으로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주회 곡은 어린아이들의 ‘나비야’에서부터 ‘텔레비전’, ‘피날레’, ‘캐논’, 어른들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온파’등의 어려운 곡도 연습을 했습니다. 저희 동생도 연주회 연습을 하고 저와 함께 드레스도 준비를 했습니다. 때론 서로 맞질 않아 티격태격하고 동생이 안 하겠다고 투정을 부리기도 할 때면 저 또한 화가 나서 안 하고 싶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 흰 엄마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매우 배우고 싶어하셨지만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그 모습에 자극이 되기도 했고 엄마의 먼저 보여주는 모습이 저 와 동생에게는 말없는 응원이었습니다. 때론 학교가 끝나고 선생님이 계시는 교회에 들러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막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을 수십 번씩 연습할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연주회 때 쳤던 곡은 바로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곡이었습니다. 베토벤이 만든 그 곡을 제가 쳐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곡을 추천해 줬고 저도 이 곡을 좋아해서 선곡했습니다. 연습을 할 때 선생님께서 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연주하는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내가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잘 칠 수만 있다면 박수도 많이 받고 뿌듯한 기분이 들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선생님한테도 엄마한테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드디어 오지 않았으면 하는 한글학교 피아노 연주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간 저는 엄청 긴장한 채로 무대 위에 섰습니다. 인사하려고 허리를 굽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겨우 인사를 마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사도 제대로 못 했는데 어떻게 피아노를 칠까?’ 그 순간 저는 눈앞이 깜깜해지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더욱 바짝 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곡을 완주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저의 귀에 들렸습니다. 순간 긴장했던 나의 모든 것이 한 순간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던 어머니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고 뿌듯해하시던 선생님의 얼굴을 보니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 앞은 아니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연주회였고 곡을 완주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맛보는 알 수 없는 성취감과 자신감이 제 안에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선생님 유미혜 선생님이 한국으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 뒤로 한글학교에서 피아노 교실은 없어지고 더 이상 한글학교에서 피아노를 배울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또한 저랑 한글학교 선생님께 피아노를 배우셔서 가끔 피아노를 치고 싶으면 엄마에게 조금씩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떠나고 난 뒤 얼마 뒤에 학교에서 피아노 대회를 나갔습니다. 그 대회에서 저는 입상을 했습니다. 떠난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과 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졸업식 때는 졸업연주를 학교에서하게 되어 많은 부모님들과 친구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학교와 한인회 행사 때 제가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좋아할 수 있게 된 게 한글학교에서 만난 유미혜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떠난 선생님의 빈자리를 메워줄 선생님이 없다라는 것이 저를 더 슬프게 합니다. 한글학교에서 저처럼 피아노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과목이 있어서 나와 함께 있는 동생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즐겼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인지 더욱더 선생님

이 그리워집니다. 저는 처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할 때 어린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가르침이 저에게 물과 햇빛이 되어 이제 짹을 틔운 새싹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더 큰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성장해가고 싶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유미혜 선생님을 다시 뵙고 싶습니다. 저한테 그분은 스승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을 주셔서요.

그립습니다!

바람의 도시 바쿠

홍찬양 (아제르바이잔 (미국))

쌀람 네재시즈? (안녕하세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 사는 홍찬양입니다.

바쿠는 매일 바람이 많이 불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바람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우리 가족이 사는 바담다르는 바람이 더 세고 많이 불니다.

카스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우리 가족이 사는 바담다르는 높은 언덕에 있어서 바람이 더 많이 분다고 아빠가 말해 주었습니다.

겨울에는 정말 바람이 너무 셉니다. 제가 바람에 밀려 뛰어가게 할 정도입니다. 엄마는 모래 먼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집 안을 청소 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태어나서 처음 본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정육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정육점 앞 길에서 아저씨들이 나무에 양과 소를 묶어 놓고 죽입니다. 양과 소의 가죽을 벗기고 머리도 잘라 정육점 앞에 놓고 팝니다. 고기도 냉장고에 넣지 않고 가게 앞에 매달아 놓고 팝니다.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매일 이런 모습을 봅니다. 아빠는 제가 못 보

도록 몸으로 막지만 살짝 보면서 지나갑니다. 양과 소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매일 보니까요. 하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제르바이잔 음식은 케밥입니다. 양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는 음식입니다. 이곳 사람들이 집에 저희 가족을 초대하면 케밥을 만들어 줍니다. 처음에는 학교 가는 길에 보던 양들이 생각나 먹지 못했는데 지금은 제일 좋아하는 아제르바이잔 음식입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236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학교지만 러시아어 반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 친구들은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옛날에 러시아 식민지여서 러시아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언니들과는 영어로 말하고 학교에서는 러시아어, 동네 친구들과는 아르젠페인어를 씁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와는 당연히 한국어를 쓰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아제르바이잔어 이렇게 4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해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을 이해 못해 숙제를 못해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제르바이잔어를 모르는데 시를 외워야 하는 숙제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뜻을 모르고 외우니까 잘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선생님은 소리 지르고 무서웠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정말 선생님 말을 안 듣습니다.

숙제도 안 해오고…….

무엇보다 힘든 건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노크도 하지 않고 막 문을 엽니다. 무엇보다 냄새가 너무 지독했어요. 또 한쪽은 문이 아예 없었고요. 화장실에 가기 싫어 아침엔 물도 안 마셨습니다. 아이들은 제 눈이 작다고 옆으로 자기 눈을 잡아당기며 놀렸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눈이 아주 크거든요. 그리고 시험 볼 때 서로 도와줍니다. 지

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5학년이 되면서 러시아어에 자신이 생겼고 공부도 잘해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칭찬을 많이 해 줍니다. 특히 담임 선생님이 러시아 사람인데 다른 아이들처럼 집에서 러시아 말을 쓰지 않는 데도 반에서 러시아어를 제가 제일 잘한다고 수업 시간에 말했습니다. 시험 때 5점(여기는 100점이 5점임) 받으면 다른 친구들에게는 볼에 뾰뽀를 한 번 해 주는데 저에게는 세 번, 네 번 해 줍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다른 아이들처럼 떠들지 않아서 저를 예뻐하는 거 같습니다. 수학 경시대회에도 뽑혀 저희 반 대표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자신 없는 과목은 아제르바이잔 역사입니다. 너무 재미가 없고 지루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역사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제가 친구들에게 한국의 위인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유관순과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을 공책에 써서 보여 주니까 친구들이 희한하게 쳐다봤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영어 수업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잘 못합니다. 발음도 이상하고 문법이 뒤죽박죽입니다. 반 친구들이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제가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자랑 하나 더 할게요.

다른 학교들하고 하는 축구 대회에 학교 대표로 뽑혀 연습하고 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저보고 달리기를 잘 하니까 축구를 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안경을 써서 축구는 위험하다고 못하게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집에 전화해서 학교를 위해 제가 꼭 시합에 나가야 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아빠는 지금도 걱정입니다.

축구 하다 공이 안경에 맞을까봐…….

얼굴 쪽으로 공이 오면 무조건 피하랍니다. 하하하.

집에서 공 피하는 연습도 아빠하고 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우승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 주세요.

여기 학교는 1학년 때 같은 반이 4학년까지 같이 가고, 5학년 때 같은 반이 11학년 졸업할 때 까지 같이 갑니다.

저는 지금 우리 반 선생님과 친구들이 너무 좋습니다. 가끔 다른 반 남자아이가 저를 놀리면 우리 반 친구들이 나서서 제 편이 되어 줍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인기도 많고 친구들 생일 초대도 많이 받습니다. 또 친구들도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싶어 합니다.

저를 예뻐하는 담임 선생님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 모두 사랑합니다.

저도 우리 반 아이들에게 더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 때문에 친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치앙마이가 맺어준 인연

유시우 (태국)

나에게는 치앙마이에서 5년 전에 만난 소개하고 싶은 남동생이 있다. 나이는 나보다 한 살 어린 10살이고, 아주 철이 없다. 조그마한 게 자기 보다 덩치가 큰 남자들만 보면 겁없이 시비를 건다 그럴 때 나와 언니는 여간 곤란한 게 아니다. 아무래도 나와 언니, 엄마를 믿고 너무 까부는 것 같다. 아직도 가끔씩 오줌을 가리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런 날은 엄마 품으로 파고들면서 온갖 애교를 부린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도 얄밉지가 않다. 엄마도 그러는 남동생이 너무 귀엽고 어이없어 야단을 크게 치지 못한다. 이런 남동생에게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

2013년 8월 어느 날, 우리 가족이 캄보디아에서 치앙마이로 이사온 지 며칠 지난 날 나와 언니는 동네를 구경하다가 온몸의 털은 다 복슬복슬한 하얀색으로 뒤덮여있고 왼쪽 눈 주위만 까만 털이 있는 양증맞고 조그마한 강아지를 보았다. 내 동생이 바로 그 강아지다. 그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나와 언니는 예뻐해 주고 빵도 조금씩 주었다. 그러자 며칠 후 우리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다. 우리는 강아지의 이름을 주인에게 물어보니 한쪽 눈에 검은 점이 있어서 ‘점동이’라고 지은 것을 알게 되었다. 어쩜 이름을 그렇

게 잘 지으셨을까? 만약에 점동이가 여자였으면 점순이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휴, 남자아이여서 참 다행이다.

한번은 우리가 학교를 가려고 동네에서 걸어 나가는데 점동이가 우리를 계속 따라 나가려고 해 경비 아저씨가 힘들게 점동이를 잡아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 아저씨의 손길을 미끄러지처럼 이리저리 피하면서도 우리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점동이의 애절한 눈빛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동이와 정도 더 많이 쌓이고, 점동이의 밥그릇, 물그릇 등 물건들도 하나둘씩 더 늘어났다. 그런데 어느 날, 점동이의 주인이 이사를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와 언니는 비상회의를 거쳐 점동이를 따라 이사를 가자는 결론을 냈다. 그날부터 엄마에게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할 테니 점동이를 따라 이사를 가지고 떼를 쓰기 시작했다. 그런 우리를 보시고, 엄마가 안타까운 생각이 드셨는지 점동이의 주인에게 우리가 점동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설명을 하셨다. 그러자 점동이의 주인은 아주 감사하게도 점동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렇게 점동이는 우리의 가족이 되었다. 물론 점동이를 먹이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키우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나와 언니가 감당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말이다. 그래서 나와 언니는 점동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용돈을 한 푼도 우리를 위해 쓸 수가 없다. 심지어 어떤 날은 돈을 벌기 위해 엄마 아빠께 마사지도 해야 할 때가 있지만,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방뛰면서 뛰쳐나오는 점동이를 보면 너무 행복한 기분이 든다. 예전에 아빠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셔서 우리 얼굴을 보면 피곤함이 짹 가신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는 좀 알 것 같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족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비밀 이야기 보따리들을 점동이에게 풀어놓는다. 점동이는 까맣고 동그란 눈으로 마치 나를 위로해주듯이 품에 가만히 안기기도 하고, 향아 주기도 한

다. 그런 비밀 이야기를 점동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서 정말 좋다. 쉿! 점동아, 누나와의 약속 끝까지 꼭 지켜야 해. 절대, 그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나와 언니는 캄보디아를 떠나 낯선 치앙마이에 왔을 때 처음에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계시는 캄보디아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 특히 멀미를 심하게 하는 언니에게 학교까지 2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상황은 아침마다 언니를 괴롭혔다. 그러나 점동이를 안고 차에 타면 멀미가 덜한다고 해서 점동이는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닌다. 점동이 역시 처음 차에 탔을 때는 몸을 덜덜 떨며 무서워했지만, 지금은 드라이브를 아주 즐기는 강아지가 되었다. 이젠 치앙마이가 너무나 좋지만, 점동이 때문에 더 좋다. 비록 2kg밖에 안 나가는 작은 몸집이지만, 나와 언니를 치앙마이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 고마운 강아지다. 우리 가족이 점동이를 만날 수 있게 해 준 치앙마이야 고마워!!

양철 용기에 담긴 쪽지

이아론 (아르헨티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철민은 지금 집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바로 학교에서 내 준 숙제였고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통일 맞이에 대해 적어오는 것이었다. 몇 시간이 지났지만 김철민은 숙제를 끝내기는커녕 통일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많은 자료를 찾아보며 통일의 의미나 역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게 되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통일을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글이 써 내려가지지 않았다. 그동안 통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지내왔던 탓이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바람이나 쐬기 위해 자전거를 타러 나갔다. 길거리엔 바삐 움직이는 차들 때문에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경적 소리가 들렸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도시를 한 바퀴 돌고 나서 그는 시외로 갔다. 언덕을 내려가다가 자전거 바퀴에 뭔가 뾰족한 것에 걸렸다. 그래서 김철민은 갑자기 날아가 버렸다.

철민-뭐지……?

자전거 바퀴가 걸린 곳을 살펴보니 무슨 용기 같은 것이 반쯤 나와 있었다. 철민이 그걸 열어 보니 무슨 쪽지 같은 것이 있었다. 그 쪽지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

“지금은 전쟁 중이다.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이 시작된 지 2일이 지나갔다. 북한의 남침이라고 듣기는 했지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다. 지금 우리는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다. 거의 못 탈 뻔했던 배를 잡아서 타고 가고 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전쟁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나는 종이와 양철통을 구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별 이유가 없지만 웬지 이 글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게 되어 지금의 일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 글을 쓰고 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지금 이곳은 혼돈 그 자체이며 모두 불안감에 떨고 있다.”

이것을 읽고 철민의 머리 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황급히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갔다. 집에서 노트에 쓰기 시작했다.

“우리가 해야 할 통일 맞이는 바로 평화적인 통일입니다. 어른들은 6.25 전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만, 우리는 겪어보지 못해서 어떤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6.25 전쟁 때 엄청난 고통을 겪으신 어른들께서는 그 일을 다시 겪지 말자고 반공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셨지요. 지금은 2018년입니다. 한국이 둘로 나뉘어진 지 68년째 되는 해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한국은 휴전 조약만 체결했지 전쟁을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전쟁을 끝내고 통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한 민족이 같이 모이지 못하고 떨어져 있으면 한 민족이 두 민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한국은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며 우리의 힘으로 통일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날, 철민은 그 숙제를 선생님께 드린 뒤 학교가 끝났을 때 자전거를 타고 그 용기를 찾은 들판으로 다시 갔다. 그 용기 안에 이렇게 쓰인 쪽지를 넣었다.

“우리는 지금 2018년에 살고 있다. 전쟁이 휴전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금도 남북한은 서로 갈라져 있다. 68년 전부터 남북이 분

단돼 있다. 우리는 전쟁의 시작과 동시 지금까지도 계속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동포에 대해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머지않아 통일을 볼 것이라 바라고 있다. 김철민”

철민은 이 글을 왜 썼는지 몰랐다. 하지만 미래의 누군가가 이 글을 보고 이 시절의 생활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

수상소감



유적에 핀 꽃

문인기 (인도네시아)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신 재외동포재단에 충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을 계기로 동포애와 애국심 안에서 더 확신과 긍지를 가지고 꾸준히 이웃을 섬기며 대한민국 재외동포로서 지금 머무는 나라뿐 아니라 앞으로 어느 지역에 머물더라도 그 사회를 밝게 만들어 가는데 작은 역할을 해 갈 것을 다짐해 본다.
사랑합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재외동포재단.
남은 생을 통해 계속 영광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번 엄청난 문학적 격려와 동기부여를 받고서”

재외동포가 된 지도 12년, 처음부터 나의 해외 생활의 동기는 일생을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만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생각하고 조국을 떠나와서 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조금은 여건이 부족한 나라에 옮겨와서 봉사라는 이유로 섬기며 살아온 12년차에 예상 못한 큰 희소식을 받았다. 미흡한 봉사에도 하늘이 내리는 엄청난 격려와 총애의 선물인 듯 재외동포문학상에 응모한 나의 졸작 시가 입상했다는 소식이었다. 늘 부족하다 생각하는 나로서는 개인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가문의 영광이라 여겨 소식을 받자마자 바로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다.

소년 시절부터 나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눈에 보이는 광경과 사물을 카메라에 담기를 좋아했다. 프로페셔널 한 사진작가까지는 못 되었어도 누가 나의 사진을 보아도 무언가 표현이 남다르다고 느낄 정도의 의미 깊은 사진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이렇듯 독특한 시각의 사진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나의 집념과 끈기조차도 하늘이 주신 은사라 생각할 때에 이번 문학상 공모에 입상한 것은 결코 내가 잘 나서 뽐낸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주신 격려의 선물이라 믿는다. 이같이 크나큰 동기부여와 격려에 힘입어 앞으로는 사람을 만나거나 사물을 대할 때에 내 멋대로의 관점이 아니라 인정을 받은 자답게 겸손하고 진솔한 사랑을 담아 대화하며 글로 쓰고 사진으로 담아가리라는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이런 용기와



사진을 보며

김미영 (스웨덴)

을 여름 스웨덴에 가뭄이 몹시 심했습니다. 빛을 뿌리며 나부껴야 할 자작나무 잎들이 싱그러움을 잃고 말라 갔으며 들짐승과 날짐승들은 폭염 속에 그늘만 찾아 헤맨습니다. 벌레들도 종종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구요. 이곳에서 여름에 비를 기다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올해는 여름을 통과하면서 비가 오기만을 점점 더 고대하게 되더군요. 8월 중순이 되면서 비는 기적처럼 내리기 시작했고 젖은 대지 위에서 지상의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은 지금 다시 고유의 아름다움과 활기를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과 존경하는 재외동포문학상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선 소식은 제게 긴 가뭄 끝의 빛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내게 일어난 이 일이 과연 사실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성장하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문학은 제게 향유하는 것 이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게도 들려줄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제 부족한 글을 뽑아 주신 덕분에 이것이 제게 출발이고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운 아버지, 필경은 문학 소녀였을 우리 엄마(박옥순 여사), 언니, 형부, 오빠, 큰 올케, 동생, 작은 올케, 22년 동안이나 외국에 살고 있는 내게 꾸준히 소포를 보내 주고 아직도 열렬히 내 삶을 응원해 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그 정 많고 웃음

많고 성실한 삶이, 그렇게 함께 했던 순간들이 ‘시’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해요.
조카들 사랑한다.

한결같이 든든하게 지원해 준 남편, 고마워요.
내 힘의 원천, 승용아 사랑해! 내 기쁨의 원천 재용아, 엄마가 쓴 시의 최초의 독자로서 엄마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줘서 고마워.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시를 써 보라 소설을 써 보라 자꾸만 권했던 지인들, 그리고 당선 소식을 자신들의 일인 양 기뻐해 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제 소망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김치닭달

강세정 (일본)



알감자 조림

유려 (중국)

일본에 온 지 8년이 되었습니다.

타국에 사시는 분들 모두 그렇듯 일본에서 저는 좋은 날, 평안한 날만 보내지는 않습니다.

불안, 향수, 번뇌…… 수식어 없이도 참 무거운 어휘들만큼이나 무거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침입해 올 때마다 책을 읽고 시를 쓰며 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전 책을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책을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책을 만드느라 바빠 정작 책을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에 와서야 비로소 저는 그리운 친구를 다시 불러내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일본은 애(愛)와 증(憎)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아마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든 그렇겠지요. 자국도 그렇겠지만 타국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은 한국인인 저에게 애증이 크면 컷지 결코 작을 수 없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이곳에 살면서 애와 증이 제 안에 휘몰아치겠지만 그 너머에 있는 인류애는 잊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작은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가 더 많이 필요하니 좋은 시를 쓰라는 격려로 알고 과분한 상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계속 시를 쓰겠습니다.

학부 시절부터 학교 도서관에 있는 ‘재외동포문학상’ 작품집에 실린 세계 각지에 있는 우리 민족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울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작품들을 흉내 내며 몇 번 투고했다가 소식이 없었고 그냥 그렇게 포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거의 십 년 전의 일이네요.

가정이 생기고 아이들이 생기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알감자 조림을 하면서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매끈한 감자보다는 어딘가에 많이 부딪힌 흔적이 있는, 칼집도 많이 난 자리에 간장물과 설탕물이 들어가면 더욱 맛이 있어 진다는 것…… 그게 시적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니 그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아픔과 부족함 딛고 일어선 그 인생은 항상 더 감칠맛이 났고 인생 다웠습니다.

베이징 왕징에는 한국에서 온 분들, 북한에서 온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중국 동포들이 서로 어우러져 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을 하던 날 우리 남편은 오랫동안 연락을 못해오던 북한의 한 상인을 만나서 맥주를 마시며 지난날과 미래의 비즈니스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5, 6년을 알고 지냈지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눈 게 그날이 처음이라고 하며 감개무량해 하는 그 얼굴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상처투성이인 알감자들이 한 가마에서 모든 양념들을 흡수하며 맛있게 풋 살아져서 우리의 평범한 삶의 감칠맛으로 되는 정경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가 또 이렇게 상을 받으니 저한테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저의 작품을 뽑아 주시고 상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운 그대, 고향!

임경일 (레바논)

재외 동포들을 위해서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시며 위로와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모에 응했지만 상을 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고 훨씬 아름답고 뛰어난 작품들이 많을 텐데 저 같은 사람에게까지 수상의 기회가 오게 된 것에 대해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되며 이런 은사와 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시리아 난민들을 교육으로 도와주는 센터를 운영한 지 이제 4년째가 되어 가네요. 그동안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보낸 시간들을 통해 그들의 애환을 깊이 느끼게 되었고 타지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여 그런 부분들을 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좋게 봐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아리랑

이용언 (미국)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사실 저의 출시가 나오게 된 배경은 내가 오래전 중동 건설 현장에서 겪은 사실적인 경험이다. 지금 회상해 보면 40년도 더 되는 때의 일이다. 강산이 서너 번 바뀌는 시간과 살아가는 대륙의 공간이 달라져도 늘 그때의 일들이 어디로 가지를 못하고 내 가슴 속 좁은 마당에 메뚜기로 살았던 것이다. 이제는 시, <아리랑>에서 모습을 드러낸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억눌린 존재들이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로 마음대로 가게 하고 싶다. 비록 메뚜기라 하더라도 폐쇄된 좁은 공간이 아닌 끝도 보이지 않는 드넓은 들판에 가서 새들의 먹이가 되더라도 한껏 뛰고 날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메뚜기로 살란 법도 없다. 요즘같이 놀랄만한 기술이 매일 같이 나오는 세상에 메뚜기가 새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늘 나의 시를 보고 맨 처음 매서운 비평을 하는 아내가 새삼 고마워진다.



동아분식

이은영 (중국)

흐르는 별에 대하여

어둠 속에서 명징해지는 것들이 있다

비행기 실내등을 끄자 유리창에 주먹별이 자리를 잡는다

나는 의자에 몸을 묶고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비행기는 그곳을 향해 날아간다

바람의 속도로 달려도 별은 그 자리에 있다

밤새 제자리 걸음을 하는 느낌이다

지상의 불빛이 시야에 들어오면 밤하늘의 별처럼 흘러간다.

버티고(Vertigo)라는 단어에 매료된 적이 있다. 전투 비행사들은 깜깜한 밤이나 구름 속에서 비행기가 정상으로 날아가는지 뒤집혀서 날아가는지 자주 착란을 일으킨다고 한다. 바다가 하늘같고, 하늘이 바다 같은 감각의 혼란.

장기 체류자의 생활은 한마디로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인 삶이다. 낯선 언어와 낯선 환경에서.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착란을 일으킨다. 이곳 사람인지, 그곳의 사람인지. 회전문을 밀고 한 바퀴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다.

나의 집은 어디인가 생각하다보면 그곳이 어디이건, 우리 집이 있는 곳이 곧 나의 집이 되었다. 중심에서 떠난 사람들은 모두 흐르는 별이다. 저마다 흔들리는 뿌리를 어디라도 내리기 위해 애쓰지만 장기 체류자들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방인일 뿐이다.

한국에 갔다 돌아올 때면 지인들이 “가서 글이나 쓰면 되겠네.”라고 쉽게 말한다. 하지만 그곳에 가면 생존과 관련된 거기의 일상이 있다. 그렇지만 돌아가야 하므로 가방을 치우지 못하고 머리맡에 세워둔다.

십 수 년을 떠돌이처럼 살았다. 어느 날 안과 밖이 조금씩 허물어져 내린다. 국외자(局外者)인 나의 시간들은 이방의 환경에 익숙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은 권태를 먹고 자란다.

내가 흐르는 것인지, 불박이 별이 움직이는지 자주 착란을 일으킨다.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지.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합니다. 안과 밖에서 글쓰기를 잊지 않게 다독여주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 날 새벽을 본 사람들

이태경 (카자흐스탄)

먹는 것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김새마저 다른 사람들과 살 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그들의 생각을 어설프게나마 추측을 할 때면, 결과는 어김없이 제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어떤 사람은 타지에서의 삶을 ‘재미있는 삶’이라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 순박하고 해맑은 눈빛에 그늘을 드리고 싶지 않아 저는 얇은 미소로 입술을 잠금니다.

이방인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나라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느낄 수 있는 이방인의 정서와 집단주의가 보여주는 모순들은 삶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 우리는 사전적 의미 따위는 상관없이 이방인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이방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외모, 학벌, 재력,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족하지만, 이방인이란 주제로 글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방인 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 일 년에 한 번씩 교내에서 펴내는 문예지가 있었습니다. 각 반에서 뽑힌 사람의 글은 문예지에 실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그냥 각 반에 반장이나 부반장이 글을 써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 담임선생님은 반 전체 아이들에게 글을 쓰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반 대표로 뽑힌 저는 전교생이 읽는 문예지에 ‘크리스마스’라는 글이 실리게 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조용한 성격에 성적도 그

냥저냥인 제 글이 문예지에 실리자, 반 아이들의 눈빛은 ‘의외’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내가 글쓰기를 좋아하는 아이인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은 저에게 중학교 때, 기회를 주신 담임선생님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타국에 사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기회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재외동포 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글이 어설프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번 수상은 저에게 더할 나위 없는 따뜻한 위로입니다. 모든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카자흐스tan 아티라우에서



벗꽃난장

김수연 (캐나다)

언젠가 공항으로 친구 마중을 나간 적이 있다. 공항은 몹시 붐볐다. 세계 곳곳에서 날아든 낯선 인파 속에서 혹시 친구를 놓칠까 나는 출구 쪽으로 고개를 쭉 내밀고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반가운 얼굴을 발견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어머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가 화답했다. 그 사이 나는 그가 누구인지 인지했고,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쓸어진 인사를 주워 담고 싶었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 그는 한국의 배우였다. 그에게도 낯설었을 이국의 공항에서, 내 인사가 지나치게 살가웠는지 그도 내게 다정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저희가 어디서 만났었죠? 죄송합니다만 잘 기억이 안 나서요. 혹시 오늘 저를 픽업하러 나오신 분인가요?”

물론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나는 그를 알지만 그는 나를 알 리가 없었다. 우리는 국민배우와 국민의 사이였을 뿐이니까. 다행히 그는 금방 상황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가볍게 끄덕여주고 공항 밖으로 총총 걸어 나갔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때의 민망함과 무안함이 떠올라 한동안 밤이면 이불킥을 해야 했다. 아, 나는 어쩌다가 TV에서 본 스타를 향해 선망의 눈길이 아니라 열렬한 반가움을 시전하는 주책바가지가 되어버렸나.

외로워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민을 오지 않았더라도 외로웠을 테지만 이민을 오지 않았다면 글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다. 외로워서 혼잣말이 늘었고, 그 혼잣말이 목구멍을 꽉 막고 있었을 때, 다른 도리가 없어 읽고 썼다. 소설이 나를 알아보든 말든 손을 크게 흔들며 얇은 척을 했고, 그러고 나면 늘 무안해졌다.

이전에도 당선 소감을 쓴 적이 있었다. 죽도록 열심히 쓰겠다, 다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십 수 년이 더 흘렀다. 이제는 외로워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모국어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나날이 어눌해졌으며, 훌로 섬처럼 꾱꼿하기에 나는 재능도 끈기도 모자랐다. 그때 재외동포문학상을 만났다. 부끄럽게 한 줄 한 줄 써 나가며 처음보다 더 떨렸다. 졸작을 지명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덕분에 조금 덜 무안해졌다. 외로워서 글을 쓰는 재외동포 여러분들께 작으나마 위안과 희망이 되고 싶다.



크라쿠프의 피에로기

신수정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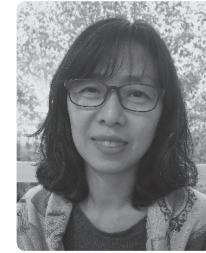
재작년에 이어 올해에 응모했는데 두 번 모두 수상의 영광으로 응답받게 되어 기쁘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동포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모국어의 상황적 결핍에서 오는 한글 문학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은 때때로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만큼이나 사무칠 때가 있다.

내 경우에는 한글 책에 대한 그리움을 스스로 취미 삼아 글을 써 보면서 해소시켰던 것 같다.

나의 힐링 시간이나 다름없는 글짓기의 결과물이 다른 분들께 읽혀질 소중한 기회를 주신 재외동포재단 문학상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올해에는 하이델베르크 한글학교의 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어 수상이 가져다주는 무게가 또 색다르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맛깔나는 우리의 표현들을 익히고 작문학은 즐거운 경험을 전해주자는 다짐을 해본다.



검은 시계가 있는 정물

정명숙 (캐나다)

좁은 이민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속내를 드러내는 일은 불씨를 안고 풀숲으로 들어가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밖으로 걷어 내어야 할 것들을 안으로 쌓아둘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요.

그렇게 이민 생활의 한풀이쯤으로 시작된 글쓰기였습니다. 그것에 살을 붙이고 뼈를 발라내고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며 내 글이 소설이라는 형상으로 빛어지는 것을 보면 글쓰기의 색다른 묘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타선 땅에 내린 뿌리가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걸 보면서도, 그 틈에 복병처럼 숨어서 아무리 용을 써도 어쩔 수 없이 이방인임을 각인시키는 쓸쓸함을 달래줄 놀이가 말입니다.

그러나 소설을 쓴다는 건, 속에 쌓여있는 삶의 잔해를 걷어내는 일 이상의, 단순히 이리저리 비틀어 형상을 빛어내는 일 이상의, 어쩌면 타선 땅에서 뿌리를 내리는 일 그 이상의 인내와 노력, 그리고 누군가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감사의 마음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나를 적십니다.

소설 쓰는 길에 만난 ‘수’와 ‘은’, 내게 동기부여와 영감을 주고, 나의 출작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준 문우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식사 당번을 정해 가사일을 줄여 주고, 글쓰기를 시작할 때부터 나를 ‘작가’라 불러주며 끊임없이 파이팅을 외쳐 준 가족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남은 생은 소설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이 길이 맞는지 이렇게 쭉 가도 되는 건지 의심의 타래를 떨치지 못하는 제게, 의심 한 올쯤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선물로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ズム?(완전범죄)

이현주 (미국)

어떤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아내는 결혼한 후 지금까지, 아이들을 양육하며 살림을 책임져 왔습니다. 오래도록 남편의 폭력에 시달린 끝에 법의 도움을 청했는데, 너무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는 법적인 다툼을 그만두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 사건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남편과 아내를 전에 살던 모습으로 돌려보내야 합니까? 부부의 침실 안에서 일어난 가정 폭력은 목격자가 없습니다. 증인으로 서 줄 사람도 없고, 증거는 아내의 병원 기록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적인 시간과 공간, 가해자만 혹은 피해자만, 그도 아니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모르고 있을 상황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늘과 땅이 알고 그대와 내가 알고 있으니 이미 넷이 안다고 했고, 지금은 거기에 휴대 전화를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단, 휴대 전화는 저장할 수 있지만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작품들에서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실체로 묘사되지만, 저는 기계가 감정을 갖게 되는 계기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파고는 이기는 방법을 알지만 성취감, 자신감, 기쁨, 흥분을 느끼지 못합니다. 범죄에 이용되는 프로그램 역시 죄책감이나, 동정심, 공포를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사람의 행동 양식을 입력해서 거부하고 슬퍼하는 시늉을 하는 로봇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인식하도록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화도 났던 것 같습니다.

전자공학과 출신이면서 집 안팎을 자상하게 살피는 남편과 20년 넘도록 사는 동안, 저는 제 휴대 전화의 사용법조차 모르는 기계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필요가 생기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배워 익힐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머리 안팎을 뒤집은 끝에 한 편을 마쳤고, 수상작으로 뽑히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배려하고, 각자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도구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 헤아리지 못하는 곳까지 잘 살피고 공정하게 측정하는 도구로 쓰이면 좋겠습니다.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방 싸는 여자

신경화 (중국)

Life is like riding a roller coaster.

지금 내 머리 속에 떠오르는 딱 한 마디.

정점을 찍으면 언제나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는 러러코스터처럼 어차피 일어난 일, 얼른 지나가라…… 나락에서 허둥대다 대상 소식 접한다. 더 이상 나갈 곳 없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거짓말처럼 일어나는 인생의 기적들이 얼마나 달콤한지 너무나 잘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가능성이 낮은 일에 도전하는 것이 좋았다.

재외동포문학상 도전도 그중 하나.

비가 내려서, 씩씩한 딸이 그 날은 어찌 통학 버스가 타기 싫다하여, 우산은 하필 하나밖에 없어서, 껌딱지처럼 내 허리에 붙어 있는 딸 교실 앞까지 바래다주던 그 날. 주말 한글학교 복도 한쪽에서 재외동포문학상 모집공고를 보고 굽적였던 내 비루한 이야기들, <가방 싸는 여자>

세상사람들이 상 탔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 지 잘 살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싫어한다는데, 세상 사람들이여 맘대로 싫어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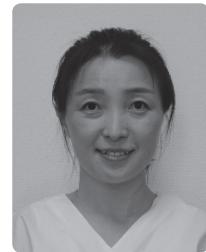
<가방싸는 여자> 대상 받아 너무 행복합니다.



살리 삼촌

강윤길 (터키)

이런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말과 글이라는 게 안 쓰면 그 만큼 잊혀진다는 것을 10년의 해외 생활 동안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안 쓰고 안 읽다 보니 머리에서만 맴돌고 입으로는 나오지 않는 단어와 문장들 때문에 서글펐던 적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글로 상을 받는다니 더더욱 기분이 남다릅니다. 예전부터 문학은 창의성으로, 시는 사상과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로 쓰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다행히 수필과 같은 글은 진정성이 기본이라 생각하여 공모에 참가하였습니다. 제 수기에 쓴 내용처럼 ‘살리 삼촌’을 기억해 주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수기에 덕분에 한 분이라도 더 살리 삼촌을 접하게 되고, 그 이유야 어떠하였든 고난의 시절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었던 외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된다면 저로서도 큰 영광입니다.



딸애의 첫돌

히은주 (일본)



조폭 열차 탈출기

유재원 (중국)

우선 영광스런 상을 받을 기회를 마련해 주신 재외동포재단과 우수상으로 뽑아 주신 심사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0회를 맞이한 올해 문학상에서는 체험수기 부문 공모라고 되여 있고, 또 최근에 오카야마공항에서 겪었던 일이 기억에 새록새록할 때라서 기회가 좋았습니다. 큰 공항이 아니다 보니 일여덟명 되는 대한항공 전체 직원의 주의를 환기시켰었습니다. 비자 없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태워줄 수 없다는 항공사 직원과 반드시 비행기를 타야겠다는 나,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참 우습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승객을 비행기에 태우려는 일념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아주 고마웠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그 분들과 무척이나 친해진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출국할 때면 “자주 한국으로 가시네요. 편히 다녀오세요”, 귀국해서 탑승구 문을 나서면 “돌아오셨어요,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보다 친절한 어조로 인사를 건네줍니다. 상을 받고 나니 그 분들에게 더욱 고마워집니다. 또한 이제 비자 따위, 여권 따위 상관없이 한 민족은 언제든지 서로 왕래하는 그 날이 더욱더 기대됩니다.

그리고 제 딸애가 한글을 익힐 이유가 하나 생겨서 감사합니다. 어느 나이 때가 되면 내 부모 내 선조에 관해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때 엄마가 우리 글을 써서 상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느 때인가 한글을 익히겠지요.

마지막으로 이런 저런 고마움에 겨워하며 기대와 더불어 수상 소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연처럼 인연이 닿아 응모하게 되었는데, 마침 제20회 수상자 명단에 오르게 되어 더욱 반갑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숫자가 대단한 것은 아니겠으나 잡을 수 없는 시간에 불인 이름표라고 생각하면, 그 덩어리의 무게감 앞에 고개 숙이게 됩니다. 타지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외국어에 익숙해질수록 나라와 모국어의 소중함을 느끼며 고민하게 됩니다. 애써 외면하려 해도 타지의 타인들이 계속해서 나의 나라, 나의 모국어에 관해 물어 오고, 저는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싶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10년이 넘는 중국 생활은 제게 제 뿌리에 대해 더 탐구하고, 그것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늘 고향 같고, 어머니 같던 ‘글’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모국으로부터 받은 상이기에, 제게는 더욱 값진 선물이자 크나큰 격려입니다. 몸은 이국에 있지만 한국인임을 잊지 않도록 애써주시는 재외동포재단 여러분과 세계 각지에서 보낸 수많은 재외동포의 소리를 읽어주시고, 부족한 제게 상으로 격려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것을 열매가 아닌 작은 씨앗이라 해도, 여기에 닿기까지 참으로 많은 분의 지지와 도움이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글을 배우겠다고 들어선 제자를 성심껏 지도해주신 홍용희 교수님과 이문재 교수님, 김정숙 교수님 외 경희사이버대학원 문창과 여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졸업 후에도 지금까지 온라인 모임을 통해 함께 배움을 이어가고 있는 여러 학우님, 언제나 응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과 중국의 벗님들, 무엇보다 귀한 열정과 사랑을 가르쳐준 25년 지기 알란실 험극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먼저 드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비롯한 가족들……. 든든한 낭군과 멋진 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 전합니다.

이 순간 새삼, 초등학교 4학년 때 일기장을 채우기 위해 썼던 동시를 보며 격려해 주셨던 담임 선생님, 중학교 시절, 고득점 성적표보다 학교 숙제로 썼던 작문을 더 흥미롭게 보시며 칭찬하셨던 어머니, 그분들의 그 환한 웃음이 떠오릅니다.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이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나는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숙제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일기

조은주 (캐나다)

‘잠자기 전 일기 쓰듯, 십 년, 이민사를 정리해 보자.’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시작한 글이 쓰는 동안 자꾸만 무거워졌습니다. 쓰기 위해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묵은 기억 속엔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셨고, 병원 침대 위의 모습이 마지막 기억이 된 시어머니가 계셨고, 친정어머니의 한숨과 눈물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머리 굽으면 제 길 찾아 떠나야 하는 것이 자식이라고 해도, 해마다 돌아오는 특별한 날, 맛난 음식 장만해 밥상에 올리는 날, 어쩌면, 이승을 등지는 순간에도 그리움에 사무쳤을 부모님을 떠올리니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소.”라고 주저리주저리 쏟아내는 말들이 어찌나 가소롭던지요.

새내기 이민자 시절, 초등학생이던 맏아이가 썼던 한 구절을 상기하지 않았다면 쓰는 일을 멈추고 말았을 겁니다. 소통 안 되는 학교생활이 힘겹던 아이는 “온종일 교실 벽의 시계를 쳐다보며 집에 갈 시간만 기다렸다.”고 썼습니다. 아이가 견뎌냈던 긴긴 시간을 상상하며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별반 특별할 것 없는, 이민자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낯섦과의 좌충우돌에 불과한 이야기지만, 그 시간이 뿌리가 되어 이 땅에 바로 설 수 있었음을 내 아이들에게 들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 아이들처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민 1.5세대가 되어버린 수많은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당당하게 미래로 나아가길 소망했습니다.

상을 받게 되었다는 뜻밖의 소식을 받았던 날, 이젠 청년이 된 맏아이가 샴페인을 사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비행기로 다섯 시간 떨어진 도시에서 인턴사원으로 일하는 막둥이는 “역시, 울엄니는 천재!”라고 분에 넘치는 칭찬을 퍼부었습니다. 주변머리 없는 남편은 꽂다발 하나 준비하지 않은 채 축하한다는 말조차 쑥스러워

했지만, 우리 가족 이민사에서 가장 애쓴 사람은 저이라는 생각에 너그럽게 눈감아 주었습니다.

혼잣말이 될 거라고 여겼던 어설픈 글이 세상에 나온다니 낯이 뜨겁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어쭙잖은 솜씨로 미화한 구석은 없었는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도 객관적인 평가를 떠나 “내 딸 글이 무조건 최고.”라고 하실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니 간만에 효도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시어머니, 한 번도 뵙지 못한 시아버님도 대견하다 하시겠지요? 무더위에 천 편이 넘는 응모작을 정성껏 읽어주신 심사위원님들과 재외동포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거지 같은 나이지리아에서 고향으로

박미선 (나이지리아)

어제 다시 한 달의 휴가를 마친 뒤 나이지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공항에서 가져온 짐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며 결국 돈을 지불하고 약 세 시간의 시간을 보내고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거지 같은 나이지리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너무 익숙한 일들이 되어버렸고 그러려니 하는 생각에 이젠 여유까지 생겼답니다. 작품 응모를 하고 한 달여의 시간을 정신없게 보내다 버스에서 당선 메일을 확인했을 때 저의 입가에선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10여 년의 시간이 넘게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었지만 이런 행사가 있는지도 몰랐고 아이들이 한글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줄 알고 응모를 시켰다가 성인 부분인 있는걸 알고 ‘나도 한번’ 하고 펜을 잡았는데 의외로 글이 술술 써 내려갔습니다. 아마 10여 년의 시간을 무시할 수 없었나 봅니다.

입에서 정말 ‘거지 같은 나라’, ‘거지 같은 나이지리아’라는 말이 떠나질 않고 살아온 나의 10여 년의 시간에 대한 보상받는 느낌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나이지리아에게도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향과 가족들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서로 나누며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무의미하듯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며 저를 위해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작품 응모를 통해 새롭게 도전해 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소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행

김지영 (중국)



평화의 바람 답사기

함현강 (중국)

<기행>은 곧 잊을 것만 같은 순간들을 간직하기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난에서의 짧은 생활은 제게 사뭇 새로운 경험이었기에 기록해두지 않으면 꿈처럼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마음껏 글을 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 <기행>을 쓰기 시작했을 때, 제 실력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수년간 모국어로 장문을 쓸 기회가 전혀 없었기에 한국어로 글을 쓰는 것은 최근 한국 주말학교에서 자기소개서를 몇 번 써본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응원과 선생님의 지도를 통해 실력을 키우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랜 시간 외국에서 거주하고 외국학교를 다니며 한국과 멀어져 가는 와중에 우리 말로 글을 쓴다는 것은 제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기행>을 쓰는 동안 제가 한국어로도 수많은 표현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선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해에 머무는 내내 중국어도 한국어도 완벽히 구사 할 수 없어 한동안 잃은 소속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이를 계기로 저는 보다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기행>을 통해 얻은 귀중한 경험을 마음속에 새길 것입니다. 제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재외동포재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춘의 무더위가 가시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재외동포문학상 글짓기 부문 우수상 당선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자란 경험이 거의 없는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신 재외동포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저에게 글짓기 작품을 제출할 수 있는 생각을 마련해 주신 할아버지였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생전에 저를 만날 때마다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작년 여름 평화의 바람 국토순례 답사에 참여해 휴전선 곳곳을 둘러보았던 기억이 새롭게 솟아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떠나셨지만 언젠가 통일이 되어 제가 할아버지의 고향을 대신 방문해 그 분의 아프셨던 마음을 달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하면서 대한민국의 청소년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모범

강지민 (태국)



나의 공간

박현서 (중국)

저는 제가 겪었던 문제를 계기로 글짓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외국 생활을 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제가 애매하게 느껴졌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생각했던 저의 정체성을 찾아 방향했던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글짓기가 단순히 제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고민을 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나 다른 사람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라는 말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는 말을 품고 제 자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재외동포재단과 저를 응원해 주신 한글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수상 소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예상치 못한 기쁨을 주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었다. 한국을 떠나 해외에 사는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린 나이에 타지로 와서 정신없이 적응하고 숨을 돌릴 수 있게 될 즈음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를 반복했다. 나는 중국의 여러 곳에서 살게 되었고 옮길 때마다 아동바등 적응하면서 나 자신을 계속 바꿔 갔다. 많은 변화 속에서 나 자신을 잃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평소에 내 내면의 생각을 남에게 말하지 않는 편이다. 내 속에서 나갈 곳을 찾지 못한 고민은 새로운 고민과 뒤엉켜 혼란스러워지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이번 대회 응모를 계기로 나는 비로소 오랫동안 쌓아놓고 있었던 생각들에 형태를 주었다. 머릿속의 고민이 나의 손가락 끝에서 까맣게 피어났고 순서 없이 늘어져 있던 생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이 길의 끝에 나는 오랫동안 나를 웊아냈던 고민에 대해 나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이번을 전환점으로 삼아 내가 있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들이 총총이 누적되어 이룬 시간을 발판 삼아 더욱 성장하고자 한다.

나의 공간을 넓혀주신 부모님, 나와 많은 고민을 같이해 준 오빠와 남동생, 항상 곁에 있어 준 많은 친구에게 고맙다. 그리고 나의 고민을 글로 써 내려 갈 계기를 마련해 준 재외동포재단에, 그리고 내 글을 읽고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호주에 살지만 나는 한국인

지은교 (호주)



내가 사랑하는 한국

이다윗 (키르기스스탄)

안녕하세요. 호주에 살고 있는 8학년 지은교입니다.

처음에 재외동포문학상에서상을 받았다고 엄마가 알려 주셨을 때, 저는 장려상이란 상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또한 이렇게 큰 상인지도 몰랐지요.

엄마의 설명을 들으며,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한국인 친구들이 여기에 응모를 했고, 청소년 부문에서 최우수상은 한 명, 우수상 두 명, 그리고 장려상은 세 명이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상금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 동생들은 제가 상을 받은 것보다 상금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몇 불을 받냐고 물어보면서 자기들에게 얼마를 줄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동생이 세 명 있는데, 동생들한테 다 나누어 주고 나면 저에게 남는 상금이 있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동생들도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해서 좀 더 크면 재외동포문학상에서 상금을 받으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굉장한상을 받았다는 것이 처음엔 믿기지도 않고,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지만, 한국에서 받는 상이라고 하니까 이 상은 아주 특별하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받을 상금을 어떻게 제일 좋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또 한국어 책을 더 많이 읽고 공부를 해서 한국에 있는 또래 친구들하고 비슷한 한국어 실력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사는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와 한국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고 알려 주고 싶습니다.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르기스스탄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려인 이다윗입니다. 이런 뜻밖에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한국>은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제일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한국인들의 친절함을 부족한 저의 글로 표현한 글입니다. 저의 조국이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성장을 하였지만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보고 느낀 점은 제가 생각한 이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친절함은 저의 마음에 오래오래 남아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꼭 제가 사랑하는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상을 주신 모든분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 번 전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중국에서의 생활

송지나 (중국)

중국의 소학교를 졸업하고, 9월에는 중등학교로 진학합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환경에 조금은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재외동포문학상의 수상은 제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큰 자신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 11년째 살고 있는 상해포동주말학교 5학년 송지나입니다. 이번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에서 <비슷하지만 다른 중국에서의 생활>로 초등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중국 상해에 와서 중국소학교(한국의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중국어를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한국어는 주말학교와 집에서 한글 책을 읽으면서 배웠습니다. 요즘도 저의 감정을 중국어로 먼저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사는 친구들보다는 한국어 실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고민했습니다. 주말학교 선생님이시기도 한 엄마께서는 제가 문학상의 글을 쓰면서 생각할 점이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한국어 글쓰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중국 학교 우리 반의 유일한 한국 사람으로 겪고 느낀 점을 써 보려고 했습니다. ‘초등부 최우수상’이라는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상을 받아서 매우 놀랍고 기쁩니다. 한국어를 잘 몰랐던 저를 가르쳐 주신 상해포동주말학교 모든 선생님들과 가족들에게 마음 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은 한국의 바로 옆이고,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인데 “뭐 얼마나 다르겠어?”라고 하십니다. 제 글을 보시고 “아, 바로 옆의 나라라 비슷해 보이지만 생활과 문화가 많이 다르네”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점을 경험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국적 삼총사의 인도네시아의 성장기

김재이 (인도네시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열두 살 여학생 김재이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취미는 춤추기와 독서, 글쓰기입니다. 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와 인도네시아어, 떠나온 지 4년 째라 많이 잊었지만 태국어를 구사 할 수 있습니다. 라면을 부수어 뿌려놓은 모양 같다는 태국어는 기억 속에 흐릿하지만 그 외 4개 국어로는 매주 두세 편의 글을 씁니다. 그중 가장 선호하는 언어는 바로 한국어와 영어입니다.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상상의 세계를 글로 쓸 수 있다는 소설은 참 매력적인 작업입니다. 제 이야기를 쓰는 수필은 저의 치부까지도 내보이는 작업이라 조금 부끄럽지만 역시 즐거운 일입니다. 이번 공모전에 출품할 글을 쓸 때는 친구들과 저의 이야기를 쓴 거라 집중이 더욱 잘 되었습니다. 기사문과 논설문을 쓸 때는 제 안에 있는 치열한 무언가가 느껴져서 즐겁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 시를 써서 발표하기에 시도 몇 편 써 놓았습니다. 제 시의 심상을 던져주는 것은 노래 가사와 영화, 그리고 뉴스에서 본 기사 속 장면과 책 속의 인상 깊었던 구절들입니다. 작가들의 상상력의 세계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도 위대한 분들이 고노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미간을 찌푸릴 날이 올 거라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제 안에 담아 두었던 이야기를 글로 쓸 수 있게 해 주신 재외동포문학상 관계자 여러분과 부족한 글에 의미를 실어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 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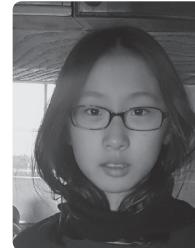
도전을 하여 이런 큰 격려를 받으니 더 열심히 글을 써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외국 생활을 하는 제가 이렇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저희 부모님 덕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독서논술로 저의 창의력의 새싹이 말라 죽지 않도록 맑은 물을 뿌려주시고, 별 좋은 곳에 놓아주신 저희 부모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피아노

손준영 (나이지리아)



바람의 도시 바쿠

홍찬양 (아제르바이잔 (미국))

제가 처음에 이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땐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요. 무엇을 쓸까 하고 생각하던 중 ‘피아노’라는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며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글이 완성되었고 한글학교 선생님과 엄마의 위로와 칭찬을 받자 기분이 좋았고 뿌듯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상을 받지 못 할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한국말을 많이 알고 잘 쓰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별로 기대도 않고 방학이라 한국과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 동안 글짓기에 응모한 것은 까먹고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글짓기 응모한 것을 알려 주셨어요. 메일을 늦게 보는 바람에 서류가 완성되지 못해서 당선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기대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슬픈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다시 알아보시더니 제가 우수상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축하 인사를 해 주었을 때 너무나 좋았답니다. 하지만 옆에서 같이 응모했던 동생은 자기는 안 됐다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동생도 한글학교 시간에 열심히 준비하고 도전했는데 안 되어서 너무나 속이 상했나 봐요. 전 위로해 주었지요. 내년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도전해 보라구요.

저에게 또 이런 기회가 찾아올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한국 책을 많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는 성취감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또한 제 동생을 비롯해 나이지리아 한글학교에 있는 다른 동생들도 응원합니다.

이런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제르바이잔 학교생활에 적응하느라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글짓기 대회에 입상하게 되어 기쁩니다.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뵙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앙마이가 맺어준 인연

유시우 (태국)



양철 용기에 담긴 쪽지

이아론 (아르헨티나)

치앙마이 한글학교에 재학 중인 유시우입니다.

한국에서 방학을 지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6학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재외동포문학상에서 장려상이라는 큰 상을 받아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치앙마이에서 맺어진 저희 집 강아지 ‘점동이’와의 추억으로 받은 상이라 그런지 저에게 더욱더 의미 있는 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점동이를 사랑하는 만큼 책임감도 뒤따른다는 것을 생각하며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한글 공부를 하겠습니다. 또한 한글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 주신 한글학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와 같이 학교를 마치고 메일을 열어봤는데, 아니 갑자기 재외동포재단에서 메일이 떡 하나 와 있었어요! 그것도 상을 받았다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첫 출전이라 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없이 그냥 경험 삼아 써 본 건데 이렇게 상을 받게 되다니,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죠.

이번 공모전은 저처럼 평소에는 통일에 대해 관심 가지지 않았던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를 준 것 같아요. 통일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남과 북이 정말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거란 상상을 해 봅니다.

하지만! 언제나! 마지막 희망이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기다리도록 하죠!

제 소설이 그렇게 멋진 것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아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출전하도록 하죠.

그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모두들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품집
2018 재외동포 문학의 창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발행일 2018년 11월 30일

디자인/편집 프럼에이

교정/교열 이경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재외동포재단

전화 064-786-0200

홈페이지 <http://www.korean.net>

ISBN 979-11-85409-37-5

<비매품>

※ 이 책의 저작권은 재외동포재단에 있으며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시려면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동포문학상

시

재외동포문학상이 제20회를 맞이해 그 의미가 무척 크다. 무엇보다도 재외동포들에게 문에 창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국어를 잊지 않게 해왔다는 점은 큰 공로 중의 하나다. 특히 시는 모국어를 아름답게 꽂피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문학적 장르다. 이번에도 세계 각지에 사는 동포들이 시를 통해 삶의 질곡을 노래해 그 우열을 가리기는 무척 힘이 들었다.

심사위원 - 신경림, 신달자, 정호승, 김은자

단편소설

올해 재외동포문학상 소설부문은 ‘재외동포’쪽으로 다소 기울어져 있던 천정이 ‘문학상’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마침내 확연하고도 긴장감 있는 수평을 이루었다. 할 말이 많았던 사람이 이제는 말하는 솜씨까지 무럭무럭 늘었다는 말이다.

심사위원 - 오정희, 최인석, 구효서

체험수기

수필 부문을 체험수기 부문으로 바꾸었다. 체험수기 응모작들은 필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보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드러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이 힘차고 내용이 구체적이었다. 수필을 체험수기로 바꾼 것은 성공적 시도였다는 생각이 든다.

심사위원 - 복거일, 이경자, 박상우, 진경자

청소년 글짓기

올해 청소년 글짓기의 작품들에서는 몇 가지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소재와 주제가 다양해지고 보다 섬세한 표현이 돋보이는 등 문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점 등이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현지 적응의 고단함이 주를 이루던 초기에 비해 이야기가 한층 풍성해진 느낌이었다.

심사위원 - 서하진, 은희경, 권지예